Road to Sustainability

2025 현대자동차 지속가능성 보고서

HYUNDAI

Contents

Introduction

1.1	CEO Message	3
1.2	Company Overview	5
1.3	Business Performance	6
1.4	현대자동차그룹 지속가능경영 방향	8
1.5	지속가능경영 거버넌스	9
1.6	지속가능경영 주요 활동 및 성과	11
1.7	이해관계자 참여	12
1.8	중대성 평가	14

Environmental

2.1	환경경영	20
2.1.1	환경경영 체계	20
2.2	기후변화 대응	22
2.2.1	거버넌스	22
2.2.2	전략	23
2.2.3	위험관리	39
2.2.4	지표 및 목표	39
2.3	순환경제와 자원사용	42
2.3.1	차량 순환성 제고	42
2.3.2	자원 사용	45
2.4	생물다양성	47
2.4.1	생물다양성 대응 체계	47
2.5	오염물질	50
2.5.1	대기오염물질	50
2.5.2	수질오염물질	50
2.5.3	유해물질	50

Social

3.1	인권경영 및 인적자원 관리	53
3.1.1	인권경영 추진	53
3.1.2	전략적 인사관리	58
3.1.3	일하기 좋은 조직문화	61
3.1.4	공정한 보상 및 복리후생	62
3.1.5	다양성 포용	63
3.2	안전보건	69
3.2.1	안전보건 리더십 강화	69
3.2.2	안전보건 활동 및 재해 대응	70
3.2.3	안전문화 확산 및 교육	72
3.3	지속가능한 공급망	74
3.3.1	공급망 리스크 관리 강화	74
3.3.2	원자재 공급망 관리	78
3.3.3	공급망 역량 강화 및 상생협력	80
3.4	고객경험 혁신	83
3.4.1	제품책임	83
3.4.2	고객만족 극대화	86
3.4.3	지속가능한 브랜드	88
3.5	CSV 이니셔티브	90
3.5.1	CSV 추진체계	90
3.5.2	CSV 프로젝트	91
3.6	정보보안 및 개인정보보호	94
3.6.1	정보보안	94
3.6.2	개인정보보호	95

Governance

4.1	이사회 책임 경영	97
4.1.1	이사회 구성	97
4.1.2	이사회 운영	98
4.1.3	이사회 보수 지급	99
4.1.4	이사회 산하 위원회	100
4.2	주주 친화 경영	102
4.2.1	주주총회	102
4.2.2	주주환원	103
4.2.3	주주와의 소통	103
4.3	윤리·준법 경영	104
4.3.1	윤리경영 확산	104
4.3.2	준법경영·준법지원제도	105
4.3.3	공정거래 자율준수	106
4.4	리스크 경영	107
4.4.1	글로벌 리스크 관리 체계	107
4.4.2	주요 리스크 현황	109
4.5	조세 의무	111

Sustainability Factbook

5.1	지표 및 데이터	113
5.2	Global Network	125
5.3	인증 및 특허 현황	126
5.4	GRI 인덱스	127
5.5	ESRS 인덱스	130
5.6	TCFD 인덱스	133
5.7	SASB 인덱스	134
5.8	WEF IBC Stakeholder Capitalism Metrics	135
5.9	제3자 검증의견서	137
5.10	온실가스 검증의견서	139
5.11	보고서 개요	144

Interactive PDF

본 보고서는 보고서 내 관련 페이지로의 이동과 연관 웹페이지 바로가기 등의 기능이 포함된 Interactive PDF로 발간되었습니다.

CEO Message

현대자동차의 여정: 인류를 향한 진보

현대자동차의 여정과 그간의 성과를 되돌아보며, 지금까지 이뤄낸 모든 일에 큰 자부심을 느낍니다. 동시에, 앞으로 펼쳐질 여정에 대한 기대감도 큽니다. 현대자동차는 세계적인 품질의 차량, 앞선 기술 혁신, 그리고 지속가능한 미래에 대한 변함없는 의지를 바탕으로 모빌리티 분야의 리더십을 더욱 공고히 하고 있습니다.

임직원과 성과

현대자동차의 모든 성과는 임직원으로부터 시작됩니다. 우리는 열정적이고 다양성을 갖춘 글로벌 팀을 기반으로, 매일 더 나은 결과를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포용적인 조직 문화를 정착시키고, 다양한 배경의 리더십을 구축하는 데 있어 상당한 진전을 이루었으며, 특히 글로벌 여성 리더십 향상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현대자동차는 지역사회의 리더이자 브랜드 홍보대사인 리테일 파트너들과 함께 의미 있는 성과를 만들어 왔습니다. 2024년은 산업 수요 둔화, 소비 위축, 고금리, 지정학적 리스크 심화 등으로 글로벌 경영환경이 어려운 시기였지만, 현대자동차는 사상 최대 실적을 달성했습니다. 연간 매출 175.2조 원, 영업이익 14.2조 원, 영업이익률 8.1%를 기록했으며, 전기차 및 하이브리드 차량 공급에서도 역대 최고치를 달성했습니다. 또한, 전 세계 누적 생산 1억 대라는 역사적인 이정표에 도달했습니다.

지속가능성을 향한 약속

현대자동차 비전의 중심에는 지속가능성에 대한 확고한 의지가 담겨있습니다. 저는 엔지니어 출신으로서, 올바른 의사결정을 위한 데이터의 힘을 믿습니다. 숫자는 전 세계 어디에서나 통용되는 보편의 언어로, 현재를 점검하고 우리 스스로에게 책임을 부여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지속가능성보고서는 현대자동차의 성과를 한눈에 보여주는 지표이며, 미래 세대를 위한 약속을 담고 있습니다.

현대자동차는 차량의 전 생애에 걸쳐 환경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한국, 미국, 인도 등지에서 대규모 재생에너지 구매 계약을 체결하며, 전 사업장의 100% 재생에너지 전환(RE100) 목표를 실행에 옮기고 있습니다. 아울러, 용수 재활용을 극대화하고, 2045년 탄소중립이라는 궁극적인 목표 달성을 향해 나아가고 있습니다.

전 세계 탄소배출의 약 20%는 운송 부문에서 발생하며, 이 중 70% 이상이 자동차를 포함한 도로 교통에서 비롯됩니다. 전기차는 이러한 배출량을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지고 있으며, 현대자동차의 탄소중립 전략에서 전동화 확대는 핵심적인 항목입니다.

모빌리티 혁신

코나, 인스터(캐스퍼), 아이오닉 5, 6, 9, 제네시스 GV60과 GV70 전동화 모델을 포함해, 대부분의 승용차 라인업에서도 전동화 파워트레인 기반의 모델을 시장에 선보이고 있습니다. 또한 일부 시장에서는 수소전기 대형트럭 엑시언트를 물류 운영에 활용하며 상용차 영역으로까지 전동화 범위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현대자동차는 수소가 모빌리티의 미래를 근본적으로 바꿀 수 있는 잠재력을 지녔다고 믿습니다. 수소는 확장 가능하고, 효율적이며, 친환경적입니다. 우리는 수소전기 기술을 승용차, 트럭, 버스는 물론 선박, 발전, 항공 모빌리티 등 다양한 분야로 확장하며, 검증된 연료전지 기술을 보다 넓은 산업영역에 적용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전기차 분야에서는 배터리 효율 개선과 주행거리 확대, 원가 혁신을 통해 리더십을 더욱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동시에 EREV, SDV, 배터리 신기술 등 차세대 기술 개발에 적극 투자하고 있으며, 애프터마켓 부품, 금융, 물류 등 분야에서 그룹 계열사들과의 협업을 통해 비용 효율성을 높이고 있습니다.

CEO Message

거버넌스와 인권

현대자동차는 지속가능성을 환경에만 국한하지 않고, 인권과 거버넌스 전반으로 그 범위를 확장해 나가고 있습니다. 현대자동차 인권 헌장은 당사뿐만 아니라 협력사 전반의 기업 활동을 이끄는 핵심 지침이며, 우리는 세계인권선언과 유엔 기업과 인권 이행원칙(UNGPs)을 포함한 국제 기준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또한, 현대자동차는 이사회의 독립성과 다양성을 강화하고, 선임 사외이사 및 사외이사회 제도를 신설함으로써 건전하고 지속가능한 성장의 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한편, 임직원 준법정신을 강화하여 다양한 이해관계자에 대한 경제적·법적 책임을 다하고, 공정하고 정직한 경쟁을 위한 결정과 실천이 고객의 두터운 신뢰로 이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미래를 향한 발걸음

보호무역주의 강화와 환율 및 금리 변동성 확대로 글로벌 경제의 불확실성은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러한 환경 속에서도 현대자동차는 지역별 규제와 시장 특성에 대응할 수 있는 전략을 실행하고, 생산 현지화 및 부품 조달 다변화를 통해 공급망을 안정적으로 확보하며, 시장 점유율 확대와 수익성 향상을 동시에 추구할 것입니다.

고객이 기대하는 기술과 제품을 제공하는 것을 넘어, '손님'을 귀하게 여기는 한국적 서비스 문화를 접목하여 고객 경험 전반을 혁신해 나가겠습니다.

품질과 안전은 어떤 상황에서도 타협하지 않으며, 모든 차량에 최고 수준의 품질을 담아내고, 제품 경쟁력을 유지하기 위한 투자를 지속할 것입니다. 또한, 전사 운영과 공급망 전반에 걸쳐 지속가능성 실사 및 관리 체계를 더욱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현대자동차의 비전: 인류를 향한 진보

현대자동차는 그룹 차원의 미래 지향적인 리더십 아래, 세상이 필요로 하는 변화에 동참하고 있습니다. '인류를 향한 진보(Progress for Humanity)'라는 비전은 탄소 배출 없는 이동수단이 단순한 사업 전략을 넘어, 더 맑은 공기와 건강한 경제, 미래 세대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공동의 책임이라는 신념을 담고 있습니다.

자연의 아름다움을 보존하고 환경을 지키기 위한 우리의 노력은 혁신과 장기적 관점을 기반으로 합니다. 이는 책임을 넘어, 의미 있는 변화를 선도할 기회라 믿습니다.

현대자동차는 고객, 파트너, 지역사회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 사회적 기여와 동반 성장을 실현하고자 합니다. 동시에, 재무·비재무 전반의 지속가능성 리스크를 최소화하고 장기적인 기업 가치를 창출함으로써, 이해관계자와 함께 긍정적 변화를 기반으로 지속가능한 미래를 그려가겠습니다.

또한, 현대자동차는 지역사회 환원을 이어갈 것입니다. 제네시스 인비테이셔널 골프대회를 통해 미국 LA 산불 피해 지역의 구호 및 복구를 위해 800만 달러를 모금한 것을 비롯해, 캐나다·멕시코에서 최초로 개최된 국제 'Hyundai Hope on Wheels' 캠페인을 시작으로, 향후 전 세계로 확장해 나갈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현대자동차와 딜러사는 소아암 극복을 위해 2억 7,700만 달러 이상을 기부하였고, 2만 명 이상의 어린 생명을 살리는 데 기여해왔습니다.

세상이 변화함에 따라 우리의 미래 여정 또한 변화하고 있습니다. 현대자동차는 변화에 적응하는 것을 넘어, 앞으로 나아갈 방향을 새롭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는 아이디어와 견고한 파트너십, 분명한 목적의식을 바탕으로, 미래를 위한 모빌리티 솔루션을 향해 나아가겠습니다.

현대자동차의 여정에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Jose Munoz

무뇨스 바르셀로 호세 안토니오
현대자동차 대표이사 사장

Company Overview

현대자동차는 1967년 창립 이래 최고의 제품과 서비스를 제공하며 고객에게 사랑받는 기업이 되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해 왔습니다.

현대자동차 개요

회사명	현대자동차주식회사
설립일	1967년 12월 29일
상장일	1974년 6월 28일
본사주소	대한민국 서울시 서초구 헌릉로 12
대표이사	정의선, 호세 무뇨스, 이동석
대표업종	자동차 제조업
상장시장	한국거래소(KRX) 유가증권시장

신용등급

국내		국외	
한국기업평가	AAA	Moody's	A3
나이스신용평가	AAA	S&P	A-
한국신용평가	AAA	Fitch	A-

* 2024년 12월 31일 기준

주요 재무지표

(단위: 십억 원)

매출

142,151.5
162,663.6
175,231.2

175조 2,312억 원

영업이익

9,824.9
15,126.9
14,239.6

14조 2,396억 원

당기순이익

7,983.6
12,272.3
13,229.9

13조 2,299억 원

자산총계

255,742.5
282,463.4
339,798.4

339조 7,984억 원

자본총계

90,896.5
101,809.4
120,275.9

120조 2,759억 원

* 2024년 12월 31일, 연결 기준

글로벌 판매 상위차종

(단위: 대)

투싼

650,020
ICE, HEV, PHEV 포함

아반떼

365,909
ICE, HEV 포함

i10

364,698

크레타

350,857

코나

288,230
ICE, EV, HEV 포함

* 2024년 12월 31일 기준

Business Performance

현대자동차는 국내 전국 직영지점, 판매대리점을 통해 차량을 판매하고 있으며, 판매 증진을 위해 고객 최우선 경영 실천, 브랜드 가치 제고를 위한 마케팅 전개, 현장 맞춤형 판촉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국내 소비자 트렌드 변화에 맞추어 모빌리티 위주의 신사업을 지속 발굴하는 등 소비자 니즈 대응을 위한 혁신활동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해외 시장에서는 현지법인을 통해 거점별 시장 환경을 반영한 차별화된 판매 전략을 실행하고 있습니다. 현대자동차는 심화되는 시장 경쟁 속에서 글로벌 트렌드에 발맞춘 친환경차 개발 및 판매의 지속, 기술력 및 디자인을 중심으로 한 질적 성장의 추구, 브랜드 캠페인을 통한 브랜드 이미지 강화, 우량 딜러 중심 판매 네트워크 확대, 온라인 마케팅 및 CSV 활동 강화로 브랜드력 제고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주요 제품 및 서비스

현대자동차는 2020년 발표한 '2025 전략'을 통해 '스마트 모빌리티 솔루션 프로바이더' 전환을 목표로 완성차 사업 경쟁력 제고 및 전동화[1] 선도, 모빌리티 서비스 사업 역량 확보 등을 전략 방향으로 설정하였습니다. 일관되고 구체적인 목표 설정 및 전략 추진에 힘입어 현대자동차는 2023년에 역대 최고 영업이익을 달성하였고, 2024년에는 글로벌 누적 생산 1억 대를 기록하며 세계 3위 제조사로 성장할 수 있었습니다. 현대자동차는 최근 신규 플레이어의 시장 진입 확대로 인한 경쟁 심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에너지 전환 요구, 지정학적 리스크 고조 등 사업 환경의 불확실성과 변화 압력이 높아짐에 따라 전략 방향성을 재설정하였습니다. 2024년 8월 CEO Investor Day를 통해, 현대자동차의 기존 전략을 고도화한 새로운 2030 중장기 전략을 발표하였으며, 이를 통해 글로벌 리더십을 더욱 공고히 하고자 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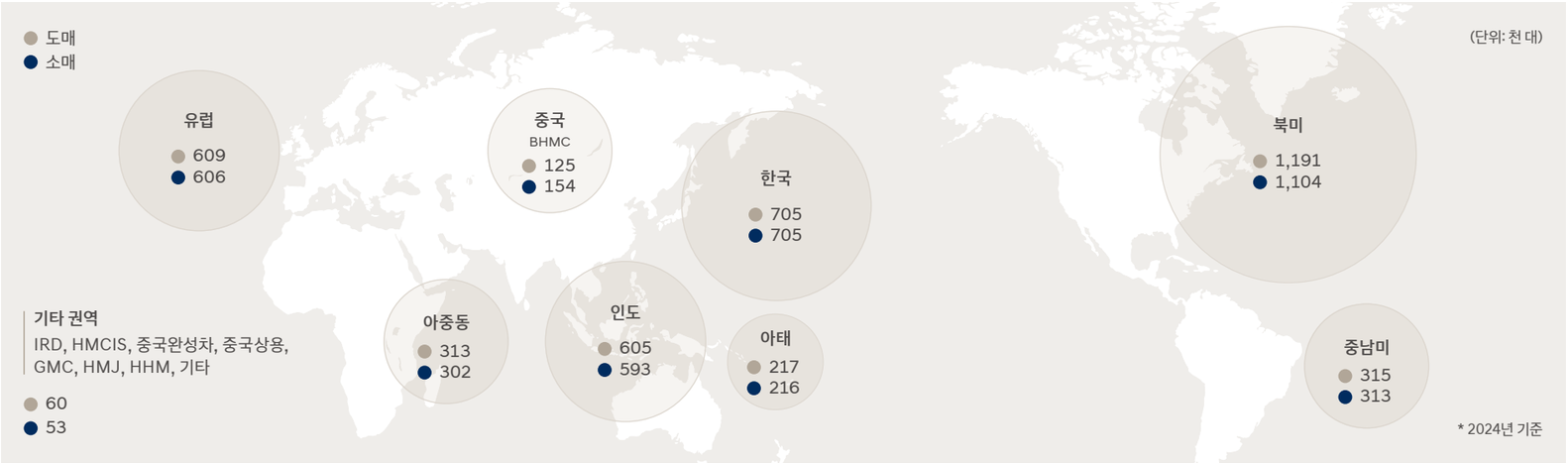
① 모빌리티 게임 체인저: 완성차 및 모빌리티 디바이스 사업 경쟁력 제고

② 에너지 모빌라이저: 에너지 전환을 통한 지속 가능한 에너지 공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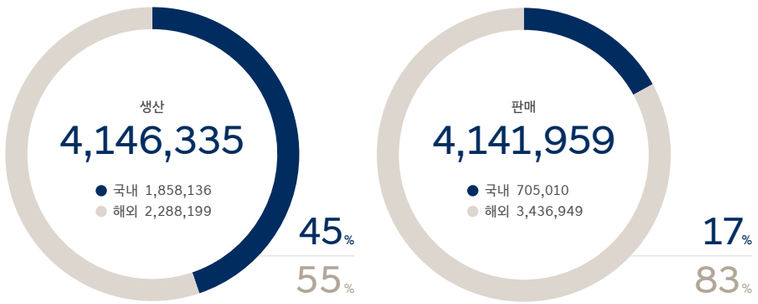
③ 현대 다이내믹 케이퍼빌리티: 시장 변화에 유연한 대응 및 EV/SDV[2] 라인업을 기반으로 미래 경쟁력 확보

1) HEV(Hybrid Electric Vehicle), PHEV(Plug-in Hybryd Vehicle), EREV(Extended Range Electric Vehicle)는 비포함
2) SDV: Software Defined Vehicl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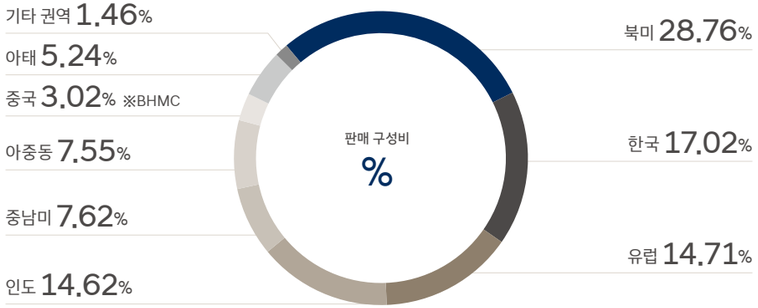
주요 시장별 판매



생산 및 판매 현황



주요 시장별 판매 구성비



* 2024년 도매 기준

친환경 차량[1] 판매실적

(단위: 대)

총 판매량	글로벌	757,195
국내·해외 판매량	국내	203,840
	해외	553,355

PT별 판매량	EV	218,504
	HEV, PHEV	534,245
	FCEV	4,446

1) 친환경 차량 : EV, HEV, PHEV, FCEV

* 2024년 도매 기준

Business Performance

지속가능한 비즈니스

2030 전략

2024 CEO Investor Day

현대자동차는 2024년 8월 CEO 인베스터 데이를 통해 2030 중장기 전략을 발표했습니다. 지속적으로 '스마트 모빌리티 솔루션 프로바이더' 전환을 목표로 하면서, ① '모빌리티 게임 체인저'(완성차 및 모빌리티 디바이스 사업 경쟁력 제고), ② '에너지 모빌라이저'(에너지 전환을 통한 지속 가능한 에너지 공급)라는 두 가지 사업 축을 중심으로, 당사만의 유연한 시장 대응 역량인 ③ '현대 다이내믹 케이퍼빌리티'를 통해 시장 불확실성에 대응하고 수익성을 제고할 것입니다.

목표와 지속가능성 간의 연계

현대차는 2021년 IAA 모빌리티에서 밸류체인 전반을 아우르는 2045년 탄소중립 목표를 발표했습니다. 2024년 기준 현대차 전체 온실가스 배출량의 약 76%가 국내 및 해외에서 판매된 자동차를 이용하는 과정에서 배출되었으며, 친환경 차량 판매 비중이 증가할수록, 현대차가 배출하는 탄소배출량은 감소합니다. 이에 따라 친환경 차량의 판매 목표 설정은 현대차의 2045 탄소중립 달성을 위한 활동으로 연계되어 있습니다.

친환경 차량 판매 목표

현대자동차는 글로벌 EV 시장의 선도적 리더십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기 위하여 2030년까지 유럽과 북미 대륙을 중심으로 전 세계에서 약 200만 대의 EV 판매 목표를 설정했습니다. 당사의 사업활동과 주요 고객층은 전기차 생태계를 구성하며, 지속 가능한 미래를 위해 사회와 환경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고 긍정적인 영향을 극대화하여 지속가능성 목표를 달성하는데 기여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HEV 차량 판매의 확대, EREV(Extended Range Electrified Vehicle) 제공을 통한 ICE-EV 전환의 가교 역할을 수행하고자 합니다. 또한, 2030년까지 21개 전기차 모델 확대 전개를 통해 대중, 럭셔리, 고성능 모델까지 소비자에게 다양한 선택지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목표 달성에 영향을 주는 전략 요소

기후변화 완화 및 적응을 위해 현대차는 지속적으로 직·간접적인 완화 및 적응 방안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기후변화 관련 위험으로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정책 및 규제'가 있습니다. 탈탄소 중심의 정책 기조와 사업 활동 전개 시 중요한 고려사항인 각 국가의 규제는 전 세계를 대상으로 차량을 판매하고 있는 현대차의 판매 전략에 광범위한 영향을 미칩니다. 기후변화에 따른 현대차의 기회는 '전동화 전환 속도 가속화'와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기술혁신' 입니다.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에너지 전환 요구에 따라 증가하는 전동화 차량의 수요는 2030년 전 세계에서 약 200만 대의 전기차를 판매하고자 하는 현대차의 목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와 함께 주행거리의 확장을 통한 전비 개선, 친환경 차량의 성능 확보 등의 기술혁신은 기후변화 대응 및 탄소배출량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수소 사회 전환 조기 실현

현대자동차는 전 세계적인 탄소중립 기조에 따른 에너지 전환은 필수적이며, 이로 인한 수소 수요 증가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현재 96백만 톤 수준의 초기 단계인 수소 시장은 2050년 성숙기에 접어들 경우 약 390백만 톤의 생산 규모로 성장하며, 특히 해당 생산량 중 약378백만 톤은 청정 수소로 생산될 전망입니다. 지난 27년간 다수의 '세계 최초' 기록을 세워온 현대자동차의 수소 R&D 역량과 그룹사 역량을 기반으로 수소 밸류체인 전반의 리더십을 발휘하고자 합니다. 현대자동차 수소연료전지시스템 브랜드 HTWO를 중심으로 수소 전 밸류체인에 걸친 솔루션 제공, 폐기물/폐플라스틱 기반 수소 생산 사업 추진, 항만 사업의 탈탄소화, 친환경 물류 사업 등을 개시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연료전지 시스템 라인업 확대를 통해 다양한 산업 분야로 확장해 나가며, 수소 사회로의 조기 전환을 실현하고자 합니다.

현대자동차그룹 지속가능경영 방향

현대자동차그룹은 ESG 경영 의지와 중장기 방향성을 담은 그룹 사회책임 메시지인 'The Right Move for the Right Future(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한 올바른 움직임)'를 통해 인류와 환경, 사회를 위한 지속가능한 미래를 이야기합니다. 지속가능한 미래는 다음 세대를 위해 추구해야 할 의무이자, 지구사회 구성원 모두가 누려야 할 기본적인 권리이며, 모두가 꿈꾸는 바람직한 미래입니다. 그룹 사회책임메시지는 이를 위해 '올바른(Right)' 실천으로 올바른 '변화(Move)'를 이끌어 가겠다는 현대자동차그룹의 의지를 담고 있습니다. 이러한 의지가 실질적인 변화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대내외 ESG 요구사항과 주요 어젠다별 핵심 관리지표에 대한 명확한 설정이 필요합니다. 이에 현대자동차그룹은 'Move for Our Planet, People, Community'의 3대 중장기 방향성과 15개 중점관리 분야를 통해 변화의 방향성을 명확히 제시하고 있습니다. 2023년부터는 중점관리 분야를 기반으로 그룹 공통 관리지표인 'HMG ESG Index'를 개발하여 적용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그룹의 지속가능경영 내재화 및 실질적인 ESG 성과 개선을 유도해 나갈 예정입니다.

현대자동차그룹 사회책임 체계

지속가능한 미래를 향한 올바른 움직임

The Right Move for the Right Future

Move for
Our Planet

지구환경
우리의 지구를 위한 올바른 움직임

탄소중립 & 에너지 전환
자원순환 활성화
친환경 제품 & 서비스 개발
친환경 사업장 조성
자연자본 보호

Move for
Our People

내부 이해관계자
우리의 성장을 위한 올바른 방향

다양성 & 포용성 증진
인권 보호 & 존중
기업문화 혁신
인재 성장경험 확장
안전보건 내재화

Move for
Our Community

외부 이해관계자
우리 사회를 위한 올바른 변화

사회공헌 임팩트 확산
고객경험 혁신
제품 신뢰성 향상
지속가능한 공급망 구축
미래 일자리 창출

Move
창립 이후 줄곧 사람들의 '이동(Move)'을 돕고 세상의 '변화(Movement)'를 만들어 온 현대자동차그룹에게 'Move'는 헤리티지인 동시에 과거와 현재, 미래를 하나로 이어주는 구심점입니다.

Right
지속가능한 환경과 인류의 진보를 위해 '올바른(Right)' 생각과 행동을 실천하는 현대자동차그룹, 'Right'은 현대차그룹의 지속가능한 철학을 상징합니다.

지속가능경영 거버넌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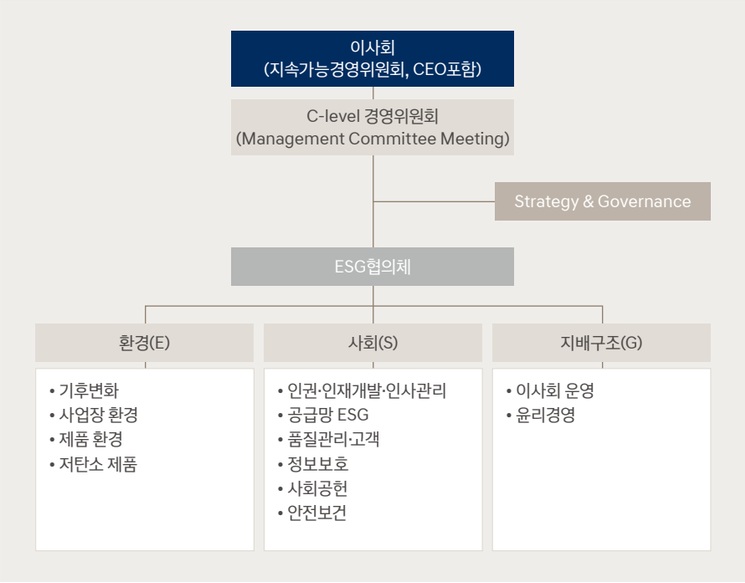
현대자동차는 ESG와 관련한 리스크 요인을 선제적으로 파악하고 예방하기 위한 관리 활동을 강화하는 한편, 다양한 ESG 요소들을 전략적으로 활용하여 신사업의 기회를 모색하고 새로운 경쟁우위를 확보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속가능경영 거버넌스를 기반으로, 주요 현안에 대해서는 최고의사결정기구인 이사회 산하 지속가능경영위원회에서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다양한 ESG 리스크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매년 중점추진 과제를 선정 및 운영하여 그 과정과 결과를 이사회 산하 지속가능경영위원회에 보고하고 있습니다. 한편, 지속가능경영 관련 주요 목표를 설정하고 이에 대해 지속적으로 실무분과별 추진 목표를 수립하며 핵심성과지표(KPIs)에 반영하는 등 각 조직이 주체적으로 ESG 개선활동을 수행하도록 유도함으로써 전사적인 ESG 경영 내재화에 힘쓰고 있습니다.

지속가능성 중심 의사결정

지속가능경영 거버넌스 구축

현대자동차는 ESG 경영이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한 필수조건으로 자리잡은 'ESG 패러다임'에 발맞추어, ESG 중심의 의사결정 및 협력관계를 강화하고자 지속가능경영 거버넌스를 구축하였습니다. 이사회 내 지속가능경영위원회는 [지속가능경영위원회 운영규정]에 따라 당사의 지속가능성 사안에 대한 관리·감독 책임 및 권한을 가지고 중요한 영향, 위험 및 기회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또한 ESG 리스크 및 성과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주요 ESG 현안과 관련된 현업부서가 참여하는 ESG협의체에서 개선방안을 논의하고 성과를 공유하고 있습니다.

지속가능경영 거버넌스



지속가능경영위원회

이사회 산하 지속가능경영위원회는 총 8명의 이사(사외이사 7명, 사내이사 1명)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지속가능경영 실천 및 내부거래 투명성, 윤리경영 추진과 ESG 성과개선 추진, 주주권익의 보호 등과 관련한 다양한 정책을 논의하며, 전략·활동·성과·목표·계획에 대해 전문적이고 객관적인 관점에서 심의·의결합니다. 또한, 점차 중요성이 증가하고 있는 안전 및 보건 관련 주요 계획 및 이행점검과 더불어 공급망 ESG 이슈에 대해 지속가능경영위원회에서 논의하고 있습니다. 지속가능경영위원회 내 주주권익보호를 담당하는 사외이사는 국내 투자자 간담회 및 해외 투자자 대상 NDR(기업설명회, Non-Deal Roadshow) 등에 참석하여 이사회와 주주 간 소통 역할을 담당하고 있으며, 투자자의 ESG 관련 요구사항 및 제언 등은 전사 ESG 정책 및 전략 수립 과정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C-level 경영위원회(Management Committee Meeting)

현대자동차는 CEO 및 다양한 부문의 주요 경영진이 참여하는 C-level 경영위원회(Management Committee Meeting)를 통해, ESG 중점과제 및 주요 안건의 추진방향과 실행계획을 논의하고, 이행현황 및 성과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MCM은 매월 정기적으로 여러 이슈 및 주제에 대한 논의와 의사결정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MCM에서 검토한 결과, 시급을 요하는 주요 리스크 요인 및 중장기 사업전략과 연계되어 성과 개선이 필요한 사안, 기타 최고의사결정기구의 심의 및 승인이 필요한 사안은 이사회 산하 지속가능경영위원회 안건으로 상정하고 있습니다.

Strategy & Governance

Strategy & Governance 內 경영전략담당 산하의 ESG기획팀은 실무부서로서 ESG 경영체계 구축, 조직 내재화, 협력체계 구축, 대외공시 및 소통 등 전사 차원의 ESG 경영 관련 기획·관리·협력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ESG 경영체계를 고도화하기 위해 ESG 관리지표 수립 및 데이터 플랫폼을 운영하고 있으며, 본부 및 실 단위 ESG 핵심성과지표(KPIs) 설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성과개선 필요 항목을 발굴하여, 유관부서의 실무담당자가 개선활동을 추진할 수 있도록 협업·조율하는 역할도 수행합니다. 한편, 지속가능성보고서 발간, 지속가능성 관련 재무정보 공시 기반 마련, 대외 ESG 평가기관 대응 등 이해관계자 소통도 수행하고 있습니다.

ESG협의체(실무 Level)

기후변화, 품질안전, 인재개발, 사회공헌, 윤리경영 등 환경(E), 사회(S), 지배구조(G) 분과별 실무담당자로 구성된 ESG협의체를 구성하여, 각 분과별 ESG 추진방향 및 계획을 논의하고, 리스크 저감 및 성과개선 활동을 수행하며, 현안 및 성과정보를 공유하고 있습니다. ESG협의체는 분과별 이행 현황 및 성과 공유를 목적으로 정기적으로 운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ESG 정보공시, 대외평가 대응, 사업 관련 현안 대응 등을 위해 수시로 운영되기도 합니다.

지속가능경영 거버넌스

지속가능성 사안에 대한 관리·감독

지속가능경영 전문성 및 역량 개발

현대자동차는 금융, 법무, 미래기술, 전문경영, 글로벌 비즈니스, 재무 등 다양한 분야에서 전문성을 갖춘 이사를 선임하고 있으며, 국내외 공장 및 연구소 정기 방문 및 주요 부문 경영진과의 면담 등을 통해 사외이사의 역량을 강화하여 충실한 직무 수행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벤자민 탄 사외이사(2025년 신규 선임)와 최윤희 사외이사는 각각 주주권익 보호 및 준법경영 담당 사외이사로서 활동하는 등 당사 사외이사는 다양한 활동을 통해 이사회의 전문성 강화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현대자동차는 사외이사의 사업 이해도 증진을 위해 사업현황, ESG 정보공시 규제, 사업 관련 주요 리스크, 신사업 등 다양한 주제의 세미나 교육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2024년에는 중대성 평가 결과 중요 항목으로 도출되었던 기후변화 완화(전동화 전환 및 수소 비즈니스), 공급망 노동인권에 대한 내용을 포함해 교육을 진행함으로써 이사회의 관리·감독 역량을 강화하였습니다. 이외에도 사외이사 역할 수행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전문성 역량 강화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2024년 이사회 교육 현황

교육 일시	교육 내용	참여 이사
2024.01.25	배터리 기술개발 동향 및 당사 대응 전략	사외이사 전원 (윤치원, 유진 오, 이상승, 심달훈, 이지윤, 장승화, 최윤희)
2024.04.25	상용사업현황 및 상용차 전동화 전환 추진 방향	
2024.05.28	HMGICS 사업 진행 현황	
2024.07.23	현대자동차그룹 수소 비전과 수소 비지니스 전략	
2024.08.20	신사업 투자 중장기 사업 계획	
2024.10.26	글로벌 규제 대응을 위한 공급망 인권 리스크 관리 필요성	
2024.07.25	ESG와 내부감사의 역할	감사위원회 위원 전원 (심달훈, 윤치원, 이상승, 이지윤, 장승화)

리스크 관리

현대자동차 이사회는 자동차산업 트렌드의 급격한 변화, 전기에너지로의 에너지 전환, 고객의 가치 소비 가속화 현상으로 발생할 수 있는 리스크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관리 체계를 고도화하고 있습니다. 2023년 현대자동차는 CEO 직속 조직으로 리스크 전담 조직인 BRM(Business Risk Management)실을 신설하여, 공급망을 비롯해 완성차 개발·생산·판매 전 과정에서 발생하는 대내외 리스크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체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준법경영 관리

현대자동차 이사회는 준법경영 시스템을 구축하여 법적 리스크를 검토 및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노력으로, 현대자동차는 준법경영을 확대하고 이사회의 준법감시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법률 전문성을 갖춘 최윤희 사외이사를 준법경영 담당으로 지정하여, 회사의 준법경영을 위한 적극적인 감독 역할을 수행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임직원 및 임원 대상으로 준법자가점검, 준법 교육 등을 실시하여 회사 내 준법문화를 전사적으로 확산시키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윤리경영 관리

현대자동차는 이사회 내 지속가능경영위원회 감독 하에 주주권익의 보호, 내부거래 투명성 및 윤리경영 추진 등을 면밀히 검토하고 있습니다. 또한, 윤리경영 관련 정책, 윤리규범 제·개정 등에 대한 의결과 심의를 통해 개선 사항을 회사 윤리헌장에 지속적으로 반영하고 있습니다.

기후변화 관리

현대자동차는 기후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한다는 신념과 책임을 가지고 글로벌 기후 이슈 및 규제에 대해 종합적인 대응 능력을 강화하고자 기후변화 대응 체계를 구축해왔습니다. 이에 대한 노력으로, 전동화 차량으로의 전환 전략, RE100 로드맵 등을 수립한 바 있으며, 이를 포함한 모든 지속가능경영 전략과 기후변화 이슈는 지속가능경영위원회를 통해 구체적으로 논의 및 모니터링 되고 있습니다.

안전보건 관리

현대자동차는 매년 회사의 안전보건 계획을 수립하여 이사회 승인을 받고 있습니다. 또한 안전보건 이슈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자 안전보건 분야 전문성을 갖춘 사내이사를 선임하고, 안전보건 주요 계획 및 이행점검에 대한 지속가능경영위원회의 논의를 통해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지속가능경영 성과관리

현대자동차는 ESG 관련 대내외 주요 리스크와 기회들을 포착하고, 리스크 최소화 및 비즈니스 가치 창출을 위해 매년 중점추진 과제를 선정하고 있습니다. 2024년에는 인권경영 체계 보완, 사업장/협력사 ESG 진단/실사, 탄소중립 전략 고도화, 택소노미 데이터 관리 체계 구축 등 7개의 중점추진 과제를 선정하여 과제별 목표를 수립하고 진행하였습니다. 또한, 이사회 산하 지속가능경영위원회는 ESG 관련 주요 정책과 개선 계획 등에 대한 감독 권한이 있으며, 중점추진 과제의 선정 배경과 추진 성과에 대해 정기적으로 보고를 받고 진행 경과 등을 모니터링 하고 있습니다.

ESG KPI

현대자동차는 ESG 경영을 통해 다양한 리스크를 예방하고 경제적/사회적 가치를 창출하고자, ESG 성과관리 체계를 도입하고 있습니다. ESG 주요 항목별 KPI를 설정하여 정기적으로 추진 실적을 점검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이행 현황 및 달성 수준은 경영진을 포함한 임직원의 성과평가 과정에서 주요 평가 요소입니다. 향후, 신시장 진출, 신사업 개발, 프로젝트 수행 등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ESG 리스크를 식별하고, 발생 가능성 또는 사업 영향력이 높은 ESG 리스크를 선제적으로 예방·관리하는 형태의 KPI를 지속적으로 발굴하여 도입할 계획입니다.

지속가능경영 주요 활동 및 성과

현대자동차는 다양한 리스크를 사전에 예방하고 지속가능한 성장을 도모하고자 여러 개선 활동을 추진하며 가시적 성과를 창출하고 있습니다. ESG 전담 조직을 중심으로 ESG 경영 수준 향상을 추구하는 한편, 친환경 차량 판매 및 RE100 달성 사업장, LCA 수행 차종, 용수 재활용량을 점진적으로 증가시키며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줄이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잠재 리스크 예방을 위해, 인권경영 추진, 국내/외 사업장 대상 ESG 진단 및 실사, 공급망 지속가능성 관리 강화를 위한 다양한 활동을 수행하고 있으며, 선임 사외이사 제도 도입 및 사외이사회 신설을 비롯하여 최고 의사결정기구인 이사회의 독립성 및 다양성 제고, 투자 프로세스 內 ESG 리스크 검토 절차 신설 등 거버넌스 측면에서도 끊임없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지속가능성을 향한 여정

환경(Environmental)

친환경 차량 판매 증가
- 2024년 연간 친환경 차량(EV, HEV, PHEV, FCEV) 판매량 75.7만대 기록
  ※ 2023년 대비 9% 상승

재생에너지 사용 증가
- 2024년 국내사업장(울산공장, 아산공장, 전주공장, 남양연구소 등) 국내 최대 규모 (444MW) PPA 체결
- 2024년 미국과 인도에서 대규모(각 147MW, 118MW) PPA 체결
- 2024년 글로벌 재생에너지 총 사용량 2023년 대비 30% 증가

LCA 수행 차종 확대
- 2024년 신규 15개 차종 포함 누적 총 36개 차종*을 대상으로 전과정평가 수행 완료, 전체 판매 차량의 LCA 수행 비율 62.2% 달성
  * 2024년 기준 판매 중단된 차종 제외

용수 재활용량 및 비중 증가
- 2024년 용수 재활용량 전년 대비 11.3% 증가
- 2024년 전체 용수 사용량 대비 재활용률, 전년 대비 5%p 증가한 28.7% 기록

사회(Social)

공급망 지속가능성 관리 강화
- 글로벌 기업 공급망 지속가능성 이니셔티브 가입 (Responsible Business Alliance, Drive Sustainability)
- 공급망 매핑(Mapping) 및 리스크 스크리닝 프로그램 운영

임직원 다양성 관련 목표 수립
- 글로벌 여성관리자 비율(2030년 국내 15%, 해외 27%)
- 다양성 인식 개선 교육 글로벌 임직원 이수율(2025년 50%)
- 국내 장애인 신규 채용(2025년 100명, 2026년 150명, 2027년 200명)

글로벌 인권경영 교육 실시
- 글로벌 전사 임직원 대상 D&I (다양성 및 포용성) 교육 실시
- 인권 유관 직무 임직원 대상 인권경영 교육 실시
  ※ HR, ER, 안전보건, 구매, 고객서비스, 홍보·마케팅

사업장 대상 인권·윤리 실사 수행
- 인권 윤리 리스크 식별 지표 도입 통한 지표 고도화 및 현장실사 통한 개선 필요 사항에 대한 개선 이행 현황 점검 [74개 사업장 대상 시행 (국내 33, 해외 41)]

지배구조(Governance)

선임 사외이사 제도 도입 및 사외이사회 신설
- 선임 사외이사가 사외이사만이 참석하는 사외이사회를 소집 및 주재하여 논의를 통한 의견 수렴 및 이사회에 개진
  ※ 주주/이사회/경영진 간 원활한 커뮤니케이션 지원

이사회 산하 위원회 독립성 제고

구분	기존 인원 (구성비)	변경 인원 (구성비)
보수위원회	사내이사 : 1명 (33%)	사내이사 : 없음 (0%)
	사외이사 : 2명 (67%)	사외이사 : 3명 (100%)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사내이사 : 2명 (40%)	사내이사 : 1명 (25%)
	사외이사 : 3명 (60%)	사외이사 : 3명 (75%)

이사회 다양성 제고

구분	기존 인원 (구성비)	변경 인원 (구성비)
여성 이사	2명 (17%)	4명 (33%)
외국 국적 이사	2명 (17%)	3명 (25%)

투자 프로세스 내 ESG 연계
- 공장 신/증설 관련 투자 심의 프로세스 내 프로젝트의 환경·사회적 영향을 고려하는 ESG 리스크 검토 절차 신설 및 적용

이해관계자 참여

현대자동차는 완성차 산업 특성과 현안을 고려하여 고객, 딜러, 임직원, 협력사, 지역사회, 정부, 주주·투자자 등 7대 이해관계자 그룹을 구분하고 있으며, 이해관계자 그룹별 주요 관심사, 당사에 대한 기대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다양한 소통 채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해관계자가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소통할 수 있도록 독려하고 있으며, 이해관계자가 제시하는 주요 의견은 사업계획 등 경영 의사결정 과정에 반영하여 경영의 투명성 및 신뢰성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현대자동차는 앞으로도 이해관계자 교류를 활성화함과 동시에, 중요한 정보를 투명하게 제공하는 등 상호 건전한 관계를 구축해 나갈 것입니다.

이해관계자 참여 확산 및 채널 최적화

이해관계자 참여 절차 현대자동차는 이해관계자 참여 및 의견 수렴을 활성화하기 위해 다양한 채널을 구축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각 채널을 통해 접수받은 의견 중 당사의 중장기 사업전략 및 경영활동과 관련된 현안이거나, 사회·환경적 영향력이 높은 이슈는 C-level 경영위원회(Management Committee Meeting) 및 지속가능경영위원회(이사회 산하)로 보고되며, 내부 검토 및 심의결과 중요한 이슈는 사업운영 과정에 적용하거나 개선활동을 추진합니다. 사업운영 과정 적용 여부, 개선활동 추진 현황 등은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있으며, 이해관계자에게 이행현황 및 경과 등을 알릴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해당 정보를 충실히 전달하고 있습니다.

계획 수립 이해관계자별 채널, 방식 최적화 → **의견 수렴** 활동 및 안건 설명, 이해관계자 의견 수렴 → **내부보고** 사업 영향력 높은 이슈 지속가능경영 거버넌스 보고 → **개선활동** 사업운영 과정 적용, 개선과제 도출 → **모니터링** 적용 여부, 개선과제 이행 점검

구분	고객	딜러	임직원	협력사	지역사회	정부	주주·투자자
그룹 정의	• 현대자동차의 제품과 서비스를 구매·경험하는 이해관계자로, 당사는 고객의 구매·경험 경로를 최적화하고 최고 수준의 제품과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고객과 직접 대면하여 현대자동차의 제품·서비스와 브랜드 가치·경험을 전달하는 접점으로 당사와 동반자적인 관계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 제품 개발·생산·판매·지원 활동에 관여하는 현대자동차 소속 구성원으로, 이들의 역량이 곧 당사의 역량입니다. 내부 이해관계자인 동시에 외부 이해관계자에 대해 당사의 사회적 책임을 이행하는 주체이기도 합니다.	• 당사가 우수한 제품을 생산할 수 있도록 부품이나 자재를 공급하는 이해관계자로, 이들의 품질과 기술력 및 지속가능성은 당사의 지속가능한 성장에 중대한 영향을 미칩니다.	• 사업장 인근 지역 주민과 시민단체·지자체는 물론, 당사의 활동에 영향을 받는 모든 글로벌 시민을 의미하며, 당사는 이들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 노력합니다.	• 자동차 산업과 관련된 법규를 제정하거나, 기업운영에 관한 규제 수준을 결정함으로써 당사의 사업활동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이해관계자입니다.	• 현대자동차가 다양한 미래사업 전략을 추진하거나 사업을 운영하며 지속가능한 성장 동력을 유지할 수 있도록 당사에 재무 자본을 제공하는 이해관계자입니다.
주요 채널	• 오프라인 거점(판매/서비스) • 동호회, 인플루언서 • 대고객 프로모션(모터쇼, 전시·시승회) • 온라인(SNS) • 고객만족도 조사 • 공식 홈페이지, App • 스포츠 후원 및 스폰서	• 온라인 딜러 포탈 • 딜러 대회 및 초청 행사 • 정기 딜러 협의회 • 당사 지역관리 담당자의 정기 딜러 방문	• 노사협의회 • 조직문화 진단 및 직원 만족도 조사 • 온·오프라인 고충 접수 채널 • 산업안전보건 위원회 • 각종 간담회, 행사 등 • 근골격계 질환 예방 관리위원회 • 직무·안전 관련 교육·훈련	• 동반성장포털사이트[1] • 투명구매실천센터사이트[2] • 상생협력실천센터사이트[3] • 글로벌상생협력센터(GPC포털)[4] • HMG파트너시스템[5] • 세미나 및 교육	• 지역사회 공헌 프로그램(임직원 참여 봉사, 교육 문화 지원, 모빌리티 부문 지원) • 사업장 인근 지역사회(지역주민으로 구성된 협의체)와 소통 활동 • 채용 프로그램(지역 인재 대상 채용 홍보) • 지역 문화체육예술행사 등 단합행사	• 정책수립 공청회 • 정책 간담회 및 설명회	• 기업설명회 및 증권사 컨퍼런스 • 주주총회 • Non-Deal Roadshow • IR 면담 • 지속가능경영위원회 • IR 홈페이지 • CEO Investor Day
주요 활동	• 상품·가격 경쟁력 향상을 위한 기술 투자·개발 • 제품 안전·품질 관리 강화 • 미래 모빌리티·자율주행·전동화 시장 선도 • 고객만족도 향상 • 브랜드 이미지 제고	• 차량 Line-Up 확대 • 딜러 마진 및 보상 체계 개선 • 상품·가격 경쟁력 향상을 위한 기술 투자·개발 • 브랜드 이미지 제고	• 임직원 역량 개발 • 임직원 인권 및 다양성 제고 • 조직문화 및 평가·보상 개선 • 노사관계 개선 • 사업장 안전보건 관리 강화	• 협력사 ESG 경영 지원 • 협력사 탄소중립 경영 지원 • 협력사 사업장 안전 관리 지원 • 협력사 정보보안 관리 지원 • 협력사 역량강화 및 상생협력 지원 • 2·3차 중소협력사 상생협력 지원	• 고용 창출 및 유지 • 지역사회 맞춤형 사회공헌 추진 • 사업장 환경 효율성 제고 • 사업활동 관련 생물다양성 평가 및 보호 • 관광진흥, 시설물 설치 등 지역사회 인프라 지원 • 저출산 문제 해결을 통한 지역 소멸 예방	• 친환경차 보급 및 차량 안전 강화 • 중소협력사 전동화 지원 • 글로벌 공급망 및 통상 이슈 지원 • 로봇, AAM 등 신사업 사업화 지원	• ESG 지배구조 역할 강화 • 중장기 미래사업 전략 수립 및 추진 • 주주권익 보호 • 글로벌 기업가치 향상 및 펀더멘탈 개선 • 이사회 전문성 제고 및 효율적 운영 • 기후변화 관련 재무적 영향 관리 강화 • 공급망 ESG 관리 강화 • 임직원 다양성 증진 • 사업장 안전보건 관리 강화

1) 동반성장포탈사이트: 당사의 동반성장 활동 및 지원 프로그램을 안내하는 포털사이트(1차 협력사 대상 공지사항, 동반성장 소식, 교육 및 협력사 채용정보 알림 등)
2) 투명구매실천센터 사이트: 협력사와의 상호거래에서 투명 경영실천과 상호발전을 위해 제도 개선 건의 및 투명·윤리행위 신고센터를 운영
3) 상생협력실천센터 사이트: 당사의 2·3차 협력사와 소통을 하기 위한 전용 사이트(당사가 지원하는 주요 경영지원 및 상생협력프로그램 안내, 건의사항을 청취 및 피드백 등)
4) 글로벌상생협력센터(GPC포털): 협력사 미래 경쟁력 강화 지원을 위한 시설(현대자동차그룹 및 1·2차 협력사 대상 교육지원 제공, 세미나 및 신기술 전시회 장소 제공, 협력사 자체교육을 위한 교육시설 및 강사 지원 등)
5) HMG파트너시스템: 현대자동차그룹과 협력사와의 협업체계 구축을 위한 공급망 관리 시스템(정보공유, 생산·품질·R&D·구매 영역의 협업 업무 지원 등)

이해관계자 참여

주주·투자자 참여 및 의견 수렴(Engagement)

주주·투자자 참여 및 의견 수렴 목적

현대자동차 투자자는 당사가 다양한 미래사업 전략을 추진하거나, 사업 운영 과정에서 지속가능한 성장 동력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재무 자본을 제공하는 주요 이해관계자입니다. 당사는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 투자기관과 적극적으로 커뮤니케이션 및 의견 수렴 활동을 진행하고 있으며, 투자자와의 신뢰를 바탕으로 지속가능한 미래 사업 기반을 구축해 나가고 있습니다. 글로벌 완성차 업체이자 향후 스마트 모빌리티 솔루션 프로바이더로 도약을 위해 탄소중립 전략, 공급망 관리, 근로자 인권, 거버넌스 등 다방면에서 투자자의 투자 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이에 따라 활발한 커뮤니케이션 및 의견 수렴 활동의 중요성은 더욱 확대되고 있습니다.

이사회 및 경영진 역할

현대자동차가 스마트 모빌리티 솔루션 프로바이더이자 글로벌 선두 전기차 브랜드로 도약하는 데 있어, 투자자와의 적극적인 논의는 자본시장의 목소리를 참고할 수 있는 중요한 지표이자 출처입니다. 따라서 현대자동차 이사회 및 경영진은 주기적으로 기관투자자와 커뮤니케이션 및 의견 수렴을 통해 당사의 경영활동과 ESG 전반에 걸친 성과에 대해 피드백 받고 있습니다.

이사회 산하 지속가능경영위원회에서는 ESG 관련 리스크와 성과개선 실적에 대한 논의를 정기적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주주권익보호 담당 사외이사는 ESG 및 거버넌스 Non-Deal Roadshow (NDR)에 참여하여 직접 투자자 면담을 진행하며, 자본시장의 목소리를 이사회에 전달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경영진은 투자자와 회사의 미래 사업전략 방향성과 ESG 관리 방향성에 대한 논의를 담당합니다.

주주·투자자 커뮤니케이션 활성화

현대자동차 IR(Investor Relations) 사업부는 NDR, 기업설명회, 증권사 컨퍼런스, 투자자 면담을 통해 당사의 ESG 추진성과 및 개선사항을 전달하고 있으며, 글로벌 ESG 트렌드에 부합하여 자본시장에서 당사에게 요구하는 ESG 추진방향에 관한 목소리를 듣고 있습니다.

글로벌 ESG NDR	ESG 면담 적극 확대	IR 홈페이지
당사는 2022년 국내 상장사 최초의 글로벌 ESG 단독 NDR을 실시하였습니다. 이는 경영실적 및 재무목표 등을 전달하는 NDR이 아니라 ESG 주제만을 다루는 NDR로 당사의 ESG 개선 실적 및 중장기 목표에 대한 논의를 진행했습니다.	자본시장의 ESG 관심 증가에 따라, 당사의 ESG 현황 및 목표에 대한 관심 또한 급증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국내외 기관 투자자 인게이지먼트 외에도, ESG 평가기관, 신용평가사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와의 면담을 적극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당사는 판매실적을 포함한 분기 경영실적 자료 등 투자자가 필요로 하는 정보를 IR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하고 있습니다.

주주·투자자 기대수준 부합

현대자동차의 ESG 경영은 곧 지속가능한 미래를 의미합니다. 핵심 이해관계자 그룹인 투자자는 현대자동차의 ESG 개선실적, 단·중·장기 계획, 계획 대비 이행 현황에 대해 높은 관심을 가지고 있으며, 이러한 투자자의 기대수준에 부합하여 최선의 대응을 하는 것은 당사의 중요한 책임입니다.

현대자동차가 2021년 선언한 '2045 탄소중립'과 'RE100' 등의 중장기 목표는 당사가 나아가야 할 방향입니다. 투자자는 이에 대한 단기 수행 성과를 바탕으로 투자적격 여부를 판단 및 의사 결정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다양한 이해관계자로부터 투자 신뢰를 확보하게 됩니다. 탄소중립, 재생에너지 사용량 확대, 친환경 기술 활용 등 ESG 관련 투자 계획은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해 불가피한 과제이며, 현대자동차는 이와 관련하여 지속적인 인게이지먼트를 통해 우호적인 신뢰관계를 구축해 나가고자 합니다.

이 외에도 글로벌 ESG 평가기관과 인게이지먼트를 통해 당사의 주요 ESG 활동을 정기적으로 업데이트하고 있으며, 이는 투자자와의 직접적인 인게이지먼트 외에도 당사의 대외 평판 관리에 간접적으로 긍정적인 영향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신용평가사 모니터링	현대자동차는 국내 및 해외 신용평가사로부터 신용등급을 부여받고 있으며, 이는 투자자의 투자 결정과 채권 발행 등의 활동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또한, 경영 활동에 있어서 당사의 신용등급은 중요한 지표가 되므로 이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 및 리스크 매니지먼트가 중요합니다. 과거 재무 성과 비중이 대부분이었던 신용평가사 또한 최근 글로벌 ESG 중요도 확대 트렌드에 발맞춰 고유의 평가 지표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움직임은 기업의 재무적 신용도 외 ESG 신용도 또한 투자자를 포함한 이해관계자에게 유의미한 지표가 되고 있다는 바를 의미합니다.

주주·투자자 신뢰 강화(Risk Management)

글로벌 기업 현대자동차는 다양한 국가에 사업장과 판매망이 구축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 각국의 환경규제를 충족해야 하며 글로벌 전역에 걸친 공급망 관리 또한 핵심 과제 중 하나입니다. 이는 기회임과 동시에 다수의 리스크 요인에 노출될 수 있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리스크 방지를 위해 현대자동차는 공급망 내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이슈에 대한 관리 체계를 구축하고 있으며, 본 체계의 고도화를 지속적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각국의 환경규제를 충족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한 대응 중에 있습니다.

적절한 리스크 매니지먼트를 통해 현대자동차는 투자자, 주주 등을 포함한 이해관계자와의 신뢰관계를 견고히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리스크 발생 시 적절하고 효과적인 조치를 취함과 동시에, 향후 재발을 방지할 수 있는 개선방안 마련이 매우 중요합니다. 리스크 발생 시 당사는 투자자에게 투자 확신과 신뢰를 부여하기 위해 당사의 대응 과정과 결과를 홈페이지 또는 주주서한을 통해 공유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투명하고 선제적인 정보 공개를 통해 우호적인 신뢰관계를 지속해 나갈 것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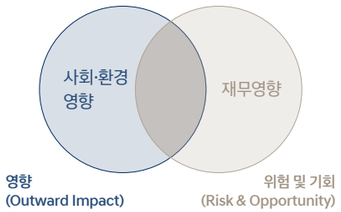
향후 방향성

현대자동차는 'Progress for Humanity'라는 비전을 바탕으로 고객에게 혁신적인 모빌리티 경험을 제공함과 동시에, 지속가능한 미래를 만드는 데 앞장서고 있습니다. 현대자동차는 투자자를 포함한 모든 이해관계자 참여 및 의견수렴 활동을 통해, 당사의 ESG 개선 실적 및 향후 전략 방향성을 꾸준히 공유해 나갈 것입니다. 당사가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한 투자와 노력을 지속하고 있음을 투자자 커뮤니티와 적극적으로 소통할 것입니다.

중대성 평가

현대자동차는 지속가능성과 관련한 중요 정보 공개를 위하여 매년 이중 중대성(Double Materiality) 원칙에 근거하여 중대성 평가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현대자동차가 사회·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는 영향(Outward Impact) 평가와 외부 이해관계자가 현대자동차의 재무 상태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는 위험 및 기회(Risk & Opportunity) 평가를 동시에 진행합니다. 이전 보고 기간 대비 중대하게 변경된 프로세스는 없습니다. 올해 평가 결과, 사회·환경 영향 측면 중대주제는 기후변화 완화, 소비자 안전보건, 근로자 안전보건 3개로 선정되었으며, 재무적 위험 및 기회 측면 중대 주제는 사회·환경 영향 측면 중대주제 3개를 포함하여 대기오염, 제품 관련 자원순환, 노사관계, 공급망 노동인권 총 7개 주제가 선정되었습니다.

이중중대성 평가 (Double Materiality) 개념



이중 중대성(Double Materiality) 평가 프로세스

단계	선별 Selection	식별 Identification	평가 Assessment	우선순위 결정 Prioritization & Disclosure Determination
설명	**지속가능성 관련 주제 선별** 방대한 지속가능성 주제 중 현대자동차와 관련이 있는 주제를 선별하는 과정입니다. 분류 기준으로는 EU CSRD 지속가능성보고표준(ESRS), 지속가능성 관련 회사 내부자료, 지속가능성 공시 및 평가 지표 등을 활용하였고, 이 단계를 거쳐 38개의 관련 주제를 도출하였습니다. 2025년 이중중대성 평가는 가치사슬 관점의 산업별 중요성을 추가적으로 고려했습니다.	**지속가능성 주제 관련 영향, 위험 및 기회 식별** 선별된 주제의 영향과 위험/기회를 식별, 구체적으로 서술하는 과정입니다. 사업보고서, 산업 전망 자료, NGO/투자자 질의 사항 등 자동차 산업의 가치사슬별 특징을 분석하여 관련 활동을 정의하고, 다양한 자료를 검토하여 사회·환경적 영향(40개)을 도출하였습니다. 또한 전기차 캐즘 등 국제사회 이슈와 EU 배터리법, 미국 신장위구르강제노동금지법 등의 지속가능성 규제/컴플라이언스 등을 분석하여 재무적 위험 및 기회 요인(41개)을 도출하였습니다. 식별 결과의 정확성과 완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유관부서 대상 설명회를 통한 내부 임직원의 검토, 외부 전문가 및 협력회사 대상 설문 등의 과정을 거쳤습니다.	**지속가능성 주제 평가** 식별된 영향과 위험/기회에 대해 점수를 평가하는 과정으로 평가의 신뢰도와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해, 현대자동차의 가치사슬 및 지속가능성 토픽에 대한 이해와 전문성이 있는 인원들을 평가자로 선정하였습니다. EU ESRS 가이드라인에 근거하여 영향 관점에서는 규모, 범위, 복구불가능성을 종합한 심각성과 발생가능성을 정량화하고, 위험 및 기회 관점에서는 잠재적 재무 영향의 크기(질적/양적)와 발생가능성을 정량화(1~5점)하였습니다. 또한, 추가적인 외부 전문가 인터뷰를 통해 영향과 위험/기회에 대해 보다 객관적으로 검토했습니다.	**중대 주제 우선순위화 및 리스크 관리 프로세스 반영** 정량화된 평가 결과를 반영, 우선순위를 결정하여 최종적으로 중요 공시 주제를 도출하는 과정입니다. 각 주제의 영향력, 위험 및 기회(IROs)의 우선순위를 판단하기 위해 평가점수의 임계값(Threshold)을 설정하여 2025년은 영향 측면 6개, 위험 및 기회 측면 13개의 토픽이 우선순위로 선정되었습니다. 이전 보고 기간과 비교하여 영향 측면에서는 자체 인력 및 가치사슬 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 관련 영향이, 위험 및 기회 측면에서는 대기오염 관련 위험이 추가로 식별되었습니다. 중대성 평가 결과는 이사회 산하 지속가능경영위원회에 보고되었습니다. 또한 선정된 중대 주제는 전사 리스크 관리 프로세스(ERM)에 반영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세부 절차

회사 가치사슬별 활동 이해 (차량부문)

- 업스트림 (광물 채굴, 부품 제조, 부품 운송 등): 원료 취득 → 부품 생산 → 수송
- 자체 운영(연구개발, 자동차 제조, 완제품 운송 등): 조립 (제조) → 유통
- 다운스트림(자동차 판매, 재활용, 폐차 등): 운행 (사용) → 폐기/재활용

주요 주제 선정

Long List
ESRS 전체 토픽 (93)

Short List
분류 기준에 의해 선별된 토픽IRO[1]
식별 대상 (38)

분류 기준

[자체 운영_Own Operation]
- 경영층 및 이사회 보고자료
- 지속가능성 공시 및 평가지표 : SASB, MSCI, Sustainalytics 등
- 투자자 및 NGO 질의사항
- 동종기업 벤치마킹

[가치사슬_Upstream, Downstream]
- 지속가능성 공시 및 평가지표

1) IRO : 회사가 이해관계자에 미치는 환경·사회적 영향(Impact), 이해관계자가 회사 재무에 미치는 영향(Risk & Opportunity)

주요 주제 별 IRO 식별 예시

가치사슬 주제	기후변화 완화	소비자 안전	안전보건	자원순환
업스트림	Impact & R/O	N/A	R/O	R/O
자체운영	Impact & R/O	N/A	R/O	R/O
다운스트림	Impact & R/O	Impact & R/O	N/A	R/O

영향분류 유형

사회·환경 영향		재무 영향	
Impact (40)		Risk / Opportunity (41)	
부정적	잠재적	위험	단기[2]
긍정적	실재적	기회	중기/장기[2]
단기[2] / 중기/장기[2]	인권 영향유무		

2) 단기 = 현재 보고연도, 중기 = 최대 5년, 장기 = 5년 이상

사회·환경 영향	
심각성(규모, 범위, 복구불가능성)	발생 가능성

재무 영향	
크기	발생 가능성

Impact 평가 예시[3]

사회환경 영향	심각성			발생 가능성
	규모	범위	복구 불가능성[4]	
기후변화 완화	4	4	4	4
소비자 안전	5	4	4	4

R/O 평가 예시

재무 영향	크기[5]	발생 가능성
기후변화 완화	5	4
노사관계	3	4
자원순환	3	3

최종 평가 점수 도출 과정

ESG 총괄부서 + IRO 유관 부서 + 외부 전문가 + 주요 협력사 =

각 주제의 Impact 점수
심각성 및 발생가능성 평균값
각 주제의 R/O 점수
잠재적 재무영향의 크기 및 발생가능성 평균값

3) • Scale(규모): 사회 및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치명적(grave)인 정도
• Scope(범위): 사회 및 환경에 미치는 영향의 영역이 넓은 정도
• Irremediability(복구불가능성): 사회 및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복구가능한 정도
• Magnitude(크기): 비즈니스에 영향을 미치는 잠재적 재무 영향의 규모
4) Irremediability(복구불가능성)은 부정적 영향인 경우에만 평가
5) Likelihood(발생가능성): 아직 일어나지 않은 상황이 실제로 발생할 수 있는 확률

최종 중대 이슈 리스트 선정

사회·환경 영향

평가대상 (40) → 임계값 적용 →

Impact (6)
기후변화 완화 (3)
소비자 안전보건 (1)
근로자 안전보건 (2)

재무 영향

평가대상 (41) → 임계값 적용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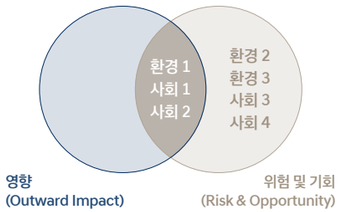
R/O (13)
기후변화 완화 (5)
대기오염 (1)
제품 관련 자원 순환 (1)
소비자 안전보건 (2)
근로자 안전보건 (2)
노사관계 (1)
공급망 노동인권 (1)

중대성 평가

2025 중대성 평가 결과 상세

현대자동차는 이중중대성 평가에서 일정 점수(임계값) 이상을 획득한 모든 지속가능성 주제를 중요한 이슈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특정 주제가 ①사회·환경 영향 관점 중대성과 ②재무적 관점 중대성 두 가지 측면 중 어느 하나라도 임계값 이상의 점수를 획득하였을 경우 최종 중대 이슈로 선정하였습니다.

이중중대성 평가 (Double Materiality) 결과



영향(Outward Impact) 측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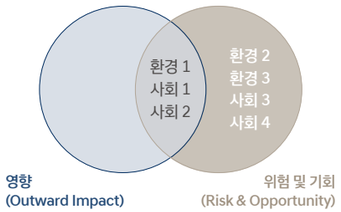
ESG	토픽	가치 사슬 내 위치	이해관계자에게 영향을 미치는 내부 요인	산출지표	영향 평가					영향 지표
					영향 분류			이해관계자 평가 영역	사회적 비용에 대한 설명	
환경 1	기후변화 완화 (친환경/ 전기차 전환)	자체운영 – 제조, 판매 및 무역	• 탄소중립 달성을 위해 내연기관 차량 중심의 사업구조를 전동화 차량 중심으로 전환하고 있으며, 전기차를 지속 개발·생산	동일 주행거리 기준 내연차량 대비 전기차의 탄소배출 저감 정도	긍정적 영향 (Positive Impact)	실재적 (Actual)	단기-장기	환경	• 사회적 비용 회피(Social cost avoided) - 현대자동차의 2024년 글로벌 EV 판매 차종(대형 상용차종 제외)[1]와 내연기관 차종의 기준거리(200,000km) 주행 시 탄소배출량 비교 결과, 연료생산단계부터 주행 시까지의 탄소배출량 기준[2] 연간 1,974,577tCO_2-eq의 탄소 감축 효과가 나타났습니다[3]. 탄소배출량 감축을 통해 대기 중 이산화탄소의 사회적 비용 226,405백만 원을 절감할 수 있었습니다.	226,405백만 원 = (기준거리[4] 주행 시 내연기관 기준차량 대당 탄소배출량 – 기준거리 주행 시 EV 차량 대당 탄소배출량) tCO_2-eq X (2024년 EV 차량 판매량)[5] X 온실가스 사회적 비용[6]
	기후변화 완화 (온실가스 배출)	자체 운영 - 제조	• 자동차 제조 과정에서 LNG, 비재생에너지로 생산된 전력 사용 등으로 인한 온실가스 배출	Scope 1, 2 온실가스 배출량	부정적 영향 (Negative Impact)	실재적 (Actual)	단기-장기	환경	• 사회적 비용 발생(Social cost caused) - 현대자동차는 2024년 2,097,809tCO_2-eq의 온실가스를 배출하였습니다. 온실가스는 기상이변, 강수량 변화, 해수면 상승, 사막화, 물 부족, 열대성 질병의 확산, 생물종의 감소 등 부정적 환경영향의 원인이 되며, 현대자동차의 2024년 온실가스 배출량으로 인해 240,535백만 원의 사회적 비용이 발생하였습니다.	240,535백만 원 = 2024년 Scope 1,2 온실가스 배출량 X 온실가스 사회적 비용[6]
		업스트림 - 제조	• 자동차 생산에 필요한 부품(엔진, 배터리, 모터, 조향/변속 장치, 내장재 등)을 제조하는 과정에서 LNG, 비재생에너지로 생산된 전력 사용 등으로 인한 온실가스 배출	Scope 3 온실가스 배출량	부정적 영향 (Negative Impact)	실재적 (Actual)	단기-장기	환경	• 사회적 비용 발생(Social cost caused) - 현대자동차 공급망의 Scope 3 온실가스 배출은 기상이변, 강수량 변화, 해수면 상승, 사막화, 물 부족, 열대성 질병의 확산, 생물종의 감소 등 부정적 환경영향의 원인이 됩니다. 또한, 향후 강화될 탄소 규제에 대한 취약성은 제품 가격 상승에 영향을 미쳐 최종 소비자의 경제적 부담 증가를 야기할 수 있습니다.	
사회 1	소비자 안전보건	자체운영 - 제조	• 모빌리티 산업 특성상 부품 품질 하락 시, 사고 가능성 크게 증가	배터리 폭발 사고로 인한 사용자의 신체적, 금전적 손실액	부정적 영향 (Negative Impact)	잠재적 (Potential)	단기-중기	소비자	• 사회적 비용 발생(Social cost caused) - 모빌리티 산업 내 배터리 관련한 품질하락으로 인한 안전 사고는 소비자의 삶의 질을 크게 저하시킬 수 있습니다. 신체적 손상이나 정신적 트라우마는 개인의 일상생활에 장기적 영향을 미치며, 전기차에 대한 소비자 신뢰도 하락은 친환경 모빌리티 확산을 지연시켜 자동차 산업의 탄소중립 목표 달성에 차질을 빚을 수 있습니다.	
사회 2	근로자 안전보건	자체 운영 - 제조	• 공정 내 위험사고 발생 가능 기계 설비 존재 및 신체 상해 관련 안전사고 발생 가능성 존재	임직원 LTIFR	부정적 영향 (Negative Impact)	실재적 (Actual)	단기-중기	사회	• 사회적 비용 발생(Social cost caused) - 근로자 안전보건 문제는 근로자 개인과 가족의 삶의 질을 심각하게 저하시키는 중대한 사회적 손실입니다. 안전사고나 건강 악화는 가정 경제 및 지역사회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며, 숙련된 노동력의 상실로 이어져 산업 전반의 경쟁력 저하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업스트림 – 제조		협력사 LTIFR	부정적 영향 (Negative Impact)	실재적 (Actual)	단기-중기	사회		

1) 2024년 글로벌 EV 판매 차량 중 승용차종만 산정(대형 상용차종의 경우, '한국교통안전공단 자동차 주행거리 통계(2023)'에 Baseline 차종 부재하므로 제외)
2) '한국교통안전공단 자동차 주행거리 통계(2023)' 기준으로 Baseline 차종 선정
3) EV 판매 차종별 트림 중 최대 탄소 감축량 트림 기준
4) 200,000km
5) 승용차종 2024년 글로벌 EV 판매량: 204,026대
6) PwC TIMM(Total Impact Measurement and Management) 방법론에 따른 환경 영향 연구결과에 따라 온실가스의 톤당 SCC(Social Cost of Carbon) 평균값은 US$78/t$CO_2$-eq로 평가되었습니다.

중대성 평가

2025 중대성 평가 결과 상세

이중중대성 평가 (Double Materiality) 결과



위험 및 기회 측면[1)]

ESG	토픽	가치 사슬 내 위치	재무적 위험 및 기회를 유발하는 외부 요인	회사에 미치는 영향		영향 지표	
환경 1	기후변화 완화 (친환경/ 전기차 전환)	자체 운영 – 제조, 판매 및 무역	• 사회: 내연기관 차량에 대한 부정적 사회적 인식 변화, 미국 내 IRA 규정 전기차 보조금 축소 및 전기차의 일시적 수요 정체(캐즘) 현상, 상호 관세 품목 중 자동차에 대해 25%의 관세 부과 선언(2025.02.18) • 기술: Price Parity 달성 속도 등 전동화 전환 기술 발달, 기후변화 대응 기술혁신 가속화 • 정책: 유럽 내 내연기관차 판매금지 등 차량의 온실가스 배출량 규제, 전기차 확산 정책 및 정부 지원	• 단기적으로 전기차 관련 기술 개발 및 생산을 위한 자본적 지출 및 연구개발 비용과 전기차 관련 지원금 축소 및 관세 부과(소비자 가격 상승)으로 인한 수요 감소, 매출 감소가 발생할 수 있으며, 중장기적으로 전기차 시장 확대에 따른 매출 증가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수익 비용	기회	중기-장기
	기후변화 완화 (온실가스 배출)	자체 운영 – 제조	• 기술 및 경제: 재생에너지 원가 경쟁력 향상으로 인한 전기 생산 시 재생에너지 발전 비율 변동 • 규제: 온실가스 배출량(Scope 1+2) 관련 규제(국내 배출권 거래제 등), 국가별 재생에너지 생산 정책 • 미국 수출 시 캘리포니아 기후공시법으로 인한 Scope 1, 2, 3 의무 공시	• 온실가스 배출량 Scope 1 저감을 위한 설비/기술 개선 등의 전환 비용, 재생에너지 중심의 에너지 전환을 위한 PPA, REC, 녹색프리미엄 등 구매 비용이 발생할 수 있으며, 온실가스 배출량 규제 위반에 따른 벌금, 환경 보상금, 탄소 배출권 구매, Scope 1, 2, 3 의무 공시 대응 및 관리 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비용	위험	단기-장기
		업스트림 - 제조	• 규제: EU 탄소조정국경세(CBAM)의 원재료 탄소가격 부여, 미국 인플레이션감축법(IRA) 친환경 요건에 따른 세액공제 혜택 등 기후 관련 규제	• CBAM 대상 원재료 가격 상승으로 인해 원재료 구입 비용이 증가할 수 있습니다. 자본적 지출 투자 및 관련 활동 비용은 IRA 대응을 위한 자본 투자 및 관련 비용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또한, 법/규제 위반 시 과태료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비용	위험	단기-장기
환경 2	제품 관련 자원 순환	업스트림 – 제조	• 기술: 폐광물 분리, 정제 등 재활용 기술, 사용주기 확대, 친환경 소재로의 대체 발굴 등 다양한 기술 발전 • 경제: 자동차산업에서 배터리 재활용 등 배터리 선순환 체계 구축 및 친환경 경제 모델 가속화 • 규제: EU 배터리 Regulation 등 관련 규제	• 전기차 확대에 따른 폐배터리의 회수, 재활용 등 선순환 체계 구축으로 핵심 광물 소재를 재활용함으로써 원가 절감을 실현할 수 있습니다.	수익	기회	중기-장기
환경 3	대기 오염	다운스트림 – 판매 및 무역	• 규제 - 국내: 대기환경보전법,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운행 제한 포함) 실시 - EU: 2035년 EU 내연기관 신차 판매금지 법 실시 예정	• 규제로 인한 운행 제한 발생 가능성으로 내연기관 차량에 대한 매출 감소와 배출가스 규제에 대응하기 위한 파워트레인 효율 개선 연구개발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에 더해 2035년부터 하이브리드차를 포함해 내연기관을 사용하는 신차의 판매를 금지하는 EU 내연기관 신차 판매금지 법에 따라 내연기관 차량 부품 재고자산 증가로 인한 평가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비용	위험	중기-장기
사회 1	소비자 안전보건	자체운영, 업스트림 - 제조	• 기술: 기술 결함에 의한 전기차 배터리 화재 시, 인적/물적 피해 발생, 전기차 안전에 대한 소비자 인식 악화로 전기차 확산 장애 요인으로 작용 • 사회: 자동차 판매 시 소비자 안전과 관련한 중요한 정보를 충분히 알리지 않는 것에 대한 소송 리스크 • 규제: 자동차 관리법, 제조물 책임법	• 기술 결함 방지를 위한 배터리 안전 및 품질 제고 비용 및 제품 안전 및 품질 사고 발생 시의 리콜 비용, 소송 비용(패소 시), 그리고 매출 감소 등의 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품질 이슈 예방을 위한 안전 및 품질 제고 비용, 자발적 리콜 비용이 발생할 수 있으며, 제품 안전 및 품질 사고 발생 시 소송 비용 및 매출 감소 등의 손실 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비용	위험	중기-장기
사회 2	근로자 안전보건	자체 운영, 업스트림 - 제조	• 규제: 중대재해처벌법, 산업안전보건법 등 안전보건 관련 법적규제 요구	• 근로 감독관의 중대재해 발생 사업장 및 공급망에 대한 일부/전면 작업 중지 명령으로 조업 중단에 따른 생산성 및 매출 감소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후 피해 근로자에 대한 보상 및 회사 귀책 여부에 따른 추가적인 소송 비용, 재발방지를 위한 작업장 및 직원 안전 보장을 위한 관리 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비용	위험	중기-장기
사회 3	노사관계	자체 운영 – 제조	• 사회: 자동차 산업부문에서 노동3권 보호 및 노사 관련 시민단체의 높은 사회적 관심도	• 노사 관계 갈등 해소를 위한 비용과 갈등에 따른 조업 중단 시 생산성 및 매출 감소 등의 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비용	위험	중기
사회 4	공급망 노동인권	업스트림 - 제조	• 사회: 아동, 강제노동 관련 노동인권 보호의 필요성에 대한 높은 사회적 인식 • 규제: 아동에 대한 협약(Convention on the Rights of the Child, 1989), 아동 노동에 관한 기본 원칙과 권장 지침(ILO Convention No. 182 and Recommendation No. 190, 1999) 등 국제적 규범이 존재하며, EU 강제노동금지규제(EUFLR), 미국 위구르강제노동방지법(UFLPA), 캐나다 공급망 강제/아동노동 금지법 존재	• 공급망 내 인권 영향을 식별하고 완화하기 위한 이행 비용 및 회사 귀책에 따른 인권 침해 발생 시의 소송 비용과 평판 악화로 인한 자본 유입 감소 등의 손실 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에 더해 유럽 및 미국 지역 내 공급망 강제노동 관련 조사 대응 미흡 시 통관 금지 조치에 따른 매출 감소, 캐나다 법인 강제/아동노동 미존재 확인 연례 보고서 제출 관련 비용 등을 추가로 예상할 수 있습니다.	비용	위험	중기-장기

1) 동일 토픽, 가치 사슬 내 위치한 위험 및 기회는 통합하여 서술

중대성 평가

중대 주제에 대한 관리 전략 및 경영진 보상 연계(KPI)

ESG	토픽	비즈니스 전략	2024년 이행 실적	핵심 성과 지표 (KPI)[1]	중장기 목표
환경 1	기후변화 완화 (친환경/전기차 전환)	현대자동차는 기존 내연기관 중심에서 유연한 판매 전략을 통해 급변하는 시장 수요에 민첩하게 대응하기 위해 전동화 포트폴리오의 다양화, R&D 활동 지속 추진 & 개발 역량 내재화를 통해 배터리 기술의 차별성 확보, 글로벌 공장 신/증설을 통한 전기차 생산 역량 강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에 더해 수소 밸류체인을 아우르는 맞춤형 솔루션 'HTWO Grid' 2024년 공개, 수소모빌리티 및 수소 에너지 사업 확장을 통한 수소에너지 생태계 구축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 2024년 전체 친환경(EV, HEV, PHEV, FCEV) 차량 757,195대 판매 • 2024년 전기차 218,504대 판매 • 2024년 수소전기차 4,446대 판매 *2024년 도매 기준	• 친환경 제품 매출 • 친환경 제품 관련 활동 • 전기차 판매량 및 판매 비중	• 2030년 전기차 200만 대 판매 • 2035년 유럽 시장 100% 전기차 판매 • 2040년 주요 시장 100% 전기차 판매
	기후변화 완화 (온실가스 배출)	2021년 9월 전동화, 수소사회, 순환경제 생태계 구축을 골자로 하는 현대자동차의 2045년 탄소중립 계획을 발표하였습니다. 현대자동차의 탄소중립은 원부자재 구매·조달, 차량의 설계·생산·판매, 차량의 사용·폐기·회수 등 가치사슬 전반의 온실가스 감축 및 상쇄 활동 계획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사업장에서 배출되는 온실가스의 경우, 단기적으로는 RE100 로드맵과 연계하여 제조 과정에서 사용하는 전기에너지부터 우선 전환을 추진하고, 장기적으로는 수소사회 구현과 연계하여 주요 제조 공정에 그린수소 적용과 재생에너지 사용을 확대할 예정입니다.	• 국내 최대 규모의 재생에너지 구매 계약(PPA) 체결 (향후 20년간 약 560만 톤의 온실가스 감축 효과) • 2024년 글로벌 재생에너지 총 사용량 2023년 대비 30% 증가	• 탄소중립 이행 체계 구축 및 목표 달성률	• 2025년까지 미국, 멕시코, 튀르키예, 인도 공장 RE100 달성 • 2027년까지 브라질, 중국, 싱가포르, 베트남 공장 RE100 달성 • 2045년까지 글로벌 전 사업장에서 사용되는 전기에너지 100% 재생에너지 전환
사회 4	공급망 노동인권	현대자동차는 2021년 발생한 북미 아동노동 이슈 등 공급망 노동인권 리스크를 중대한 관리 이슈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공급망 노동인권 리스크에 대한 사전 예방 및 관리를 위해 2023년에는 강제노동 리스크 관련 공급망 컴플라이언스 프로그램을 구축하여 공급망 지속가능성 리스크 통합 관리 체계를 강화하였습니다. 2024년부터는 서면진단 결과를 기반으로 해외 공급망에 대한 현장실사를 확대하는 등 해외 공급망 지속가능성 관리를 단계적으로 강화해 나갈 계획입니다.	• 해외 협력사 1,120개사 ESG 리스크 서면진단 실시 • 1차 협력사 대상 외부 DB 기반 강제노동 리스크 스크리닝 실시 • 강제노동 관련 협력사 행동규범, 계약서 및 견적요청서 보완 • '강제노동 관련 법령 준수를 위한 가이드라인' 개발 및 교육	• 협력사 ESG 점검률/실사율 • 협력사 리스크 개선조치율 • 협력사 ESG 수준 관리	• 중점관리 협력사 ESG 서면진단율 100% 달성 • 고위험 협력사 ESG 현장실사율 100% 달성 • 2025년 고위험 업종 2차 협력사 ESG 리스크 진단 시행 • 2026년 구매금액 상위 90% 비부품사 ESG 리스크 진단 시행

* KPI는 CEO 포함 C-Level 임원 보상 연계

중대성 평가

BUSINESS CASE

외부 전문가 인터뷰

현대자동차의 ESG 경영 강화를 위해 언론, 투자기관, 학계 전문가를 대상으로 인터뷰를 실시하여 중대성 평가에 반영하였습니다. 기업의 ESG 활동과 정보 공시, 지속가능성 전략, 그리고 미래 자동차 산업의 변화에 대한 다양한 시각과 제언을 수렴하여 향후 경영 전략 수립에 반영할 계획입니다.

지속가능성 전문 언론사 대표

최근 ESG 동향과 국내 기업에게 주는 시사점

- 최근 여러 국가에서 기후변화, 재생에너지, 그리고 전기차 관련 규제를 완화하는 정책 방향성을 보이고 있는데, 이것은 단순히 ESG를 부정하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이는 타국이 전기차와 관련된 광물 공급망과 재생에너지 사업을 지배하는 상황에 대응하기 위한 전략으로, 자국의 기업들에게 필요한 시간을 제공하는 조치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우리는 통상과 연계하여 ESG의 중요성을 재확인하는 동시에, 정책의 본질적인 신호와 그 주변의 불필요한 소음을 분별할 필요가 있습니다.
- ESG는 기업의 밸류체인에 다양한 영향을 미치며, 각국의 이해관계 및 통상 전략과 밀접한 연관이 있습니다. 각국은 ESG를 전략적 도구로 활용하고 있으며, 이를 올바르게 이해하는 것이 장기적 경쟁력 확보에 중요합니다. 한국 기업들은 통상 정책과 ESG 규제의 결합이 글로벌 운영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고 대응 전략을 마련해야 합니다.

중장기적 관점에서 현대자동차의 ESG 중요 주제

- 부정적 영향 및 리스크 측면에서는 기존 내연기관차를 전기차로 전환하는 산업구조 변화 과정에서의 '공정한 전환(Just Transition)'이 중기적인 중요 주제로 부상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전환 과정에서 노동자와 지역사회 등 이해관계자들에게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도록 기업의 노력과 소통이 중요합니다. 또한 산업 특성상 광물 공급망에서의 인권은 현재는 물론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중요한 주제가 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 긍정적 영향 및 기회 측면에서는 자원 사용과 순환경제를 가장 중요한 주제로 볼 수 있습니다. 순환적인 자원 사용 전략은 장기적으로 안정적인 원자재 관리와 수급 불안을 완화하는데 기여할 수 있으며, 자원 효율성을 향상시킴으로써 비용 절감도 기대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자원 사용과 순환경제는 규제 리스크 관리 이상으로 비즈니스 기회를 창출하는 중요한 요소로 인식되어야 합니다.

자산운용사 책임투자 담당 중역

최근 자본시장에서 주목하는 기업의 ESG 활동

- 자본시장은 기업의 ESG 활동 중 주주가치 제고를 위한 밸류업 프로그램과 기후변화 대응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투자자들은 기업들이 제시한 목표의 실제 이행 과정과 달성 가능성을 면밀히 살펴보고 있으며, 앞으로는 실질적인 노력과 결과가 더욱 중요해질 것입니다. 밸류업 프로그램의 경우, 구체적인 분석과 실행 방안이 부족한 상황이며, 기후변화 대응 관련해서도 대다수 기업들이 온실가스 감축 목표는 수립했으나 달성하기 위한 구체적인 로드맵이 필요합니다. 기업들은 이 두 분야에 대해 더욱 구체적이고 실현 가능한 전략을 제시해야 하며, 이는 시장과 투자자들의 신뢰를 얻고 기업 가치를 향상시키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입니다.

현대자동차의 기후 리스크 관리에 대한 조언

- 기후 리스크는 모빌리티 산업, 특히 현대자동차와 같은 기업에게 매우 중요한 주제입니다. 이는 전동화와 관련된 새로운 기회를 제공하는 동시에 온실가스 감축 관련 리스크 요인이 되기도 합니다. 현대자동차는 Scope 1, 2, 3를 포괄하는 탄소중립 목표를 제시하고 있으나, 국내에서 재생에너지 활용이 어렵다는 점을 감안할 때 불확실성이 높은 국내 사업장의 Scope 1, 2 감축 목표와 구체적인 달성 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투명하게 공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총량 기반 감축 목표는 시장 변동에 따른 영향이 크므로 자동차 1대당 배출량 등 집약도 기반의 목표 설정도 고려해 볼만한 요소입니다. 현대자동차가 전년도 지속가능성보고서를 통해 공개한 LCA(전과정평가) 관점에서의 내연기관차와 전기차의 배출량 비교 사례는, 전기차로의 전환이 기후에 미치는 영향과 더불어 전동화가 진행될수록 업스트림 배출 관리의 중요성이 커진다는 시사점을 파악할 수 있었던 매우 좋은 접근 방식으로 보여집니다.

2023-24년 KSSB(한국지속가능성기준위원회) 자문위원(학계)

ESG 정보공시 측면에서 현대자동차에게 필요한 역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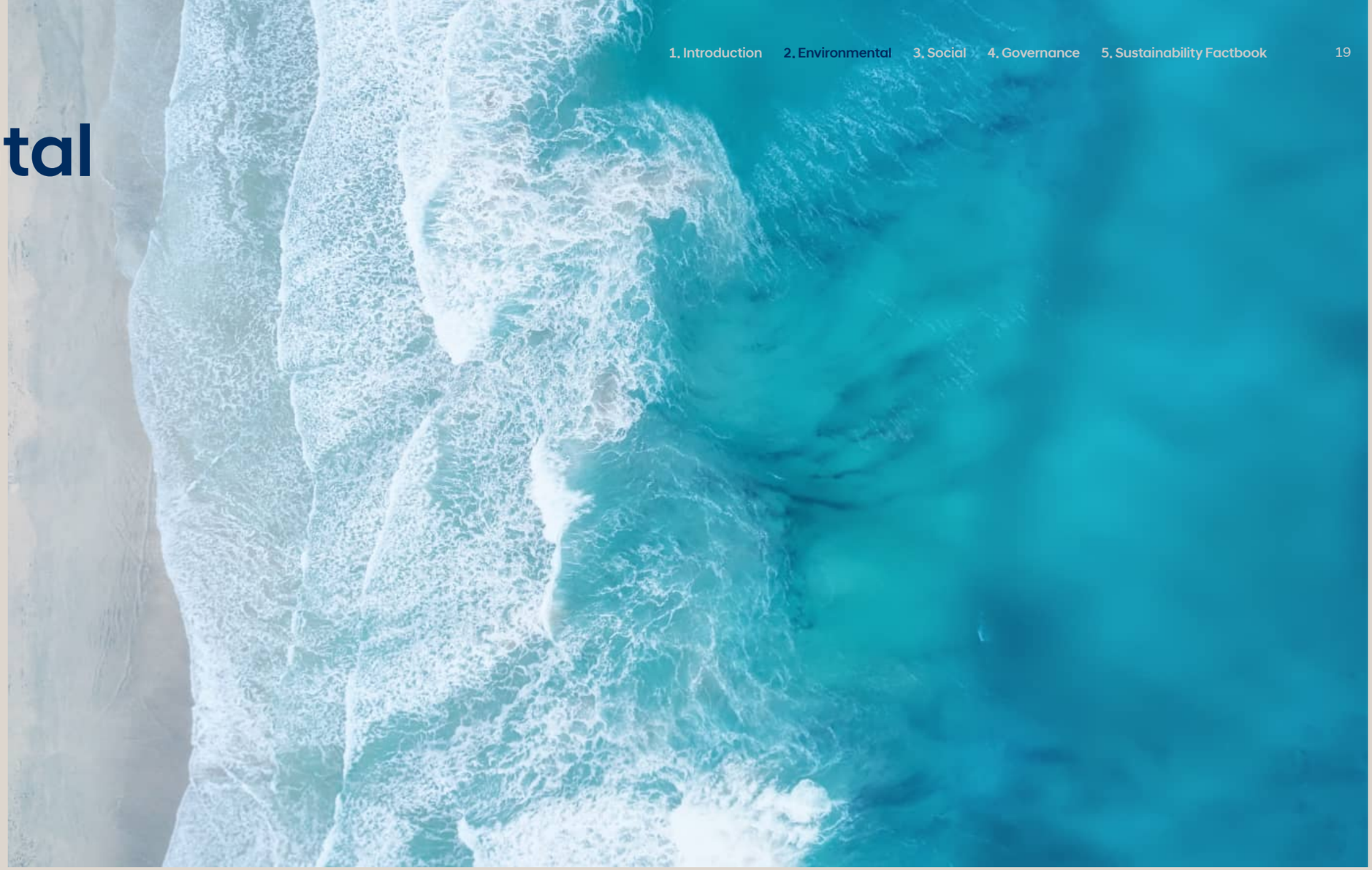
- 첫째, ESG 전략의 진정성과 시장에서의 설득력을 철저히 검토하여 명확한 ESG 전략과 목표 수립이 필요합니다. 둘째, 단순한 정보의 나열을 넘어 해당 정보가 내포하고 있는 의미와 시사점까지 공시할 수 있는 능력이 요구됩니다. 셋째, 전문적 과학적 내용이 포함된 컨텐츠 등 복잡한 정보를 이해하기 쉽게 전달하는 스킬을 향상시켜야 합니다. 이러한 역량들을 갖추어 ESG 정보공시의 질적 수준을 향상시키고, 이를 통해 기업의 가치 창출로 연결시킬 수 있는 종합적인 관리체계가 현대자동차에게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현대자동차의 ESG 중요 주제와 앞으로 현대자동차에게 기대하는 사항

- 현대자동차에게 있어서는 환경과 관련한 주제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기후변화, 에너지, 대기오염 등은 모빌리티 산업에서의 기술적인 영역과 밀접한 관련이 있으므로 가장 중요하게 관리해야 할 주제입니다. 특히, 에너지 전환은 생산 프로세스를 완전히 바꿀 수 있는 중요한 요소이며, 미래의 재무 성과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 외부 환경이 급변하는 불확실한 상황에서 현대자동차에게 새로운 기술에 대한 대응이 가장 우선시되는 요소라고 판단되며, 전기차와 동력장치 관련 기술적 혁신을 이루는 과정에서 소비자 기호 변화와 가격 경쟁 등 다른 중요한 사안들이 이에 결부되어 큰 고민거리로 다가올 것입니다. 현대자동차가 현재와 같이 불확실성이 높은 시기를 경쟁력 강화의 기회로 삼아 지속적으로 발전하여 글로벌 리더로 도약하기를 바랍니다.

Environmental

지구 환경은 인류가 살아가는 터전이며,
미래세대를 위해 지켜야 하는 책임입니다.
현대자동차는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기업의 역할과
책임을 분명하게 인지하고, 전 세계적 흐름인
탄소중립 실현에 동참하고 있습니다.
특히, 친환경 기술 바탕의 차별화된 기후변화
대응으로 지구의 푸른 빛을 지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2.1	환경경영
2.2	기후변화 대응
2.3	순환경제와 자원사용
2.4	생물다양성
2.5	오염물질

환경경영

현대자동차는 최고의사결정기구가 참여하는 환경경영 거버넌스를 구축하고, 환경경영 정책에 의거하여 전사 차원에서 환경경영 이행을 관리·감독하는 등 지속가능한 사업 운영을 위한 환경경영 체계를 갖추고 있습니다. 현대자동차는 환경경영을 통해 자연과 인간 가치를 존중하고 이해관계자들과의 소통을 통해 지속가능한 성장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각 생산공장은 ISO 14001 인증을 취득하였으며, ISO 인증 심사와 함께 매년 본사 차원의 사업장 대상 자체 환경 평가, 실사 등을 통해 영향, 리스크 등을 식별하여 개선조치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환경경영 체계

환경경영 거버넌스

이사회 역할 이사회 및 산하 위원회(지속가능경영위원회)는 환경경영 추진 성과, 주요 리스크 요인 및 개선활동 등을 상시 보고받으며 감독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2024년에는 기후변화 리스크 재무 영향과 EU 택소노미 재무 실적 산출 프로세스 구축 등을 포함한 7대 ESG 중점과제를 상반기 지속가능경영위원회 안건으로 상정하여 승인을 받았습니다. 또한 하반기에는 중장기 사업계획을 반영하여 업데이트한 2045년 탄소중립 전략에 대해 지속가능경영위원회의 승인을 받았습니다. 이외에도 2023년 용수/폐기물 개선목표 수립 과제에 이어, 2024년에는 사업장과 협력사 대상 용수/폐기물/오염물질을 포함한 환경측면의 영향과 리스크에 대한 진단실사 결과 및 개선 조치내용을 지속가능경영위원회에 보고하였습니다.

경영진 역할 대표이사(CEO)를 포함한 주요 경영진이 참여하는 C-level 경영위원회(Management Committee Meeting)를 통해 탄소중립을 비롯한 ESG 중점과제와 현황을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있습니다. 2022년에는 사업장의 안전/환경/보건 관리를 총괄하는 최고 책임자인 CSO(Chief Safety Officer)를 선임하여 환경경영 거버넌스 체계를 강화하였습니다.

전담조직 역할 현대자동차는 환경경영 이행을 위해 CEO와 CSO 책임 하에 전사 총괄 조직 및 사업장별 운영 조직을 두고 있습니다. 주기적인 상호 협의 과정을 통해 효율적인 업무를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전사 총괄 조직 현대자동차 본사 총괄 조직은 국내외 지속가능한 환경경영 이행 및 사업장 환경관리 체계 개선을 위해 전사 환경경영 거버넌스 역할을 수행합니다. 환경사고 리스크 대응 체계 구축, 환경 관리 KPI(성과지표) 기획 운영, 환경규제 대응, 환경 투자/문화/기술/교육 총괄에 대한 기획 및 관리 등과 같은 업무를 통해 현대자동차의 환경경영 체계 운영에 중심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사업장 관리 조직 사업장별 관리 조직은 환경경영시스템 구축 및 운영, 환경규제 이행 준수, 사업장 환경효율성 제고, 사업운영 과정에서 발생하는 오염물질 배출 관리를 위한 설비 운영, 정책 시행, 환경 리스크 파악 및 개선, 환경경영 확산/전파, 환경 관련 고충 접수와 처리 등의 역할을 수행합니다.

연구개발 조직 현대자동차 R&D센터를 중심으로 전동화 차량 개발을 통한 차량의 탄소 및 유해가스 배출 저감, 재활용을 고려한 친환경 설계, 제품 환경영향평가(LCA) 수행, 지속가능한 소재 개발, 유해물질 함유 대체, CCUS(탄소 포집·활용·저장) 개발 등 제품 환경기술 관련 연구/개발 및 저탄소 제품 개발 등의 환경 개선활동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환경경영 이행

환경경영 정책 현대자동차는 환경을 기업의 핵심 요소로 인식하고 능동적으로 환경경영을 수행하기 위해 환경경영 정책을 수립하였으며, 주기적으로 대내외 환경 규제와 최신 이슈, 대외 시장 및 기업 상황의 변화 등을 반영하여 개정하고 있습니다(2022년 최신 개정). 본 방침은 7개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항목은 현대자동차가 환경경영을 수행함에 있어 중점적으로 관리할 항목을 포함합니다. 중점 관리 항목에는 기후변화 대응, 오염물질 저감, 생물다양성 보호, 순환경제 구축, 협력업체 환경경영 지원 활동이 있으며, 현대자동차는 본 정책을 통해 해당 활동의 적극적인 노력을 선언하고 있습니다. 현대자동차와 모든 자회사, 사업 단위는 환경정책에 따라 환경성과를 개선함과 동시에, 사업활동 및 가치사슬 전반의 환경 영향을 관리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현대자동차는 모든 협력사, 계약 파트너 등 공급망이 환경경영을 이행할 수 있도록 본 환경경영 정책을 준수할 것을 권고하며, 필요한 지원을 제공합니다. 현대자동차는 사업을 영위하는 각 국가의 환경 관련 법·규제를 본 정책에 앞서 우선 준수하며, 현지 국가의 법·규제가 다루고 있지 않거나 특별한 조항을 두고 있지 않는 경우에는 본 정책에 따라 환경경영 업무를 수행합니다.

현대자동차 환경경영 정책

1. 개요	2. 기본원칙		3. 추진체계
가. 제정 목적 나. 적용 범위 다. 이행 방안	가. 원부자재 나. 에너지 다. 용수 라. 온실가스 마. 폐기물 바. 폐제품	아. 오염물질·유해물질 사. 지역사회	가. 거버넌스 나. 교육 및 확산 다. 커뮤니케이션 라. 성과 관리

현대자동차 환경경영 정책

환경경영 이행 체계 현대자동차는 1) 법령 및 규제 준수, 2) 환경경영 정책 수립/개정, 3) 환경경영시스템 구축 및 관리규정 도입, 4) 환경 성과 및 데이터 점검, 5) 리스크 점검 및 개선 추진, 6) 환경성과 개선활동 등과 같은 환경경영을 'Plan-Do-Check-Action' 과정으로 이행하고 있습니다.

현대자동차의 국내 모든 사업장과 해외 생산공장은 환경경영시스템 국제표준인 ISO 14001를 기반으로 환경경영시스템(EMS)을 구축하고 있으며, 신뢰성 및 공신력 확보를 위해 제3자 기관으로부터 ISO 14001 인증을 취득하고 있습니다. 특히 국내 사업장의 경우, ISO 14001 통합인증을 통해 전사적으로 일원화된 환경관리 체계를 구축하여 사업장 환경경영 수준과 업무 효율성을 향상시키고 있습니다. ISO 14001 인증 취득 사업장은 매년 인증기관으로부터 정기 심사를 받고 있으며 심사를 기반으로 개선조치가 이루어지고, 3년 주기로 갱신 심사도 받고 있습니다. 또한 본사 총괄 조직이 자체 개발한 현대자동차 ESG 환경경영 수준 진단 툴(HEAT, Hyundai Environmental Assessment Tool)을 기반으로 글로벌 사업장 대상 환경경영 자체 점검 및 평가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환경경영

환경투자 계획 및 이행 현대자동차는 중장기 전동화 전략 달성을 위해 2033년까지 120.5조 원(R&D 54.4조 원, 설비투자 51.6조 원, 전략투자 14.4조 원)의 투자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현대자동차의 2024년 환경투자 예산은 12,795 억 원이었으나 실제로 9,716억 원을 집행하였고, 사업장 환경 오염물질 배출 저감을 위한 환경설비 투자에는 2024년 507억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해외사업장 환경설비 투자는 집계실적에서 제외되었습니다. 한편 현대자동차는 신공장 건설 등 대규모 투자 시행에 앞서 환경영향평가(EIA: Enviornmental Impact Assessment) 통해 환경에 미치는 영향 및 위험요인을 사전 점검하고 있습니다.

환경사고 및 규제 대응 체계 현대자동차는 국제 안전·보건·환경(SH&E) 표준에 의거하여, 대기·수질·폐기물 및 화학물질 유출 등과 같은 환경사고 발생 시 대응 가능한 비상상황 대응 체계를 구축하였습니다. 본사 및 각 사업장은 비상상황 대응 조직과 비상연락 체계를 갖추고 있으며, 환경사고에 대응하기 위한 방재시설 및 장비 현황을 포함한 비상대응 매뉴얼을 구축하여 임직원에게 숙지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 외에도 환경사고에 대한 대안의 시나리오를 작성하여 비상대응훈련을 부서별로 실시하고 있으며, 특히 사업장에서 발생가능한 환경사고 사례를 유추하고, 이를 통해 현업 부서에서 실제 적용가능한 대응 방안을 마련하여 교육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분기별로 현대자동차그룹, 한국자동차모빌리티산업협회, 한국경영자총협회, 환경 자문위 등으로 구성된 환경 기술 교류회를 운영하여, 각 사별, 사업장별 환경 담당자들이 환경규제 및 이슈에 체계적으로 논의하고, 대응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환경 교육 현대자동차는 환경 규제, 전사 환경경영 목표 및 계획, 환경경영 우수사례 및 주요 직무수행에 필요한 사항, 기타 벤치마킹 결과 등을 반영하여 매년 환경 교육과정을 최신화하고, 환경 담당자 역량 향상을 위한 환경 교육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해외 포럼 및 세미나, 박람회 참석, ISO 심사원 교육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2024년 총 67,824명의 임직원이 환경교육을 이수하였으며, 임직원이 이수한 교육 프로그램의 총 운영시간은 106,004시간입니다. 임직원뿐만 아니라, 협력사 대상으로도 환경 관련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온라인 플랫폼의 ESG 교육 과정을 통해 환경경영 필요성 및 협력사의 역할을 전달하고 있으며, 별도 집체과정, 세미나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고충처리 채널 임직원을 포함한 다양한 이해관계자로부터 환경 관련 고충을 접수하는 채널을 운영하고 있으며, 접수된 고충은 정해진 절차와 기준에 따라 처리·통보하고 있습니다. 특히, 사업운영에 상당한 차질을 초래하거나, 지역 환경에 부정적 영향이 예상되는 등 법·규제 위반가능성이 높은 고충은 법무실에서 대응방안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환경경영 성과 관리

환경경영 목표 관리 현대자동차는 환경경영 추진 체계를 통해 탄소 배출과 같이 사업 운영으로 인해 상당한 환경영향을 미치는 환경요인에 대해 중장기 성과 목표를 설정하고 있습니다. 중장기 성과 목표는 배출 및 사용량 전망치(Business As Usual)뿐만 아니라, 대외 경제상황, 정부 정책, 내부 사업전략을 고려해 설정합니다. 기후변화 대응을 위해 원소재 채취부터 부품 조달, 생산, 운행에 이르는 전 과정에 걸쳐 '2045년 탄소중립' 목표를 설정하고, 목표 달성을 위해 전기차 전환 전략, 사업장 RE100 추진 등의 전략과제를 이행하고 있습니다.

탄소를 제외한 환경 지표들의 정량적 개선을 위해 용수와 폐기물의 경우 생산량과 연동해서 증가하는 용수 사용량과 폐기물 발생량의 상승분을 억제하는 방향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또한 사업장 오염물질은 법적 허용치를 초과하지 않도록 관리하고 있습니다.

환경경영 목표 및 이행 현황

분야	중장기 목표	2024년 이행현황
전기차 전환	2027년 전기차 84만대, 2030년 전기차 200만대 판매	• 2024년 전체 친환경 차량 757,195대 판매 • 2024년 전체 전기차 218,504대 판매
	2035년 유럽 시장 100% 전기차 판매	
	2040년 주요 시장 100% 전기차 판매	
사업장 탄소 중립 추진	2045년 RE100 달성	• 2024년 전체 전기에너지 사용량 중 재생에너지 16.7% • 국내 최대 규모의 재생에너지 구매 계약(PPA) 체결 (국내 사업장에 매년 610GWh의 재생에너지 공급)

환경경영 성과 평가 사업장 환경성과 개선을 위해 공정 효율 개선, 온실가스 감축 성과, 재생에너지 전환율, 환경 오염물질 배출량 내부 목표를 사업장 KPI에 반영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특히 사업장 환경 오염물질의 경우 배출량 모니터링을 통해 전년 대비 증가한 사업장의 경우 증가 원인을 분석하여 개선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있습니다. 제품 부문에서는 판매 차량의 평균 연비 또는 CO_2 배출량, 전동화 판매 목표 달성률 등을 KPI로 설정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환경 리스크 및 기회요인 분석 매년 중대성 평가를 기반으로 기후변화, 순환경제, 오염물질, 용수 사용, 생물다양성 이슈에 대한 영향, 리스크 및 기회요인(IRO: Impact, Risk and Opportunity)을 파악하고 있습니다. 또한 사업장과 공급망 ESG 진단실사 기반 국내외 사업장과 공급망 내 환경 관련 부정적 영향, 리스크를 점검하고 있습니다.

용수 리스크/기회요인 분석 및 재무 영향

리스크	세계자원연구소(WRI)에 따르면 기후변화로 인한 물부족 심화로 중장기적으로 인도, 이란, 파키스탄 등 전 세계 인구의 약 4분의 1이 살고 있는 중동 및 서아시아, 북아프리카 지역의 17개국의 수자원이 모두 고갈될 수 있는 리스크에 직면해 있습니다. 자동차 제조 시 냉각/세척/도장공정 등에서 다량의 공업용수를 사용하고 있어, 안정적인 용수 공급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생산차질 및 중단 등의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재무 영향	현대자동차는 중장기적 물리적 환경변화로 인한 '물 부족'에 따른 잠재적 재무 영향을 분석했으며 최악의 경우 물 부족으로 인해 자동차 생산 중단 리스크 발생 가능성을 고려했습니다. 특히 용수 리스크가 높은 인도생산 법인을 대상으로, 물 부족으로 인한 자동차의 생산 중단 발생 시 피해 규모를 산정했습니다. 생산 차량은 인도공장에서 생산하고 있는 대표 차량인 '베뉴'로 선정하고, 2024년 인도 판매량(607,934대)과 차량가격(21,700,000원)을 적용하였습니다. 인도 전체 판매량의 10%가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전제 하에 재무적 영향은 1,319,208,100,000원으로 산정되었습니다. * 재무 영향 산출근거 2024년 인도 판매대수 607,934대 x 피해규모(10%) x 차량가격(21,700,000원) = 1,319,208,100,000원
세부 대응 전략	인도공장은 물 부족 리스크를 원천적으로 예방하기 위해 2030년까지 용수 100% 자급자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용수 재활용을 확대하는 동시에 외부 수자원에 의존도를 낮추기 위해 빗물에 기반한 자체 용수 확보도 강화하고 있습니다. 용수 재활용 확대를 위해 무방류 시스템을 구축하여 용수를 재활용하고 있으며, 빗물을 수집할 수 있는 집수시스템을 운영하여 자체 용수 확보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수집된 빗물은 6개의 저수지에 저장하고 있습니다
기회	현대자동차는 완성차 생산을 위해 냉각/세척/도장공정에서 다량의 물을 사용하고 있으며, 국내를 포함하여 미국, 중국, 인도 등 해외 생산공장에서 자동차를 생산하고 있습니다. 지속가능한 기업활동을 위해서는 제품을 생산하기 위해 필요한 용수의 안정적인 공급과 공정 내에서의 효율적인 사용이 필요합니다.
재무 영향	현대자동차는 자동차 생산공정에서 사용되는 공업용수를 감축하기 위해 용수 절감은 물론 용수 재활용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노력의 결과로 당사는 2024년 기준 총 2,928,451톤의 용수를 재활용하였습니다. 용수 재활용으로 2,190,481,348원의 운영비를 절감한 효과입니다. * 재무 영향 산출근거 2024년 총 용수 재활용량(2,928,451톤) × 수도요금(톤당 748원, 2024년 대한민국 기준) = 2,190,481,348원
세부 대응 전략	'물 스트레스 지역'에 위치한 아산공장과 인도공장의 경우 폐수 무방류 시스템을 운영하여 용수를 재활용하고 있습니다. 울산공장은 폐수처리장 방류수를 도장부스의 세정식 집진기 순환수로 재이용할 수 있도록 용수 이송배관을 포함한 폐수 재활용 시스템을 구축하였습니다. 이처럼 현대자동차는 주요 사업장별로 용수 재활용량을 확대함으로써 용수 관련 비용을 절감하고 있습니다.

기후변화 대응

현대자동차는 기후변화 이슈에 대한 전사 차원에서의 대응을 위해 지속적으로 위험과 기회 요인을 식별·평가하며 관리하고 있습니다. 또한 기후변화 대응 거버넌스를 통해 주요 기후 전략을 수립하였으며, 이를 기반으로 기후변화가 사업에 미치는 잠재적 영향력을 분석하고, 법·규제 변화 등으로 인한 거시적 사업환경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현대자동차는 기후변화 대응을 통해 위험 관리뿐만 아니라 다양한 기회요소를 발굴하고 있으며, 친환경 모빌리티 제품 라인업 확대와 자율주행, 커넥티드카 등 미래 모빌리티 기술 개발 등을 통해 변화하는 시장 수요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것입니다.

거버넌스

최고 의사결정기구의 책임 및 역할

지속가능경영위원회 현대자동차의 기후 관련 위험 및 기회를 감독하는 최상위 의사결정기구는 이사회 산하 지속가능경영위원회입니다. '지속가능경영위원회 규정' 제3조 및 '환경경영 정책' 3. 추진체계에 명시된 위임권한에 따라 지속가능경영위원회는 ESG 정책·계획·주요 활동 등을 심의, 의결하는 책임과 의무를 가집니다. 기후변화를 포함한 ESG 주요 현안에 대해 반기마다 논의하며, 탄소감축, 기후변화 대응, 제품 전과정에서의 친환경성, 공급망 ESG 관리 등 중점 추진 과제를 중심으로 핵심이슈에 대한 전략적 접근과 중장기적 계획, 개선 추진활동에 대한 사항을 결의하고 감독합니다.

경영진의 책임 및 역할

C-level 경영위원회(Management Committee Meeting) 현대자동차는 CEO를 포함한 주요 경영진이 참여하는 C-level 경영위원회(Management Committee Meeting)를 통해 탄소중립을 비롯한 ESG 중점과제와 현황을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있습니다. MCM에서 검토된 결과에 따라, 주요 리스크 요인, 중장기 사업 전략과 연계된 성과 개선 필요사항, 그리고 최고 의사결정기구의 심의·승인이 필요한 사안 등은 지속가능경영위원회에 상정됩니다.

현대자동차그룹 탄소중립 위원회 현대자동차는 그룹 차원의 기후변화 대응과 탄소중립 이행을 위해 현대자동차그룹 탄소중립 위원회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룹 탄소중립 위원회는 연 1회 개최되며, 현대자동차그룹 회장이 주재하고 주요 계열사 CEO가 참여하여 각 계열사의 탄소중립 전략, 실행 계획 및 과정을 종합적으로 점검하는 역할을 수행합니다.

협의체 및 전담조직 역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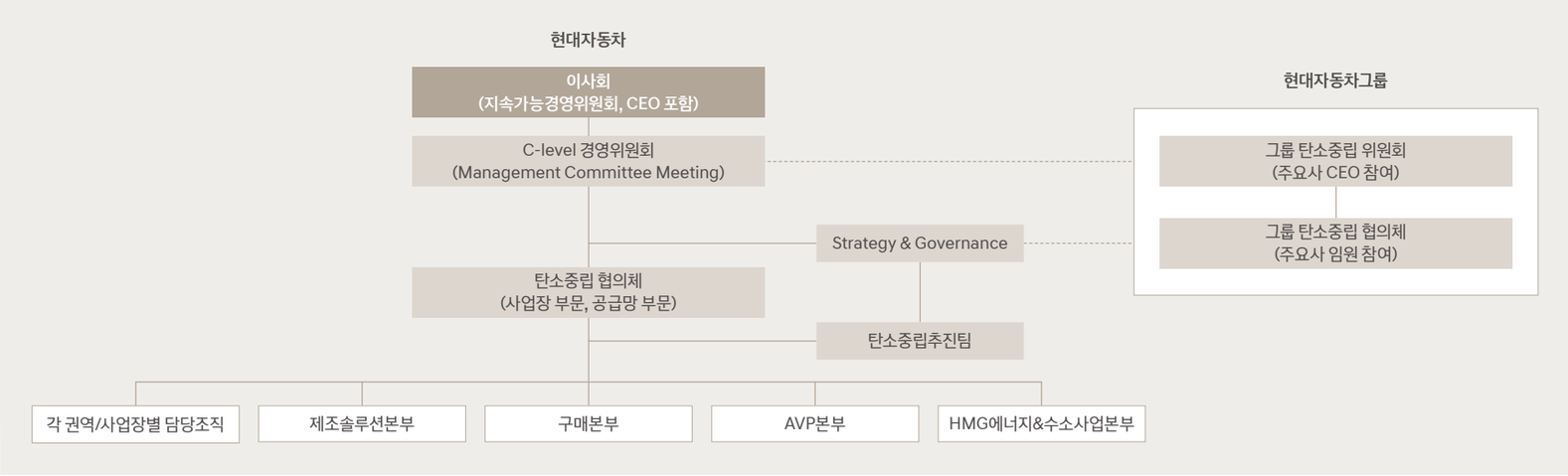
현대자동차 탄소중립 협의체 현대자동차는 탄소중립추진팀 주관 아래 사업장 부문과 공급망 부문 각각의 탄소중립 협의체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본사 내 관련 부서의 팀장들로 구성된 탄소중립 협의체는 분기별로 개최되며, 사업장 에너지 효율 향상, 재생에너지 사용 확대, 공급망 탄소 감축 등의 탄소중립 활동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전사 기획조직 현대자동차는 2021년 탄소중립추진팀 신설을 시작으로, 연구소, 구매본부 등 유관 부문에 탄소중립 전담 조직을 구축하여 전사적 탄소중립 추진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현대자동차는 사업 활동의 다양한 영역에서 탄소 감축과 더불어 중장기 탄소중립 로드맵의 실행력을 더욱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현대자동차그룹 탄소중립 협의체 현대자동차그룹의 탄소중립 실현 및 감축 목표 달성를 위해 현대자동차그룹 탄소중립 협의체가 2024년 신설되었습니다. 주요 계열사의 실장급 임원이 참여하고 있으며, 연 3회 정기적으로 그룹의 탄소중립 실행 계획을 논의합니다.

기후변화 대응 거버넌스

지속가능경영위원회 구성 현황 2024년 이사회 교육 현황



2024년 기후 관련 위험 및 기회 관점을 고려한 주요 안건

위원회	일자	구분	주요 의안 내용	기후 관련 위험 및 기회 고려 사항
지속가능 경영위원회	03.21	승인	2024년 ESG 추진 방향 승인의 건	기후변화 리스크 분석 및 재무적 영향 산출, 탄소중립 전략 고도화 계획 등
	11.27	승인	현대차 탄소중립 전략 업데이트 승인의 건	사업장/공급망/차량운행/탄소상쇄 영역별 감축목표 재점검 및 중장기 탄소감축 계획 구체화

기후변화 대응

전략

기후 관련 위험 및 기회

위험 및 기회와 영향

유형			위험 및 기회 요인	사업모형 및 가치사슬에 미치는 영향	영향 예상		
전환	위험	현재 규제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정책 및 규제	• 국가별 배출권 거래제 규제 강화 및 탄소 가격 상승 • 국가 단위의 넷제로 목표 보유	☑ 단기	☑ 중기	☑ 장기
		신규 규제		• EU 탄소국경조정세(Carbon Border Adjustment Mechanism, CBAM), 미국 청정경쟁법 (Clean Competition Act, CCA)의 본격 시행으로 유럽 및 북미 수출 제품에 대한 탄소 국경세 부과 • 미국 인플레이션감축법(IRA) 시행으로 인한 전기차 보조금 확대로 미국 내 전기차 판매 경쟁 심화	☑ 단기	☑ 중기	☑ 장기
		기술	친환경차 기술 개발 경쟁 가속화	• 기술 변화 선도 실패 시 시장 점유율 하락	☑ 단기	☑ 중기	☑ 장기
		법률	내연기관 차량의 연비 규제 강화	• 규제치 미준수로 벌금 부과 시 대응 비용 증가 • 연비 관련 소송으로 브랜드 이미지 하락, 투자 철회 및 고객 이탈	☑ 단기	☑ 중기	☑ 장기
		시장	원자재 가격 불안전성	• EV 배터리 수요와 주요 원료(리튬, 코발트, 니켈) 공급 간의 불균형으로 인한 원자재 조달 비용 상승	☑ 단기	☑ 중기	☑ 장기
		평판	투자자 및 이해관계자의 기후변화 대응 요구 강화	• 기후변화 정보 공개 및 대응 미비 시 브랜드 이미지 하락, 투자 철회 및 고객 이탈	☑ 단기	☑ 중기	☑ 장기
	기회	제품 및 서비스	전동화 전환 속도 가속화	• 전기차 시장 확대로 EV 판매 증가	☑ 단기	☑ 중기	☑ 장기
		시장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기술 혁신 확산	• 기술 혁신에 의한 전기차의 Price Parity 달성 가속화로 전기차 시장 확대 • 기후테크 R&D로 수소 시장 활성화 • AI 등을 기반한 자율주행 기술 확산에 의한 전동화 가속화	☐ 단기	☑ 중기	☑ 장기
		에너지원		• 기술 발전으로 재생에너지 비용 하락에 따라 재생에너지 전환(RE100)을 통한 에너지 비용 저감	☑ 단기	☑ 중기	☑ 장기
		자원효율성		• 자재 효율성 향상 및 재활용 확대	☐ 단기	☑ 중기	☑ 장기
물리	급성 위험		강풍, 산불, 침수, 우박/뇌우, 폭우	• 기후재해에 의한 자산가치(건물, 설비, 재고) 손상 및 매출 감소(생산중단)	☑ 단기	☑ 중기	☑ 장기
	만성 위험		폭염, 가뭄, 한파	• 만성적 기후 패턴 변화에 의한 생산성 감소로 매출 감소	☐ 단기	☑ 중기	☑ 장기

기후 위험 및 기회 관리 적용 기간 및 범위 현대자동차의 기후 관련 위험 및 기회 식별, 평가 및 관리에 적용되는 기간 및 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적용 기간	적용 범위
☑ 단기(0-3년) ☑ 중기(3-10년) ☑ 장기(10-25년)	☑ **사업장:** 글로벌 전 사업장(신규 사업장 포함, 설비 예상 수명 고려) ☑ **업스트림:** 공급망, 자본재, 업스트림 유통망 ☑ **다운스트림:** 운송, 사용(고객), 폐기 및 재활용

전략 및 의사결정

기후변화 완화 및 적응을 위한 노력

중대 위험 및 기회	직·간접 완화 및 적응 방안		주요 내용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정책 및 규제	1	사업장 공정 및 설비 변경	온실가스 배출 저감을 위한 고효율 설비 도입
		시설 재배치	IRA 요건 충족을 위해 미국 조지아 공장 신설
	4	제품 사양 변경	EU Fit-for-55 및 북미 GHG 등 글로벌 환경규제 대응을 위한 연비 개선 및 전동화 전환
	5	전과정 평가(LCA)	Full-LCA 방식 전과정 평가 수행
	6	공급망 및 이해관계자 협력	IRA, CBAM 규제 대응을 위한 공급망 리스크 관리 요구
전동화 전환 속도 가속화	3	제품 기술 개발	전기차 전용 플랫폼 E-GMP 적용
		시설 재배치	북미 전기차 시장 공략을 위해 조지아 공장 신설, 울산 전기차 전용 공장 신설
		제품 사양 변경	전기차 충전속도 향상 및 생산단가 절감 등 R&D 확대
		공급망 및 이해관계자 협력	생산단가 절감을 위한 배터리 용량 개선 등 공급망 R&D 확대 요구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기술혁신	2	재생에너지 전환	태양광 자가발전 인프라 구축, 전력구매계약 등을 통한 RE100 이행
		제품 사양 변경	내연기관차 연비 개선 및 전기차 충전시간, 항속거리 개선을 위한 R&D 확대
	6	공급망 및 이해관계자 협력	저탄소 물류·운송 생태계 조성
	7	수소 사업 확장	수소 밸류체인 확장 및 수소사회 전환 가속화
	8	사회적 탄소 감축	탄소 포집 및 활용을 위한 기술 개발, 블루카본 확보를 위한 동해 바다숲 조성 프로젝트 수행

기후변화 대응

1 사업장 공정 및 설비 변경

에너지 효율화 현대자동차는 사업장별로 에너지 사용량 분석 및 진단을 통해 개선 기회를 식별하여 도출된 방안을 실천합니다. 에너지 진단 및 감사를 통해 개선 테마를 식별하고 각 공정·설비 특성을 분석하여 투자 계획을 수립합니다. 2025년부터 글로벌 탄소배출 종합관리시스템과 스마트 생산공장 에너지관리시스템을 도입하여 전사 탄소배출량과 에너지 사용량을 분석하여 개선하고 있으며, 순차적으로 전 공장 확대 적용 예정입니다. 특히 스마트 생산공장 에너지관리시스템을 활용하여 설비의 에너지 사용량 및 고장률과 노후도에 따른 손실 발생 정도, 투자금액 대비 예상 절감효과를 분석하고, 에너지 다소비 및 우선 개선 영역을 결정합니다. 개선 영역 파악 후, 고효율 모터 및 인버터 적용, 전력회생장치, 저온 경화 도료개발, 폐열 회수 등 개선방안을 이행하고 있으며, 전력 사용효율 개선을 위한 DC배전과 압축공기 저감기술을 개발중에 있습니다. 이러한 에너지 절감 및 효율화 솔루션과 관련하여 2021년부터 2030년까지 10년간 1,112억 원의 투자를 통해 전기 250,412MWh 및 LNG 48,880천Nm^3 감축 목표를 수립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에너지 절감 투자 완료 후에는 전후 성과를 비교하는 결과 보고서를 작성하여 지속적으로 절감 진행상황 성과 평가를 실시합니다. 더불어, 사업장별 임직원 대상으로 에너지 절감 활동, 기술 및 설비에 관한 교육뿐 아니라 에너지 절감 실천을 유도하기 위한 냉난방 기준 및 에너지 낭비 예방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현대자동차는 전체 자동차 제조 공정 중 가장 많은(약 43%) 에너지를 사용하는 도장 공정에서 고온 환경 조건을 완화해 에너지 사용량과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저감하는 저온 경화 도장 공법을 개발하였습니다. 이는 기존 140°C에서 20분 동안 이뤄지던 상도 경화 공정을 90°C에서 20분 동안 진행하면서도 동일한 도장 품질을 유지하는 도료 기술로서 약 40%의 에너지 소비를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며, 2026년 울산 전기차 공장에 적용 예정입니다. 2023년 튀르키예생산법인이 저온 경화 도장 공법 적용을 위해 1.3억 원을 투자하였으며, 현대자동차는 이 공법을 모든 글로벌 제조 공장에 확대하기 위해 2030년까지 26억 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이를 통해 연간 LNG 사용량 약 6,000,000Nm^3 절감 및 온실가스 약 16,000tCO_2-eq 감축 효과가 기대됩니다.

주요 사업장 온실가스 감축 및 에너지 절감 현황

• 연구시설 국내 연구소는 에너지 효율화 활동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에너지 절감을 위해서 매년 변압기의 효율적 운영, 절전형 조명 제어, 고효율 조명 도입, 역률 개선 및 스케일 제거 등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폐기물 처리 시 발생하는 열을 활용한 스팀을 외부로부터 공급받고 있습니다.

• 울산공장 소재공장 폐열 회수 및 도장공장 공조기 열원 교체 등의 설비 투자를 진행하였으며, 에너지 의무진단, 전력 수요 관리, 'KEEP 30' 등과 같은 정부 정책에 적극 대응함으로써 지속적으로 온실가스 감축 활동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 아산공장 Scope 1(직접연소 에너지) 배출량 감축을 위해 도장공장 RTO 배기열 재활용, 이온히팅 신기술을 이용한 급탕 시스템의 분산화, 소재공장 용탕 직공급 등 열에너지의 효율적 사용을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 전주공장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을 위해 생산설비의 고효율화 관리개선을 통한 효율적 에너지 사용 및 재생에너지 발전을 통한 탄소중립 활동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생산설비의 효율화를 위한 활동으로 엔진공장 가공설비의 초절전회로 시스템 구축과 도장공장 고효율전동기 설치 등을 실시하였으며 공장 냉난방통합관리 시스템을 설치하여 모니터링 제어를 통한 효율적인 냉난방 운전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 체코생산법인 에너지 절감 CFT(Cross Functional Team)를 운영하며 에너지 절감 목표를 수립하여 투자를 진행합니다. 2024년에는 에어샤워 시스템 개선 및 조립 라인의 공기 누출 정기 검사를 통해 에너지 효율을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있습니다.

• 인도네시아생산법인 에너지위원회를 통해 에너지 절감 항목 발굴을 지속 추진하고 있으며, 도장공장의 오븐온도 하향, 엔진의 워싱머신 운전 대수 조정, 냉난방 운영 효율화 등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 북경현대기차유한공사 에너지 절감 및 효율화를 위해 에너지 과다 소모 설비 및 시설을 선정하여 집중 관리하고 있으며, 도장 오븐온도를 통제하여 에너지 손실을 축소하였습니다.

• HTWO광저우법인 생산 및 연구 시설의 가동 수요에 따라 유틸리티 및 공조 설비를 운영하고 있으며, 공장 냉방 저부하 시 냉수공급배관의 축열을 사용하는 등 에너지 효율을 개선하기 위해 노력합니다.

BUSINESS CASE

아산공장 에너지 저감 우수 사례

스팀에너지 비효율 개선

아산공장은 에너지 비용 절감 및 탄소배출 감축을 위한 혁신적인 개선 활동과 이에 따른 효과를 인정받아 다양한 사내·외 공모전에서 수상하였습니다. 한국에너지공단의 'ESP 우수실증사례 이사장상', 환경부/SDX재단의 '탄소감축 공모전 이사장상', 그리고 한 해 동안 최고의 성과를 달성한 직원을 선정하는 사내 포상인 '현대 히어로 아너스 최우수상'을 수상하였습니다.

아산공장은 원동실과 사용처 간 원거리 스팀 공급으로 인해 발생하는 방열손실과 보일러 블로우다운 또는 재증발증기 등의 폐열에 주목했습니다. 먼저 온수 급탕 방식을 변경하기 위해 이온히팅시스템을 적용하여 관행적 열교환 방식을 개선하고, 스팀 원거리 공급으로 인한 방열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해 사용처에 소형보일러를 설치하였습니다. 더불어 현장에 최적화된 보일러 폐열회수 재활용 시스템을 구축함으로써 에너지 효율화에 성공했습니다. 이러한 개선 활동을 통해 아산공장은 연간 에너지 비용을 약 14.5억 원 절감하였으며, 탄소배출량 역시 연간 2,456tCO_2-eq 가량 감축하였습니다.

이는 당사의 스팀 및 열에너지 관리 및 개선 역량을 크게 향상시켰을 뿐만 아니라 협력사를 대상으로 하는 표준화 기술 지원 사업을 통해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였습니다.

1.2024 현대 히어로 아너스 시상식
2. 이온히팅시스템 설비

기후변화 대응

2 재생에너지 전환

RE100 이행 계획 현대자동차는 주요 그룹사인 기아, 현대모비스, 현대위아와 함께 2021년 전기에너지의 100% 재생에너지 전환을 목표로 하는 글로벌 이니셔티브 RE100 가입을 선언하였고, 2022년 4월 이를 승인받았습니다. 현대자동차는 RE100의 글로벌 목표인 2050년보다 앞선 2045년까지 재생에너지 100% 전환 목표를 달성하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 현대자동차는 국가별 재생에너지 수급 환경과 정부 정책 및 규제, 그리고 공장별 여건을 고려하여 2045년까지 주요 사업장에 태양광 패널 설치, 재생에너지 인증서 구매, 전력구매계약(PPA, Power Purchase Agreement) 등 재생에너지 점진적 확대 적용을 목표로 최적의 솔루션을 적용할 것이며 북·중미(미국, 멕시코 등), 유럽(체코, 튀르키예 등), 인도 지역의 사업장은 2025년 RE100 달성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주요 사업장 재생에너지 도입 현황

• **국내 사업장** 현대자동차는 2024년에 국내 최대 규모의 재생에너지 구매 계약(PPA)을 체결하였으며, 향후 20년간 생산공장, 연구소 등 국내 사업장에 매년 610GWh의 재생에너지를 공급받을 계획입니다. 이를 통해 연간 약 28만 톤의 온실가스를 감축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며, 안정적인 전력 조달을 기반으로 국내 사업장의 재생에너지 전환을 점진적으로 가속화할 예정입니다. 또한, 울산공장, 아산공장, 전주공장의 사업장 부지 내 임직원 주차장, 치장장 및 공장 지붕 등에 약 15MW 규모의 태양광 발전설비를 2024년에 준공하여 태양광 자가발전 인프라를 구축해 나가고 있으며, 향후 자가발전 및 소비를 위한 태양광 발전 설비를 지속적으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 **연구시설** 국내 연구소는 현재 약 4MW 규모의 태양광 발전설비를 운영하고 있으며, 2026년까지 추가로 약 8MW를 설치할 예정입니다. 유럽기술연구소는 신연구동에 약 130kW 규모의 태양광 자가발전 설비를 설치 중이며, 2025년 중 가동을 시작할 계획입니다.

• **체코생산법인** 체코생산법인은 2022년부터 공장에서 사용하는 전기를 100% 재생에너지로 전환하였으며, RE100 달성 이후에도 재생에너지 자가 발전 비중을 확대하기 위해 공장 지붕에 태양광 발전설비를 2025년 준공할 예정입니다.

• **인도네시아생산법인** 인도네시아생산법인은 2023년부터 REC 선도구매 계약을 체결하여 재생에너지를 조달하고 사업장 내 태양광 발전 설비를 운영함으로써 RE100을 달성하였습니다. 2025년에는 공장 부지 내에 추가로 약 11MW 규모의 태양광 발전 설비가 착공 예정입니다.

• **튀르키예생산법인** 튀르키예생산법인은 2024년도 REC 구매를 통해 사용 전력의 90% 이상을 재생에너지로 전환하였으며, 2025년 하반기 내 약 5MW 규모의 태양광 자가발전 시설을 완공 및 운영하여 재생에너지를 자체 공급할 계획입니다.

• **인도생산법인** 인도생산법인은 2024년 사용 전력의 70% 이상을 재생에너지원으로 전환하였으며, 태양광 자가발전을 비롯하여 PPA 및 IEX(인도전력거래소)를 통한 재생에너지 구매를 지속적으로 확대하여 2025년까지 RE100 목표를 달성할 예정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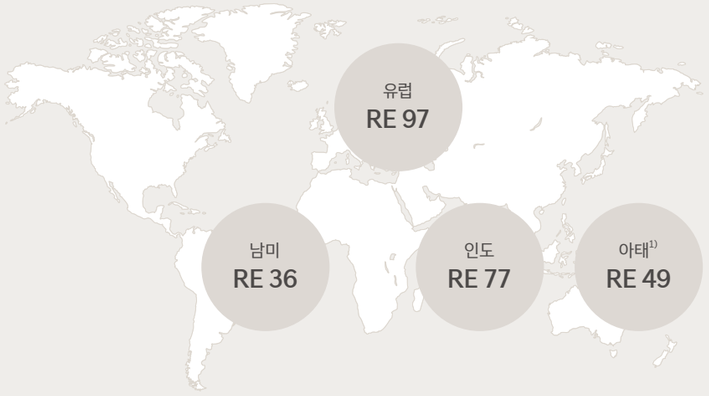
• **HMGMA** 2024년에 현대자동차와 현대모비스, 현대제철, 현대트랜시스 등 그룹사가 공동으로 참여하여 미국 조지아주 해외 법인에 15년 장기 재생에너지 구매 계약(PPA)을 체결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현대자동차의 전기차 신공장인 '현대자동차그룹 메타플랜트 아메리카(HMGMA)'와 HMGMA에 전동화 부품 및 전기차 강판을 공급하는 그룹사의 조지아 법인은 매년 378GWh의 재생에너지를 조달할 계획이며, 이를 통해 연간 약 14만 톤의 탄소 저감 효과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RE100 이행 로드맵

2021년 7월	2022년 4월	2027년	2030년	2040년	2045년
• RE100 가입 선언	• RE100 가입 승인	• 해외 사업장 재생에너지(전기) 100% 전환	• 재생에너지(전기) 60% 전환	• 재생에너지(전기) 90% 전환	• 재생에너지(전기) 100% 전환

2024년 RE100 추진 현황 (해외 생산사업장)

RE100 달성 완료	2025 RE100	2027 RE100
체코, 인도네시아	미국, 멕시코, 튀르키예, 인도	브라질, 중국, 싱가포르, 베트남



사업장		재생에너지 전환 비율
유럽	체코생산법인	100%
	튀르키예생산법인	91%
인도	인도생산법인	77%
남미	브라질생산법인	36%
아태	인도네시아생산법인	100%
	북경현대기차유한공사	32%
	HTWO광저우법인	45%

1) 싱가포르 글로벌 혁신센터(HMGICS) 비포함

기후변화 대응

3 전동화 전환

전동화 전환 방향 현대자동차는 2045년 탄소중립을 달성하고자 판매 차량의 탄소감축을 추진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내연기관 차량 중심의 사업구조를 전동화 차량 중심으로 전환하고 있습니다. 하이브리드, 플러그인 하이브리드뿐만 아니라 운행 중의 탄소배출이 전혀 없는 전기차와 수소전기차를 지속 개발·생산하고 있습니다. 전용 전기차 플랫폼인 E-GMP(Electronic-Global Modular Platform) 등 전기차 특화 기술 개발에 주력하고 있으며, 승용차·상용차 등 모든 차량에 적용할 수 있는 수소연료전지시스템 성능을 강화하고, 언제 어디서나 쉽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전기 및 수소 인프라 확대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대자동차는 '모빌리티 솔루션 프로바이더'로서 모빌리티 디바이스의 하드웨어 성능 개선뿐만 아니라, 소프트웨어 역량을 더욱 강화하여 최적화된 서비스를 지속 제공하고 수익을 창출해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할 것입니다.

2030년 중장기 전동화 전략 2030년 전동화 전략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전기차 수요 집중 지역 내 생산 확대, 차세대 배터리 기술 개발 및 배터리 모듈화 등을 포함한 배터리 종합 전략 추진,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를 아우르는 전기차 상품성 강화 등의 전동화 전략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히, 탄소중립 달성을 위해 2035년 유럽 시장 100% 전동화, 2040년 주요 시장 100% 전동화 추진 등 전동화 전환을 가속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글로벌 전기차 판매 비중은 2030년 36%까지 확대될 예정이며, 국내 중심의 생산에서 라인 전환과 신공장 설립의 투 트랙 방식을 통한 지역별 생산 확대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전동화 전환 계획 2024년 미국, EU 등 주요국의 환경 규제 완화와 전기차(EV) 보조금 축소 등의 영향으로 인해 전동화 전환 속도가 느려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동수단 전동화는 글로벌 차원의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핵심 전략으로, 전동화로의 전환은 모빌리티 산업의 궁극적 목표이자 방향성입니다. 이에 따라 현대자동차는 전환 속도가 둔화되는 불확실한 시기 속에서도 장기적인 관점에서 전동화 전략을 견지하고자 합니다. 단기적으로는 유연한 판매 전략을 통해 급변하는 시장 수요에 민첩하게 대응하는 동시에 전기차 생산 역량 강화 및 배터리 기술 차별성 확보를 통해 전기차 시장을 이끌어가며 전동화의 미래를 선도해 나갈 계획입니다.

• 시장 수요 대응 최근 전동화 전환 속도 둔화로 인해 하이브리드 차량(HEV)의 수요가 지속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현대자동차는 2025년부터 적용되는 현대자동차의 차세대 자체 개발 하이브리드 시스템인 TMED(Transmission Mounted Electric Device)-II와 더불어 스마트 회생제동, V2L(Vehicle-to-Load) 등, 하이브리드 특화 프리미엄 기술 적용을 통해 상품성 및 원가 경쟁력을 강화하였으며, 하이브리드 적용 차종을 소형, 대형, 럭셔리 차급까지 기존 7개 차종에서 14개 차종으로 확대하며 소비자들의 니즈에 적극 대응하고 있습니다. 현대자동차는 하이브리드 차량 판매를 확대하여 2028년에는 2023년 글로벌 판매계획 대비 40% 이상 증가한 숫자인 133만 대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주요 글로벌 공장의 혼류생산 체제 활용과 부품 공급망을 선제적으로 확보하였으며, 북미 HMGMA 공장에서의 추가 생산을 통해 2030년까지 하이브리드 수요가 지속 확대될 것으로 전망되는 북미 시장에 대응할 예정입니다.

EREV(Extended Range Electrified Vehicle)는 내연기관과 전기차의 장점을 결합하여 전기차와 같이 전력으로만 구동하지만, 배터리 부족 시 엔진이 배터리를 충전하는 시스템으로 운행되는 차량입니다. EREV의 친환경성 및 가격 경쟁력을 바탕으로 향후 전기차 수요 회복시기에 기존 내연기관 차량에서 전기차로의 전환을 촉진하는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현대자동차는 2026년 말부터 북미와 중국에서 EREV 양산을 시작하여, 북미에서는 대형 SUV 모델을, 중국에서는 경제형 C급 플랫폼 모델을 중심으로 2030년까지 총 11만 대 이상 판매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현대자동차는 하이브리드 차량과 EREV를 통해 시장 수요에 우선 대응하며, 전동화 수요 회복이 예상되는 2030년까지 점진적으로 전기차 모델을 확대 출시하여 전기차 200만대 판매 목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경제형 EV부터 럭셔리, 고성능까지 아우르는 전기차 라인업을 구축하고, 총 21개의 전기차 모델을 통해 소비자에게 다양하고 차별화된 전기차 경험을 제공하며 전기차 시장을 선도해 나가고자 합니다.

• 생산 역량 강화 현대자동차는 글로벌 공장 신/증설 및 설비 활용 최대화를 통해 시장 수요에 대응하고 있습니다. 특히 싱가폴 HMGICS 공장은 현대자동차의 혁신 생산 기술 개발 및 테스트 허브로 로봇, AI, 디지털 트윈 시스템 등 스마트 기술을 적용하는 한편 태양광 발전 설비를 갖춰 연간 약 2GWh의 전기를 자체 생산하는 지속가능한 제조 시설입니다. 현대자동차는 싱가폴 HMGICS 공장의 혁신 기술을 미국 HMGMA에 확대 적용하여 현대자동차의 전동화 전환 대응 역량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미국 HMGMA는 연간 최대 50만 대의 생산 능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2024년 4분기 공장 가동을 시작으로 2025년부터 아이오닉 5, 아이오닉 9을 생산하고 있으며, 향후 북미 전동화 시장을 주도하기 위한 핵심 거점 역할을 수행할 계획입니다.

2030년 전동화 전환 로드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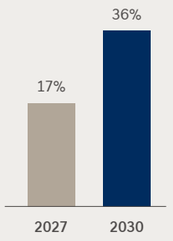
2035년	2040년	2045년
• 유럽 시장 100% 전동화	• 주요 시장 100% 전동화	• 신흥 시장 전동화 가속화 (탄소중립 달성)

2030 전기차 판매 목표[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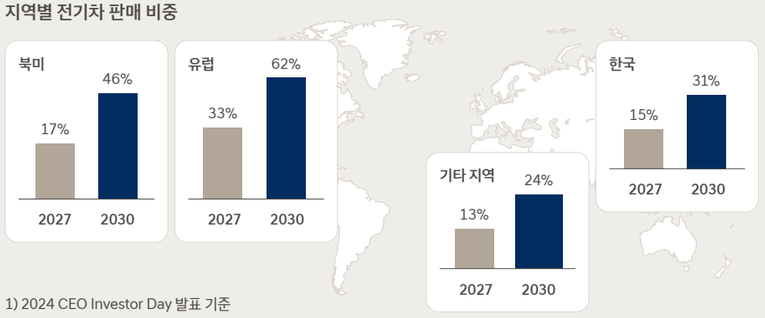
상품 경쟁력 및 생산 능력 강화를 통한 글로벌 EV Top 리더십 지속 확대

글로벌 전기차 판매량 (단위: 천 대)

	2027	2030
한국	98	212
유럽	224	467
북미	229	690
기타	290	631
	841 (전체 판매차량 17%)	2,000 (전체 판매차량 36%)



지역별 전기차 판매 비중



1) 2024 CEO Investor Day 발표 기준

기후변화 대응

• 전기차 배터리 개발 역량 내재화 전기차 배터리는 전기차의 원가, 주행거리, 편의성 등 핵심 경쟁력을 좌우하는 부품으로, 소비자의 수요 관점에서도 매우 중요하게 작용하는 부품입니다. 현대자동차는 전기차, 하이브리드,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등에 탑재되는 모든 배터리의 셀 단위 및 시스템 설계부터 BMS(Battery Management System), 배터리 안정성 향상 기술까지 차별화된 배터리 솔루션을 제공하여 전동화 시장에서의 글로벌 리더십을 확보하고자 합니다.

현대차그룹은 전고체 배터리를 비롯한 차세대 배터리 개발의 가속화와 양산성 검증을 위해 2024년 의왕연구소에 차세대 배터리 연구동을 완공하였습니다. 차세대 배터리 연구동에서는 전고체 배터리를 포함한 차세대 배터리 개발이 본격적으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또한 현대자동차는 지속가능한 모빌리티 전환을 위한 핵심 과제인 전기차 배터리 기술 혁신에 주력 하고 있습니다. 2024년 9월에는 현대제철, 에코프로비엠과 전략적 파트너십을 체결하여 차세대 LFP(리튬인산철) 배터리 양극재 기술 개발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히, 친환경 공정 혁신의 일환으로 전구체 제조 단계를 생략한 '직접합성법' 개발을 통해 유해물질 사용 저감과 원가 경쟁력 확보를 동시에 달성하고자 합니다. 이러한 배터리 소재 기술 내재화는 현대자동차의 전기차 시장 선점을 가속화하고, 그룹의 기술 경쟁력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현대자동차는 전기차 캐즘(Chasm)을 극복하기 위한 전략으로 다양한 고객의 요구사항을 만족시킬 수 있는 경쟁력 있는 배터리 솔루션 확보에도 힘쓰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성능형 NCM 배터리와 저가형 LFP 배터리 외에도 기존 모델 대비 10% 이상 저렴한 보급형 NCM 배터리를 신규 개발하고 있습니다. 또한 현대자동차는 2024년 대비 배터리 에너지 밀도를 20% 이상 개선하는 등 배터리 케미스트리의 다양화를 통해 2030년 전기차 판매 목표 달성과 친환경차 성능 구현을 위한 솔루션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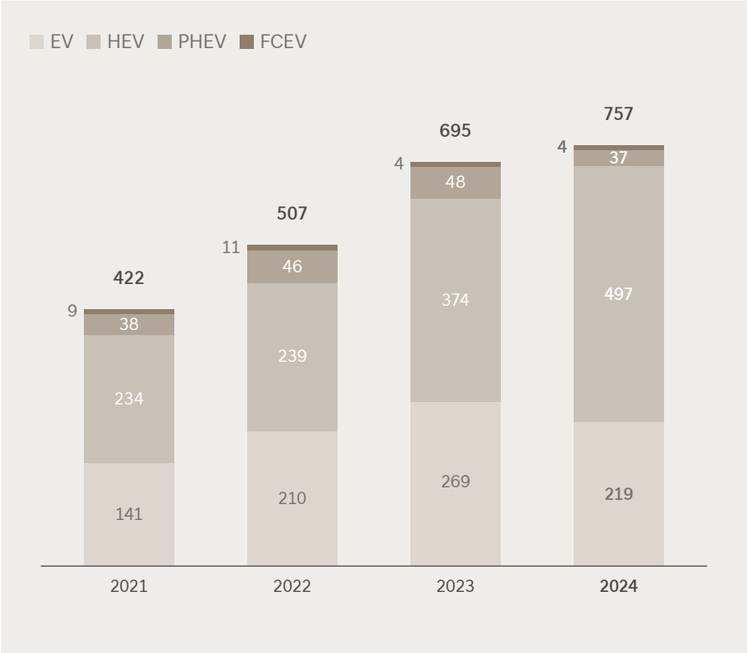
현대자동차의 BMS(Battery Management System)를 통해 실시간 셀 진단 및 이상 징후 감지 기술과 잠재적인 불량을 사전에 검출할 수 있는 기능을 적용하고 있으며, 향후 AI 모델 기반으로 배터리의 건강 상태를 모니터링하여 배터리 수명을 관리하는 기능을 개발하는 등 안전 기술을 지속적으로 고도화하고 있습니다. 배터리 시스템 측면에서도 셀의 폼팩터와 관계없이 이머전시 벤트, 내화재, 열전이 방지 구조 등의 기술개발을 통해 배터리 셀 발화 시 열 전이를 막는 기술을 개발하여 전기차 안전성 향상에 기여하고 전기차 대중화를 위한 기반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친환경차 확대

• 전기차(EV) 현대자동차는 2016년 친환경차 전용 모델 아이오닉 개발을 시작으로 2018년 소형 SUV 전기차 코나EV를 공개하였습니다. 2020년에는 E-GMP 기반의 전용 전기차 브랜드 아이오닉을 론칭하였으며, 2021년 아이오닉 5, 2022년 아이오닉 6에 이어 2025년 아이오닉 9을 출시하였습니다. 2024년 4월에는 새로운 전동화 비즈니스 플랫폼인 'ST1'의 물류 특화 모델인 카고와 카고 냉동을 출시하였습니다.

• 하이브리드(HEV), 플러그인 하이브리드(PHEV) 아이오닉, 아반떼, 코나, 쏘나타, 투싼, 싼타페, 그랜저 등 대형 SUV와 소형 세단을 제외한 모든 차종에서 하이브리드 모델을 선보이고 있습니다. 또한, 아이오닉, 쏘나타, 투싼, 싼타페 차종에서는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라인업을 출시하고 있습니다. 향후 2030년 하이브리드와 플러그 인 하이브리드 판매를 전체 판매량의 23.5%까지 확대할 계획입니다.

글로벌 시장 친환경차 판매량 (단위: 천 대)



• 수소전기차(FCEV) 현대자동차가 2018년 최초 출시한 넥쏘는 최대 항속거리 611km(미국 인증), 충전 소요시간 약 5분(1회당 6.33kg 충전)의 성능을 가진 대표적 수소전기차이며, 2025년 향상된 성능의 완전변경모델인 2세대 넥쏘를 출시하였습니다. 현대자동차는 수소전기차 리더십을 확장하여 일렉시티 수소전기 버스와 엑시언트 수소전기 트럭을 양산하고 있습니다. 또한 2024년 10월에는 수소전기차 콘셉트카 '이니시움(INITIUM)'을 최초로 공개하는 등 수소전기차 라인업을 지속적으로 확대해나가며 수소 사회 실현을 가속화하고 있습니다. 2024년 현대자동차의 수소전기차 판매량은 약 4천 대입니다.

• 기타 대체연료 차량 현대자동차는 바이오에탄올과 CNG(압축천연가스) 등을 이용한 지역특화 대체연료 모델도 지속적으로 출시하고 있습니다. 남미의 바이오에탄올 수요에 맞추어 혼합연료차 HB20을 판매하고 있습니다. 향후 2030년까지 혼합연료 차량과 LPG 차량 판매 비중을 각각 3.6%, 0.5%로 확대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기타 대체연료 차량 판매량 (단위: 대)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혼합연료 모델	186,573	195,485	191,348	200,253
CNG 모델	1,489	1,581	1,180	913
LPG 모델	48,851	42,803	41,495	99,111
합계	**236,913**	**239,869**	**234,023**	**300,277**

기후변화 대응

전기차 배터리 성능 및 효율 최적화 현대자동차 전용 전기차 배터리는 배터리 성능 70~80% 도달 시 최대 250,000~300,000km 주행 가능하도록 설계되었으며, 이는 고객이 연간 20,000km 주행 가정 시 12~15년 누적 사용이 가능합니다. 전기차에 일반적으로 쓰이는 리튬이온 배터리는 25-35도 부근에서 최적화된 충전 속도 및 긴 주행거리 등 최고의 성능을 발휘합니다. 현대차는 배터리의 적정 온도 수준을 유지하기 위해 다양한 '열 관리 기술'을 개발 및 적용하고 있습니다. 특히 겨울철 배터리 방전 현상을 방지하는 현대차그룹의 배터리 승온 기술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현대차는 전기차 제조 시 배터리 팩의 온도 조절을 위해 흐르는 냉각수 유입구에 히터를 위치시키고, 이 배터리 히터가 냉각수를 가열해 배터리의 온도를 높이는 방식의 승온 기술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나아가 현대자동차는 배터리의 열관리 기능이 주행거리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충전 스테이션의 외부 에너지를 활용할 수 있는 '외부 열 관리 스테이션'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이는 충전 시 외부에서 필요한 온도의 냉각수를 주입하여 배터리 온도를 최적화하는 기술로, 배터리 잔량은 보존하면서 배터리 온도를 조절함에 따라 충전 속도를 최대로 높일 수 있습니다.

현대자동차는 배터리 성능 개선과 동시에 이용자의 편의 제고를 위한 기술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기술로는 배터리 히터를 활용한 전기차 편의 기능인 '배터리 컨디셔닝 모드'가 있습니다. 해당 기능은 내비게이션에서 급속 충전소를 경유지나 목적지로 설정할 때 작동하며, 주행 중 배터리 온도를 제어함으로써 충전 시 초기 저항을 줄여 충전 속도를 단축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외에도 배터리 셀 에너지 밀도 향상 기술, 배터리 소재 연구 등 다양한 배터리 기술 연구개발과 구조 설계를 수행하며 전기차 대중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전기차 모델별 공인전비 현황

모델명	한국(복합)[1]	유럽(WLTP)[2]	미국(EPA)[2]
Electrified G80	4.3 km/kWh	19.1 kWh/100km	97 MPGe
Electrified GV70	4.6 km/kWh	19.2 kWh/100km	91 MPGe
Electrified GV60	5.1 km/kWh	17.0 kWh/100km	112 MPGe
코나 Electric	5.5 km/kWh	14.7 kWh/100km	120 MPGe
아이오닉 5	5.2 km/kWh	17.0 kWh/100km	114 MPGe
아이오닉 6	6.0 km/kWh	14.3 kWh/100km	140 MPGe

1) Electrified G80(19인치, 공차중량 2,265kg 기준), Electrified GV70(19인치, 공차중량 2,230kg 기준), GV60(스탠다드 2WD 모델), 코나 Electric(Long Range 공차중량 1,720kg 기준), 아이오닉 5(Long Range 2WD 익스클루시브, 빌트인 캠 미적용 기준), 아이오닉 6(Long Range 2WD, 18인치 기준)
2) 유럽, 미국은 각 모델별 대표 트림 기준으로 선정

4 연비 개선

연비 테스트 공신력 강화 현대자동차는 한국, 북미, 유럽, 중국, 인도 등 주요 판매국가의 연비 관련 법규를 준수하며, 연비 인증을 획득하고자 각 국가의 기준에 따라 연비 테스트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통제된 상황(온사이클)에서 실시하는 연비 및 배출가스 측정의 신뢰성을 향상시키고자 한국인정기구(KOLAS), 한국자동차연구원(KATECH) 등 외부 전문기관으로부터 연비 측정 시설을 점검받고 있습니다. 또한, 각종 국책 연구소 등과 공동으로 연비 테스트를 수행하여 연비 측정 결과의 공신력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연구개발 담당임원에게 연 1회 이상 온사이클 테스트 및 오프사이클 테스트 비교분석 결과를 보고하고 있습니다.

• 실도로(오프사이클) 연비 테스트 차량의 연비는 주행상황에서의 기어변속, 차량중량, 공조상태 등 내부적인 요인뿐만 아니라, 도로환경, 교통체증 등 외부적인 요인까지 다양한 변수가 작용합니다. 따라서, 현대자동차는 다양한 요인이 통제된 상황(온사이클)에서의 연비 테스트와 더불어, 실제 도로와 유사한 주행 프로파일을 적용하여 오프사이클 테스트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 제3자 기관 협업 현대자동차는 연비 관련 실도로(오프사이클) 테스트 결과와 타 기관들의 연비측정 결과 간의 상관성 분석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미국 시장에서는 EPA, J.D. Power, Consumer Reports 등 제3자 기관이 발표한 연비 데이터와 비교하며, 유럽 시장에서는 Green NCAP, Auto Bild, Spritmonitor 등의 제3자 기관 데이터와 비교하고 있습니다. 각 국가별 제3자 기관과 연비 측정 결과를 비교함으로써 당사 연비 테스트 결과의 공신력을 제고하고 있습니다.

주요 판매시장 플릿 평균 탄소 배출량(연비) 규제 대응 주요국에서 시행되고 있는 플릿 평균 CO_2 배출 규제 또는 기업 평균 연비규제는 해당 국가들의 탄소감축 목표 달성을 위해 지속적으로 강화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EU는 2023년 2월, 승용차 CO_2 배출량을 2021년 대비 2030년까지 55% 감축, 2035년까지 100% 감축하여 EU 내 차량 CO_2 배출량을 제로화하는 규제 목표를 확정한 바 있습니다. 미국 정부도 연비규제 목표치를 2026MY(Model-Year)까지 1갤런 당 49.1마일로 높이는 내용의 규제안을 발표했으며, 2030MY까지 신차 판매의 50%를 전기차(EV·PHEV·FCEV 포함)로 대체하겠다는 목표를 제시하였습니다. 미국 캘리포니아 주 정부는 2026MY부터 신차 판매의 35%, 2030MY부터는 68%를 전기차를 포함한 탄소배출 제로 차량으로 대체하고 2035MY부터는 내연기관 신차 판매를 금지할 계획입니다.

현대자동차는 주요 지역별 CO_2 규제 강화에 대응하여 전기차 판매를 확대하여 지역별 플릿 평균 탄소 배출량을 감축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연간 판매물량 계획 시 전기차 물량을 포함한 규제 대응 물량을 산출하여 반영하고 있습니다.

기후변화 대응

주요 판매시장별 플릿 평균 탄소 배출량(연비) 규제 대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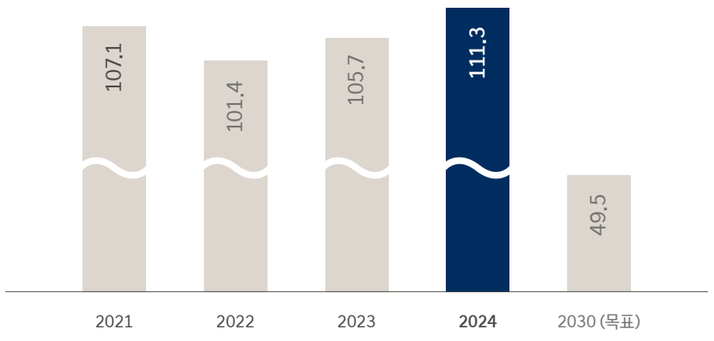
한국 시장

한국은 차량 배출가스를 2020년 97g/km에서 2025년 89g/km, 2030년 70g/km으로 감축하도록 자동차 온실가스 관련 제도를 강화하였습니다.
배출량 허용 기준 초과 시, 1g당 5만 원의 과징금이 부과됩니다. 또한, 한국 정부는 전기차, 수소차, 하이브리드 등 친환경 자동차를 2025년까지 283만 대 보급하고, 2030년까지 785만 대 보급하여 배출가스를 24% 감축하는 기본계획을 제시하였습니다.

EU 시장

EU는 현행 승용차 95g/km, 소형 상용차 147g/km인 EU 산업 평균 탄소 배출량 기준을 2021년 대비 2025년까지 15%, 2030년까지 55% 감축하는 목표와 2035년 승용차에서 발생하는 배출가스를 100% 감축하는 목표를 EU의회 의결을 통해 확정했습니다. 이러한 규제로 인해 사실상 2035년부터 EU 시장 내 내연기관 신차 판매는 불가능하며, 노르웨이, 네덜란드, 독일 등은 개별 회원국 차원에서 2035년보다 빠른 시기에 내연기관 신차 판매를 금지하는 정책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EU 평균 CO_2 배출량 (단위: g/k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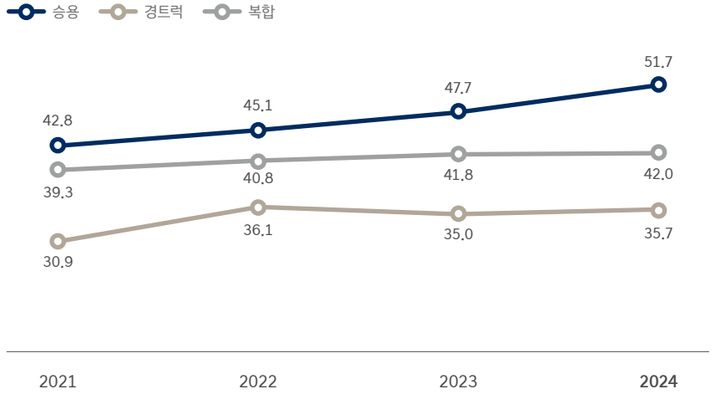


* 2024년 수치는 당사 판매실적에 기반한 자체 추정치이며, 향후 유럽집행위원회(EC) 최종 수치 확정이 필요함
** 2022,2023년 수치는 당사 판매실적 기반 추정치에서 유럽집행위원회 최종 확정수치로 정정함

미국 시장

미국 정부는 1갤런 당 40마일(64.4km)인 평균 연비를 2026MY(Model-Year)까지 49.1마일(79km)로 상향했으며, 1마일 당 224g의 온실가스 규제도 2026MY까지 161g으로 감축하는 목표를 제시하였습니다. 또한, 2035MY까지 연방정부와 주정부 모두 친환경차 전환 촉진을 위한 구매보조금 지급을 확대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연방정부는 2030MY까지 전체 차량의 50%를 전기차를 포함한 무공해 차량으로 전환하는 목표를 제시하였고, 캘리포니아주정부는 2035MY부터 내연기관차 판매를 금지하는 정책을 추진 중입니다.

미국 평균 연비 (단위: mp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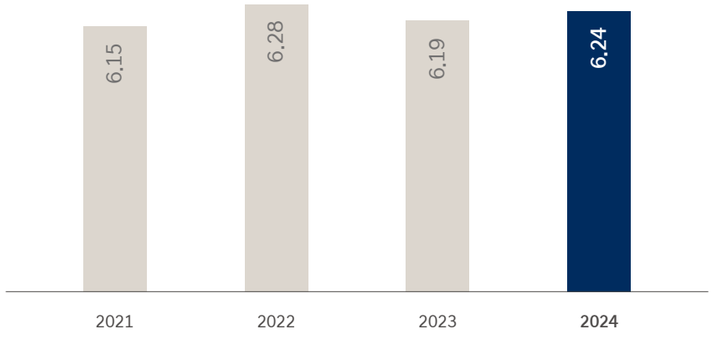


* 미국과 중국의 평균 연비는 매년 해당 정부기관(미국 도로교통안전국, 중국 공신부)이 공시한 자동차 브랜드별 평균 연비실적을 반영함
** 2024MY 수치는 당사 판매실적 기반한 자체 추정치임. 향후 미국 도로교통안전국(NHTSA) 최종 수치 확정이 필요함

중국 시장

중국정부도 연비규제를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있으며, 전기차를 포함한 신에너지자동차 의무 판매 규제도 강화하고 있습니다. 특히 신에너지 차량(NEV) 의무 판매 비중을 2025년 20%, 2030년 40%, 2035년 50%로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2035년 NEV 중에서 전기차 비중 95% 이상을 달성하는 목표를 수립하였습니다.

중국 평균 연비 (단위: L/100km)



* 2024년 수치는 당사 판매실적에 기반한 자체 추정치이며, 향후 중국 공신부 최종 수치 확정이 필요함

기후변화 대응

5 전과정평가(Life Cycle Assessment)

LCA 방법론 현대자동차는 원소재 채취로부터 부품 제조, 부품 수송, 차량 제조, 차량 유통, 차량 운행, 폐기에 이르기까지 차량의 전과정에 걸친 환경영향을 평가하기 위하여 ISO 14040 및 14044 국제표준을 기반으로 전과정평가(LCA, Life Cycle Assessment)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2024년 기준 LCA를 수행한 차종의 비율은 62.2%으로, 모든 차종의 전과정평가는 Full-LCA 방식으로 수행되었습니다.

LCA는 EU PEF[1)]에서 채택하고 있는 EF(Environmental Footprint) 3.1 방법론을 적용하여, 기후변화(Climate change, GWP)를 포함한 13개 지표에 대해서 평가하고 있습니다. 해당 지표는 오존층 파괴, 미세먼지, 전리방사선, 광화학 오존생성, 산성화, 부영양화(토양, 담수, 해양), 토지 이용, 수자원 부족, 자원사용(광물 및 금속, 화석연료) 입니다. 차량 수송 및 유통, 전력 등의 에너지 사용, 오염물질 배출량 등은 사업장에서 측정한 실제 데이터를 적용하였습니다. 또한, 전기차의 운행 단계는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따른 미래의 전력 생산에 대한 영향을 예측하였습니다.

현대자동차는 국제 표준 ISO 14040/44에 적합하며 과학적/기술적으로 유효하다는 내용의 프로세스 인증을 외부 인증기관(TÜV Rheinland)으로부터 취득하여 국제 표준에 부합하는 방법론으로 LCA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1) EU Product Environmental Footprint, EU 제품 환경영향 평가 방법론

LCA 활용 현대자동차는 LCA 결과를 기반으로 전 과정 각 단계별 환경영향을 종합적으로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차량의 친환경성 개선 활동을 발굴·추진하고 있습니다. 원소재 채취 단계에서는 탄소저감 철강 및 알루미늄 소재를 확대하고, 부품 제작, 차량 생산 단계에서는 RE100 및 자원순환 등을 통한 탄소중립을 실천할 것입니다. 신차 개발 시, 전과정평가 결과를 고려하여 환경영향을 최소화하는 모델을 개발하고자 합니다.

LCA 결과 2024년에는 15개 차종에 대한 전과정평가를 완료하였으며, 2024년까지 LCA를 수행한 누적 차종은 전체 36개 차종입니다. 현재 반영되어 있지 않은 부품 제조 단계는 추후 LCA 방법론을 고도화하여 보완할 예정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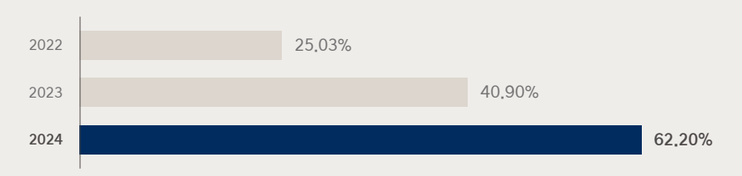
LCA 범위 정의

2) 2024년까지 수행된 현대차 LCA에서는 제외되었으며, 2025년부터 점진적으로 반영 예정

LCA 항목 구성

생태계 영향						자원 사용			인체 건강
산성화 (AP)	미세먼지 (PM)	부영양화 (EP)	기후변화 (GWP)	오존층 파괴 (ODP)	광화학 오존형성 (POCP)	자원 고갈 (광물, 화석 연료)	토지이용	수자원 부족	전리 방사선

3개년 Full-LCA 수행 차종 판매 비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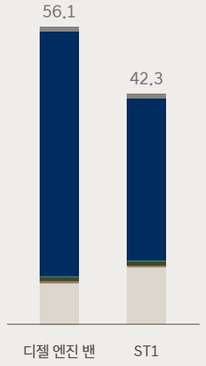
BUSINESS CASE

2024년 현대자동차 최초 PBV (ST1) LCA 수행

현대자동차는 LCA를 통해서 차량의 잠재적인 환경영향을 정량적으로 파악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구체적인 개선점을 발굴하고 차량의 전반적인 환경성을 개선해 나가고자 합니다. 2024년 현대자동차는 새로 출시된 모델인 싼타페, 캐스퍼 EV와 ST1, 그리고 기존에 출시되었던 차종 중 대표 모델인 쏘나타 등에 대한 LCA를 수행하였습니다. 특히 ST1은 국내 최초로 PBV(Purpose Built Vehicle, 목적 기반 모빌리티) 개념을 적용한 차량으로, 전동화 비즈니스 플랫폼을 통해 사용자 목적에 따라 다양한 형태로 변형이 가능한 모델입니다. 자율주행 기술과 친환경 전동화 기술이 결합된 ST1은 미래 모빌리티의 중요한 솔루션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LCA 수행 결과, ST1의 지구 온난화 영향도(Global Warming Potential, tCO_2-eq)는 디젤 엔진 밴 모델 대비 약 25% 낮은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전기를 에너지원으로 사용하는 ST1은 운행 중 온실가스를 배출하지 않기 때문에, 전기 생산 시 발생하는 환경영향을 고려하더라도 기존 디젤 엔진 밴 모델 대비 확실한 환경적 이점이 있습니다. 반면 내연기관 자동차에서 사용하지 않았던 다양한 소재들이 ST1에 사용되며 원소재 채취 단계에서의 환경 영향이 비교적 높게 나타났습니다. 향후 재생에너지의 도입으로 전기 생산의 환경영향이 점차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원소재 채취 단계에서의 환경영향은 전과정 관점에서 점차 더 중요해질 것입니다. 현대자동차는 이를 개선하기 위해 대체 부품이나 친환경 재활용 소재의 개발 적용에 힘쓰고 있습니다.

(단위: tCO_2-eq/대)



전과정단계	디젤 엔진 밴	ST1
원소재 채취	9.0	11.7
부품 수송	0.04	0.04
제조	0.5	0.3
유통	0.1	0.1
운행	45.8	29.7
폐기	0.7	0.6
합계	**56.1**	**42.3**

원소재 채취 부품 수송 제조 유통 운행 폐기

* ST1 특수장비 미장착 기준

기후변화 대응

6 공급망 탄소 감축

2025 자동차부품산업 ESG/탄소중립 박람회 2025년 4월, 협력사의 지속가능한 미래 경쟁력 확보 지원을 위해 국내 최초 공급망 ESG/탄소중립 박람회를 개최하였습니다. 탄소중립 분야를 중심으로 총 111개 협력사가 즉시 적용가능한 실효성 있는 다양한 ESG 관련 솔루션을 전시하였고, 협력사 임직원 8천여명 포함 총 1만2천여명이 참석하였습니다. 그리고 1·2차 협력사의 지속가능경영 강화를 위해 대표자들을 대상으로 지속가능경영을 위한 당사 정책 소개 및 각 테마별 전문가 강연을 실시하였습니다. 이번 박람회를 통해 협력사 대표자의 ESG/탄소중립 등 지속가능경영 분야 이해도가 향상되었고, 협력사 사업장에도 새로운 솔루션을 적용할 계획이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설문결과 : ESG/탄소중립 이해도 향상 응답 87%, 사업장 적용 계획 있음 응답 80%)

협력사 탄소감축 지원 현대자동차는 협력사의 탄소배출량과 감축계획을 조사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협력사 탄소감축을 지원하는 다양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탄소다배출 핵심 협력사를 중심으로 관리체계 강화를 위한 온실가스 인벤토리 구축 사업과 탄소감축 로드맵의 수립 및 이행을 지원하는 사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협력사 자체적으로 탄소중립 이행 체계가 내재화된 이후에는 탄소다배출 협력사에 대해 3자 인증기관을 통한 탄소감축 관리체계로 전환할 예정입니다.

철강 소재 탈탄소화 현대자동차는 차량 주 재료로 사용되는 철강 소재에 대해서도 탈탄소화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2026년부터 국내/유럽 생산 예정인 일부 차종에 대해 고로 생산 철강 대비 약 20% 탄소 감축효과(철 스크랩 재활용 및 전기로 활용)가 예상되는 탄소저감 철강을 우선적으로 적용하고, 탄소 감축효과가 반영된 철강 도입에 따른 품질 점검 및 탄소 배출량 점검 프로세스 수립 등 탈탄소화를 위한 액션 플랜을 구체화해 나갈 예정입니다. 특히, 2029년 북미 루이지애나 주에 준공 예정인 현대제철 제철소를 통해서 당사의 북미 생산거점 포함 글로벌 물량 증대분에 대해 전기로로 생산된 철강을 공급받는 것을 검토 중입니다.

CDP Supply Chain 참여 현대자동차는 CDP Supply Chain에 가입하여 약 360개의 1차 협력사를 대상으로 공급망 탄소 감축 노력에 대해 객관적인 데이터를 수집하고 있습니다. CDP Supply Chain이란 환경정보공개 프로젝트 중 하나로 협력사의 기후변화 관련 이슈 및 전략, 탄소배출량 등의 정보를 수집하고, CDP에서 발표하는 평가 등급을 통해 각 사의 대응 수준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평가 등급에 따라 차별화된 맞춤형 교육과 하위등급 협력사를 대상으로 하는 1:1 집중 컨설팅을 진행함으로써 공급망 기후변화 대응 역량을 강화하고 탄소중립에 대한 협력사의 인식을 제고합니다.

부품 LCA 산정지원 LCA 산정지원 프로그램은 원소재 채취부터 사업장에서의 부품제조 및 부품 수송 단계까지 협력사의 전과정에서 발생하는 탄소배출량을 산정하고 탄소다배출 공정을 객관적으로 확인하고 감축활동을 원활하게 지원하는 활동입니다. 당사는 협력사의 부품 전과정평가(Life Cycle Assessment) 수행 능력 제고를 위해 외부 전문기관과 협력하여 3년간(2023년~2025년) 운영지원 프로그램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당사는 차량 LCA 단위의 탄소감축 활동을 체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기반을 구축할 수 있습니다.

공급망 탄소중립 단계별 로드맵

1단계 (2019~2024)	2단계 (2025~2029)	3단계 (2030~)
공급망 탄소중립 기반 구축	공급망 탄소중립 목표 수립 / 이행체계 구축	공급망 탄소중립 이행 강화
• 협력사 CDP Supply Chain 참여 • 협력사 부품 LCA 산정 역량 강화	• 협력사 탄소배출량 제3자 검증 • 협력사 부품 LCA 내재화 • 협력사 탄소감축 아이템 발굴 및 감축 실행	• 협력사 재생에너지 도입 확대 • 친환경 소재 확대 적용

협력사 탄소감축 지원 활동

활동명	활동 내용
협력사 대상 교육 및 인식 제고	• 대표자: 협력사 파트너십데이 개최, 현대자동차 탄소중립 전략 발표 • 임직원: 협력사 탄소중립 역량강화 교육 개설·운영(글로벌상생협력센터)
CDP Supply Chain 참여	• 협력사 대상 교육 컨설팅(배출량 산정, 질의서 안내 등) 운영 • 저평가사 대상 역량향상 위한 1:1 맞춤형 컨설팅 프로그램 운영
부품 LCA 산정지원	• 원소재 채취부터 부품제조 및 부품수송 단계까지의 탄소배출량 산정 지원 • 탄소 다배출 제조공정 파악을 통한 감축 활동 지원
협력사 탄소감축 관리 시스템 지원	• 탄소 배출량의 체계적 모니터링을 위한 전산 관리시스템 구축 및 제공 • 탄소 다배출사 탄소배출 인벤토리 구축 및 탄소감축 로드맵 수립 지원
협력사 탄소저감 설비 구매지원 사업	• 중견/중소기업 대상 고효율 장비 교체 지원을 통한 에너지 비용 절감 및 탄소감축 유도 (자동차부품산업진흥재단과 협업, 2023~)

저탄소 물류·운송 생태계 조성 화물이 생산공장에서 물류창고로 이동하는 '퍼스트마일' 단계에서부터 물류창고에서 각 거점으로 이동하는 '미들마일' 및 '라스트마일' 단계까지 배출되는 탄소를 감축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퍼스트마일 단계에서는 장거리 주행에 적합한 수소전기 트럭을 투입하고, 미들마일 및 라스트마일 단계에서는 전기 트럭을 투입하는 등 전기차, 수소차, 도심항공 모빌리티, 로보틱스 등 신기술을 활용하여 물류·운송 서비스 생태계의 탄소배출량 감축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또한, 현대자동차는 2030년까지 물류·운송 분야의 전동화 보급 확대를 위하여 현대글로비스, 국토교통부, 산업통상자원부, 환경부와 다자간 업무협약을 체결하였으며 2030년까지 물류 현장에 수소 화물차 1만대를 보급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공급망 탄소정보 공개 및 물류·운송 에너지 효율화 서비스 활동

현대자동차 협력사 탄소정보 공개	목표	• 협력사 탄소배출량 정보 공개를 통해 당사 공급망 탄소감축 전략 구체화 및 지원방안 수립
	교육 및 지원 현황	• CDP Supply Chain 평가 지원 및 역량 향상 프로그램 운영 • 부품 LCA 산정 지원 및 컨설팅 프로그램 운영
	향후 활용 방안	• SCEMS[1]를 활용한 협력사 사업장 및 부품의 탄소배출량 데이터베이스 구축
현대글로비스 물류·운송 에너지 효율화 서비스	포장 효율화 달성	• 접철식 플라스틱 박스[2] 개발을 통한 포장재 회수 과정에서의 에너지 저감 • 협력사와 협업을 통한 포장 효율화 추구 및 물류 에너지 효율화 확대
	친환경 운송수단 전환	• 연안해송 운송방식을 통한 에너지 효율 제고 및 온실가스 배출량 저감
	화물차량 에코 드라이빙	• 물류사업 내 통합운송관리시스템 고도화 및 화물차량 연비 개선 • 전 차량에 디지털 운행 기록계(DTG, Digital Tachograph) 장착으로 실시간 데이터 분석을 통한 연비 개선 활동 모니터링

1) Supplier CO_2 Emission Monitoring System(협력사 탄소배출량 모니터링 시스템)

2) 접철식 플라스틱 박스는 자동차 부품 포장재로 활용한 후 빈 용기로 회수할 때 최고 5분의 1 크기로 접어 부피를 줄임으로써 회수용 컨테이너에 들어갈 수 있는 박스 양이 크게 증가

기후변화 대응

7 수소 사업 확장

HTWO Grid 수소는 다양한 방식으로 생산 및 활용이 가능하며, 높은 에너지 밀도로 인해 저장과 수송이 용이합니다. 이러한 특성으로 인해 수소는 기존 화석연료를 대체할 수 있는 현실적인 대안으로 평가받고 있어 수소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현대자동차그룹은 저탄소 에너지 사회로의 전환에 있어 수소의 중요성과 경제성을 선제적으로 인지하고 1998년 연료전지와 수소전기차 연구개발을 시작으로 수소 사회로의 전환을 선도해왔습니다.

이후, 현대자동차그룹은 세계 최초 수소전기차 및 수소전기 대형트럭 양산 등을 통해 수소 사업 성과를 달성하며, 2020년 수소연료전지 브랜드 'HTWO' 런칭에 이어 2024년 CES에서 'HTWO Grid'를 공개하였습니다. HTWO Grid는 수소의 생산, 저장, 운송 및 활용 전반에 걸친 맞춤형 솔루션으로, 수소 산업의 모든 밸류체인을 연결하는 현대자동차그룹의 새로운 브랜드입니다. 특히 지난 30년동안 수소 모빌리티를 선도해온 기업으로서 현대자동차가 보유한 핵심 역량과 현대자동차그룹의 다양한 산업 역량의 시너지를 통해 현대자동차그룹은 모빌리티 기업을 넘어 글로벌 에너지 전환 리더로서 수소 에너지 생태계를 구축해나가고자 합니다.

• **자원순환형 수소 생산** 현대자동차그룹은 유기성 폐기물을 수소로 전환하는 W2H(Waste-to-Hydrogen) 기술을 개발하여 청정 수소를 생산함과 동시에 폐기물 자원 처리를 위한 효과적인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현재 대한민국 충주에서 현대건설과 현대로템이 협업하여 1일 기준 60톤의 음식물 쓰레기 및 유기성 폐기물을 활용하여 500kg 규모의 수소를 생산하고 있으며, 수소차까지 통합적으로 상업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2024년 청주 내 하수 슬러지를 활용한 W2H 시설을 신규 가동하고 있으며, 나아가 폴란드와 인도네시아에도 W2H 시설을 건설 중에 있습니다. 특히, 현대자동차그룹은 인도네시아에서 정부 및 국영기업과 자원순환형 수소 생태계 조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리묵티 매립지를 복도해 자연재해를 예방하고, 복토를 마친 매립지에서 추출한 바이오가스를 현대로템의 수소 개질기를 이용해 청정 수소로 변환할 예정입니다. 이를 위한 타당성 조사를 완료하였으며, 국내 자원순환형 수소 생산 실증 사업을 해외로 확장한 첫 사례입니다.

• **항만 및 공항 탈탄소화** 현대자동차는 화석연료 의존도가 높은 물류 산업 허브의 탄소 감축을 위해 수소 에너지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미국 '캘리포니아 항만 친환경 수소전기트럭 도입 프로젝트(NorCAL ZERO)'에 참여하여 2023년 9월 오클랜드 항구에 총 30대의 엑시언트 수소전기트럭을 공급했습니다. 이는 북미 최대 규모의 대형 수소 연료전지 트럭 단일 배치 사업으로, 기존 탄소 고배출 화물 트럭들을 대체하는데 기여하고 있으며, 미국 정부의 수소 인프라 구축 프로젝트인 'H2Hub'에도 참여하며 수소 연료전지 기술의 우수성을 입증하고 있습니다. 또한 2024년, 현대자동차와 인천국제공항공사는 미래 모빌리티 혁신을 통한 공항의 디지털 전환을 위한 업무협력 양해각서(MOU)를 체결하여 물류용 수소 트럭과 지게차 도입, 수소연료전지 적용 전기 셔틀버스 도입 및 수소 충전소 구축 등 수소 에너지 시스템 구축 및 수소 인프라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 **수소연료전지 시스템 라인업 확장** 현대자동차는 2013년 세계 최초로 수소전기차를 양산하며 수소 모빌리티 시장을 선도해왔습니다. 현대자동차는 HTWO Grid 솔루션을 기반으로 수소 기술의 적용 범위를 차량을 넘어 수소 트램, 수소 선박, 수소 비행기와 같은 새로운 영역으로 사업을 확장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현대자동차와 HTWO는 2040년에는 수소에너지가 '누구나, 모든 것에도, 어디에서나(Everyone, Everything, Everywhere)' 쓰이는 수소 사회를 실현하겠다는 비전을 함께 공유합니다. 현대자동차는 그룹사와의 전략적 협업을 통해 수소연료전지 기반의 친환경 모빌리티 솔루션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수소연료전지시스템을 활용한 수소지게차 실증사업과 수소전기트램 개발 프로젝트를 성공적으로 추진하며 수소 생태계 확장을 선도하고 있습니다. 또한, 모빌리티 영역을 넘어 이동형 수소연료발전기 개발을 통한 전기차 충전 인프라 혁신과 데이터센터용 비상발전시스템 구축 등 비차량 부문에서의 수소연료전지 기술 적용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2024년 6월에는 현대모비스로부터 국내 수소연료전지사업을 전격 인수하여 R&D본부 수소연료전지개발센터 내 '수소연료전지 공정품질실'을 신설하고, 제조기술, 양산품질 담당 조직을 편제하는 등 수소 기술 내재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대자동차는 이를 통해 차세대 모빌리티 플랫폼에 최적화된 수소연료전지 시스템을 개발하고, 통합 솔루션 제공자로서 소프트웨어 지원, 시스템 설치 및 유지보수, 맞춤형 금융 서비스에 이르는 수소 생태계 구축에 기여할 계획입니다.

• **청정 물류사업** 현대자동차그룹은 2024년 초 GLOVIS America와 합작하여 'HTWO Logistics' 법인을 설립하고, 현대자동차그룹 최초의 전기차 전용 공장 HMGMA에 친환경 물류 사업 솔루션을 도입하고 있습니다. HTWO Logistics는 HMGMA 공장의 부품 및 완성차 운송을 위해 엑시언트 수소전기트럭을 공급하였으며, 이는 HMGMA 생산 시설의 약 절반 수준에 해당하는 물류 수요를 처리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어 기존 디젤 트럭 대비 탄소 배출을 크게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HTWO Grid

수소 밸류 체인

업스트림	미드스트림		다운스트림	
생산	운반	충전	활용	
Waste-to-Hydrogen	수소운반	수소 충전소 (고속 충전)	연료전지시스템	상용차 (트럭 / 버스)
Plastic-to-Hydrogen	암모니아 (전환/보관/운반)	모바일 충전소	발전기	승용차 (NEXO)
PEM 수전해	액화수소 (보관/운반)	L2G 충전 (Liquid to Gas)	중장비 (지게차, 건설장비 등)	트램/기차
암모니아 크래커			그린스틸	비행기 및 선박
			수소버너 / 터빈	

수소산업 협력 강화

• **수소위원회(Hydrogen Council)** 세계경제포럼(다보스포럼) 개최 기간 중 발족식을 개최한 수소위원회는 전 세계적 차원의 에너지 전환에 있어 수소기술의 역할을 강조하기 위해 구성된 최초이자 유일한 글로벌 CEO 협의체입니다. 현대자동차, 토요타, BMW, 에어리퀴드 등 글로벌 기업 140여 개로 구성되어 있으며, 2015년 파리협정의 목표를 성공적으로 이행하기 위한 활동들을 함께 논의하고 있습니다. 특히, 2018~2020년에는 현대자동차 정의선 회장이 공동의장으로 역임하였고, 2024년부터는 장재훈 부회장이 공동의장을 역임하여 수소경제 구현을 위한 글로벌 국가 및 민간 차원의 적극적인 협력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기후변화 대응

8 사회적 탄소 감축

탄소포집 및 활용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서는 자동차 제조 공정에서의 화석연료 사용을 중지해야 하지만, 이를 위한 에너지 전환 목표 시점에 도달하는 데에는 많은 시간이 소요됩니다. 그 과도기에 화석연료 연소로 인해 배출된 CO_2를 포집하여 처리하는 CCUS(Carbon Capture Utilization & Storage) 기술이 현실적인 해결 방안이자 잠재력이 높은 탄소중립 수단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CCUS 기술을 자동차 사업뿐만 아니라 다른 사업 분야에도 활용할 수 있게끔 상용화하기 위해 연구소에서 CCUS 실증연구를 진행하고 있으며, 시장 모니터링 또한 지속적으로 수행하고 있습니다.

대기중 탄소 포집 및 활용 산학 연구 현대자동차그룹은 대기중 탄소 포집 및 에너지 전환 기술을 개발하고자 국내 5개 대학과 함께 '탄소중립 공동연구실'을 설립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2026년까지 현대자동차그룹과 참여 대학들이 공동으로 공기 중 탄소를 포집하고 이를 소재나 에너지로 전환하는 기술을 연구할 계획입니다.

탄소중립 공동연구실은 'DAC(Direct Air Capture, 공기중에서의 탄소포집) 분과'와 'CO_2 활용 분과' 등 두 개 분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DAC 분과'는 대기 중에 0.04% 농도로 존재하는 CO_2를 효율적으로 포집하기 위한 기술을 연구할 예정이며, 'CO_2 활용 분과'는 포집된 CO_2를 메탄올, 메탄, 카본 물질 등으로 변환해 합성연료 및 배터리용 소재로 만드는 연구를 수행할 것입니다. 기초 기술을 확보한 이후 차량 장착이 가능한 이동형 탄소 포집 장치를 비롯해 사업장과 빌딩 등에 활용이 가능한 대용량 고정형 모듈 시스템 등을 개발해 비즈니스 모델을 구축한다는 목표를 세웠습니다.

이러한 산학 연구를 통해 대기 중의 탄소까지 적극적으로 포집하고 이를 유용한 에너지로 변화시키는 탄소중립의 핵심 기술을 개발하여 기후변화 대응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BUSINESS CASE

블루카본 확보를 위한 동해 바다숲 조성 프로젝트

현대자동차는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탄소상쇄 전략의 일환으로 해양 생태계 복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023년 현대자동차는 해양수산부, 한국수산자원공단과 함께 '해조류 블루카본(Blue Carbon) 개발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 데 이어, 2024년 1월에는 울산광역시, 한국수산자원공단과 함께 '바다숲 조성사업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바다숲'은 연안 해역에서 해조류들이 무성하게 자라 숲과 비슷한 형태를 이루며, 다양한 해양 생물의 서식지입니다. 바다숲은 우수한 생태계적 가치를 가지며, 해양 생태계에 의해 흡수되는 탄소를 일컫는 '블루카본' 확대에도 기여한다고 평가받습니다. 한국수산자원공단의 '바다숲 사업 성과' 현황에 따르면 바다숲 1km^{2}당 연간 약 337톤의 이산화탄소를 흡수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현대자동차는 업무협약을 통해 2024년부터 2027년까지 울산시 동구와 북구 2개 해역에 총 3.96km^2 규모의 바다숲 복원을 추진 중이며, 연간 약 1,300[1]톤의 탄소 감축 효과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바다숲 복원을 위해 해조류 직접 이식과 모조주머니 시설 등의 방법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2024년에는 해조류 종자 확산을 위한 수중저연승 시설을 조성하고, 모조주머니 시설을 통해 단시간 내 대량의 포자 방출을 유도하였습니다. 또한, 해역 특성에 적합한 대상생물의 재생산 및 조식동물[2] 개체수 조절과, 갯닦기 활동을 통해 각종 수자원의 서식 환경을 개선하였습니다.

바다숲 조성은 탄소 상쇄뿐만 아니라 생물다양성 향상, 오염 정화 등 해양 생태계 전반의 환경을 개선하는 활동입니다. 해조류 생체량의 증가와 더불어 종 다양성을 개선할 수 있으며, 중금속(질소, 인 등) 제거로 해양 수질을 정화하기도 합니다. 이에 따른 수산 자원의 지속가능성 확보를 통해 지역사회 어업 발전에 동참하고자 합니다. 나아가 기후변화 완화에 기여하는 것을 목표로 해조류 블루카본 확대를 위해 탄소 크레딧의 활용 방안 및 바다숲 블루카본 자원량 조사 등에 참여할 계획입니다.

이에 앞서, 현대자동차는 2023년 7월 출범한 한국수산자원공단, 국내외 학계 및 글로벌 NGO 등으로 이루어진 '바다숲 블루카본 협의체'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협의체는 현재 기후변화 영향 평가 기구인 IPCC(기후 변화에 관한 정부간 협의체)에서 해조류를 블루카본 공식 흡수원으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협력하고 있습니다. 현대자동차는 R&D 지원 및 파일럿 프로젝트 참여를 통해 객관적이고 정량적인 데이터베이스를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블루카본 크레딧의 잠재적 수요처로서 해조류 블루카본 솔루션의 리더 포지션을 선점하고자 합니다.

1. 울산 바다숲 조성 사업 MOU
2. 해조류 직접 이식
3. 조식 동물 구제

1) 바다숲 1km^{2}당 연간 337tCO_2 저감 효과(포항공대, 2019)
2) 조식동물: 해조류를 먹으며 자라는 동물로 성게, 소라, 군소 등이 해당

기후변화 대응

기후 관련 전환 계획

• 탄소중립 추진 현대자동차는 지속가능한 지구환경을 미래세대에 물려주고 인류를 위한 옳은 일을 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2021년 9월 IAA 모빌리티에서 2045년 탄소중립 달성을 위한 '기후변화 통합 솔루션'을 발표했습니다. 클린 모빌리티(Clean Mobility), 차세대 이동 플랫폼(Next Generation Platform), 그린 에너지(Green Energy)를 핵심으로 전동화 역량 확대와 신재생 에너지 전환 등을 통해 미래 세대를 위한 지속 가능한 운영 체제를 확립할 예정입니다. 더불어 모빌리티 전반 밸류체인 전체의 탄소중립 달성을 목표로 순환 경제 생태계를 구축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입니다.

• 탄소중립 목표 현대자동차는 2045년까지 차량의 원소재 채취 단계부터 제조, 제품 사용, 폐기까지 전 밸류체인에서의 탄소중립 달성을 위한 중장기 목표를 수립하였습니다. 차량 생산 과정에서 발생하는 온실가스 배출(Scope 1,2)을 감축하기 위해 태양광 패널 등을 활용하여 재생에너지 전력을 직접 생산하고 있습니다. 이에 더하여 재생에너지 PPA(전력구매계약) 체결, REC 구매 등의 방법을 활용하여 2045년까지 RE100(Renewable Energy 100%)을 달성할 것입니다. 이를 통해 기준연도인 2023년 Scope 1+2 온실가스 배출량(2,275,751tCO_2-eq) 대비 2035년까지 약 60%, 2045년까지 100%를 감축하는 목표를 수립하였습니다. 원소재 및 부품 조립 단계에서 발생하는 온실가스 배출(Scope 3 - Category 1)은 주요 협력사의 에너지 전환 지원 및 핵심 원소재 공급망 관리 등을 통해 감축할 계획입니다. 특히 차체 및 섀시 부품의 주요 원자재인 철강과 알루미늄에 대해 재활용 소재를 활용하고 탄소 배출이 적은 소재를 도입할 예정입니다. 현대자동차의 탄소중립 목표는 고객의 차량 운행과정(Tank to Wheel)에서 발생하는 온실가스 배출(Scope 3 - Category 11) 감축까지 포함하고 있습니다. 2035년까지 유럽 시장 내 100% 전동화, 2040년까지 주요 시장 100% 전동화를 달성하여 운행과정에서 탄소배출이 없는 전기차 판매를 확대할 것입니다. 이를 통해 기준연도인 2023년 Scope 3 - Category 11 배출량(114,132,523 tCO_2-eq) 대비 2035년까지 약 40%, 2045년까지 약 90% 감축할 계획입니다.

현대자동차는 2045년 탄소중립 시점에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잔여 탄소 배출을 처리하기 위해 탄소 포집과 활용 기술인 CCUS(Carbon Capture Utilization & Storage)에 투자하고, 폐배터리를 에너지저장장치로 재활용하거나 해양 생태계를 복원하는 등의 탄소 상쇄 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입니다. 또한 수소연료전지 시스템을 기반으로 수소발전 및 공정을 통해 수소사업과 탄소중립의 시너지를 극대화할 계획입니다.

기후 관련 목표(탄소중립 목표) 달성 계획

• 사업장 탄소중립 실현 현대자동차는 파리협정의 방향성과 목표를 적극 지지하며, 전 지구적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기업의 역할과 책임을 인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측면에서 재생에너지로의 전환 및 고효율 모터, 인버터 적용 등 생산 공정의 에너지 효율화, 수소 에너지 등을 활용해 2045년까지 사업장 탄소중립을 목표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단기적으로는 RE100 로드맵과 연계하여 제조 과정에서 사용하는 전기에너지부터 우선 재생에너지로의 전환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장기적으로는 수소사회 구현과 연계하여 주요 제조 공정에 그린수소 적용과 재생에너지 사용을 확대해 2045년 탄소중립을 달성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 전동화 현대자동차는 탄소 감축을 넘어 탄소중립을 달성하기 위해 2035년까지 유럽 시장 100% 전동화 및 2040년까지 주요시장의 모든 판매 차량 100% 전동화 전환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대형 트럭 및 버스 등 상용차의 경우, 전동화 확대 노력뿐만 아니라 제품의 기술 및 상품성 강화를 통해 전동화 시대의 글로벌 리더십을 확보하고자 합니다.

• 공급망 탄소중립 지원 현대자동차는 전 세계적 트렌드인 기후변화, 탄소중립 및 ESG 경영에 발맞추어 협력사의 품질과 기술력 향상뿐만 아니라 탄소중립 이행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우선 주요 협력사를 대상으로 탄소배출 현황을 점검하고, 핵심관리 협력사를 선정하여 가이드라인을 제시할 것입니다. 더불어 특성에 따라 그룹화된 협력사별로 감축 활동을 진행하고, 탄소중립 교육과 인식 제고를 비롯한 공급망 협업 프로그램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특히, 탄소배출 비중이 높은 원소재 업체의 경우, 소재 재활용과 신소재 활용 확대 등 자동차 설계 기술 연계 공동대응을 추진할 것입니다.

• 기술 기반 탄소 감축 현대자동차는 탄소배출 감축 외에도 탄소의 흡수와 제거, 자원 재활용 등의 활동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2012년 CCUS 기술을 개발하여 한국에서 적용하고 있으며, 폐배터리를 재활용하고 폐차 단계에서의 재활용을 극대화할 수 있는 설계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휠가드, 언더커버, 배터리 트레이 등 부품에는 재활용 플라스틱을 적용하고 있으며, 아이오닉 6의 생산에 친환경 소재를 적극 활용하고 있습니다.

기후변화 대응

기후 관련 재무적 영향

기후 관련 시나리오 분석 방법 및 시점

• 기업이 사용한 시나리오에 대한 정보 현대자동차는 기후변화로부터 발생할 수 있는 위험과 기회에 체계적으로 대응하고자 정성 및 정량적인 방법론을 활용하여 전환 및 물리 시나리오 분석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사용된 시나리오의 원천은 주로 IEA, IPCC이며, 일부 정보의 경우 내부 분석자료를 활용하였습니다.

시나리오		정의	기간 범위	출처	사업범위
전환	NZE (1.4°C)	2050년까지 세계 에너지 부문의 넷제로 달성 경로를 제시하는 시나리오	~2050	IEA World Energy Outlook	현대 자동차 자동차 부문 전체
	APS (1.7°C)	각국 정부와 기업이 2023년 8월까지 약속한 기후 목표 달성을 가정하는 시나리오			
	STEPS (2.4°C)	현재 각 부문 및 국가에서 시행중인 에너지 관련 정책을 기반으로 한 시나리오			
물리적	SSP1-2.6 (2°C 이하)	2050년 넷제로 달성을 통해 지구 온도 상승을 2도 이하로 억제하는 시나리오	~2050	IPCC	현대 자동차 자동차 부문 32개 사업장
	SSP2-4.5 (2~3°C)	온실가스 배출에 의해 기온 상승폭이 2도를 넘는 시나리오			
	SSP5-8.5 (4°C 이상)	온실가스 배출에 의해 기온 상승폭이 4도를 넘는 최악의 시나리오			

전환 시나리오 분석을 통한 재무영향 분석

전환 위험 분석

자동차 연비 규제 강화

위험요인

글로벌 CO_2 배출 규제가 강화되면서 선진지역(국내, EU, 미국, 캐나다)과 신흥지역(중국, 인도, 브라질, 사우디아라비아) 모두 규제 기준을 초과할 경우 페널티가 부과됩니다. 당사 내부 분석 결과 미국, 중국과 사우디아라비아에서 향후 수년 내에 규제 기준을 초과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대응 현황 및 계획

현대자동차는 연비 규제 대응을 위해 규제 동향을 모니터링 하며, 내부적으로 연비 실적을 분석 및 보고하고 있습니다. 특히 중장기 규제 전망과 실적 예측을 바탕으로 발생 가능한 비용을 추정하여 사업 계획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배출권 거래제 규제 강화

위험요인

현대자동차는 국내 배출권거래제(K-ETS) 대상으로서, 할당된 연간 배출 허용량을 초과할 경우 배출권 구매 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향후 배출권 가격 전망에 따라 기존 집약도(대당 배출량)를 유지할 경우, 2030년 기준(70% 무상할당 가정) 약 최소 880억 원에서 최대 2,200억 원의 배출부채 발생이 예상됩니다.

대응 현황 및 계획

현대자동차는 탄소배출량을 저감하기 위해 2045 탄소중립 로드맵을 수립하였습니다. 이에 기반하여 재생에너지 확대, 사업장 설비 개선 및 효율화 등 배출권 구매를 최소화하고 기후 회복력을 제고하고자 합니다. 탄소중립 로드맵 이행 시, 2030년 기준 잉여 배출권 판매로 약 최소 50억 원에서 최대 140억 원의 수익 발생이 예상됩니다.

EU 탄소국경세(CBAM) 시행

위험요인

2026년부터 EU CBAM 규정에 따라 지정된 품목을 EU 역내로 수입할 경우 수입자는 탄소가격을 지불해야 합니다. 이에 따라 체코공장(HMMC)의 경우 일부 부품의 탄소가격 지불(인증서 구매)로 추가 비용이 발생할 수 있으며, 시나리오에 따른 배출권 가격 전망에 따라 2030년 기준 연간 약 21억 원의 재무영향이 예상됩니다.

대응 현황 및 계획

CBAM 정책 동향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장기적으로는 CBAM 인증서 구매에 필요한 수입 물량을 점진적으로 축소하면서 제도 시행에 따른 재무적 부담을 최소화하고자 합니다.

미국 인플레이션감축법(IRA) 시행

위험요인

미국의 IRA는 배터리 핵심 광물 조건[1] 및 배터리 부품 요건[2]을 충족할 경우 3,750달러 세액공제를 부여합니다. 이러한 보조금 제도는 소비자에게 직접적인 경제적 혜택을 제공함에 따라 전기차 수요에 중대한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세액공제 조건 미충족시 단기적으로는 시장 점유율의 하락, 장기적으로는 경쟁력 상실로 이어질 위험이 존재합니다.

대응 현황 및 계획

현대자동차는 30만 대에서 최대 50만 대의 전기차 생산 능력을 갖춘 미국의 HMGMA를 완공하여 안정적인 공급망을 구축하였습니다. 특히 기존 공장 생산 설비의 현대화 및 효율화에 집중적으로 투자하며 글로벌 정책 동향 및 시장 변화에 유연하고 신속하게 대응하고자 합니다.

1) 배터리 제조에 필요한 핵심광물 40% 이상을 미국 또는 FTA 체결 국가에서 조달
2) 배터리 제조 과정에서 전체 부품 중 50% 이상을 북미에서 생산 또는 조립

기후변화 대응

전환 기회 분석

전동화 전환 가속화

기회요인

전동화 전환은 현대자동차에게 새로운 성장 기회를 제공합니다. 특히 전기차와 내연기관차 가격 간의 Price Parity가 달성되고 친환경 정책의 영향으로 시장의 전동화 전환 속도가 가속화되면서 전기차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시나리오 분석 결과 전기차 수요 증가에 따라 현대자동차의 매출은 2030년 기준 약 최소 30조 원에서 42조 원까지 상승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대응 현황 및 계획

현대자동차는 전기차 시장의 성장 기회를 포착하기 위해 적극적인 행보를 이어갈 계획입니다. 전기차의 생산 및 판매를 지속 확대할 예정이며, 2040년 내로 주요 시장의 모든 판매차량 100% 전동화 전환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이러한 중장기 사업계획을 고려하였을 때 현대자동차의 전기차 매출은 2030년 기준 약 최소 39조 원에서 54조 원까지 추가 상승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에너지 전환

기회요인

전기요금이 지속적으로 상승하는 가운데, 재생에너지로의 전환은 탄소 배출 저감은 물론 에너지 비용 절감의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이에 현대자동차는 2045년까지 재생에너지 100% 사용(RE100)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대응 현황 및 계획

현대자동차는 2045년 RE100 달성을 위해 태양광 패널 설치 및 PPA 계약 체결 등 재생에너지의 점진적 확대 적용을 목표로 최적의 솔루션을 적용할 계획입니다. 이러한 재생에너지 전환 계획을 반영할 시 2030년까지 약 660억 원의 전력비 절감 효과가 예상됩니다. 재생에너지 활용을 적극 확대해 나간다면 환경과 비용 두 가지 측면에서 긍정적인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입니다.

기후테크(수소) R&D 투자

기회요인

수소는 기후테크의 중요한 영역으로 R&D 투자 증가에 따라 수소시장이 더욱 활성화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특히 저탄소 사회로의 전환이 가속화됨에 따라 탈탄소를 위한 중요한 에너지원으로 수소의 역할이 부각되고 있습니다. 현대자동차는 이러한 시장 흐름을 반영하여 2024년 수소 에너지 기술과 사업 역량을 강화하는 '에너지 모빌라이저(Energy Mobilizer)'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대응 현황 및 계획

현대자동차는 수소 에너지 자체 생산 기술과 도시 전체를 아우르는 통합 솔루션을 기반으로 수소사회, 스마트 시티 등을 포함한 지속가능한 미래를 실현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 승·상용 수소전기차 라인업을 구축하고, 수소 에너지의 저장, 운송, 충전은 물론 생산까지 아우르는 수소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특히 2024년부터 2033년까지 10년간 '에너지 모빌라이저(Energy Mobilizer)' 전략에 5조 7,000억 원을 투자하여 수소 에너지 기술과 사업 역량을 강화하는 동시에 수소 밸류 체인의 사업화를 위한 외부 파트너십을 맺는 등 수소 생태계 구축을 가속화하고 있습니다.

기후변화 대응

물리적 시나리오 분석을 통한 재무영향 분석 현대자동차는 물리적 리스크의 재무적 영향을 분석하기 위해 IPCC 제6차 평가보고서의 저탄소 시나리오(SSP1-2.6)와 고탄소 시나리오(SSP5-8.5)를 활용했습니다. 과학적 분석을 위해 기후 모델링 기반의 기후 리스크 분석 전문 툴인 Jupiter Intelligence를 사용하였으며, 일부 재해의 경우 최대 90m 간격으로 분석 단위를 세분화하여 보다 정밀한 고해상도 분석을 수행했습니다. 급성 위험(강풍, 침수, 산불, 우박/뇌우, 폭우)과 만성 위험(폭염, 가뭄, 한파)의 8가지 재해에 대해 리스크를 분석했으며, 이 중 강풍, 침수, 산불, 폭염에 대해서는 정량적 재무영향을 도출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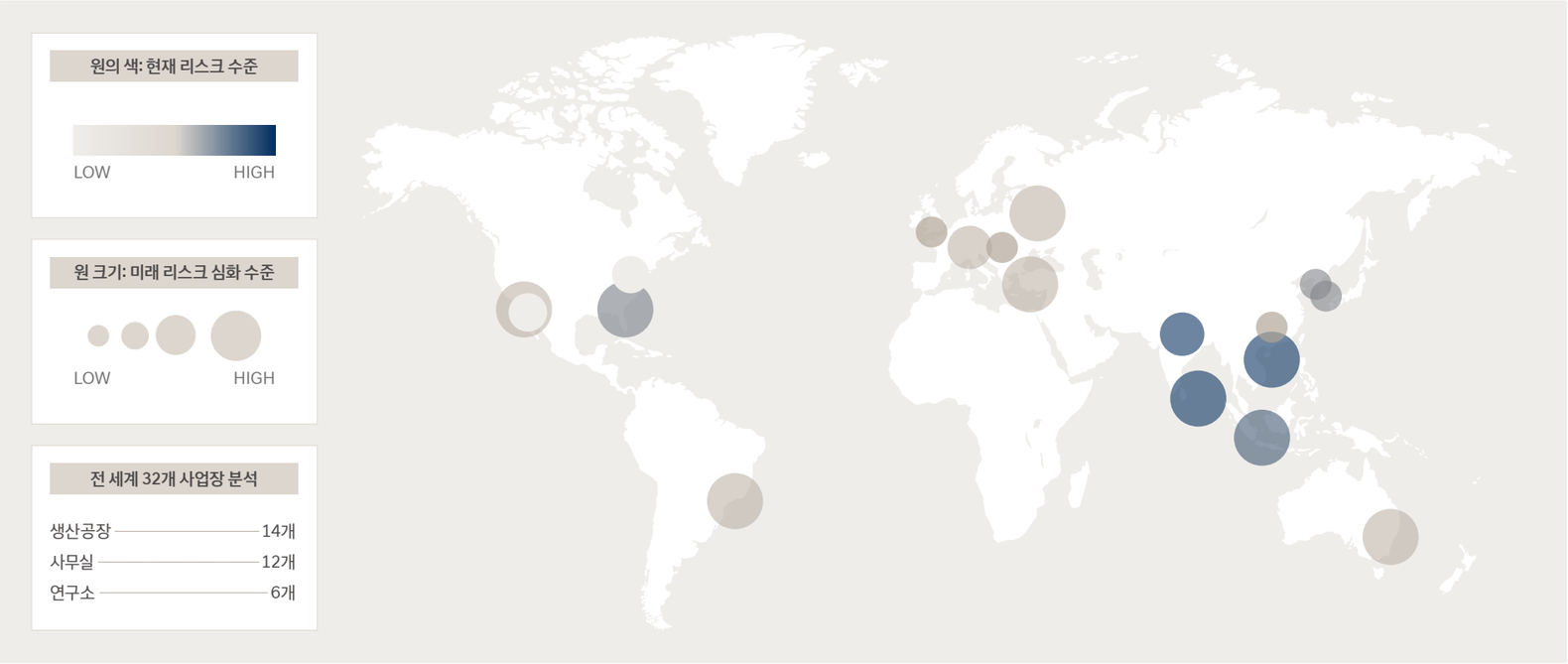
분석 대상은 현대자동차의 전 세계 32개 사업장(14개 생산 법인, 12개 일반 사무실, 6개 연구소)이며 정량적 재무 영향 분석을 위해 2023년 유형자산(건물, 기계장치 등) 및 재고자산과 사업장별 3개년 평균 매출액을 활용했습니다.

재무영향은 1995년을 기준년도로 5년 단위로 산정되며, 분석 대상 매출 및 자산의 2030년 손실 금액은 약 2,200억 원(SSP 1-2.6) ~ 3,000억 원(SSP 5-8.5) 수준으로 예측 되었습니다. 재해별 영향경로의 경우 강풍, 침수, 산불 등 급성 재해는 건물, 설비, 재고 등 자산가치를 손상시킬 수 있으며, 이는 판매제품의 생산중단을 초래하여 매출 감소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또한 폭염에 따른 만성적 기후패턴 변화는 직원들의 생산성을 저하시키며 매출 감소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물리적 위험은 현대자동차의 사업모형 중 '제품의 생산제조'에 주로 영향을 미칩니다. 이러한 분석 결과를 토대로 고위험 지역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대응전략 수립을 통해 회복탄력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030, 2040, 2050년 재무적 영향 분석결과

구분	2030년		2040년		2050년	
시나리오	SSP 1-2.6	SSP 5-8.5	SSP 1-2.6	SSP 5-8.5	SSP 1-2.6	SSP 5-8.5
재무영향(억 원)	2,200	3,000	4,300	7,100	5,500	12,200

SSP5-8.5 시나리오 2050년 물리적 리스크 분석 결과



재해별 영향 분석 결과

재해	분석결과
폭염	• 지구온난화에 의해 모든 사업장의 폭염 리스크는 현재보다 증가될 것으로 예측
산불	• 현재 산불 리스크는 캘리포니아와 인도에 집중된 반면, 향후 전반적인 지역에서 현재보다 리스크가 상승하여 산불 리스크 지역이 확대될 것으로 전망
강풍	• 전체 사업장 중 한국(울산)의 강풍 리스크가 가장 높으며, 일부 지역은 현재보다 리스크 하락할 것으로 전망
침수	• 독일 및 베트남의 침수 리스크는 현재와 동일하게 지속적으로 높은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전망
한파	• 지구온난화에 의해 모든 사업장의 한파 리스크는 현재 보다 하락할 것으로 예측
가뭄	• 대부분의 사업장에서 가뭄 리스크는 미래에도 현재 수준을 유지하거나 소폭 하락할 것으로 전망
폭우	• 현재 폭우 리스크는 아시아 지역에 집중되어 있으나, 향후 브라질, 호주, 미국(앨라배마) 등 폭우 리스크 지역이 확대될 것으로 예측
우박/뇌우	• 전체 사업장의 우박/뇌우 리스크는 지속적으로 미미할 것으로 예측

기후변화 대응

지역별 재무영향 분석 결과

○ Very Low ○ Low ○ Moderate ● High ● Very High

지역	시나리오	기후재해 재무영향 정도											
		폭염 (Heat)			강풍(Extreme Wind Speed)			산불 (Wildfire)			침수 (Flood)		
		2030	2040	2050	2030	2040	2050	2030	2040	2050	2030	2040	2050
동북아시아 (한국, 중국)	SSP1-2.6												
	SSP5-8.5												
동남아시아 (베트남 등 3개국)	SSP1-2.6												
	SSP5-8.5												
오세아니아 (호주)	SSP1-2.6												
	SSP5-8.5												
아메리카 (미국 등 3개국)	SSP1-2.6												
	SSP1-8.5												
유럽 (독일 등 5개국)	SSP1-2.6												
	SSP5-8.5												

사업장 유형별 재무영향 분석 결과

○ Very Low ○ Low ○ Moderate ● High ● Very High

지역	시나리오	기후재해 재무영향 정도											
		폭염 (Heat)			강풍 (Extreme Wind Speed)			산불 (Wildfire)			침수 (Flood)		
		2030	2040	2050	2030	2040	2050	2030	2040	2050	2030	2040	2050
생산공장 (울산공장 등 14개)	SSP1-2.6												
	SSP5-8.5												
사무실 (양재본사 등 12개)	SSP1-2.6												
	SSP5-8.5												
연구소 (남양연구소 등 6개)	SSP1-2.6												
	SSP5-8.5												

물리적 위험 요인 및 주요 대응 활동

물리적 위험 요인 식별 및 대응

폭우/침수

위험요인

- 공장 및 시설 침수 피해 발생
  - 공장 배수로 침수, 딜러 시설 및 차량 침수
- 집중폭우 및 홍수로 인한 인프라 접근성 저하
- 시설 침수 및 고객 접근성 저하로 인한 생산/영업 활동 차질 발생

대응 활동

- 신공장 건설 시 해발고도 기준 반영, 배수능력 최대 확보 등 기상요건 고려
- 침수 예방 및 대응 체계 마련
  - 주기적인 배수로 관리, 노후 배수시설/지붕 점검 및 교체
  - 수방자재 확충 및 전기기구 노출 점검
  - 호우 발생 상황 모니터링 및 공장 외부 침수 제어
  - 물유입 방지 바리케이드 설치 및 도로 교통 통제
- 차량 피해 지원 및 복구 대책 운영
  - 침수차량/시설 지원, 재고차 융자, 딜러 정비 지원 등

우박

위험요인

- VPC 내 대기/재고 차량 덴트 및 손상 발생

대응 활동

- 우박 피해 예방 시스템 구축
  - Anti-hail Cannon 시스템 설치
- 재고 차량 사전 대피 및 보호
- 우박 피해 보험 가입을 통한 손실 최소화

강풍 – 태풍/허리케인/사이클론/토네이도 등

위험요인

- 시설 및 자산 피해
  - 지붕, 건축물 목재, 유리창 손상 등 물리적 피해
- 송전시설 파손으로 인한 전압 강하 및 전력 이용 차질
- 제조 중 차량 및 판매차량 피해 지원 및 복구 비용 증가
- 시설 파손, 차량 공급 차질 등으로 인한 생산/영업 차질 발생

대응 활동

- 시설 보강 및 관리
  - 건축물 안정성 인증 획득
  - 노후시설(지붕, 배관, 거터) 교체, 방풍 식재 이식, 수목 지지대 점검
  - 시설 유틸리티 관리실 및 공급통로 보강 점검 및 피해 방지 설비 구축
  - VPC(Vehicle Processing Center) 등 완성차량 보관 장소(야외 야드)의 정기적 청소
- 비상 대응 체계 운영
  - 신속한 생산 재개를 위한 비상대응팀 운영
  - 토네이도 대피소 운영
  - 미국 연방 재난 관리청 (FEMA) 가이드라인 준수 등 비상대응매뉴얼 운영

기후변화 대응

위험관리

기후 관련 위험 및 기회 관리

기후변화 위험 및 기회 관리 프로세스 현대자동차는 기후변화 이슈에 대한 전사 차원 대응을 위해 지속적으로 위험과 기회 요인을 식별·평가 및 관리하고 있습니다. 각 권역 및 조직별로 파악된 기후변화 이슈는 본사 Strategy & Governance로 전달되며, Strategy & Governance는 각 이슈별 위험과 기회 요인을 도출하고, 각 요인들이 회사에 미칠 수 있는 전략적·재무적 영향을 평가하여 전사적 대응 전략을 수립합니다.

• 식별단계 식별단계에서는 C-level 경영위원회(Management Committee Meeting)를 통해 기후변화로 현대자동차가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위험과 기회 요인에 대하여 각 권역 및 조직별 이슈사항을 파악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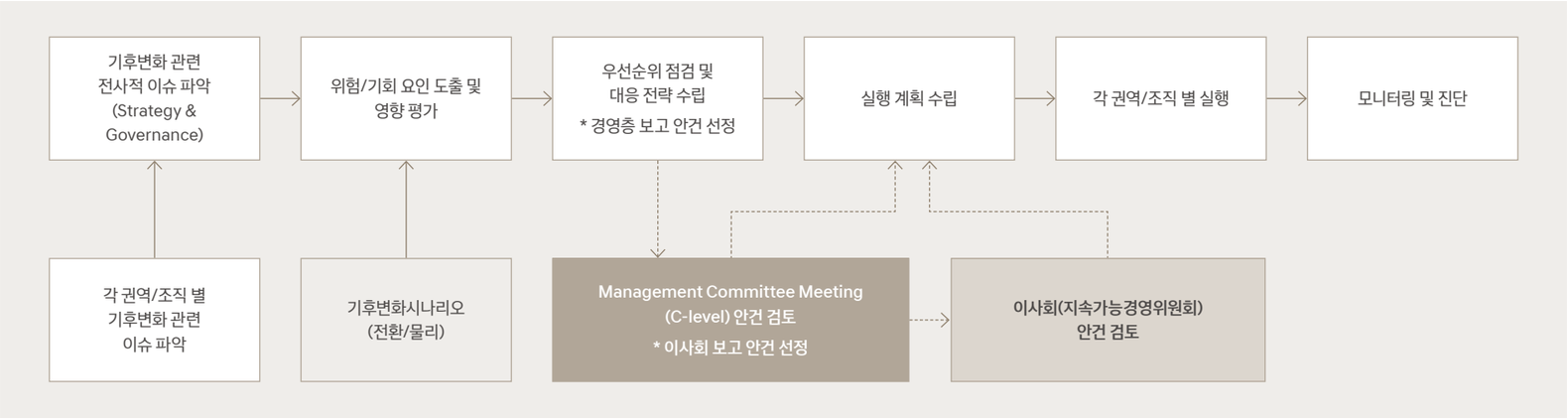
• 평가 및 보고단계 본사 Strategy & Governance가 식별단계에서 파악된 요인과 이슈가 회사에 미칠 수 있는 전략적·재무적 영향을 파악하여 중대성에 따라 CEO에게 전달되거나 C-level 경영위원회(Management Committee Meeting)를 거쳐 이사회에 보고하고, 의사결정이 이루어집니다.

• 관리단계 의사결정된 기후변화 이슈는 해당 권역·조직의 실무분과별 KPI에 주체적으로 반영됩니다. Strategy & Governance와 유관조직이 협업함으로써 다양한 영역에서 기후변화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위험 및 기회 식별 및 평가 방법 현대자동차는 기후변화 시나리오 분석을 활용하여 기후 관련 위험 및 기회를 식별하고 평가합니다. TCFD 권고안을 바탕으로 기후변화가 산업 및 현대자동차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기 위해 STEEP(Social, Technology, Economic, Environmental, Political) 구분별 동력요인(Driving Forces)을 식별했습니다. 이 중 영향도, 불확실성, 적합성 등을 평가하여 핵심 동력요인을 도출했습니다. 영향도는 회사의 사업 모델과 가치사슬에 미치는 영향(조달, 생산, 판매)과 회사의 자원 배분에 미치는 영향(예산 책정, 투자 및 R&D, 사업 인수 및 매각, 인재 확보 등)을 기준으로 평가했습니다. 불확실성은 동력 요인이 회사 및 산업에 미치는 영향의 예측 가능 정도를 평가했습니다.

핵심 요인이 현대자동차의 재무 및 사업모형에 미치는 영향 경로를 설계하여 IEA의 NZE, APS, STEPS 시나리오 따라 각 전환 위험 및 기회 요인의 재무영향을 산출하고 영향의 강도를 분석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현대자동차는 기후변화에 따른 중요한 위험 및 기회 요인을 파악하였으며, 각 요인이 시나리오별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여 대응 전략을 수립하고 기후 회복력을 제고합니다.

기후변화 위험/기회 식별·평가·관리 프로세스



지표 및 목표

기후 관련 지표

Scope 1, Scope 2 배출량 (단위: tCO_2-eq)

구분	2022년	2023년	2024년[1]
Scope 1	719,949	696,590	679,822
Scope 2 (지역 기반)	1,853,813	1,831,531	1,726,829
Scope 2 (시장 기반)[2]	1,684,120	1,579,161	1,417,987
Scope 1+2 합계[3]	2,404,069	2,275,751	2,097,809
Scope 1+2 합계 배출 집약도 (자동차 1대 생산 시 발생하는 온실가스)	0.601	0.531	0.506

Scope 3 배출량 (단위: tCO_2-eq)

구분		2022년	2023년	2024년
Category 1	공급망(원소재 및 부품 구매)	19,852,763	23,518,427	22,971,847
Category 2	자본재(비품 및 기자재 구매)[4]	326	134	164
Category 3	기타 에너지 관련 활동(Scope 1/2 제외)[4)5)9)]	235,960	330,875	323,711
Category 5	운영 과정에서 발생한 폐기물 처리[6]	1,978	217,737	225,938
Category 6	임직원 출장[4]	21,370	26,994	7,205
Category 7	임직원 출퇴근(통근용 버스)[4]	6,617	8,895	8,553
Category 9	생산된 차량의 운송(해운 및 육상)[4)9)]	1,457,289	1,504,972	1,505,041
Category 11	판매된 차량의 사용(Tank to Wheel)[7]	109,278,795	114,132,523	114,199,544
Category 12	판매된 차량의 폐기(회수, 분해, 처리)	2,133,743	2,323,327	1,845,796
Category 13	임대자산(본사 및 임대 사옥)[4]	539	1,447	1,055
Category 15	투자[8)9)]	4,946,073	6,060,822	6,164,300

1) HMGICS 배출량은 포함되지 않았으며, HMGICS의 2024년 배출량은 2025년 하반기 제3자 검증 예정
2) Scope 2 배출량: 2022년부터 시장 기반(Market-Based) 방식의 배출량 산정 추가
3) 2022년부터 Scope 1과 Scope 2(시장 기반) 배출량의 합계로 산정
4) 본사가 위치한 국가 기준
5) 사업장에서 소비한 연료의 업스트림 배출 (전기, 스팀 제외)
6) 2023년부터 산정 범위 확대(해외 사업장 폐기물)로 인해 배출량 증가
7) 차량의 동력이 되는 에너지가 주유/충전되기 이전 단계(Well to Tank)의 배출은 제외된 수치
8) 현대자동차가 20%이상 지분을 소유하고 한국 증권시장에 상장된 피투자회사들 중 6개사의 Scope 1 및 Scope 2 온실가스 배출(보유 지분율 고려하여 산정)
9) 산정 방법론 변경으로 인해 2022~2023년 배출량 재산정

기후변화 대응

• 배출량 측정을 위한 접근법 온실가스 배출량 측정을 위해 적용한 지침은 아래와 같으며, 통제력기준(Control Approach)의 운영통제력(Operational Control)을 사용하였습니다.

측정 접근법

구분	지침
Scope 1, 2	• The Greenhouse Gas Protocol: A Corporate Accounting and Reporting Standard(Revised Edition) • The Greenhouse Gas Protocol: Scope 2 Guidance 탄소중립기본법(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의 배출량 보고 및 인증에 관한 지침) • IPCC Guidelines for National Greenhouse Gas Protocol and Accounting Tool • 기타 관할 당국 및 상장 거래소에서 요구하는 온실가스 배출량 산정 기준
Scope 3	• GHG Protocol Corporate Value Chain(Scope 3) Accounting and Reporting Standard(2011)

* 2차 IPCC(Intergovernmental Panel on Climate Change,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간 협의체) 평가의 100년을 기준으로 한 GWP(Global Warming Potential, 지구온난화지수) 값을 사용하여 6가지 온실가스 종류(CO_2, CH_4, N_2O, HFCs, PFCs, SF_6)를 이산화탄소환산량으로 변환

투입변수 및 가정

구분		투입 변수	
		활동 데이터	배출 계수
Scope 1	고정 연소	도시가스(LNG), 경유, 등유, 프로판 사용량	2006 IPCC 국가 인벤토리 가이드라인 기본 배출계수
	이동 연소	휘발유, 경유, 부탄, 제트용 등유, CNG	이동연소의 연료별, 온실가스별 기본 배출계수
	탈루	냉매	N/A
Scope 2	외부 전기	2024년도 전력 사용량	국가고유 전력배출계수 적용
	외부 스팀	2024년도 스팀 사용량	2024년도 공급처 스팀배출계수 적용 및 국가 스팀배출계수
Scope 3	공급망(원소재 및 부품 구매)	2024년 차종별 생산량	(완성차) 제조 전단계 배출계수
	자본재(비품 및 기자재 구매)	기자재 구매량	기자재 평균 배출계수(LCI DB)
	기타 에너지 관련 활동(Scope 1/2 제외)	연료 사용량	생산기준 배출계수
	운영 과정에서 발생한 폐기물 처리	폐기물 처리기준별 처리량	처리기준별 배출계수
	임직원 출장	국외 출장 (항공거리), 국내출장 (이동수단별 거리)	국외 출장 (항공 배출계수), 국내출장 (이동수단별 배출계수)
	임직원 출퇴근(통근용 버스)	모든 통근차량의 연간 연료사용량 (통근차량 대수 × 평균속도 × 운행시간 × 근무일수 ÷ 평균연비)	수송(경유) 배출계수
	생산된 차량의 운송(해운 및 육상)	현대글로비스의 자동차 운송용 배출량 데이터	N/A
	판매된 차량의 사용(Tank to Wheel)	2024년 차종별 판매량	차종별 사용단계 배출계수(gCO_2/km) × 200,000km
	판매된 차량의 폐기(회수, 분해, 처리)	2024년 차종별 판매량	차종별 폐기단계 배출계수
	임대자산(본사 및 임대 사옥)	건물 전체 도시가스 및 전력 사용량 × 임대비율	2006 IPCC 국가 인벤토리 가이드라인 기본 배출계수
	투자	투자회사 배출량	지분율, 업종별 배출계수

탄소중립 투자 현대자동차는 사업장의 탄소중립 달성을 위해 2024년부터 2035년까지 약 4조 원 규모의 투자계획을 수립했습니다. 이를 통해 태양광 자가발전, 외부 재생에너지 조달과 더불어, 수소 밸류체인 확장을 위한 활동을 전개할 예정입니다.

보상 현대자동차는 기후변화 관리 인센티브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CEO, 권역본부장, 공장장(생산법인장), 직원(유관조직)의 성과평가 항목(KPIs)에 기후변화 관련 항목을 포함하고 있으며, 해당 성과평가 결과는 인센티브 및 연봉체계와 연동되어 있습니다. 경영진 KPI에 온실가스 감축, 재생에너지 확대 등 기후 전환 및 기후변화 관련 목표를 포함시킴으로써, 해당 목표 및 이행실적이 경영진 차원에서 관리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유관조직의 담당 직원들 대상으로 온실가스 배출 감축 관련 달성 목표를 수립하여 개인 성과평가 항목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매년 주요 지표에 대한 달성률 및 이행평가를 통하여 연봉의 일정 비율을 해당 성과에 대한 금전적 인센티브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대상	KPIs	인센티브
CEO	1) 탄소중립 목표 대비 이행률 2) 탄소중립 이행 체계 구축 수준	금전적 보상 (상여금 산정 시 반영)
권역본부장	1) RE100 목표 달성률 2) Scope 3 데이터 관리 수준	
공장장 (생산법인장)	1) RE100 목표 달성률 2) 총 배출량	
직원 (유관조직)	각 유관조직 담당자별 달성 목표를 수립 후 개인 성과평가 항목에 반영	

* 부속지침 'Industry-based Guidance on Implementing IFRS S2' 내 Automobiles 산업 기반 지표 참조

산업 기반 지표

기후변화 대응

기후 관련 목표

목표에 대한 검토 프로세스

• 설정된 목표의 제3자 검증 여부 현대자동차는 온실가스 배출 감축을 위해 글로벌 과학기반 감축 목표 이니셔티브인 SBTi(Science Based Targets Initiative) 가이드라인에 따라 중장기 감축 목표를 수립하였습니다.

• 목표 검토 프로세스 현대자동차의 이사회는 탄소중립을 포함한 중장기 환경경영 전략 수립, 환경투자 등 사업전략 추진 및 경영활동에 필수적인 안건에 대해 검토·승인합니다. CEO 및 다양한 부문의 주요 경영진이 참여하는 C-level 경영위원회(Management Committee Meeting)에서 전기차 확대 전략, 탄소중립 전략 등을 포함한 전사 주요 환경경영 추진계획 및 이행 현황 점검, 개선 성과 검토, 주요 리스크 대응방안 논의, 그 밖의 환경경영 확산·전파를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현대자동차는 '2045년 탄소중립' 달성을 위해 설정한 목표에 대한 이행 및 성과를 모니터링하고 검토하고 있습니다. 2024년 11월에는 시장 트렌드 및 중장기 사업계획을 반영한 탄소중립전략 2.0에 대해 지속가능경영위원회의 승인을 받았습니다.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 목표 관련 정보

• 목표에 포함된 온실가스 배출량 범위 현대자동차의 기후 관련 목표에 대한 온실가스 배출량 범위는 Scope 1, 2, 3(일부)입니다.

• 목표에 대한 설명 현대자동차의 기후 관련 목표는 총 배출량 목표입니다.

• 목표 설정 시 부문별 탈탄소화 접근법 사용 여부 현대자동차는 보고기간 말 현재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 목표에 대하여 부문별 탈탄소화 접근법을 사용하고 있지 않으나, 향후 효과적인 배출량 감축을 위해 부문별 탈탄소화 접근법 사용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목표 대비 성과 분석 현대자동차의 기후 관련 목표에 대한 당기 성과는 아래와 같습니다.

목표 및 진척도 모니터링 지표	단위	2022년 실적	2023년 실적	2024년 실적
온실가스 Scope 1 배출량	tCO_2-eq	719,949	696,590	679,822
온실가스 Scope 2 배출량 (시장 기반)	tCO_2-eq	1,684,120	1,579,162	1,417,987
재생에너지 전환비율(전기)	%	7.7	12.8	16.7
온실가스 Scope 3 - Category 11 배출량	tCO_2-eq	109,278,795	114,132,523	114,199,544

순환경제와 자원사용

현재의 선형적 경제 구조는 기후변화, 폐기물 다량 발생, 생물다양성 위협 등 다양한 환경 이슈들을 야기시키고 있어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순환경제로의 전환이 필수적입니다. 현대자동차는 제품 개발단계에서 순환성을 고려한 설계를 통해 재생가능한 소재를 적용하여 제품 순환성을 제고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각국의 폐제품 회수 및 처리 규제를 준수하며 생산자책임 활동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자체 생산공장의 자원 투입량과 폐기물 배출량이 생산량 증가와 연동되어 증가하지 않도록 관리하고 있습니다.

차량 순환성 제고

지속가능한 소재 개발 및 적용 체계

순환경제 관련 규제 동향 전 세계적으로 폐기물 이슈는 점점 더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특히 플라스틱 폐기물의 경우 매년 2억 톤 이상의 플라스틱 폐기물이 배출되고 있으며, 배출량도 매년 10% 이상 증가하고 있습니다. 더욱 심각한 문제는 이 중 90% 이상이 매립되거나 방치되고 있어 생태계 파괴 및 생물다양성 손실에 직접적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탄소중립 목표 달성 측면에서도 원소재 단계의 탄소중립을 실현하기위해서 재활용 소재 확대를 포함한 순환경제로의 전환이 필수적입니다. 글로벌 폐기물 감축과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서 EU를 포함한 주요국들의 폐기물 관련 규제도 강화되고 있어 이로 인한 기업 리스크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EU의 경우 기존 폐차 규제(ELVR: End-of-Life Vehicles Regulation) 개정을 추진 중이며, 개정안에 따르면 2032년부터 차량의 재활용 플라스틱 적용 비율을 25%로 의무화할 예정이며 이 중 25%는 폐차에 기반한 재활용 플라스틱을 적용해야 합니다. 또한 전기전자제품과 동일하게 폐차 회수, 처리에 대한 책임을 생산자에게 부여하고 있으며, 인도 등 타 국가들도 차량의 재활용 소재 적용을 의무화하는 규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재활용 플라스틱 소재 적용 현대자동차는 중장기적으로 폐기물 제로화, 자연 자원 보존과 가치사슬 전반의 탄소중립 목표 달성을 위해 순환경제로의 전환이 필수적임을 인식하고 있으며 이러한 인식 하에 최근 규제가 본격화되고 있는 주요국들의 차량 재활용 소재 사용 의무화 규제에 선제적으로 대응하여 차량 재활용 소재 기술개발 및 양산차 적용 체계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양산차 적용 체계 강화를 위해 '재활용 플라스틱 확대 적용 전사 협의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전사 협의회에서는 2024년 재활용 플라스틱 개발 관련 제반 사항을 집대성한 재활용 플라스틱 가이드를 제작하였습니다. 이번 가이드를 기반으로 재활용 플라스틱 개발 적용을 일관되게 진행하여 재활용 플라스틱 업무 효율성을 증대하였고, 전사 임직원들의 관련 부문에 대한 이해도 향상을 도모하였습니다. 재활용 플라스틱을 차량에 의무 적용해야 하는 EU 폐차규제(ELVR) 시행을 대비하여, 재생원료의 차량 적용 비율을 연도별 단계적으로 상향하는 방식으로 준비하고 있고, 법규 대응 수준을 모니터링 하는 프로세스 및 재활용 정보 관리 시스템을 정립하고 있습니다. 현대자동차는 차량 내 플라스틱 부품 비율이 가장 높은 내/외장 부품을 비롯하여 샤시, 차체, 전동화 등 차량 부품에 대해 재활용 플라스틱 개발 계획을 보다 정교하게 차량에 적용할 계획입니다.

바이오 소재 적용 탄소중립을 실현하기 위해서 재활용 플라스틱뿐만 아니라 바이오 소재 적용을 확대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천연물이 광합성을 통해 이산화탄소를 흡수하고, 이산화탄소를 흡수한 천연물을 원료로 바이오 기반 소재를 개발하여 자동차에 적용하게 되면, 대기 중 이산화탄소가 지상에서 고정되는 Carbon Fixation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바이오 기반 소재는 석유계 원료의 사용량을 감소시키는 이점과 더불어, 대기의 이산화탄소 농도를 줄이는 효과로 탄소중립에 기여할 수 있습니다. 현대자동차는 천연섬유, 패각 등의 천연물을 직접 이용하거나 화학적인 방법으로 원료화 한 후 플라스틱 소재로 적용하는 기술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Car to Car 프로젝트 현대자동차는 자동차의 자원순환을 위해서 폐차 부품을 재활용하여 개발된 소재를 다시 신차에 적용하는 Car to Car 프로젝트를 추진 중입니다. 자동차 주요 소재인 플라스틱, 철강, 알루미늄과 전기차의 핵심 부품인 배터리, 모터를 5개 Car to Car 핵심 소재 및 부품으로 선정하였습니다. Car to Car 프로젝트를 통해 5개의 핵심 소재와 부품의 재활용 기술을 내재화하여 고품질의 재생원료를 확보하고, 원가 경쟁력을 갖춰 차량의 순환성을 제고하는 동시에 자동차 자원순환 공급망을 구축할 예정입니다.

지속가능한 소재 기술개발 협력 현대자동차는 국내외 소재업체, 부품 협력사와 재활용, 바이오 등 지속가능한 소재 개발 및 차량 적용을 위한 협력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협업 체계 기반으로 2024년 12월, SK케미칼과 함께 헤드라이너, 크래시패드 등 6종의 재활용 및 바이오 소재 부품을 성공적으로 개발했습니다. SK케미칼의 폐플라스틱을 분자 단위로 분해하는 화학적 재활용 기술인 해중합 방식을 사용하여, 고품질의 순환 재활용 PET 소재 적용 부품을 생산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기존의 기계적 재활용 PET 소재는 폐 PET병을 재활용하여 일부 자동차 부품에 적용하고 있으나, 폐자원 수급 및 폐자원 다양화 측면에서 한계가 있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현대자동차와 SK케미칼은 14개월에 걸친 긴밀한 협업을 통해서 상용화 가능한 수준의 화학적 재활용 기술을 확보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헤드라이너, 시트, 크래시패드, 도어 패널, 도어 암레스트 등의 차량 부품에 다양한 폐자원을 활용한 재활용 소재 적용이 가능해졌습니다. 또한, 현대자동차그룹은 애플레더 등 지속가능한 소재와 차량으로 실험 모델을 만드는 노력을 진행하였습니다.

차량설계 시 재활용성 고려 현대자동차는 신차의 디자인·설계·개발 단계부터 폐차 과정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의 회수, 처리, 재활용을 고려하여 해체 및 재활용이 용이할 수 있도록 재활용을 고려한 설계(DfR, Design for Recycling)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설계단계에서 재활용을 고려한 설계를 기반으로 재활용이 가능한 소재를 적용함과 동시에, 플라스틱·유리 등 폐기 단계에서 재활용이 어려운 비금속 소재의 경우 재활용 소재는 물론 천연소재 등을 사용하여 차량의 순환성을 제고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현대자동차 차량 설계단계에서의 재활용 가능률은 열에너지 미회수 시 85%이며, 폐기물 처리에 따른 열에너지 회수 포함 시 재활용 가능률은 95%입니다. 특히, 차량소재의 약 70%를 차지하는 철, 비철 등 금속 소재는 대부분 재활용되고 있습니다.

순환경제와 자원사용

지속가능한 소재의 적용 사례

현대자동차는 매년 전기차 신모델 중심으로 재활용 및 천연소재 적용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재활용 소재의 경우 폐차에서 회수된 폐소재를 재활용하는 '소재 순환체계(Material Closed Loop) 구축을 추진하고 있는 한편, PET병, 폐어망 등 자동차 산업 외 타산업에서 발생하는 폐기물, 가정 등에서 발생하는 생활폐기물의 재자원화(Open Loop)도 병행 추진하고 있습니다. 천연소재는 옥수수, 사탕수수, 유채 씨앗 등 자연 부산물에 기반한 바이오 소재가 적용되었습니다.

아이오닉 5 팔걸이, 시트커버링에 재활용 PET 가공 원사가 적용되었으며 이는 아이오닉 5 한 대에 최대 32개의 패트병이 재활용된 셈입니다. 시트, 헤드라이너, 카펫에 사용된 패브릭 소재는 사탕수수와 옥수수에서 추출한 바이오 성분을 함유하고 있으며, 인테리어에 사용된 가죽은 동물성 기름이 아닌 아마기름을 이용해 염색되었습니다. 도어 트림과 에어백 커버 등에 유채꽃, 옥수수와 같은 식물에서 추출한 오일 성분이 함유된 바이오 페인트가 사용되었습니다.

아이오닉 5 N 재활용 및 천연 소재와 원료가 일부 내장 부품에 적용되었습니다. 도어 트림과 콘솔 커버에 유채꽃, 옥수수 등 식물에서 추출한 바이오 오일 성분이 함유된 페인트가 적용되었습니다. 이와 함께 폐타이어를 재활용하여 추출된 안료를 첨가한 페인트가 도어 핸들과 도어 스위치 베젤 등에 적용되었으며 시트에 재활용 폴리에스테르를 활용한 알칸타라가 사용되었습니다.

아이오닉 6 재활용 PET 가공 원사, 바이오 원사, 바이오 TPO 스킨 등의 재생가능한 소재가 적용되었습니다. 또한, 바다에 버려진 폐어망을 재활용한 재생소재(ECONYL®)가 아이오닉 5와 아이오닉 6 플로어 매트에 적용되었으며, 아이오닉 5 N에 이어 아이오닉 6에도 폐타이어에서 추출된 안료를 첨가한 페인트가 범퍼 로워 커버 등 외장 부품에 사용되었습니다.

아이오닉 9 아이오닉 라인업의 최상위 차종인 아이오닉 9에는 재활용 PET 가공 원사, 바이오 TPO 스킨, 바이오 인조가죽 등 아이오닉 5와 아이오닉 6에 사용된 재생가능한 소재가 적용 되었으며, 이와 더불어 BIO PU(바이오 폴리우레탄) 이미지가 적용된 크래시패드와 BIO 스웨이드가 적용된 헤드라이너가 추가 적용되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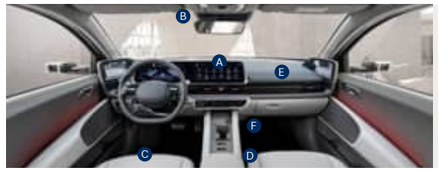
기타 전기차 GV60, Electrified GV70, Electrified G80의 헤드라이너, 필라트림, 선바이저, 패키지트레이 등에도 재활용 및 바이오 소재가 적용되었으며, Electrified GV70의 경우 헤드레스트 앞면과 시트 사이드에 울(Wool)이 30% 함유된 천연원단을 사용하였으며, Electrified G80에는 자투리 나무조각으로 만든 포지드우드(Forged Wood) 장식이 적용되었습니다.

전기차 모델별 지속가능한 소재 적용 현황

아이오닉 5	유채꽃·옥수수 추출 바이오 페인트, 아마씨앗 추출 오일, 사탕수수/옥수수 추출 바이오 원사, 재활용 PET 가공 원사
아이오닉 5 N	유채꽃·옥수수 추출 바이오 페인트, 폐타이어 재활용 페인트, 재활용 폴리에스테르를 활용한 알칸타라
아이오닉 6	폐타이어 재활용 페인트, 유채꽃,옥수수 추출 바이오 페인트, 사탕수수/옥수수 추출 바이오 원사, 재활용 PET 가공 원사
아이오닉 9	유채꽃·옥수수 추출 바이오 페인트, 아마씨앗 추출 오일, 사탕수수/옥수수 추출 바이오 원사, 재활용 PET 가공 원사, 폐타이어 재활용 페인트, 식물성 원료 기반 도료
GV60	옥수수·사탕수수 유래 바이오 폴리올, 재활용 PET 가공 원사
Electrified GV70	울(Wool) 30% 함유 천연원단, 재활용 PET 가공 원사
Electrified G80	천연염료, 재활용 PET 가공 원사, 자투리 나무 조각 재활용 포지드 우드

아이오닉 차종 지속가능한 소재 적용 현황

아이오닉 5



- A 바이오 페인트
- B 바이오 PET 원사
- C 재활용 PET 가공 원사
- D 지속가능한 방식으로 제조된 가죽
- E 바이오 TPO 스킨
- F 폐어망 재활용 카페트

아이오닉 6

아이오닉 9

폐차 순환 체계 구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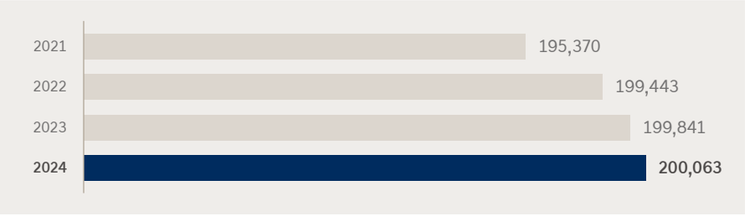
폐차 서비스 현대자동차 차량은 폐차장으로 운송되어 회수물질의 실내보관, 모든 회수부품 및 물질의 재활용 등 국내에서 폐차를 희망하는 고객의 요구에 맞추어, 차량의 회수·해체·재활용 등 폐차 처리를 지원하는 One-Stop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고객은 현대자동차 홈페이지 등을 통해 폐차를 신청할 수 있으며, 현대자동차는 고객이 희망하는 일자 및 장소에서 폐차할 차량을 인수합니다.

폐차 회수 및 재활용 현대자동차는 포장재와 전자제품 분야에서 시행되고 있는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EPR)의 자동차 부문 도입 추진의 당위성을 증명하고자 2011년부터 환경부와 협약을 체결하여 폐자동차 자원순환체계 선진화 시범사업을 시행 중입니다. 폐차 업체들을 대상으로 차량 해체 매뉴얼 제공 및 교육을 진행하여, 경제성이 있어 유상거래가 가능한 유가 자원과 그렇지 않은 비유가 자원을 구분하고 적절한 처리 방법을 안내함으로써 재활용을 용이하게 합니다. 또한, 기후 및 생태계에 부정적 영향을 주는 물질인 폐냉매, 차량 파쇄 후 나오는 철 스크랩, 폐차 파쇄잔재물 등의 수거 및 처리를 지원하고 재활용이 어려운 소재에 대한 처리 비용을 지원하는 등 폐차 처리업체와 협업 관계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2024년 한 해 동안 폐차 시 회수한 자원량은 약 20만 톤이며, 폐차 재활용률은 열회수 제외 시 82.6%를 달성하였습니다. 현대자동차는 폐차 회수와 재활용을 통해 직접적인 금전적 이익을 추구하지 않고, 재활용률을 높이기 위해 재활용 업체들에 비용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는 환경 친화적이고 지속 가능한 방식으로 자동차 산업의 폐기물을 처리하고, 장기적으로는 자원 순환을 촉진하려는 노력입니다.

폐차 처리 원칙

폐차 회수 자원량

(단위: 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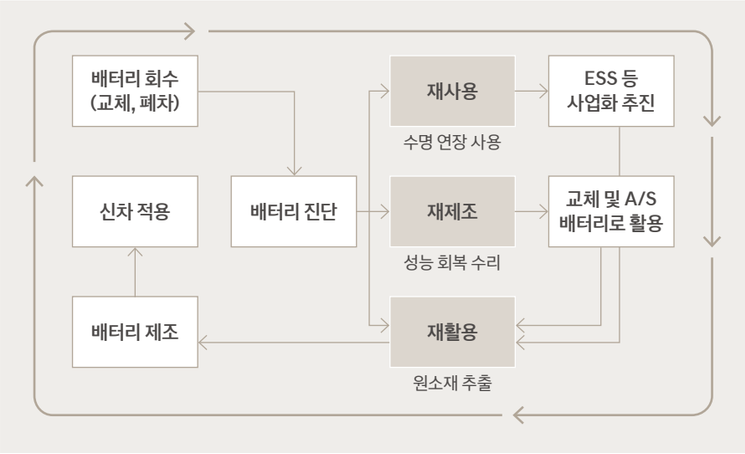
순환경제와 자원사용

배터리 순환 체계 구축

그룹 배터리 순환 협력체계 구축 현대자동차는 배터리 라이프사이클에 기반하여 전기차 폐차 이후 발생하는 폐배터리에 대한 재활용 및 재사용을 통해 지속가능성을 추구하는 지속가능한 배터리 순환 체계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배터리 라이프사이클은 배터리 원소재를 활용한 배터리 셀 제조에서 전기차용 배터리 시스템의 제작, 사용 후 배터리의 재사용과 최종 폐기된 배터리의 소재 추출 및 추출된 소재를 배터리 제조에 다시 적용하는 지속가능한 배터리 순환 루프로 구성됩니다. 현대자동차는 배터리 라이프사이클 전반에 걸쳐 현대자동차그룹 내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배터리 전후방 사업 점검 및 관련 역량 확보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현대자동차는 글로벌 판매 및 서비스 네트워크를 통해 폐배터리를 대량으로 확보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함과 동시에, 재사용 및 재제조가 불가능한 폐배터리로부터 코발트, 리튬, 니켈 등 배터리 핵심소재를 추출해서 배터리 제조공정에 연결하는 배터리 순환 체계를 구축해 나갈 계획입니다. 글로벌 물류 네트워크를 보유하고 있는 현대글로비스는 육상·해상 운송을 통해 폐배터리를 회수하여 재활용 사업에 연결하고, 에너지저장장치(ESS, Energy Storage System)와 같은 재사용하는 사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현대모비스는 회수한 배터리를 선별하여 성능 회복 등 새롭게 패키징하는 방식으로 배터리 수명을 연장해 다시 활용처에 투입하는 재제조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재제조한 배터리는 노후 전기차 및 수리용(A/S)으로 활용됩니다. 현대자동차그룹 내 계열사들과의 협력을 강화함과 동시에 국내외 폐배터리 순환 단계에서 기술력을 갖춘 기업들과의 협력하여 폐배터리 순환 위한 생태계 구축도 본격화하고 있습니다.

배터리 순환 체계도



폐배터리 회수 현대자동차는 그룹사인 현대글로비스와 협업하여 전 세계 폐차장과 딜러 및 A/S 센터, BaaS(Battery as a Service) 사업장 등 다양한 장소에서 배출되는 폐배터리를 체계적으로 회수하고 운반하기 위한 글로벌 네트워크와 운송관제시스템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또한 현대글로비스와 협업하여 회수된 배터리에 대한 진단 및 전처리 통합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특히 현대글로비스는 취급이 까다로운 사용 후 배터리를 안전하고 효과적으로 운송할 수 있는 전용 플랫폼 용기를 개발하여 특허를 획득하였으며, 폐배터리 전처리 기술을 보유한 (주)이알과 협업하여 운송이 용이하고 유가금속 확보가 가능한 블랙파우더 확보까지 가능한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국가별로 복잡하고 다양한 각종 규제를 충족하는 물류 시스템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현대자동차는 현대글로비스의 물류 노하우와 네트워크를 활용하여 배터리 라이프사이클 전반에서 폐배터리의 회수/진단/ 전처리 기반을 구축하여 폐배터리 재사용 및 재활용 체계를 강화해나가고 있습니다.

폐배터리 재사용 현대자동차는 전기차 폐배터리를 ESS 용도로 재사용하는 실증사업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2020년 12월 국내 최초로 폐배터리 재사용 전력용 ESS의 규제 샌드박스 실증특례를 승인받아, 현대자동차 울산공장과 실증 협력사인 OCI 스페셜티 공주공장에 각각 2MWh, 300kWh급의 ESS를 구축하였으며, 2021년 1월 태양광 연계 상업운전을 개시하였습니다.

또한, 2022년 4월에는 한국수자원공사와 협력하여 부산에코델타스마트시티에 400kWh급 ESS를 신규 구축하였습니다. 2023년부터 현대자동차의 다양한 폐배터리 재사용 ESS 실증사업은 현대글로비스 주관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현대글로비스의 폐배터리 회수/진단/전처리 시스템과 재사용 사업까지의 단일화된 파이프라인을 통해 폐배터리 기반 ESS 사업을 강화해나가고 있습니다.

폐배터리 재제조 현대자동차의 배터리 생애주기에서 발생하는 폐배터리 중 잔존가치가 높은 최상위 품질의 폐배터리는 자체 분류 기준에 의해 재제조 사업으로 연계됩니다. 현대자동차는 현대모비스, 포엔 등과 협업하여 매입·수거한 폐배터리를 노후 차량 및 A/S용 배터리로 다시 제조하며, 이를 통해 배터리의 사용 수명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폐배터리 원소재 재활용 현대자동차의 배터리 순환체계에서 재제조 및 재사용 불가로 판단된 폐배터리는 파쇄하여 리튬, 코발트, 니켈 등 유가 금속을 추출하는 재활용 사업으로 연계됩니다. 현대자동차는 미래에 대량으로 발생하는 폐배터리를 지속가능하고 안전하게 재활용할 수 있는 기술 확보에 주력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확보된 원소재를 배터리 제조공정에 연결하여 배터리 순환 체계를 완성시키고자 합니다. 현대자동차는 배터리 순환 체계를 통해 권역내에서의 배터리 원소재 공급 능력을 강화하여 안정적인 전기차 생태계를 구축할 계획입니다.

폐배터리 재활용 생태계 구축 현대자동차는 현대기아차그룹 내 계열사와의 협력 체계를 강화하는 동시에 국내외 기업과의 협력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대자동차는 2024년 리티온(Lithion)과 캐나다에서 전기차 배터리 수거 및 재활용 추진을 위한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이번 계약을 기반으로 캐나다 내에 수명이 다한 차량용 리튬 이온 배터리를 수거한 다음, 이를 리티온 재활용 공장에 보내고 있습니다. 현대기아차그룹 배터리 순환 체계 내에서 폐배터리 회수 및 처리하여 재활용 사업에 연결을 담당하고 있는 현대글로비스는 2024년 에코프로와 'EV 사용 후 배터리 재활용 전후방 사업 업무협약(MOU)'을 체결했습니다. 협력을 통해 재활용 사업의 밸류체인을 강화하고, 각각 전처리 및 후처리 기술을 활용하여 배터리 순환을 위한 기반 체계를 최적화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현대자동차는 현대글로비스와 협력하여 배터리 회수/처리 등 폐배터리 재활용을 위한 전방위 생태계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고객 배터리 케어 프로그램 현대자동차는 배터리업체와 함께 개발 단계에서 배터리 내구성, 재활용성과 안전성을 강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와는 별도로 고객 사용단계에서 배터리 사용 효율을 제고하기 위해 고객이 전기차 리스 시 배터리 잔존가치를 선반영하여 리스가격을 인하하고 배터리 상태가 양호한 경우 보상금을 지급하는 '고객 배터리 케어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번 프로그램으로 고객들이 스스로 배터리 성능 관리를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어 배터리 사용 효율 제고는 물론 배터리 수명 연장도 촉진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현대자동차는 2024년 현대캐피탈과 함께 캐스퍼 전기차 모델에 먼저 '고객 배터리 케어 리스 프로그램'을 적용하였고, 2025년 아이오닉 9 모델에 확대하였습니다. 이번 프로그램을 통해 고객 배터리 성능에 대한 불안감을 해소함과 동시에 전기차의 초기 가격 부담을 낮춰 전기차 대중화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또한 배터리 상태를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할 수 있게 할 뿐만 아니라 배터리 상태가 일정 기준을 충족할 경우 리스 종료 후 보상을 제공합니다. 리스 종료 후에는 배터리의 잔존 수명 및 성능에 따라 배터리가 재사용 또는 재활용될 예정입니다.

순환경제와 자원사용

자원 사용

투입자원 관리

원자재 공급망 상황, 지정학적 이슈 등으로 인해 원자재 가격 변동성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원자재 가격 변동은 재무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현대자동차는 원자재 사용 효율화 및 재활용 추진을 통해 원자재로부터 촉발될 수 있는 원가 상승, 수급 불안, 자연자본 고갈 등의 대내외 리스크를 대응하고자 합니다. 차량 제조 시 철, 알루미늄, 플라스틱, 유리, 목재, 고무, 핵심광물 등 다양한 소재들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현대자동차 생산공장에서 사용되는 주요 원부자재는 강판(철), 알루미늄, 페인트, 시너 등입니다. 강판(철)과 알루미늄이 주로 차체공장에 사용되고 있으며 프레스 공정에서 발생되는 철과 알루미늄 스크랩의 경우 외부 매각을 통해 전량 재활용되고 있습니다. 플라스틱, 유리, 목재, 고무, 핵심광물 등은 부품 협력사에서 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현대자동차는 제품개발 단계에서 재활용 소재를 포함한 지속가능한 소재 사용을 확대하기 위해 소재업체, 부품 협력사와의 협력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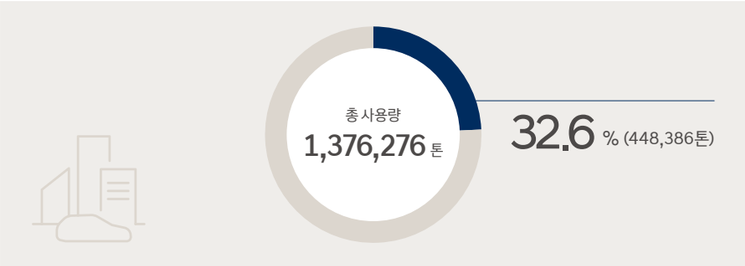
2024년에는 철과 알루미늄 스크랩량이 전체 원자재 사용량의 32.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2024년에는 전년 대비 생산량이 감소하여, 대당 철과 알루미늄 사용량은 다소 증가하였습니다.

원자재 사용량 (단위: 톤, 톤/대)

구분	2022년	2023년	2024년
철/알루미늄 사용량[1)]	1,297,282	1,387,729	1,376,276
대당 사용량	0.32	0.32	0.33
철/알루미늄 스크랩량[2)]	430,673	449,781	448,386

1), 2) 일부 사업장이 과거 데이터를 수정하여 사업장 합산 수치를 정정하여 공시함

2024년 스크랩량 비율



핵심광물 전기차 배터리 제조 시 내연기관차 대비 핵심광물이 더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국제에너지기구(IEA)에 따르면 전기차가 내연기관차 대비 핵심광물이 6배 많이 사용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된 바 있습니다. 또한 리튬, 코발트, 니켈, 망간 등 핵심광물은 배터리 성능, 내구성 및 에너지 밀도에도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핵심광물의 안정적인 수급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현대자동차는 핵심광물과 연관된 리스크를 완화하기 위해 배터리 개발 단계에서 핵심광물 함유를 줄인 보급형 배터리 개발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대자동차가 개발하고 있는 보급형 NCM(Ni, Co, Mn) 배터리의 경우 현재 사용되는 NCM 배터리 대비 배터리 개발단계에서 니켈 함유량을 줄여 핵심광물 사용 절감을 실현할 예정입니다.

용수 현대자동차는 각 생산공장별로 용수 사용량, 재활용량 및 수질오염물질 배출량을 모니터링하고 있으며, 내부적으로는 본사 환경 총괄 조직이 자체 개발한 현대자동차 ESG 환경경영 수준 진단(HEAT, Hyundai Environmental Assessment Tool)을 기반으로 생산공장별 용수 사용량, 재활용량 등 용수 효율에 대해 관리하고 있으며, 외부적으로는 매년 제3자 기관의 ISO 14001 인증 심사를 통해 용수 효율성 수처리 관리에 대한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용수 사용량 및 재활용량 (단위: 톤, 톤/대)

구분	2022년	2023년	2024년
총 사용량[3)]	10,578,611	11,181,546	10,220,059
대당 사용량	2.6	2.6	2.5
재활용량	2,284,154	2,631,445	2,928,451

3) 일부 사업장이 취수량의 과거 데이터를 수정하여 사업장 합산 수치를 정정해서 공시하였으며, 용수 사용량은 취수량에서 방수량을 뺀 값임.

2024년 용수 재활용 비율

인도 수자원 보전 이니셔티브

현대자동차 인도법인은 첸나이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세계자원연구소(WRI)에 따르면 인도 28개 주 중에서 17개 주가 극도의 물 스트레스를 겪고 있고 특히 첸나이는 2019년 '데이 제로(Day Zero, 물 공급이 중단되는 날 의미)'를 선언하는 등 물부족이 극심한 지역입니다. 현대자동차 인도법인은 생산공장 차원에서 물 리스크에 대응하여 용수 절감 및 재활용 확대를 추진하고 있으며 외부 수자원에 의존도를 낮추기 위해 빗물에 기반한 자체 용수 확보도 강화하고 있습니다. 또한 첸나이 등 인도 주요 지역사회가 겪고 있는 물부족 이슈 해결에 동참하기 위해 다양한 수자원 보전 이니셔티브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생산공장 용수 자급자족 추진

현대자동차 인도법인은 물 리스크를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2030년까지 용수 자급자족을 목표로 용수 재활용과 빗물 집 및 저장 체계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용수 재활용 강화 위해 무방류 시스템을 구축하여 용수를 재활용하고 있으며 빗물을 수집할 수 있는 집수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수집한 빗물은 6개의 저수지를 기반으로 저장하고 있으며 보유한 저수지는 최대 33.5만 톤의 용수를 저장 가능합니다. 향후 2030년까지 용수 100%를 자급자족하여 물 리스크를 원천적으로 예방할 예정입니다.

드라이 워시 서비스

인도법인은 인도 전역에 위치한 서비스센터에서 물 사용 없이 세차가 가능한 '드라이 워시 서비스'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드라이 워시는 물이 필요 없는 세차 방식으로 차량 한 대당 기존 세차 방식 대비 120리터의 물을 절감할 수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을 통해 지난 5년 간 550만대의 차량이 드라이 워시를 이용하여 총 6억 5천만 리터 이상의 물이 절약되었습니다. 이는 480만 명이 하루에 쓰는 용수 사용량과 맞먹는 양입니다.

연못 재생 프로젝트

인도법인은 인도 지역 사회의 물부족 이슈 해결에 기여하고자 지속적인 가뭄으로 인해 고갈된 연못들을 재생하는 프로젝트를 진행하였습니다. 2022년 인도 하리아헤라, 팔라솔리, 타자거 지역의 3개 연못을 재생하였으며 이를 통해 약 1,400만 리터의 용수를 확보하였습니다. 이어 2023년 첸나이지역 2개 연못 재생을 완료했습니다. 이번 프로젝트로 인해 지역 주민들은 보다 안정적인 물 공급을 받을 수 있을 뿐 아니라, 지역 생태계 개선도 함께 증진할 수 있었습니다.

현대자동차 인도법인은 이러한 다각적인 수자원 보전 이니셔티브 시행 통해 생산 과정에서의 용수 자급자족을 추진하고 있으며, 지역 사회의 물 부족 이슈 해결에도 동참하고 있습니다.

순환경제와 자원사용

내외부 환경 평가결과를 기반으로 용수 효율성 관리 및 수질오염물질 저감의 기회요인들을 파악하고 개선하고 있습니다. 특히 생산량 증가와 연동해서 용수 사용량이 증가하지 않도록 용수 효율성을 관리하고 있으며, 용수 재활용량을 확대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현대자동차는 WRI Aqueduct Water Risk Atlas Tool을 토대로 사업장별 용수 리스크를 평가하고 있습니다. 평가결과, 인도생산법인, 튀르키예생산법인, 미국생산법인, 북경기차, 인도네시아생산법인 등의 용수 리스크가 매우 높은 것으로(Extremely High) 파악되었고, 용수 리스크가 높은 사업장을 중심으로 용수 효율 개선과 재활용량 확대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대자동차의 2024년 용수 재활용량은 2,928,451톤으로 전년 대비 11.3% 증가하였으며, 재활용 비율도 전년 대비 5.1% 상승한 28.7%를 기록하였습니다. 2024년 용수 사용량 목표는 2024년 생산계획 물량을 기반으로 산출된 예상 용수 사용량 대비 5% 감축한 10,350,887톤으로 설정되었으며, 실제로 10,220,059톤을 사용하였습니다. 2024년 대당 용수 사용량은 전년 대비 3.8% 감소한 2.5톤을 기록하였습니다.

단일 생산공장별로 용수 사용량 감축과 재활용 확대도 추진되고 있습니다. 극심한 물부족을 겪고 있는 인도 첸나이지역에 위치한 인도공장과 국내 아산공장은 폐수 무방류 시스템을 구축하여 용수를 재활용하고 있습니다. 울산공장은 폐수처리장 방류수를 도장부스의 세정식 집진기 순환수로 재활용할 수 있도록 용수 이송배관을 포함한 폐수 재활용 시스템 구축하여 연간 52,000톤의 용수를 재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체코공장은 용수 절감을 위해 도장공장 역삼투압(RO) 시스템 내 버려지는 폐수의 재활용을 위한 나노 필터 도입 검토, 탈지(Degrease) 및 불순물(Skid) 정화 강화, 양극액 등 재활용이 어려웠던 폐수 재활용 추진, 유량계 추가 설치 및 용수 사용 모니터링 강화 등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멕시코공장은 바이오여과, 초여과, 역삼투압 처리 설비 등 폐수처리장 설비 개선으로 처리수를 생산공장에 재활용할 수 있는 폐수 재활용 시스템을 구축하였습니다. HTWO광저우공장은 냉수생산설비 운영시간 축소, 수소연료전지 활성화 및 PMC 공정에서 발생되는 반응수를 수집하여 재활용하고 있습니다.

현대자동차는 매년 환경정책 기반으로 임직원 대상 환경교육을 시행함으로써 용수 절감 및 재활용 확대를 유도하고 있습니다. 특히 서비스 센터에서는 임직원 대상 용수 및 에너지 절감을 촉구하는 SNS 문자메시지를 공유하며 용수 절약을 유도하였으며 인도공장은 UN이 지정한 세계 물의 날(3월 22일)에 맞추어 임직원을 대상으로 물의 중요성과 위급성을 알리는 포스터를 전시하고 물을 절약할 수 있는 실천 팁(Water Saving Tips)들을 제시하며 물 절약을 유도하였습니다.

배출물질 관리

폐기물 현대자동차는 각 생산공장별로 유형별, 처리방식별 폐기물 배출량과 재활용량을 모니터링하고 관리하고 있습니다. 내부적으로는 본사 환경 총괄 조직이 자체 개발한 현대자동차 ESG 환경경영 수준 진단(HEAT, Hyundai Environmental Assessment Tool)을 기반으로 생산공장별 폐기물 관리를 점검 및 실사하고 있으며 외부적으로는 매년 ISO 14001 심사를 통해 폐기물 관리에 대한 제3자 기관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생산공장 자체 관리 및 내외부 환경 평가결과를 기반으로 폐기물 감축 및 재활용 확대를 위한 기회요인들을 파악하여 개선하고 있습니다.

현대자동차는 특히 생산량 증가와 연동해서 폐기물 배출량이 증가하지 않도록, 생산공장 자체 관리 및 내외부 환경 평가결과를 기반으로 폐기물 감축 및 재활용 확대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자동차 생산과정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폐기물 중 금속류의 폐기물은 재활용되고 있으며, 그 외 폐페인트, 폐신너, 포장재, 슬러지 폐기물까지 재활용 범위를 확대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현대자동차의 2024년 총 폐기물 배출량(재활용 실적 제외)은 79,528톤으로 전년 대비 14.2% 증가하였으며, 대당 폐기물도 0.019톤으로 전년 대비 소폭 증가하였습니다. 총 폐기물의 재활용 비율도 91.4%를 기록하였습니다. 2023년에 울산공장 전기차 신공장 건설로 인해 건설 폐기물 재활용량이 급증하여 일시적으로 폐기물 재활용 비중이 93.4%까지 증가하였습니다. 2024년 폐기물 배출량 목표는 2024년 생산계획 물량을 기반으로 산출된 70,703톤으로 설정되었으며, 실제로 79,528톤을 기록하였습니다. 2024년 폐기물 배출량 계획 대비 실적이 증가한 이유는 가장 규모가 큰 공장인 울산공장에서 하이퍼캐스팅 공장 준공에 앞서 기존 공장 철거, 체코공장의 일부 생산공정 용도 변경 등으로 인해 재활용이 불가한 일반 폐기물의 증가에 기인합니다.

현대자동차는 단일 생산공장별로 폐기물 감축과 재활용 확대, 매립 저감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미국공장은 자체적인 폐기물 발생 최소화 연구를 통해 폐기물 처리 단위를 부피에서 중량으로 변경하고 폐기물을 담는 드럼통을 압축해 폐기물 발생을 매년 420톤 줄이는 계획을 수립하여 실행 중입니다. 인도공장은 유해 폐기물 중 인산염 슬러지와 분쇄된 슬러지를 외부 폐기물 전문업체를 통해 위탁 처리하였으나, 이를 인근 시멘트 생산공장에서 보내서 대체 연료로 재활용할 수 있도록 폐기물 전환 프로세스를 구축하였습니다.

폐기물 배출량 및 재활용량 (단위: 톤, 톤/대)

구분	2022년	2023년	2024년
총 배출량[1]	70,216	69,656	79,528
대당 배출량	0.018	0.016	0.019
총 재활용량[2]	578,957	978,312	849,485
재활용 비율	89.2	93.4	91.4

1) 일부 사업장이 폐기물의 과거 데이터를 수정하여 사업장 합산 수치를 정정하여 공시하였으며, 폐기물 발생량은 재활용량을 제외한 수치임
2) 일부 사업장이 재활용량의 과거 데이터를 수정하여 사업장 합산 수치를 정정해서 공시함

아산공장과 브라질공장은 폐기물 매립 제로 인증을 취득하였습니다. 아산공장은 높은 재활용 비율과 매립 최소화 실적을 기반으로 국제 안전과학 인증 기관 UL 솔루션의 폐기물 매립 제로(Zero Waste To Landfill, ZWTL) 대외 인증에서 Platinum 등급(재활용률 100%)을 획득하였습니다. 브라질공장은 브라질 인증기관 PCN Do Brasil과 브라질 산업품질도량형 연구소(INMETRO)로부터 폐기물 관리 책임기업 인증(Responsible Company Seal) 최고 등급인 다이아몬드 등급을 획득하였으며, ILZB(Instituto Lixo Zero Brasil)로부터 폐기물 제로 인증(Zero Waste Institute)을 획득하였습니다. 인도네시아공장은 연간 약 9.7톤 발생하는 사내 음식물 쓰레기를 분리 수거 강화 및 주기적 관리 통해 자연 분해시켜 천연비료로 전환시켜 공장 내 조경식물 재배에 활용하고 있습니다.

이 외에도 현대자동차는 매년 환경정책을 기반으로 임직원 대상 환경교육 및 캠페인을 시행함으로써 폐기물 감축 및 재활용 확대를 유도하고 있습니다. 2024년에는 본사가 국내사업장 대상으로 폐기물 순환성을 향상시키는 활동을 기획하는 캠페인 시행을 유도하였습니다. 이번 기획 캠페인에서 아산공장이 제안한 '폐현수막을 활용한 보냉백 만들기' 활동이 채택되어, 2025년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아산공장 내외곽에 사용이 만료된 현수막을 수거해서 공장 아침 간편식을 담는 보냉백으로 사용함으로써 폐현수막 쓰레기는 물론 일회용 비닐 사용을 줄일 수 있습니다. 전주공장에서는 7년차 다회용기 사용 촉진 지원 사업을 실시하였으며, 2025년에는 다중이용시설 다회용 텀블러 사용 캠페인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폐기물 및 재활용 설비 투자도 매년 집행되고 있습니다. 2024년 국내공장 기준으로 폐기물 및 재활용 설비 투자를 위해 총 7.25억 원이 집행되었습니다.

2024년 폐기물 재활용 비율

생물다양성

생물다양성은 인류와 동식물 등 지구상의 생명이 자연과 조화롭게 살아가기 위해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현대자동차는 생물다양성이 인류의 식량 안전, 보건, 대기, 수질, 원자재 공급 등 자연자본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인지하고, 생물다양성에 미치는 영향과 리스크를 평가하여 이를 기반으로 부정적 영향을 개선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나아가, 전사 'Colorful Life' 캠페인을 기반으로 자연생태계 특성을 고려해 사업장 인근 지역사회의 고위험종 보호, 육지와 해양 생태계 재생 등 다양한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생물다양성 대응 체계

생물다양성 정책 및 평가

생물다양성 보호 정책 제정 현대자동차는 2022년, 국제 생물다양성 협약(CBD),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동식물종의 국제거래에 관한 협약, 국제자연보전연맹 보호지역 카테고리 적용 가이드라인 등을 기반으로 생물다양성 보호 정책을 제정하였습니다. 사업장이 위치한 국가의 생물다양성 증진, 야생동식물 관리, 자연 서식지 보존, 산림·토양·수자원 이용 등에 관한 법률 및 규제를 준수하는 한편, 본 생물다양성 정책을 기반으로 사업운영 전반에서 생물다양성을 포함한 환경영향 평가 및 보전·복원 활동을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중장기 생물다양성 복원 및 증진에 관한 공약, 생물다양성 정책 선언 및 제·개정, 생물다양성 평가 및 영향저감 활동 수립, 산림파괴방지 및 재조림 프로젝트 등은 경영진(C-Level)의 승인을 받아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대자동차 생물다양성 보호 정책

생물다양성 영향 평가 현대자동차는 사업장을 신축·증설하거나, 운영과정에서 발생하는 환경요인이 주민생활 및 자연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예측·분석하고자, 국가별 관련 법·규제에 근거하여 대규모 사업장에 한해서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환경영향평가 시, 대기환경, 수환경, 토지환경, 동식물상 등을 평가대상에 포함하고 있으며, 평가결과를 통해 주요 영향을 파악하고 완화조치를 수립하고 있습니다. 또한, 일부 생산법인에서는 동식물상 분포와 생태계 현황을 파악하는 생물다양성 영향평가를 별도로 추진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특정 생물종 및 개체수에 미치는 영향을 예측하고 완화조치를 마련합니다. 이 외에도, 각 사업장별로 생물다양성 보호 및 서식지 보호 활동을 추진하고 있으며, 보호 활동의 효과성을 높이기 위해 정부 및 유관기관, 비영리 단체, 전문기관 등과 협업하고 있습니다.

생물종 및 개체 서식 현황 조사 방법 (사진 촬영, 지점 조사, 현장 탐방)

생물다양성 영향 평가 프로세스 – 동식물상 분포 조사 및 영향 분석

① 생물종 및 개체 선정	사업장의 운영방식, 운영규모, 인근 지역환경 특성을 고려하여 동식물상과 생태계 현황을 파악할 수 있도록 조사 대상 생물종 및 개체를 선정합니다. 특히, 멸종위기동물, 보호야생동물, 천연기념물 및 국제협약에서 보전·보호가 지정된 생물종 등을 조사대상에 포함하고 있습니다.
② 조사 지역 (범위) 설정	사업면적 장축 길이를 반지름으로 하는 범위를 기본으로 하되, 사업장 경계로부터 영향을 받는 인근 지역을 조사범위로 설정하고 있습니다. 필요 시, 동식물상의 이동경로, 행동반경, 식생분포를 고려하여 조사범위를 확장하며, 계절적 특성을 고려하여 시간을 달리하여 조사하고 있습니다.
③ 조사 방법 (수단) 정의	탐문조사, 문헌조사, 청문조사 등 지역 생태계 지리와 생태에 관한 기초조사를 실시하며, 동식물상의 활동 지역, 시간, 빈도 등을 고려하여 육안 관찰, 현장 탐방, 사진 촬영, 음향 탐지, 지점 조사, 트랩 설치 등을 통해 생물종의 분포 현황을 파악합니다. 조사결과는 조사지점별 생물종 확인 방법, 법적보호종, 고유종, 관찰 및 확인된 개체수 등 특징 정보로 관리합니다.
④ 영향 예측 및 분석	사업 운영으로 인한 자연환경의 변화, 대기·수질·토양 오염, 소음 및 진동 발생 등이 생물종과 개체수 변화에 미치는 영향을 예측 및 분석합니다. 영향 예측 시 사업장 신축·증설·운영 등 유사사례를 참조하며, 생물종과 개체수에 예상되는 변화는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정량적 또는 정성적인 형태로 서술합니다.
⑤ 완화조치 수립	생물종 및 개체수에 대한 부정적 영향 예측 및 분석 결과를 토대로, 동식물상 생물종과 개체수에 영향을 미치는 환경요인 완화조치를 수립합니다.

전사 생물다양성 리스크 관리 2022년 UN 쿤밍-몬트리올 생물다양성 프레임워크를 기반으로 EU 등 주요국가들은 국가 차원에서 생물다양성 추가 손실 방지를 넘어 순증가로의 전환을 위해 2030년 생물다양성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이러한 전략을 기반으로 생물다양성 손실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산업에 대한 규제도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먼저 EU는 산림벌채를 생물다양성 손실의 주요 원인으로 인식하며 산림벌채금지법(EU DR: Deforestation Regulation)을 제정하여 2025년 말 시행을 앞두고 있습니다. EU는 우선 적용 품목으로 팜오일, 소, 커피, 나무, 코코아, 고무, 대두 등 7개 농산물과 가죽, 가구, 종이, 고무타이어 등 관련 파생상품을 선정하였으며 이에 대한 산림벌채와의 연관성 여부를 심사하여 연관성이 확인될 경우 EU 역내 수입 및 유통을 금지할 예정입니다. 향후 EU는 적용 품목을 지속적으로 확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EU 산림벌채금지법의 우선 적용 품목으로 선정된 가죽과 고무 소재의 경우 차량 내 시트, 타이어 부품 등에 적용되고 있어 향후 산림벌채 연관된 고무 및 가죽 원소재 사용 시 해당 원소재의 유럽 수입 금지 조치로 인한 관련 부품 조달 지연, 중단 리스크로 확대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러한 리스크를 예방하기 위해 본사 차원에서 유럽 현지생산 및 수출차종의 가죽 및 고무 부품 대상으로 EU 산림벌채금지법 대상 품목에 대해서 사전 조사를 완료했습니다. 해당 부품을 조달하는 본사 및 EU 구매 실무팀과 해당 협력사를 대상으로 산림벌채금지법 대응 가이드라인에 대해 사전 교육을 시행하였습니다. 이러한 교육을 기반으로 해당 협력사와 함께 산림벌채 연관 리스크 식별 등을 포함한 대응 체계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리스크 식별 측면에서는 가죽, 고무 소재 사용 부품 협력사 대상으로 입찰 시 원산지 정보 제출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리스크 사전 예방 측면에서는 가죽의 경우 LWG(Leather Working Group)에 가입한 가죽 원단업체와 거래하고 있으며 인조가죽 적용도 확대하고 있습니다. 고무의 경우, 고무타이어업체와 협업하여 산림벌채와 무관한 천연고무를 확보하고 적용함으로써 법규에 사전 대응하고 있습니다. 향후 현대자동차는 가죽과 고무 소재와 연관 리스크를 예방하기 위해 중장기적으로 지속가능한 소재 개발 및 적용을 확대해 나갈 예정입니다.

생물다양성

전사 Colorful Life 캠페인 시행

현대자동차는 2023년부터 전세계적으로 생물다양성 손실이 심각해지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생물다양성을 사업장 환경공헌활동의 메인 테마로 정하고 전사 생물다양성 보호 캠페인인 'Colorful Life'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Colorful Life'는 생물(Life)의 다양성(Colorful)에 대한 중요성을 강조함과 동시에, 생물다양성 보존이 우리 삶(Life)의 풍요로움(Colorful)과도 연관된다는 의미를 함축하고 있습니다. 각 사업장은 이에 따라 생물다양성을 테마로 하는 CSV 활동 계획을 수립 및 이행하고 있습니다.

본사 – 민·관협력 자연환경 보존 및 생물다양성 증진사업 2024년말 현대자동차는 한국환경보전원과 아산시와 함께 '자연환경 복원 및 생물 다양성 증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아산지역 내 훼손된 생태계의 복원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번 협약은 민관 공동 생태 복원 ESG 협력사업 추진의 최초 사례이며, 복원 추진 지역은 충남 선장면 군덕리 일원으로 과거 농경지였으나 계절적 유량 변동에 따라 호소, 습지, 농경지로 변화를 반복해왔으며, 현재는 육지화로 인한 습지기능이 훼손된 곳입니다. 현대자동차와 한국환경보전원은 2025년까지 9,000㎡에 이르는 이곳 공간에 수서생물원 등을 조성해 생태환경을 복원할 계획이며 아산시는 자연환경 복원 이후의 유지관리를 담당할 예정입니다.

울산공장 – 태화강과 멸종 위기종 보전·보호 활동 울산공장은 인근 생태계 보호지역인 태화강과 태화강에 서식하지만 개체수가 줄어들고 있는 위기종들을 보호·보전하는 활동을 지속적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2024년에는 태화강보전회 및 EAAFP(동아시아-대양주 철새이동경로 파트너십) 후원을 통해 흰목물떼새를 포함한 태화강 하구 물새류 보호, 잔가시고기를 포함한 척과천 물고기 보호 활동, 해수변 플라스틱 수거 활동 등을 시행하였습니다. 2025년에는 태화강에 서식하고 있는 각시붕어에 대한 보호 및 복원활동을 시행할 예정입니다. 각시붕어는 태화강에 서식하는 한국의 토종 어종이며 생태계에 중요한 역할하고 있는 깃대종으로 법적 보호종입니다.

아산공장 – 영인산 '현대차 숲' 만들기 식목 활동 아산공장은 2022년부터 아산시 소재의 영인산과 1社 1山 결연을 맺고, 매년 1,000만 원의 예산을 지원하여 영인산 '현대차 숲 만들기'를 지속 실시하였습니다. 2024년에도 아산시 시설관리공단과 함께 탄소저감 우수 수종인 왕벚나무를 식재하였습니다.

전주공장 – 멸종위기종 식물 보전사업 전주공장은 2024년 전북지방환경청, 덕유산국립공원, 국립공원 야생생물보전원 식물센터, 굿네이버스 전북본부 외의 업무협약 체결을 시작으로, 덕유산 내에서 새로 발견된 멸종위기 1급 광릉요강꽃 보호활동과 멸종위기 2급인 날개하늘나리 증식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생물다양성 완화 방식별 주요 활동

완화 방식	주요 활동
회피 (Avoid)	• 대규모 사업장에 대한 신축·변경·증설을 추진하기 전 해당 활동으로 인해 사업 예정 부지 및 주변 지역의 생물다양성(동식물상)을 포함한 대기환경, 수환경, 토지환경 등 자연자본 전체에 미칠 영향을 선평가하고, 평가결과에 따라 사업 진행 또는 제한·보류 여부를 결정함
저감 (Reduce)	• 축열식연소장치(RTO)·집진장치·무방류 시스템·수용성 도료 사용 등 사업장의 대기·수질·토양 오염물질 방출을 최소화할 수 있는 환경설비의 적극적 도입 추진 • 생산 및 판매하는 제품의 환경 영향을 평가하기 위해 지구온난화·산성화·부영양화·광화학 산화물 생성 부문에 대한 제품 전과정 환경영향 평가(LCA)를 시행하고 있으며, 전기차 전과정 환경영향 평가(LCA)에서 신재생에너지 기반 전기를 사용할 경우, 전기차가 내연기관차 대비 탄소발자국을 최대 약 67%까지 감축 가능한 것으로 평가됨에 따라 전기차로 전환 추진 중임 • 물 부족과 낮은 수질은 생물다양성 손실의 직접적인 원인으로 제조 시 사용되는 용수의 사용 효율화를 제고하고 있으며 내부 관리 기준을 기반으로 폐수를 관리 중임 • 차량 제조 시 금속, 고무, 가죽 등 다양한 원소재가 사용되고 있어 원소재 채굴 시 생물다양성에 미치는 영향을 줄이기 위해 지속가능한 소재 적용을 추진하고 있음
변경 (Transform)	• 민관협력 친환경 생태공원 조성 및 생태계 복원 신기술 개발·확산 추진 - 브라질 TNC(The Nature Conservancy)와 상파울루 주립대학교 숲과학부와 함께 숲 복원 신기술(Green Field 등) 개발 위한 연구림 조성 및 신기술 확산 추진
복원 (Restore)	• 멸종위기에 처한 고위험종과 기후변화 위기종, 훼손된 생태계에 대한 복원 추진 - 동물 복원 : 울산시와 동아시아-대양주 철새이동경로 파트너십과 협업하여 태화강에 서식하는 멸종위기종 흰목물떼새와 천연기념물인 독수리에 대한 보호구역 설정 등을 통해 종 보존 및 복원 추진 - 식물 복원 : 홍천지역의 기후변화 위기종인 구상나무 양묘 및 식재 사업에 이어 국립공원공단과 협업하여 덕유산에서 광릉요강꽃, 날개하늘나리 등 멸종 위기종으로 분류된 식물 복원사업 추진 - 생태계 복원 : 아산시와 함께 민관 공동 사업으로 아산지역 내 생태계가 훼손된 지역(약 9,000㎡)에 대한 복원 및 생태공원 조성 사업 추진
재생 (Regenerate)	• 육지·해양 생태계 재생 프로젝트 추진 - 육지 생태계 : '아이오닉 포레스트 프로젝트'을 통해 한국/남미/북미/유럽 등 세계 각지에서 2035년까지 200만 그루 나무를 식재하여 육지생물 개체수 증대 유도를 위한 서식지 확대 추진 - 해양 생태계 : Healthy Seas와 협업하여 2025년까지 유럽(그리스/프랑스 등 유럽 8개국), 한국, 미국에서 해양 쓰레기(폐그물 등) 총 230톤 수거 활동 추진, 해양어종 회귀 등 해양생물 개체수 증대 유도

구분	측정 지표	추진 목표	추진 실적	목표 달성 세부 전략
육지 생태계	• 재생 면적 • 숲 조성 위한 나무 식재 수	• 재생 면적 : 2035년까지 2,000헥타르 육지 생태계(숲, 초지) 재생 • 나무 식재 : 2035년까지 200만 그루 식재	• 재생 면적 : 2016년부터 2024년까지 총 1,803헥타르 숲, 초지 등 육지생태계 재생 완료 • 나무 식재 : 2016년부터 2024년까지 총 902,439그루 식재 완료	• 한국 중심에서 미국, 브라질, 체코 등 당사 생산공장이 위치한 주요 국가들에서도 생태계 재생 프로젝트 전개 등 아이오닉 포레스트 글로벌 시장 확대 전개를 통해 목표 달성 추진
해양 생태계	• 폐어망 포함 해양 쓰레기 수거량	• 2025년까지 해양 쓰레기 230톤 수거	• 2021년부터 2024년까지 유럽 내 8개국과 한국, 미국에서 약 45회에 걸쳐 누적 278톤의 해양쓰레기 수거 완료 (2024년 폐어망 중심으로 63.4톤 수거 완료)	• 유럽 8개국 외에 한국, 미국에서도 해양 쓰레기 수거 활동 추진 등 해양쓰레기 수거 지역 확대 통해 목표 달성 추진

생물다양성

BUSINESS CASE

메타플랜트 아메리카(HMGMA)- 생물다양성 영향 평가

현대자동차는 그룹차원에서 미국 조지아주에 메타플랜트 아메리카(HMGMA, Hyundai Motor Group Metaplant America) 신공장 건설을 추진함에 따라, 해당 부지 인근에 서식하는 동식물종에 대해서 생물다양성 영향 평가를 실시했습니다. 이번 평가 범위는 HMGMA 공장 부지를 포함하여 조지아주정부가 대규모 제조시설 부지로 개발한 메가 사이트 인근 지역을 대상으로 하였으며, 미국 연방정부와 조지아주정부의 법률(US Endangered Species Act)로 보호받고 있는 동식물종 에 대한 영향을 평가했습니다. 평가결과를 바탕으로 미국 보호종 관리 정부기관인 미국 어류 및 야생 동물 관리국 (US Fish and Wildlife Service) 등과의 협업을 통해 보호 및 완화 조치의 필요성을 판단하였습니다. 이처럼 현대자동차는 대규모 신공장 건설 시 사전 생물다양성 영향 평가를 통해 신공장 건설이 지역 동식물종에 미치는 영향을 식별하고 이를 완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생물다양성 평가 구역

평가 구역은 미국 조지아주 사바나 지역의 브라이언 카운티 엘라벨에 위치한 신공장 인근으로 브라이언 카운티 내 블랙크릭 인근 지역입니다. 이 지역은 목재 생산을 위해 관리되었던 부지로, 습지와 건조지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특히 습지 지역은 동부 인디고 뱀, 서리 평지 도롱뇽, 줄무늬 도롱뇽, 고퍼 거북 등 파충류와 양서류의 서식지로 알려져 있어 이번 조사를 통해 법적으로 보호되고 있는 파충류 및 양서류에 대한 평가가 진행되었습니다.

생물다양성 평가 방식

평가는 문헌 사전 조사, 현장 조사, 전문가 참여 세 단계로 구성되었습니다. 먼저, 해당 지역의 주정부 및 연방정부 기록과 국가 습지 지도 등 다양한 지리 정보 자원을 활용하여 서식지에 대한 사전 조사를 수행하였습니다. 또한, 미국 어류 및 야생동물 관리국과 조지아주 자연자원부의 정보를 통해 법정 보호종 목록에 등재된 종의 서식 가능성에 대해 문헌 조사를 진행하였습니다. 현장에서는 보행 조사를 통해 서식지의 현재 상태와 법정 보호종 목록에 등재된 종의 서식 가능성을 확인하였습니다. 서식지의 유형, 식물군, 그리고 서식지에 살고 있는 종의 구성을 기록하고, 현장과 식물 군집 및 서식지 유형의 현 상황을 문서화하기 위해 사진을 촬영하였습니다. 서식지 사전 및 현장 조사에서 파충류 및 양서류의 서식을 확인한 후에는 파충류 전문가(John Palis)에 자문을 구해 동부 인디고 뱀, 서리 평지 도롱뇽, 줄무늬 뉴트, 고퍼 거북과 같은 특정 보호종에 대한 심층 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생물다양성 평가 결과

이번 평가는 서식지 유형 평가와 연방 및 주정부로 보호받고 있는 법적 보호종 중심의 개체 서식 여부 식별 및 영향 평가로 구분하여 진행되었습니다. 브라이언 카운티 지역은 목재 생산을 위해 관리되었던 곳으로, 대부분 고지대와 습지로 이루어져 있으며 조지아 연안 평지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현장 조사 결과에 따라 식별된 브라이언 카운티 내 서식지 유형과 특성은 다음 표와 같습니다.

평가구역 내 서식지 유형 분석 결과

유형	주요 특성
소나무 조림지 고지대	목재 생산을 위한 조림지로 다양한 연령대의 소나무가 체계적으로 관리되었으며, 평가구역 내 대부분이 이에 해당함
소나무 조림지 습지	남동쪽에 위치해 있으며, 수분 포화 및 침수가 빈번하게 발생함
산림 습지	평가구역 전역에 분산되어 있고, 성숙한 활엽수 종이 분포함
관목 습지	활엽수가 재배되었던 지역으로 밀도 높은 하층을 보유하고 있으며, 습지 경계를 따라 위치함
간헐적 하천	산림 습지내 중심부에 위치해 있으며, 식생이 없고 모래와 진흙으로 이루어져 있음

법정 보호종 미국 연방정부의 멸종위기종법(Endangered Species Act)으로 보호받고 있는 멸종위기종(Endangered, E)과 멸종 위협이 있는 종(Threatened, T)에 대한 평가가 이루어졌습니다. 특히 평가구역 내 서식지 유형에 대해 선호도가 높은 보호종을 선별하여 심층 조사를 진행하였습니다.

- **붉은 배딱다구리(E) :** 해안 평야와 습지 변두리를 따라 위치한 소나무숲은 해당 종이 선호하는 서식지 유형이지만, 빽빽한 그늘이 있어 현장조사 기간 내 서식 개체 및 둥지 등의 흔적이 발견되지 않음.
- **동부 인디고 뱀(T) :** 소나무와 덤불이 많은 평야, 담수 습지 및 해안 사구 등 다양한 유형의 서식지를 선호함. 추위와 건조함을 피하기 위해 고퍼 거북의 굴에 공존하지만, 보행조사 시 서식 흔적이 발견되지 않음.
- **서리 평지 도롱뇽(T) :** 번식지인 고립 습지에 대해 심층 조사 진행하였으나, 개체가 발견되지 않음.

보호 후보종 (Candidate, C) 미국 연방정부의 보호 후보종에 해당하는 고퍼 거북과 줄무늬 뉴트 역시 평가구역 내 서식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확인하여 별로 심층 조사를 진행하였습니다.

- **고퍼 거북(C) :** 고퍼 거북은 연방정부의 보호 후보종이나, 조지아주정부의 멸종위기종으로 분류되어 보호받고 있는 종으로 평가구역 내 고퍼 거북 땅굴이 다수 발견됨. 하지만 굴을 파기에 적합한 모래 토양, 햇빛 및 풍부한 초본이 서식지 필수 요소이나 평가구역 내 반복되는 소나무 식재 및 수확으로 인해 고퍼 거북의 자연 서식지는 대부분 사라졌음. 이로 인해 과거에 고퍼 거북의 이주가 진행된 것처럼, 남아 있는 고퍼 거북의 대체 서식지로의 이주가 필요함.
- **줄무늬 뉴트(C) :** 파충류 전문가인 John Palis가 직접 현장 조사를 수행하였으나, 개체 발견되지 않음.

흰머리수리 및 검독수리 국가적 노력으로 개체 수를 회복한 흰머리수리 및 검독수리는 멸종위기종에서 제외된 이후 별도 지침에 따라 보호됨. 타기관 수집 데이터에 따르면 평가구역 내 둥지가 없고 현장 조사 시 서식 개체 발견되지 않음.

평가구역 내 법정 보호종 현황 및 영향평가 결과

종 분류	일반명	법정보호종[1]		서식 여부	영향평가 결과
		연방	주		
양서류	서리 평지 도롱뇽	T	T	아니오	영향 없음
	줄무늬 뉴트	C	T		
조류	붉은 배딱다구리	E	E		
	붉은 매듭 도요	T	T		
	아메리카 황새	T	T		
어류	대서양 철갑상어	E	E		
	짧은코 철갑상어	E	E		
포유류	북대서양 참고래	E	E		
	서인도 해우	E	E		
파충류	동부 인디고 뱀	T	T	관찰되지 않음[2]	다소 영향
	고퍼 거북	C	T	예	
	녹색 바다거북	T	T	아니오	영향 없음
	장수 거북	E	T		
	붉은 바다거북	T	T		

1. E(Endangered) : 멸종위기종, T(Threatened) : 멸종 위협이 있는 종, C(Candidate) : 보호 후보종
2. 관찰되지 않음(None observed) : 평가구역 내 생물종이 선호하는 유형의 서식지는 있으나, 평가 수행 기간 내 현장조사를 통해 개체 서식을 확인하지 못함.

완화 조치

현대자동차는 사업장 인근 지역 생물다양성에 대해 예상되는 영향을 파악하기 위해 생물다양성 영향 평가를 실시하고 평가결과에 따른 완화 조치를 이행하고 있습니다. HMGMA 공장을 가동하기 전인 2024년 11월에 미국 어류 및 야생 동물 관리국(US Fish and Wildlife Service) 및 조지아주 야생동물 자원부(Georgia Wildlife Resources Division) 주관으로 평가구역 내 실제 서식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된 '고퍼 거북 이주 조치'를 진행하였습니다. 고퍼 거북은 주로 미국 남동부에 서식하고 있으며 1989년에 조지아주의 파충류로 지정되어 보호받고 있는 북아메리카 고유 토종 거북입니다. 고퍼 거북은 최대 40피트 이상 땅굴을 파서 서식하고 있으며 이 땅굴은 고퍼 거북 외에 다른 동물에게도 은식처로 활용되는 등 생태계에 큰 역할을 하는 핵심종으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이번 이주를 통해 106마리의 고퍼 거북이 조지아주 스튜어드 요새 인근 지역으로 이주되었습니다.

오염물질

현대자동차는 오염물질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관리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생산 공정 전반에서 배출되는 오염물질로 인한 환경 영향을 저감하기 위해 설비 교체 및 신규 설비 투자를 진행하고 있으며, 사내 관리 기준을 적용하여 대기 및 수질 오염물질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또한 유해물질의 경우 환경 영향뿐만 아니라 유관부문 임직원 안전보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으므로 법적 규제는 물론 글로벌 이니셔티브에도 대응하고 있습니다.

대기오염물질

현대자동차는 사업장이 소재한 국가의 법적 허용 기준치를 참조해서 사내 관리기준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사내 관리 기준에 따라 대기환경에 부정적 영향을 주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질소산화물(NOx), 황산화물(SOx), 먼지(PM) 등 대기오염물질의 배출량을 정기적으로 모니터링하고 법적 기준치를 준수하여 배출하도록 관리하고 있습니다. 직전년도 대기오염물질 배출실적 기준으로 범위를 설정하여 매년 사업장별 자체 배출 목표를 수립하고, 목표 대비 실적 평가를 통해 배출량이 생산량 증가와 맞물려 증가하지 않도록 관리하고 있습니다.

단일공장별로는 울산공장의 경우 노후화되고 있는 대기방지설비들에 대해 정기적으로 점검 및 개보수를 시행하고 있으며, 고농도 오염물질 배출 시설인 가스열펌프 냉방기(GHP)에 오염물질 저감장치를 설치하였습니다. 전주공장도 지속 강화되는 대기환경보전법 준수를 위해 폴링제 및 백필터 충진재 교체 등을 추진하였으며 대기모니터링 시스템 교체 공사와 대기측정업체에 대한 현장 평가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HTWO광저우공장은 공장 내 보일러를 설치하지 않고 정부로부터 직접 난방공급을 받아서 대기오염물질을 줄이고 있습니다. 체코공장과 인도공장은 폐열회수 시스템을 적용하여 오염물질 저감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수질오염물질

현대자동차는 각 생산공장에서 사용한 폐수를 방류하기 전, 각 국가 및 지역에서 규제하는 방류수 오염물질 기준을 준수하고 있으며, 보다 고도화된 처리를 통해 대부분 법정기준치를 하회하는 수준으로 방류수에 대한 오염물질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각 생산공장별 방류수 내 생물화학적 산소요구량(BOD), 총유기탄소량(TOC), 부유물질량(SS) 등 수질오염물질 배출량을 정기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있으며 자동차의 도장 및 세척공장에서 발생하는 총 질산(T-N)과 총 인(T-P) 등의 수질오염물질도 측정 및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측정 자료와 직전년도 수질오염물질 배출 실적을 기준으로 범위를 설정하여 매년 사업장별 자체 배출 목표를 수립하고, 목표 대비 실적 평가를 통해 배출량이 생산량 증가와 맞물려 증가하지 않도록 관리하고 있습니다. 수질오염물질을 줄이기 위해 필요한 설비를 설치 및 운영하고 있으며 폐수를 방류하기 전 물리·화학적 처리뿐 아니라 3차 처리인 고도처리까지 진행하고 있습니다. 단일공장별로는 전주공장의 경우 폐수 배관 및 냉각탑 간접 배출수 드레인 계통 변경 등의 설비 개선을 실시하였고, 미국공장은 오일 함유 폐수 처리를 위해 유수 분리기와 부유 고형물 필터를 설치하였습니다.

유해물질

유해물질 관리 기준 현대자동차는 유해물질을 사용금지, 사용제한, 관리강화 3단계로 나누어 관리하고 있으며 국제 기준과 이니셔티브, 국내외 법규를 분류 기준으로 삼고 있습니다. '사용금지'로 분류된 물질은 고위험 규제 물질로서 사용을 금지하고 대체물질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사용제한'으로 분류된 물질은 원칙적으로 사용을 금지하고 있으나, 예외 조항에 포함된 용도에 한해서 제한적으로 사용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관리강화'는 사용 현황을 모니터링하여 체계적으로 관리하며 사용하고 있는 물질입니다.

이러한 자체 기준을 바탕으로 유해물질을 관리하고 있으나, 수많은 부품을 필요로 하는 자동차 산업의 특성상 자체 기준만으로 제품의 유해물질을 차단하기에는 어려움이 존재합니다. 이에 현대자동차는 공급망에도 동일한 유해물질 관리 기준을 적용하여 당사에 최종 납품되는 제품 내에 규제물질이 함유되지 않도록 관리하고 있습니다.

물질 정보 조사·분석 현대자동차는 EU REACH, 미국 EPA TSCA 산하 PBT, 한국 화평법 등에서 규제하는 물질들의 제품 함유 여부를 점검하고 있습니다. 제품 점검은 신차 개발단계와 양산 이후 단계 등 두 단계에 걸쳐서 시행되고 있습니다. 신차 개발 및 설계 단계에서 국제 부품 재질 정보 시스템인 IMDS(International Material Data System)과 내부 차량부품 재질 분석 시스템 MAMS(Material Analysis Management System)를 기반으로 부품 내 화학물질 구성 정보를 파악하여 규제물질 함유 여부를 점검하고 있습니다. 1차 물질 정보 점검 결과를 토대로 고위험 부품 대상으로 프로토 및 파일럿 시제 부품들을 분석하여 해당 부품에 대한 함유 여부를 추가 점검하고 있습니다. 양산 이후에는 협력사 대상 정기 점검조사 시, 부품 실물 및 재료 분석 조사를 실시하여 양산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는 물질 정보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유해물질 관리 신규 고위험물질에 대한 검토와 대체물질 파악 및 적용을 통해 사고 위험을 예방하고 있습니다. 유해화학물질 취급 시, 환경설비 통합 모니터링 시스템을 활용하여 유해화학물질 누출 여부를 실시간으로 확인함으로써 보다 안전한 작업환경을 유지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현대자동차는 2003년부터 매년 협력사 담당자를 대상으로 국내외 유해물질 규제 동향 및 대응 필요사항을 지속적으로 공유하고 있으며, 필요 시 협력사 자체 유해물질 규제 대응 체계 구축을 지원함으로써 공급망 내 유해물질도 관리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해마다 IMDS 사용자 교육을 실시하여 IMDS 데이터의 정합성 향상에 힘쓰고 있습니다.

규제 및 이니셔티브 대응 현대자동차는 유해물질에 대한 국제적 규제와 기준, 이니셔티브를 지지합니다. 국내외에서 유해물질에 대한 사용 금지·제한 규제가 확정되기 이전부터 대체물질을 개발·적용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가장 선도적으로 유해물질을 규제하는 유럽연합의 ELV(End-of-Life Vehicles) 및 REACH(Registration, Evaluation, Authorization and Restriction of Chemicals) 규제, 미국의 TSCA(Toxic Substance Control Act) 뿐만 아니라 브라질, 인도 등에서 규제하는 고위험 물질에 대해서도 대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국내 살생물제 규제와 관련하여 국민의 건강과 직결되는 부분인 만큼 정부와 합동으로 '살생물제 규제대응 가이드라인-자동차편' 을 제작하여 대응하는 등 유해물질 저감을 위한 적극적인 활동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유럽과 북미에서 규제가 논의 중인 과불화화합물(PFAS)에 대해서는 예상 규제시점(2029년 전망) 이전 사용금지를 목표로 대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현대자동차는 과불화화합물의 대체물질을 파악하고 적용하기 위해 원소재 및 부품업체와 협력하고 있으며 R&D센터 내 유해물질 관리 조직과 재료 및 설계파트, 구매본부 등이 참여하는 전사 PFAS 협의체를 구축하여 대응 중입니다. 향후 현대자동차는 과불화화합물 규제 대상 차종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대체를 추진할 예정입니다.

4대 중금속 관리 현대자동차는 2003년 7월, EU 폐차(ELV: End-of-Life Vehicle) 지침으로 인해 EU시장 내 4대 중금속 사용이 금지되었습니다. 4대 중금속에는 인체에 축적되어 중금속 중독을 일으킬 수 있는 납, 카드뮴, 6가크롬, 수은이 포함됩니다. 이러한 유해물질에 대한 관리는 2002년 12월에 제정한 유해물질 자체 관리기준에 따라 마련되고 있습니다.

사업장 환경 이니셔티브

Business Case

현대자동차는 국내 및 해외 사업장별 정량적 환경 지표에 대한 개선을 추진함과 동시에 정성적 측면에서 국내 및 해외사업장별 환경개선 활동을 적극적으로 전개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정성적 활동들도 정량적 지표와 더불어 사업장의 성과지표에 포함되어 사업장들의 환경성과 평가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국내 사업장

울산공장 중대 환경사고 사전 예방 및 환경사고 발생 시 즉시 대응을 위해 구축한 울산공장 내 환경사고 고위험 설비를 대상으로 IoT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2024년에는 대기방지설비, LNG유량계, 가스누설경보기, 냉각탑용수압력계, 오수 집수조 설비에 대한 IoT 기반 설비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실시간으로 설비들을 모니터링하고 사고 발생 시 신속하게 대응하며 중대 환경사고 '0'건 달성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4공장에서는 R.O 순수폐수 재활용 시스템을 구축하여 폐수를 재활용할 수 있게 하였습니다. 또한, 수위 모니터링을 통한 상시 자동 보충 시스템과 경보 시스템을 적용하여, 공업 용수 부족에 따른 환경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아산공장 아산공장은 높은 재활용 비율과 매립 최소화 실적을 기반으로 국제 안전과학 인증기관 UL 솔루션의 폐기물 매립 제로(Zero Waste To Landfill, ZWTL) 대외 인증에서 가장 높은 Platinum 등급(재활용률 100%)을 국내 완성차 업체 최초로 획득하였습니다. ZWTL 인증은 사업장의 폐기물 재활용 수준을 확인하여 실질 재활용률에 따라 등급을 부여하는 인증제도로 아산공장은 자동차 프레스공정에서 발생하는 고철을 재활용하여 철강제품을 생산하는 등 자원순환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남양연구소 남양연구소 내 건물 공조 및 연구 목적으로 다수의 냉각탑을 운영하고 있으며, 냉각 성능 유지 및 미생물 번식 방지를 위해 냉각탑 내 순환수 일부를 방류하고 상수도를 사용하여 순환수를 상시 보충하고 있습니다. 순환수 방류 및 상수도 과다 사용을 개선하기 위해 냉각탑 자동밸브 시스템을 구축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냉각수 상시 보충이 아닌 수질에 따라 간헐적 보충으로 용수 사용량 및 방류량을 감축하였습니다.

본사/남양연구소/국내사업본부 2024년 상반기에 양재 사옥과 남양연구소에서 임직원 및 일반시민 대상 생물다양성의 중요성을 알리기 위해 MBTI와 연계한 멸종위기종 전시회를 포함한 'Colorful Life 교육 캠페인'이 시행되었습니다. 이외에도 국내사업본부 주관으로 여의도공원 롱기스트런 행사장 내 멸종위기종 전시를 포함한 'Colorful Life 전시 부스'를 운영하여 고객들에게 생물다양성의 중요성을 알렸습니다.

해외 사업장

미국생산법인(HMMA) 미국생산법인은 소형 유해 폐기물을 드럼통에 넣어서 폐기물 처리업체에 운송하였습니다. 이를 새로운 폐기물 통합 관리 시스템 구축을 통해 처리 프로세스를 개선하고 환경오염 물질을 감축하였습니다. 이번 시스템을 통해 폐기물 측정방법을 부피에서 무게로 전환하고 드럼 파쇄 및 압축기를 도입하여 드럼 내 빈공간을 없애서 폐기물 배출량을 감축하였고, 빈 드럼통의 경우 압축해서 금속을 재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중남미권역본부(HMCSA) 중남미권역본부는 ESG 가치 실현을 위해 다양한 환경 인증을 취득하고 있으며, 브라질 내 자동차 회사 최초로 폐기물 관리 책임 기업 인증(Responsible Company Certification), 폐기물 제로 인증(Zero Waste Institute), 사회적/환경적 기업 책임 인증(PROCERT)을 취득하였습니다. 또한, 2024년에는 피라시카바 공장의 유기 폐기물에서 생산된 토양 화합물을 지역 자선단체 기부하였습니다.

멕시코생산법인(HYMEX) 멕시코생산법인은 환경 및 사회적 영향을 방지하기 위해 생산 공정 내 트레일러 청소 및 세척에 사용되는 화학물질(신너, 염화메틸렌, 알코올 등)을 친환경 용제(Orange, RH-454)로 대체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연간 휘발성 유기물(VOC) 배출량을 223.5톤(전년 대비 69%) 저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체코생산법인(HMMC) 체코생산법인은 공업 용수 사용량 절감을 위해 환경 CFT를 구성하여 운영 중이며, 공법 개선 등을 통해 용수 사용량을 절감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폐수에서 발견되는 중금속, 특히 니켈 배출량을 저감하기 위해 지난 9월부터 중화제 테스트를 진행 중이며 이를 통해 오염물질 배출량을 줄여 나갈 계획입니다.

인도생산법인(HMI) 인도생산법인은 2024년 6월5일 세계 환경의 날을 기념해서 다양한 환경개선활동을 시행하였습니다. 2024년 환경의 날 주제인 '육지 생태계 복원, 사막화와 가뭄으로부터의 회복(Land restoration, desertification and drought resilience)'에 부합하도록 토양 오염과 육지 생태계 재생을 위해 토양 오염에 대한 내부 감사와 더불어 'Soil is Soul. Conserve It'라는 슬로건을 기반으로 임직원 대상 교육 및 인식 캠페인을 전개하였습니다. 또한 경영진과 임직원들이 함께 공장 내 100그루의 식재 활동도 시행하였습니다.

현대상용기차(중국)유한공사(HTBC) 현대상용차생산법인은 토양과 지하수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기 위해 외부업체를 통해 토양 및 지하수 검측을 시행하였습니다. 주요 검측 구역은 도장공장, 오수처리장, 오일창고 등 13개 장소이며 중금속, 휘발성 유기물(VOC) 등 87개 항목에 대해서 검측이 이루어졌습니다. 이번 검측 결과를 기반으로 토양과 지하수에 부정적 영향을 완화해 나갈 예정입니다.

1. 중남미권역본부 폐기물 제로 인증 획득
2. 인도생산법인 환경의 날 기념 식재행사 시행
3. 현대상용기차(중국)유한공사 토양 검측 시행

Social

기업은 경제적 가치를 창출하기 위해 존재하지만,
그 과정에서 사회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책임을
다하지 않는 기업은 더 이상 지속가능하지 않습니다.
현대자동차는 글로벌 지역사회의 일원으로서
성장을 위한 올바른 방향과 사회를 위한 올바른
변화를 함께 고민하며, 더 많은 사람들이
현대자동차로 인해 더 큰 가치를 누릴 수 있도록
사회적 가치를 확산하며 지속가능한 성장을 실현해
나가고 있습니다.

3.1	인권경영 및 인적자원 관리
3.2	안전보건
3.3	지속가능한 공급망
3.4	고객경험 혁신
3.5	CSV 이니셔티브
3.6	정보보안 및 개인정보보호

인권경영 및 인적자원 관리

현대자동차는 인권·노동과 관련한 국제 표준 및 가이드라인을 지지하며, 이를 바탕으로 전 세계 사업장을 포함한 공급망에서 인권경영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인권경영 4대 이해관계자(임직원, 협력사, 지역사회, 고객 및 소비자)를 정의하고, 각 이해관계자 유관 부서와의 협업 하에 매년 인권경영 과제를 선정, 미흡한 부분을 개선하기 위해 노력합니다. 또한 매년 사업장 및 협력사 인권 실사를 시행하여 잠재적·실재적 인권 리스크를 발굴하고 적합한 완화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한편, 인적자원 관리 측면에서는 미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인재 채용 전략을 시행하고, 임직원 핵심 직무역량 향상을 위한 교육 체계를 구축하였습니다. 또한 공정한 성과보상 체계, 맞춤형 복지 제도와 글로벌 기업문화 프로그램을 운영합니다. 다양한 특성과 경험을 가진 임직원이 함께 일하는 것을 중요한 가치로 인식하며, 다양성과 포용성이 존중되는 조직문화 구축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인권경영 추진

방향성 및 전략

현대자동차는 아래에 명시한 인권·노동 관련 국제 표준 및 가이드라인을 지지하며, 이에 기반하여 글로벌 인권경영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국제 표준 및 가이드라인 목록

세계인권선언	OECD 실사 가이드라인
UN 기업과 인권 이행 원칙	UN 아동권리협약
국제노동기구헌장	UN 여성차별철폐협약
OECD 다국적기업 가이드라인	UN 여성과 아동의 인신매매 방지, 억제 및 처벌을 위한 의정서

현대자동차는 인권경영 4대 이해관계자를 임직원, 협력사, 지역사회, 고객 및 소비자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인권경영 추진 항목은 총 5가지(거버넌스, 교육, 선언, 실사, 구제)로 구성되어 있으며, 매년 각 항목별 현황 및 미흡사항을 분석하여 해당 연도의 핵심 인권경영 과제를 선정합니다. 선정된 과제에 대해서는 HR, 구매, 안전보건, 법무 등 유관 부문과의 협의를 통해 단계적 개선 방안을 모색하고, 실질적인 변화를 유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현대자동차는 이해관계자들의 인권을 보호하고 존중하는 글로벌 기업 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거버넌스

보고 체계 현대자동차의 인권경영 거버넌스는 상시 보고 체계와 이슈 대응 체계로 구분됩니다. 사업장 및 협력사 실사를 통해 식별된 각 사업장/지역별 인권 리스크는 최고경영층 및 이사회(지속가능경영위원회)에 보고하며, 그 외 중대한 인권 관련 안건이 있을 경우 수시로 경영층에 보고합니다. 또한 2024년 12월에는 공급망지속가능협의체를 신설하였고, 구매, 법무, IR, PR, 대관부서, ESG부서 등이 참여하여 정기적으로 공급망 환경/인권 이슈를 함께 논의하고 있습니다. 향후에는 공급망 인권 이외에도 여러 인권 이슈를 포괄하는 정기적인 인권 협의체 운영을 통해 글로벌 인권 리스크를 사전에 센싱/예방하고, 이미 발생한 인권 이슈에 대해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해 나갈 것입니다.

인권경영 추진 체계

인권경영 추진 대상 및 주요 주제

이해관계자	주요 토픽	유관부서
임직원	근로조건, 노동조합, 안전보건, 차별, 다양성, 개인정보	HR, ER, 안전보건, 정보보호
협력사	상동 + 아동·강제노동	구매, 안전보건, 신규사업 관련 부서
지역사회	취약계층 강제노동, 거주환경	구매, 신규사업 관련 부서
소비자·고객	개인정보, 알 권리, 차별, 제품안전	홍보마케팅, 고객서비스, 정보보호, 품질

인권경영 추진항목 별 현황 및 계획

	거버넌스	교육	선언	실사	구제
현황	• 인권 유관조직 및 국내외 사업장 대상 KPI 부여 • 공급망 지속가능 협의체 운영	• ESG 교육 콘텐츠에 인권 포함 • 글로벌 다양성 및 포용성 교육 • 직무별 인권경영 교육	• 인권헌장, 다양성 정책, 차별 및 괴롭힘 예방 선언 공개 • 글로벌 사업장 대상 인권헌장 원칙 전파 (각국 현지어번역 포함)	• 사업장 및 협력사 실사 진행 • 진단실사 결과기반 개선조치 사항 지속 모니터링	• 임직원 고충접수 채널 운영 및 데이터 관리 (One Click HR 등)
계획	• 포괄적 인권 이슈 협의체 구축	-	• 인권헌장 정기적 개정	• 지역사회/소비자 인권영향평가 수행	• 이해관계자 전체 고충접수채널 운영

인권경영 거버넌스

상시 보고체계

이사회(지속가능경영위원회)
↑
최고경영층(C-Level)
↑
각 부문 담당 임원
↑
이해관계자별 인권 관리 부서

이슈 대응체계(공급망지속가능협의체)

• 주기 : 분기 1회 운영 (필요 시 긴급회의 소집)
• 목적 : 공급망 인권/환경 리스크 센싱 및 이슈에 대한 내부 의사결정

내부 현황 점검 및 개선			외부 이해관계자 대응		
구매	법무	ESG	IR	PR	대관부서

주요 부서별 역할

부서	역할	부서	역할
ESG 기획팀	• 인권경영 전략 수립 및 개선과제 추진 • 국내외 사업장 인권 실사 수행 • 인권 관련 평가 대응 및 공시	법무	• 임직원 대상 준법/윤리경영 활동 • 인권 이슈 관련 사항 법적 검토
HR	• (국내/해외) 임직원 고충/성희롱/직장 내 괴롭힘 접수, 신고 조사 및 후속 조치 • 임직원 조직문화 개선 활동 수행 • 불합리한 채용 차별 예방 활동 수행	구매	• (국내/해외) 협력사 인권 실사 수행 및 지원 • 협력사 인권 리스크 개선 활동 • 협력사 고충 접수 및 관리
ER	• 국내외 협력적 노사관계 유지	개인정보 보호	• 임직원/협력사/소비자 개인정보 보호 • 현대/제네시스 프라이버시센터 운영
안전보건	• 사내 안전 관리 및 임직원/협력사 재해 예방, 사고 후속조치	각 사업장	• 사업장 소재지 내 개별 사업장 임직원 인권 보호 활동
IR, PR, 대관부서	• 인권 이슈와 관련한 외부 이해관계자 질의 및 소명 요청 대응		

인권경영 및 인적자원 관리

인권 교육

법정의무교육 및 D&I 교육 현대자동차는 임직원의 인권헌장 원칙 준수 및 인권 의식 제고를 위해 인권 교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진행한 인권 관련 교육과정은 약 20개로, 성희롱 예방교육,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등 법정의무교육뿐 아니라, 인권경영 개념, 인권침해 사례, 인권관련 법제화 및 산업 동향 등 인권경영 전반에 대한 교육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2022년부터는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사회적 이슈화를 고려하여, 전 직원 대상 직장 내 괴롭힘 예방 교육을 연 1회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윤리경영에 대한 전사적 인식 변화를 촉진하기 위해 국내 팀장 대상으로 윤리경영 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2023년에는 해외 법인장 및 주재원 대상으로 확대 실시하였습니다.

특히, 2025년 3월에는 국내외 전사 임직원 약 60,000명을 대상으로 한 글로벌 D&I(다양성 및 포용성) 교육 영상을 배포하였습니다. 해당 교육에서는 표면적 다양성, 심층적 다양성, 포용성의 개념을 소개하고, 임직원 상호 간 인권 존중과 차별 방지를 위해 심리적 안전감이 확보된 조직문화를 조성하고 마이크로어그레션(먼지차별)을 주의해야 한다는 내용을 강조했습니다.

협력사 대상으로는 현대자동차의 '공급망 ESG 리스크 진단·실사', '분쟁광물 관리 절차'에 관한 온라인 설명회를 개최하여 인권경영의 필요성 및 인권 리스크 관리방안을 설명하였습니다. 설명회 내용에는 현대자동차 '협력사 행동규범'에 기반하여 차별금지, 인도적 대우, 근로시간 관리 등 협력사가 준수해야 할 인권경영 기본원칙도 포함되었습니다. 협력사 ESG 설명회에는 총 600여개 협력사가 참석하였습니다.

글로벌 D&I 교육

- **취지** 글로벌 근무 환경에서의 임직원 인권 의식 제고 및 차별 행위에 대한 경각심 유도
- **교육 대상** 약 60,000명 (기술/생산/정비직을 제외한 전 임직원)
- **내용** 표면적/심층적 다양성의 정의, 포용적 조직문화의 중요성, 먼지차별 주의 등
- **방식** 국내외 임직원 대상 온라인 교육 플랫폼 활용

2024년 인권 관련 교육 실시 결과

D&I 교육 (2025년 3월, 국내+해외)	직장 내 괴롭힘 방지 교육 (국내)	협력사 ESG 교육
교육 대상자 수	교육 대상자 수	참여 협력사 수
약 60,000 명	약 70,000 명	600 여개사

인권 선언

인권헌장 현대자동차는 2020년에 최초로 인권헌장을 제정한 이후, 헌장 내 인권 원칙을 준수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현대자동차의 인권헌장은 임직원(임원과 직원), 국내·외 생산 및 판매 법인, 자회사 및 손자회사, 합작투자사(Joint Venture)의 임직원을 모두 대상으로 합니다. 현대자동차 임직원은 공급자 및 판매·서비스 조직을 대할 때에도 본 인권헌장을 따르며, 더 나아가 거래관계에 있는 모든 이해관계자가 본 인권헌장을 존중할 수 있도록 권장하고 있습니다.

현대자동차 인권헌장

현대자동차 10대 인권 원칙

제 1조	아동노동 및 강제노동 금지	제 6조	산업안전보장
제 2조	차별 및 직장 내 괴롭힘 금지	제 7조	지역주민 및 취약계층 인권 보호
제 3조	근로조건 준수	제 8조	고객 인권 보호
제 4조	인도적 대우	제 9조	책임 있는 공급망 관리
제 5조	결사의 자유 및 단체교섭권 보장	제 10조	환경권 보장

인권헌장 2023년 개정본에서는 아동노동 및 강제노동에 대한 무관용 원칙 문구를 추가하고, 인권침해 신고 처리 절차를 보완하였으며, 책임 있는 공급망 관리 및 환경권 보장에 관한 항목을 신설하였습니다. 2025년 개정본에서는 현대자동차가 지지하는 국제 인권 협약의 목록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인권경영에 대한 의지를 강조하였습니다. 향후에도 인권 관련 최신 이슈 및 국제 가이드라인 변경 사항을 시의적으로 반영하여 인권헌장을 정기적으로 검토 및 개정할 예정입니다.

차별 및 괴롭힘 예방 정책 현대자동차는 직장 내 차별·괴롭힘·성희롱 관련 이슈 및 사고를 예방하고 적절한 방식으로 관리하기 위해 차별 및 괴롭힘 예방 정책을 선언하였습니다. 본 정책에 따라, 상호 간의 다름을 이유로 특정 개인이나 집단을 배제·거부하는 행위,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을 이용하여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는 행위,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행위를 엄격히 금지하고 있습니다.

현대자동차 차별 및 괴롭힘 예방 정책

인권 리스크 평가 절차

지표설계	서면진단	현장실사	결과 분석	개선조치
현대자동차 인권헌장,국내외 표준, 산업 이니셔티브[1] 등을 종합 분석하여 차별화된 지표 설계	당사만의 차별화된 지표와 기준에 따라, 잠재 인권 리스크 또는 부정적 요인 파악	사업장별 리스크 레벨 및 서면진단 결과를 고려하여 구체적 영향 요인을 파악하고 실질적 리스크를 추가 발굴하기 위해 사업장 방문	서면진단/현장실사 결과를 종합하여 리스크 정의,사업장 지역별 리스크 특성 등 시사점 도출	각 사업장은 리스크 유형별 최적 개선방안 수립, 실질적 리스크 개선이 이루어지도록 이행 현황 점검

1) UNGPs, OECD 다국적 기업 가이드라인 및 실사 가이드라인, CHRB, Drive Sustainability 등

인권 실사

인권 리스크 평가 범위 현대자동차는 당사 주요 비즈니스와 각 법인 사업의 연관성, 관리 구조, Risk Level 평가 결과를 고려하여 실사 대상을 선정합니다. 2024년에는 완성차 제조 공급망 연계성을 고려하여 총 74개 법인 대상으로 실사를 실시하였으며, 이 중 일부 법인은 제3자 심사기관을 동반한 현장실사를 진행하였습니다. 현대자동차의 인권 실사 대상은 전체 임직원의 90% 이상을 포함합니다. 본 인권 실사를 정례화하여 주기적으로 인권 리스크 평가 지표와 기준을 고도화 할 예정입니다.

인권 리스크 평가 범위

생산법인	울산공장, 아산공장, 전주공장, 해외 지역별 공장 등
본사 및 해외 권역본부	서울 본사 및 해외 본부 등
연구소	남양연구소, 해외 지역별 연구소 등
국내사업법인	하이테크센터 및 출고지원센터
해외사업법인	해외 지역별 판매법인 등

인권 리스크 취약 계층 임직원 구성 현황, 사업운영 방식 및 지역, 생산·판매하는 제품 및 서비스, 환경 및 지역사회 영향력, 공급망으로부터 조달 받는 제품 및 서비스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임직원, 지역사회, 여성 및 아동, 이주/계약 노동자, 협력업체를 주요 인권 리스크 평가 대상으로 선정하였습니다. 또한 당사 신규 사업 관계(합병, 인수, 신규계약 등)로 인한 공장 신·증설 투자 건에 대해서는 별도의 ESG 체크리스트 검토 과정을 통해 취약 계층 인권 리스크를 사전에 식별, 예방하고 있습니다.

인권 리스크 평가 지표 설계 현대자동차는 당사 비즈니스 영역 안팎으로 잠재되어 있거나 발생가능성이 있는 인권 리스크를 정확히 식별하고자 노력합니다. 이를 위해 현대자동차 인권헌장을 기반으로 국내외 인권경영 표준, 산업 이니셔티브의 매뉴얼, 동종사 Best Practice 등을 참고하여 인권 리스크 평가 지표를 설계하였습니다. 또한 과거에 인권 관련하여 접수/처리되었던 고충 유형 분류, 임직원 의견 청취, 제3자 전문기관의 검토 과정을 거쳐 당사만의 인권 리스크 진단·실사 지표를 구성·운영하고 있습니다.

인권경영 및 인적자원 관리

인권 리스크 사전 예측 인권 리스크 서면진단 및 현장실사를 수행하기 전, 국가별 인권 관련 법·제도 현황, 국내외 기관 및 언론의 조사자료, 산업 이니셔티브의 문헌자료, 사업장 담당자 인터뷰 및 의견청취 등 내·외부 환경을 조사하여 임직원, 여성, 아동, 이주노동자, 협력사, 지역주민 등 다양한 계층에서 발생가능한 인권 리스크를 사전에 예측하고 있습니다.

인권 리스크 사전 예측 결과는 사업장별, 계층별 진단·실사 지표를 차등하여 적용하거나, 리스크를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도록 지표별 기준을 보완·강화하는 데 활용합니다. 2024년 인권 리스크 사전 예측 결과는 2023년과 유사하게, 국내는 협력업체의 근로조건(급여, 근무시간 등), 차별 및 직장 내 괴롭힘 측면에서 인권 리스크 발생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추정하였습니다. 또한 해외의 경우 이주/계약 노동자 및 여성/아동의 강제노동, 아동노동, 차별 등과 관련하여 리스크 발생 가능성이 존재하는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인권 리스크 서면진단 현대자동차는 당사 사업환경 및 특성을 고려하여 개발된 인권 리스크 진단·실사 지표에 따라, 설문 형식으로 서면진단을 시행하여 다양한 영역에서 잠재된 인권 리스크를 식별하고 있습니다. 서면진단 시에는 각 사업장의 원활한 답변 작성을 위해 진단 기준과 요구사항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 진단의 효과성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서면진단을 통해 파악된 잠재 리스크는 현장실사 과정을 통해 추가적으로 확인·검증합니다.

2024년에는 2023년 평가 지표를 개정하여 총 14개 항목에 따라 서면진단을 실시하였으며, 세부 문항은 약 70개로 구성하였습니다. 본 평가 결과에 따라 도출된 시사점을 바탕으로 당사 사업장 내 잠재된 인권 리스크를 선제적으로 발굴하여 적절하게 조치할 예정입니다. 서면진단 지표는 글로벌 가이드라인을 참고하여 주기적으로 업데이트를 진행합니다.

인권 리스크 서면진단 지표

1. 인권 및 노동 리스크	
1-1	인권 및 노동 구조
1-2	인권 및 노동 컴플라이언스 리스크
2. 근로환경 관리	
2-1	인권 및 노동 정책 내재화
2-2	근로 관리
2-3	임직원 다양성
3. 인권 리스크 관리	
3-1	부당대우 금지
3-2	강제노동 및 아동노동
4. 근로환경 개선	
4-1	근로환경 개선 활동
4-2	고충처리 메커니즘
5. 공급망 인권/노동 관리	
5-1	협력사 행동규범
5-2	공급망 리스크 관리
5-3	공급망 강제노동 리스크 관리
6. 근무지 외 인권 존중	
6-1	기숙사 내 인권 관리
6-2	식당 내 인권 관리

인권 리스크 사전 예측 결과

● 잠재 위험 ○ 낮은 위험

	아동노동 및 강제노동	차별 및 직장 내 괴롭힘	근로조건 준수	결사의 자유 및 단체교섭권 보장	산업안전 보장	지역주민 및 취약계층 인권	환경권 보장
국내							
임직원	○	●	○	○	●	○	○
협력업체	○	●	●	●	●	○	○
지역사회	○	○	○	○	○	●	●
여성	○	●	○	○	○	●	○
해외							
임직원	○	●	○	●	●	○	○
이주/계약 노동자	●	●	●	●	●	●	○
협력업체	●	●	●	●	●	○	○
지역사회	○	○	○	○	○	●	●
여성	●	●	●	○	○	●	○
아동	●	○	○	○	○	●	○

인권 리스크 현장실사 현대자동차는 서면진단 결과의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 사업장 소재 지역, 운영형태, 근로자 구성, 지역사회 영향 등 Risk Level을 고려하여 현장실사 대상 사업장을 선정하고 있습니다. 특히, 서면진단 결과 잠재 인권 리스크가 확인되거나, 부정적 영향이 예상되는 사업장은 현장실사 대상 선정 시 우선적으로 고려합니다.

현장 실사는 독립적인 제3자 심사기관의 주도 하에 HR·안전·조직문화 등을 담당하는 내부 전문가가 참여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노무/법률 등 외부 전문가에게 자문을 구할 수 있습니다. 심사 현장에서는 근로조건을 확인하기 위해 각종 문서자료를 검토하고, 안전장치·환경설비 등의 근로환경을 검증하기 위한 현장순회도 진행합니다. 특히 임직원 고충 청취 및 인권 리스크 식별을 위해 각 사업장별 임직원 및 담당자 인터뷰를 독립적인 공간에서 별도로 진행하였습니다. 향후에는 현장실사 방식을 지속적으로 정교화하여 더욱 다양한 관점을 반영하고 인권 리스크 점검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인권 리스크 평가(서면진단) 결과 (단위: %)

구분		결과
사업장	인권 리스크 평가 실시 비율[1]	100
	리스크 있는 사업장 비율	8.1
	개선조치 및 개선활동 이행 비율	100
협력사	인권 리스크 평가 실시 비율	100
	리스크 발견 사업장 비율[2]	1.3
	개선 조치 적용한 비율	100

1) 인권 리스크 평가 수행 사업장 수 / 인권 리스크 평가 대상* 사업장
* 국내: 모든 사업장, 해외: 본사 지분 50% 이상, 50인 이상 사업장
2) 리스크 발견 사업장 비율 = 리스크가 식별된 1차 협력사 수 19개 ÷ 서면진단을 받은 1차 협력사 수 1,494개

사업장 인권실사 협력사 인권실사

인권경영 및 인적자원 관리

당사 사업장 서면진단 결과 현대자동차는 국내외 사업장 및 합작회사를 포함하여 전체 74개 사업장의 인권 리스크를 진단하였습니다. 이 중 해외는 북미·중남미·유럽·인도·중국 지역 등을 포함하여 총 41개 사업장입니다. 서면진단 결과, 국내외 전체 사업장의 평균 지표 준수율은 약 83%였으며, 작년 대비 고도화된 평가 지표를 활용함에 따라 지역별 평가 결과가 상이하게 나타났습니다. 특히 국내 대비 해외 사업장의 준수율이 상대적으로 낮게 평가되었으며, 이를 토대로 해외 사업장의 인권 관리 수준 제고를 위한 가이드 제공 및 지원 방안을 강화할 예정입니다.

당사 사업장 현장실사 결과 2023년 국내 및 유럽 권역 내 생산법인을 대상으로 현장 실사를 수행하였으며, 2024년에는 중남미 및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5개 생산법인을 대상으로 현장 실사를 수행하였습니다. 현장실사 결과, 인권과 관련된 현지 인식 제고 필요성과 고충처리절차 등 관리시스템에 대한 보완 필요성이 일부 식별되었습니다. 특히 해외 운영 초기 법인의 경우 채용 및 징계 절차 측면에서 글로벌 표준 및 이니셔티브 요구사항 대비 개선이 필요한 항목이 일부 식별되었습니다. 현장실사에서 발견된 리스크는 가능한 경우 현장에서 즉각 조치하였으며, 추가 검토가 필요한 경우 사업장 별 중장기 개선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2025년에는 북미 및 중국 생산법인을 대상으로 현장실사를 수행할 예정이며, 이후 국내외 생산법인을 대상으로 정기적인 현장실사를 수행할 예정입니다.

인권 리스크 개선조치 각 사업장 담당자는 서면진단 및 현장실사에서 발견된 리스크 기반으로 개선과제를 도출하며, 이행계획을 수립하고 관련 조치를 취합니다. 개선조치 이행 계획은 추진 시기, 방식, 예상되는 추가 리스크 등을 포함합니다. 본사에서는 각 사업장이 개선과제를 계획에 따라 이행하고 있는지 점검하며, 실행에 상당한 기간이 소요되거나 규정·제도 개선 또는 대규모의 투자 및 구조적 변화가 수반되어야 하는 과제에 대해서는 전사 단위 과제로 상정하여 중장기 관점의 이행계획을 수립합니다. 2024년 실사 결과에 대한 개선 조치의 일환으로, 차별금지 및 인도적 대우에 대한 임직원 인식 제고를 위해 글로벌 전 사업장 대상 D&I(다양성 및 포용성)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면접관 사전 교육을 시행하고, 이력서 내 불필요한 개인정보를 요구하는 조항을 삭제하는 등 채용 프로세스를 개선하였으며 징계 후 사후 조치를 취하는 절차를 보완하여 글로벌 사업장 내 건강한 근로 환경을 조성하였습니다.

유형별 리스크 조치사항

인권 교육	• 국내외 전 사업장 임직원 대상 D&I 교육 • 인권 유관 직무 대상 인권경영 교육(2025년 2분기)
근로 환경	• 채용 프로세스 개선(면접관 교육, 불필요한 개인정보 요구 조항 삭제) • 징계 프로세스 개선(징계 후 사후조치 절차 보완)

지역별 인권 리스크 진단 결과

유럽

공급망 실사 지침 등 최신 규제 동향을 반영하여 당사 사업장 및 공급망 전반에 걸친 인권 실사 프로세스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인권헌장을 비롯한 다양한 정책을 통해 성별·민족·연령·인종 등에 대한 차별을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으며, 인권 리스크 발생 시 임직원들이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지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2023년 현장실사를 통해 법인별 인권정책 현지화, 교육/전파, 고충처리채널 등 기본 관리체계 구축 수준을 점검하였습니다.

북미

연방법 및 주(州) 행정법 상 인권보호를 상세하게 규정하고 있으며, 각 사업장에서도 현지 법규를 충족하는 수준의 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2025년 북미권역 내 생산법인을 대상으로 현장실사가 계획되어 있으며, 이를 통해 발견되는 미흡사항은 지속 개선 예정입니다.

중남미

인권보호 정책 수립 및 임직원 전파, 성희롱 및 직장 내 괴롭힘 방지 교육을 자체적으로 실시하였으며, 노동 관련이슈를 해결하고자 다양한 정책 및 법이 규제화되고 있습니다.

2024년 실사 결과, 사업장 내에서 주목할 만한 미흡사항은 식별되지 않았습니다.

인도

공식적으로 카스트 제도가 철폐되었으나 사회 전반적으로 신분제의 영향이 남아 있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사회적 인식은 비교적 미흡하지만 사내 인권침해 사례 발생 시 엄중히 처벌하고 있으며, 모성보호 차원에서 산전후 휴가 보장 및 사내 탁아소 운영 등 다양한 지원 정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2024년 현장실사를 통해, 비정규직 근로자 및 사내도급 근로자 등의 권리 보호를 점검하고 개선조치를 이행하였습니다.

중국

'중화인민공화국 노동법'을 통해 노동자의 차별 금지와 평등한 권리 보장이 법제화되어 있습니다.

당사는 중국 내 다수 법인에서 자체적으로 임직원의 권익과 관련한 의무/준수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2021년 기업의 성희롱예방의무를 도입한 개정 민법의 취지에 맞추어 사내 규정 정비(징계포함) 및 임직원 대상 예방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2025년 중국 내 생산법인을 대상으로 현장실사가 계획되어 있으며, 이를 통해 발견되는 미흡사항은 지속 개선 예정입니다.

투자 의사결정 과정에서의 인권 리스크 실사 프로세스 현대자동차는 2024년 공장 신/증설과 관련된 프로젝트 투자 심의 절차 내에 ESG 리스크 스크리닝 절차를 신설하였습니다. 국제금융공사의 환경사회 지속가능성 성과 표준(IFC Performance Standards on Environmental and Social Sustainability) 및 적도원칙(Equator Principles) 등 프로젝트 투자와 관련된 글로벌 표준을 참고하여 체크리스트를 구성하여 다양한 ESG 리스크를 검토하도록 설계되었습니다. 특히, 문화유산, 생태계 보전 외에도 지역사회 및 토착민 영향 등 이해관계자 인권과 관련된 부정적 영향을 예방하기 위한 점검 항목이 마련되었습니다. 이를 기반으로 2024년에는 인도 푸네공장 증설 건에 대한 리스크 검토를 수행하였습니다. 2025년에는 ESG 리스크 스크리닝 절차를 합작/지분투자 의사결정 프로세스까지 확대 전개할 예정이며, 특히 리스크 노출도가 높다고 판단되는 광산/제련소에 대한 투자 의사결정 프로세스에 우선적으로 적용할 계획입니다.

인권경영 및 인적자원 관리

구제 절차

인권 고충처리 현대자동차는 차별, 괴롭힘, 성희롱 등과 같이 인권에 대한 부정적 영향을 일으키는 사건뿐 아니라, 조직 문화 및 근무환경 개선에 관한 사안을 접수-처리-조치하는 절차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고충처리 채널은 우편, 핫라인, 사이버감사실 등 다양한 온·오프라인 형태로 운영하여 제보자의 접근성을 높이고 있습니다. 고충 제보자의 익명성과 신분 비밀을 보장하며, 고충 제보로 인한 보복·신분노출·인사상 불이익 행위를 원천적으로 금지하고 있습니다. 고충이 접수되면 절차에 따라 최대한 신속하게 상황 파악을 진행하며, 필요시 고충 원인을 근본적으로 해결하고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내부 제도나 업무 방식을 개선하기도 합니다. 또한 차별, 괴롭힘 등 인권에 부정적 영향을 일으킨 임직원에 대해서는 취업규칙, 징계규정 등에 명시된 기준과 절차에 따라 인사조치를 검토합니다. 이러한 조치는 담당 조직의 모니터링 등을 통해 실제 이행 여부가 관리되며, 사안의 중대성에 따라 필요 시 제3자와 협조하거나 고위 경영진을 포함하여 논의될 수 있습니다.

2024년 임직원 고충 접수 및 처리 결과

총 접수 건	처리 완료 건	고충 처리율
50 건	50 건	100 %

* One Click HR을 통해 접수된 건 한정(국내)

고충처리 메커니즘 모니터링 및 개선 임직원은 회사의 활동으로 인해 인권에 영향을 받을 수 있는 대표적인 이해관계자입니다. 현대자동차는 다양한 소통 채널을 통해 개별 직원, 근로자 대표 등의 의견을 청취하고 고충처리 메커니즘을 모니터링하며, 이러한 점검 과정을 통해 파악한 내용을 바탕으로 임직원을 효과적으로 보호하고 유사 고충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절차/제도/시스템을 지속적으로 개선합니다.

국내	해외
• 피해자/제보자에 대한 보복을 방지하기 위해 노동조합과 논의하고 의견을 수렴하여 임직원 고충처리 관련 내부 규정을 보완 • 직장 내 성희롱 대응 절차를 점검하고 2차 가해 및 유사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피해자 의견 청취 및 징계 처리 방식 개선 • 직원 소통 채널 중 하나인 노사협의회를 통해 생산공장 여성직원 증가에 따른 근무환경 개선 필요성을 확인하고 임산부 전용 시설 보완 및 이용실태 지속 점검 추진 • 임직원의 고충처리 신청 건에 대하여 종결 시까지 경과 사항 담당자 모니터링을 통해 밀착 지원	• **[중남미권역본부]** 주기적으로 고충 데이터를 활용해 취약 분야 파악하여 컴플라이언스 위원회 보고, 구성원 교육, Survey 문항 재검토 실시 • **[튀르키예생산법인]** 매월 주요 고충 및 조치 계획 보고서를 경영진과 유관부서에 전달하고 피드백 공유해 개선 및 유사 사례 재발 방지 (2023년 고충 접수 건 100% 처리 완료) • **[체코생산법인]** 직원 50명당 1명을 소통 창구로 선정해 정기적 미팅을 실시하고 고충 관련 의견 청취

고충처리 절차

임직원 인권 보호

아동노동 현대자동차는 인권헌장과 각 사업장이 위치한 국가의 법률을 기반으로 아동을 고용하는 것을 엄격히 금지하고 있으며, 아동노동을 예방하기 위해 채용 과정에서 연령 확인 절차를 실시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동노동이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 아동에 대한 즉각적인 보호 및 피해 복구 조치를 취할 것입니다. 이 구제 프로그램에는 아동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현재 상태 진단, 아동 및 아동의 가족, 또는 제3자 기관과 협력하여 적절한 구제 방안 검토, 필요 시 거주지로의 안전한 복귀 지원 등이 포함될 수 있으며, 아동노동 사례가 완전히 종료될 때까지 진행 상황을 모니터링 합니다.

강제노동 현대자동차는 인턴 등 인권 침해로부터 취약한 계층이 있음을 인지하고, 임직원의 인권을 침해하는 강제노동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합니다. 임직원에게 채용과 관련된 비용을 부당 청구하지 않으며, 강제노동을 목적으로 개인정보문서 원본을 보관하지 않습니다. 또한 임직원의 근로에 대해 부당한 공제 없이 합당한 보수를 지급하고, 정당한 임금 공제 사항은 급여명세서 등을 통해 내용을 알립니다. 이러한 원칙은 현대자동차와 거래하는 에이전시 등에도 동일하게 적용되며, 모니터링을 통해 위반 사실이 적발되는 경우에는 사안의 심각성이나 적극적 피해복구/시정 여부에 따라 거래 중지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강제노동 예방 및 모니터링 사례

방식	지역
입사지원서에 어떠한 수수료도 받지 않음을 명확히 기재	멕시코판매법인
채용 후 직원에게 중개기관의 수수료 청구 여부 확인	튀르키예생산법인

인권경영 및 인적자원 관리

전략적 인사관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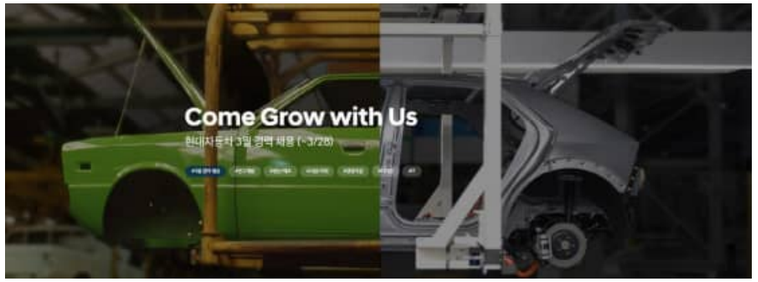
인재채용 및 운영

프로세스 및 시스템 현대자동차는 지원자 관점을 고려하여 매년 채용 절차를 개선하고 있으며, 최근 대규모 공채와 수시채용의 장점을 흡수하여 예측가능한 상시채용을 도입하였습니다. 경력채용의 경우 월간 채용, 신입채용은 분기별 채용을 진행하여 지원자들이 모집 시점을 예측할 수 있도록 채용 프로세스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국내 재학생은 물론 아세안을 비롯한 글로벌 인재를 대상으로 다양한 인턴십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현대자동차에서 실무를 경험하고 역량을 향상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인재를 채용하고자 하는 현업 부서가 요구하는 역량, 자격, 기술 등 전문성을 사전에 정의하고, 선발기준을 수립하여 현업이 주도적으로 참여하여 직무 중심의 우수 인재를 적시에 선발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었습니다. 이러한 채용 프로세스 전반에 필요한 업무를 지원하기 위한 '채용 지원 전담 조직'을 운영하고 있으며 채용 담당 HR부서와 현업부서 등 채용 관련 의사결정자가 함께 참여하여 지원자의 전문성과 적합성을 공정하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채용 과정에서 지원자의 개인적 특성에 따른 차별 발생 방지를 위해 면접위원 가이드 내에 유의사항을 명시함은 물론, 면접위원 교육 시 관련사항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특히, 면접위원 교육 미이수자는 면접위원 자격을 제한함으로써 지원자뿐만 아니라 평가자의 전문성 확보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채용 과정 이후에는 정기 내부감사를 통해 투명성을 점검하고, 공정성 및 신뢰성 이슈가 발견될 경우 개선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원자 선발의 공정성을 자가 점검할 수 있는 체크리스트를 운영하여 투명성을 강화하고 있으며, 채용 공고 홈페이지를 개편하여 지원자가 쉽게 정보를 확인하고 지원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한편, 취업보호대상자(장애, 보훈 등)는 관계 법령에 의거하여 우대하고 있으며, 내부 채용 관리 시스템도 고도화하여 데이터 기반 분석을 통해 채용 과정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현대자동차 채용 홈페이지

신사업/신기술 분야 인재 확보 전략 현대자동차는 미래 경쟁력 강화 측면에서 신사업 및 신기술 분야 인재를 능동적으로 확보하기 위해 인재 소싱을 비롯하여 다양한 채용 전략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신사업 전략에 맞는 선제적 인재풀을 구축하고자 다양한 채널을 통해 인재를 발굴하고 외부 우수인재와의 접점을 넓히는 활동을 진행 중이며, 이를 통해 미래 모빌리티 Tech 기업으로서의 채용 브랜드 이미지를 제고하고 있습니다.

사내공모 및 전환배치 현업부서의 인력소요에 대한 충원과 직원들의 경력개발을 위해 수시로 전환배치를 실시하고 있으며, 이와 함께 '사내공모 제도'를 정기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사내공모 제도를 통해 직원들은 희망하는 부서와 직무에 지원할 수 있으며, 부서장은 희망하는 직원에 대해 적극적으로 스카우트를 제안할 수 있습니다. 또한, 부서이동을 희망하거나 스카우트를 제안받은 직원들은 서류검토와 인터뷰 등의 선발과정을 통해 전환배치 대상자로 선정됩니다. 현대자동차는 사내공모와 전환배치 제도를 적극 활용하여 직원들의 경력개발과 육성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상시 경력 전환 프로그램 현대자동차는 만 50세 이상의 간부 사원을 대상으로 재직 중과 퇴직 후에 걸쳐 전직 교육 및 컨설팅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재직 중에는 생애 설계, 창업, 재취업, 자격증 취득 등 다양한 분야의 교육 프로그램을 통해 개인의 장기적인 경력 계획 수립을 지원하며, 1:1 상담, 선배와의 대화, 창업 특화 Day, 소그룹 간담회 등을 통해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합니다.

퇴직 후에는 약 1년간의 전문 교육과 컨설팅을 통해 변화 관리, 경력 대안 탐색, 자격증 과정 등을 포함한 공통 교육과 특화 교육을 제공합니다. 또한, 전문 컨설팅과 사후 관리를 통해 새로운 경력 목표를 안정적으로 실행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상시 경력 전환 프로그램을 통해 현대자동차는 임직원들이 퇴직 후에도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친환경 전환에 따른 임직원 역량 개발 기회 제공 현대자동차는 친환경 전환 과정이 근로자에게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고 임직원의 새로운 기술 습득과 직무 탐색을 지원하기 위해 R&D/AVP 본부 임직원을 대상으로 전동화 리스킬링 교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연간 총 5개 교육과정을 실시하며, 교육 필요 인원이 기존 업무수행에 차질을 빚지 않고 원활히 참여할 수 있도록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론교육/실습 및 온라인 사전/사후학습을 병행하여 지속적이고 유기적인 학습을 지원합니다.

성과평가 제도 현대자동차는 성과/역량 중심의 공정하고 합리적인 평가를 위해, 일반직/연구직 직원을 대상으로 목표 기반의 성과 평가와 상시/정기 피드백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직원들은 소속 조직의 목표에 따라 연간 주요 수행업무 및 목표를 관리하며, 개인별로 부여된 업무를 달성하기 위한 연중 성과관리를 실시합니다. 리더와 구성원은 업무 수행 과정에서 상시 피드백을 주고받으며 그 과정을 기록하여 평가에 활용합니다.

• **성과관리와 피드백** 임직원 성장과 조직문화 향상을 위해 쌍방향 소통을 지원하는 다양한 피드백 제도를 운영합니다. 리더로부터 피드백 문화가 확산될 수 있도록 모든 임원이 상위 리더와 함께 1:1 코칭세션을 실시합니다. 또한 리더와 구성원 간에 의견 교류와 피드백이 적시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상시/정기 피드백을 운영합니다. 구성원은 리더에게 업무 진행상황과 지원 필요사항 등을 공유하고, 리더는 중요 시점별로 구성원의 성과뿐만 아니라 동료와의 협업, 조직 기여 등 업무 수행과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코칭을 진행합니다. 이러한 피드백 과정을 통해 리더와 구성원이 함께 업무성과를 확인하고 리더의 공정한 성과관리, 구성원 동기부여를 제고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주요 시점별 설문조사를 실시해 피드백 과정에 대한 임직원 의견을 정기적으로 청취하고 제도 개선에 반영합니다.

• **360° 다면진단** 리더와 구성원을 대상으로 다면진단 제도를 운영합니다. 리더들은 매년 1회 LSV(리더십 다면진단, Leadership Surround View)를 통해 360° 피드백을 확인하여 객관화된 자기 인식과 리더십 향상 기회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구성원들 간에는 상/하반기 PSV(동료 피드백, Peer Surround View)를 실시합니다. 현대자동차는 상호 성장과 협업 문화 발전을 위해 다양한 협업 동료 간에 적극적인 피드백을 나누도록 독려하고 있습니다.

인권경영 및 인적자원 관리

인재육성 및 전문역량 확보

현대자동차는 비즈니스 전략 방향성 내재화와 직무 역량 등 핵심 Capability 향상을 위하여, 현대자동차 구성원이라면 갖추어야 할 'SENSE'라는 의미의 'H-SENSE'라는 브랜딩 하에 다양한 학습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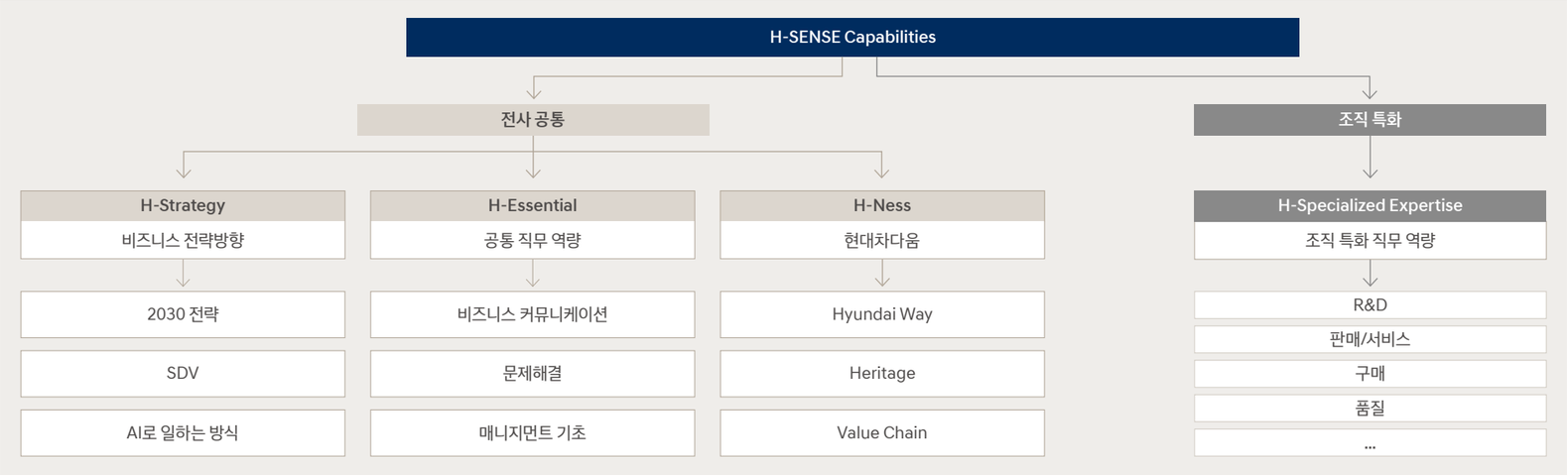
당사 핵심 비즈니스 전략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글로벌 임직원 필수 콘텐츠인 'H-SENSE Must-see'를 분기별로 배포하고 있습니다. 또한, HR 제도와 연계하여 임직원의 승진, 직책 보임 등 역할 전환 시 직급 및 직책별 프로그램을 통해 현대자동차의 일하는 방식인 Hyundai Way와 그룹 헤리티지 등 "현대차다움"을 내재화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미래 디지털 전환 역량을 강화하고자 연중 DX Academy를 운영하여 AI, 데이터, 소프트웨어 등 디지털 전환(DX) 관련 역량 향상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각 본부에서는 임직원의 직무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 조직 직무 핵심역량을 도출하고, 이와 연계된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운영하고 있습니다. 글로벌 커리어 개발 프로그램은 글로벌 감각과 전문성을 인정받은 우수인재를 해외 거점에 파견하여 글로벌 현장조직을 리드하고 성과를 창출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이를 통해 임직원은 글로벌 인재로 성장하고 미래 사업 계획을 성공적으로 추진할 수 있습니다.

러닝라운지 및 러닝랩 러닝라운지(Learning Lounge)는 자기주도적 성장을 위한 학습 시스템으로, 임직원들이 미래 성장계획을 수립하고 필요한 학습 솔루션을 추천받아 자율적으로 학습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합니다. 공통 직무 역량과 관련된 온라인 콘텐츠를 포함하여 약 1만 9천건의 학습 솔루션을 제공함으로써 임직원들이 변화를 주도하고 혁신을 이끌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특히, 러닝라운지에 등재된 온라인 교육 콘텐츠의 경우 기본적으로 모든 정규직(FTEs) 직원을 대상으로 하며, 계약직 및 파견직 근로자도 리더십 및 디지털 전환, 문화 등 직무 역량개발 관련 다양한 콘텐츠를 상시 학습할 수 있도록 제공하고 있습니다. 러닝랩(Learning Lab)은 연결을 통해 성장하는 구성원의 자발적인 학습 모임입니다. 직무 역량 향상이 필요한 주제, 일정, 학습 방법을 결정하여 약 3개월간의 러닝랩 활동을 통해, 구성원의 역량을 강화하고, 이를 통해 사내 상시 학습 문화를 조성하고 있습니다. 신기술에 대한 연구와 특허 발명을 위한 연구 등 다양한 학습활동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러닝라운지 제공 교육 (2024년 말 기준) (단위: 개)

구분	제공 교육
전사공통 관련	비즈니스 전략 방향(1,507), 공통 직무 역량(1,680), 현대차다움(26)
조직 특화 직무 역량 관련	연구개발(2,989), 전략기술/ICT(650), 사업 관련(2,238)
리더십 관련	상시 학습(1,146), 정규학습(1,090)
법정교육	준법/보안(206), 화재/안전 등 기타(781)

H-SENSE 프레임



리더십 교육 프로그램 현대자동차는 비즈니스 성과 창출에 기여할 수 있는 인재를 육성하기 위해 모든 정규직 임직원을 대상으로 다양한 리더십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 리더가 아닌 모든 직원을 위해 온라인 학습 시스템 러닝라운지(Learning Lounge)를 통해 스스로 목표를 설정하고 동기를 부여할 수 있는 리더십 관련 콘텐츠를 상시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신규 책임급 인원이 회사 내에서 'Player Coach'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중간 관리자 리더십 교육도 실시하고 있습니다. 리더 역할을 맡게 된 신규 보직자 대상으로는 각 직책별 역할을 인식하고 변화를 주도할 수 있도록 신임 직책자 과정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실장 및 팀장 대상으로 구성원과 함께 성과를 창출하기 위해 목표 수립, 피드백, 평가 등 실질적인 성과 관리 스킬을 교육하고 있습니다. 리더 간의 인사이트를 공유하고 함께 미래를 준비할 수 있도록 학습 조직인 리더스 러닝랩에 참여할 기회를 제공하며, 최고 리더들은 비즈니스 관점을 넓힐 수 있도록 인사이트 포럼과 글로벌 인사이트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해외에서 리더 역할을 수행하는 직원들을 위해 주재원 부임 과정과 해외 법인장 과정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리더십 교육 프로그램

교육 유형	교육 내용	교육 대상
리더십 관련 상시 학습 콘텐츠	스스로 목표를 세우고 동기를 부여할 수 있는 온라인 학습 콘텐츠	모든 직원
신임 직급/직책 교육	업무 전문성을 바탕으로 전사 차원의 협업 스킬 발휘 및 후배 성장 지원을 위한 중간 관리자 대상 리더십 교육	책임급 승진자
	새로운 직책에 따른 리더 역할 인식 및 조직 운영에 필요한 리더십 역량 교육	신임 팀장/실장/사업부장
성과관리 교육	구성원 성장 지원을 위한 성과관리 단계별 리더십 교육 (성과목표 설정, 중간점검, 피드백, 평가면담 등)	팀장/실장
비즈니스 인사이트 및 글로벌 역량 강화 교육	미래 비즈니스에 도움이 되는 인사이트 및 Foresight 함양을 위한 교육 (리더 DX 교육, 리더스 러닝랩, 인사이트 포럼 등)	팀장 이상 보직자
	해외 비즈니스 수행을 위한 글로벌 커뮤니케이션, 이문화 역량 강화 교육(해외주재원 및 법인장 대상자 교육, 글로벌 협업 역량 강화 교육)	해외주재원, 법인장 및 글로벌 협업 업무 수행 임직원

인권경영 및 인적자원 관리

전문성 강화를 위한 학위 및 자격증 취득 지원 프로그램 현대자동차는 직무 전문성 향상을 위해 석사 휴직제도를 운영 중입니다. 해당 제도를 통해 업무 관련 전공이나 MBA를 포함한 전일제 석사학위 취득을 희망하는 근속 3년 이상의 직원에게 최대 2년간의 휴직 기회를 제공합니다. 또한 현대자동차는 특정 직무 수행을 위해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자격증 취득과 변화하는 모빌리티 산업에서 요구되는 데이터 분석(DA) 및 데이터 기반 AI 모델 관련(DS) 역량을 평가하는 HDAT[1] 자격 인증 대비 교육 과정 등을 무상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2024년 기준, 사업장 보건안전 관련 업무 담당자를 위한 산업안전기사 자격증 취득과정 수료자 총 1,550명 중 751명이 최종 실기시험에 합격하는 성과를 거두었으며, 연구소 기술직 대상 자격증 대비과정을 통해 총 7개 과정 69명이 수료 후 자격증을 취득하였습니다. 또한, 일반직 및 연구직 대상 DA/DS 양성 교육은 총 12개 차수 397명이 수료하였으며, 교육 수료자를 포함하여 총 525명이 HDAT 자격 인증을 획득하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현대자동차는 이러한 제도 및 프로그램을 통해, 재직 중인 직원이 고용 안정을 유지하면서 학위 및 관련 자격증을 취득함으로써 개인의 커리어뿐만 아니라 기업의 경쟁력 강화에도 도움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1) HDAT(H-Data Analytics Test): 데이터 분석 및 AI 실무 역량 보유 인재를 선발/육성하기 위한 민간 자격 인증 시험, 관심있는 일반인 누구나 응시 가능.

지속가능성 내재화 교육 현대자동차는 임직원이 각자 맡고 있는 업무에 지속가능성을 접목하고자 지속가능경영 인식 개선 교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는 협력사 관리를 위해 인권·안전·환경·품질 분야의 ESG 교육을 운영하여 임직원의 지속가능성 내재화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나아가 각 업무별 담당자 특화 ESG 교육을 통해 임직원의 지속가능성 마인드셋 구축과 지속가능경영 역량 강화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지속가능성 교육 프로그램 (2024년 말 기준) (단위: 개)

	인권	안전	환경	품질	합계
운영 교육 개수	22	1,581	1,042	1,053	3,698

* 러닝라운지 내 키워드 검색 시 조회되는 교육 개수

프로젝트 기반 공동연구 프로그램 현대자동차는 국내·외 우수 전문 기관과 함께 '파견형 공동연구 수행'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공동연구를 통해 AVP/R&D 미래 핵심기술을 강화하고 제품의 고질적 문제들을 해결하고 있으며, 그 결과를 완성차 및 선행기술에 적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해당 연구결과를 기반으로 다양한 연구 전파 세미나를 개최하여 기술 내재화와 연구개발 역량 강화를 위한 연구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2024년 프로젝트 기반 공동연구 성과

논문/특허/학술지/수상	매뉴얼 등록	성능개선 및 문제해결	연계 기술개발 (타 부문 협업)	지식 전파 (학술대회 등)	참여율
24건	5건	10건	12건	17건	100%

고객 중심 카마스터 양성 프로그램 현대자동차는 지속 가능한 조직 성장 및 임직원 역량 강화를 위하여 교육 과정 및 상시 학습 콘텐츠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주요 교육과정으로는 판매 및 서비스 현장 직무 교육(세일즈 아카데미, 신차 상품교육, 고객응대 스킬 등) 및 일반직 교육(지점장 및 직급별 교육 등), 그 외 글로벌 어학 향상 지원 등이 있으며, 당사 온라인 학습 시스템을 통해 다양한 상시 학습 콘텐츠도 제공하고 있습니다. 특히, 서비스 융복합 교육체계를 구성하여 전문성 강화를 위한 교육(전동차, 신기술)과 상품 기본 지식 함양 및 고객 응대 스킬 강화(CRM) 교육을 통해 고객 접점 서비스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KCSI(한국산업의 고객만족도) 조사 결과 고객만족도가 향상되었으며, 승용차 부문에서 30년 연속, RV 부문에서 20년 연속 RV 20년 연속 1위 달성은 물론 경형/전기차 부문에서도 1위를 달성하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2024년 카마스터 양성 프로그램 운영 결과 (단위: 명, %)

구분	참여자 수	참여율
카마스터 정규 과정	1,468	100.0%
구독형 스트리밍	4,217	99.4%
합계	**5,685**	**99.6%**

* 국내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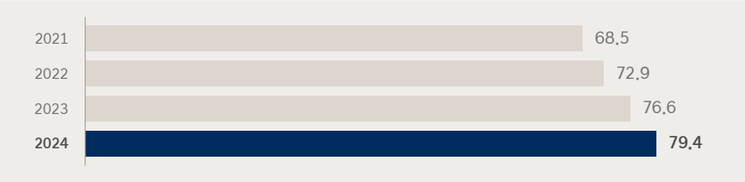
인권경영 및 인적자원 관리

일하기 좋은 조직문화

조직문화 개선

조직문화 진단 현대자동차는 직원의 높은 몰입도가 기업의 성과와 인재 성장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요인 중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이에 따라 현대자동차는 임직원을 대상으로 조직문화 수준을 파악하기 위해 매년 진단 평가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진단 지표는 긍정적인 직원 경험이 조직 성과로 이어지는 Framework에 기반하여, 조직 내 동료 및 리더와의 상호작용에서 느끼는 요소를 측정합니다. 이 결과를 바탕으로 '일/조직/회사'에 대한 만족 수준을 측정하며, 총 66개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2024년에는 일반직, 연구직, 법무직 등 전체 임직원의 81.1%가 조직문화 진단평가에 참여하였으며, 이 결과를 바탕으로 임직원의 참여도 및 만족도를 향상시키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입니다.

조직문화 진단 결과 (단위: 점)



기업문화 활동 및 프로그램 운영

본부별 변화혁신 가속화 및 임직원 소통 강화 리더를 통한 Top down 방식과 구성원 참여를 통한 Bottom up 방식을 함께 활용하여 본부 조직문화 혁신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경영층 워크샵을 통해 조직문화의 방향성을 토론하고, 각 본부의 리더는 본부별로 선정된 변화혁신 담당자와 함께 일하는 문화를 리딩하고 있습니다. 또한 변화혁신 담당자는 조직문화 이슈를 상시 모니터링 하고, 구성원들의 VoE(Voice of Employee)에 기반한 솔루션을 시행하는 등 실질적인 변화활동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2024년에는 해외 권역 및 법인에도 변화혁신 담당을 선발 및 운영하여 글로벌 조직문화 확산을 전개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경영진과 직원이 자유롭게 소통할 수 있는 '타운홀 미팅'과 구성원이 직접 자신의 업무 및 노하우를 공유하는 'People & Story'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구성원들이 수평적이고 능동적으로 변화를 이끌어갈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일하는 방식 현대웨이 (Hyundai Way) 현대자동차는 2024년에 일하는 방식 'Hyundai Way'를 글로벌 런칭하여 전사적인 변화관리를 추진하였습니다. Hyundai Way는 현대자동차그룹 5대 핵심 가치를 기반으로 전세계 구성원들의 의견을 청취하여 총 10개의 일하는 방식으로 구성되었으며, HR 제도(채용, 육성, 평가, 진단, 포상) 연계 및 수시 포상제도 'Hyundai Icon' 신설 등 각종 제도에 내재화하여 임직원들의 업무 몰입 조직 문화를 조성하고 있습니다.

유연한 근무제도 운영 현대자동차는 임직원들이 장소가 아닌 일에 몰입하여 자율적으로 근무하는 조직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하이브리드 근무제를 도입하였습니다. 'H-Work Station' 거점 오피스를 통해 임직원들이 업무 공간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도록 하여, 근무 만족도와 업무 효율을 동시에 향상시키고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현대자동차의 미래 지향적인 조직문화를 반영합니다.

현대차 아이디어 공모전 임직원 누구나, 언제나, 자유롭게 참여할 수 있는 상시 아이디어 공유 플랫폼 '현대차 아이디어 공모전' 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기술 및 비기술 영역 구분 없이 아이디어를 상시 제안할 수 있고, 2024년에는 3,649건의 아이디어가 제안되었습니다. 이 중 국내에서는 2,291건, 해외 권역/법인에서 제출된 아이디어는 총 1,358건으로, 국내뿐 아니라 글로벌 아이디어 제안 문화를 장려하고 혁신하기 위한 기반으로 활용 중입니다. 제안된 아이디어 중 총 27건이 현대차 수상 아이디어로 선정되었고, 이 중 3건은 그룹상을 수상하였습니다. 수상작으로 선정된 아이디어는 현업의 적극적인 검토를 걸쳐 구체적인 실행계획을 세우고 실현되기도 합니다.

임직원 및 가족 마음 건강 케어 직원의 건강한 회사생활 및 가족챙김을 적극 지원하기 위해 '오은영 아카데미'와 협업하여 자녀 양육, 부부관계, 가족관계 테마의 1:1 상담/평가/코칭/검사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2023년부터 운영 중인 가족챙김 프로그램은 심리적 고충 경감을 위한 실질적 솔루션을 제공하여 직원들의 선호도와 만족도가 높으며, 현대자동차는 앞으로도 직원의 가족챙김과 마음 건강 케어를 위한 노력을 지속할 예정입니다.

결사의 자유 및 단체교섭권 보장

국내 노동조합 커뮤니케이션 현대자동차는 근로자의 단결권,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 등 헌법에 의거하여 기본적으로 존중되어야 하는 권리를 보장하고 있으며, 단체교섭 협의체와 노사협의회를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매년 정기적인 노사 교섭을 통해 임금 및 근로 조건 개선 사항에 대해 성실히 논의하고 있으며, 단체교섭, 임금교섭(보충교섭) 및 노사협의회(부문별, 사업부/지역별 협의 포함) 등을 통해 결정된 사항을 바탕으로 매 2년마다 단체협약을 갱신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단체협약 미적용 근로자의 경우에도 동종 근로자에 대해서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 제35조(일반적 구속력)에 의하여 단체협약 내용을 동일하게 적용합니다. 또한 간부사원 등 일부 근로자에 대해서는 별도의 취업규칙을 적용 중이며, 근로기준법상의 취업규칙 변경절차를 준수하여 운영합니다.

2024년에는 총 5명의 전문가로 6기 고용안정위원회 자문위를 구성하였습니다. 전동화 등 미래 모빌리티 산업의 변화가 가속화되고, 글로벌 경쟁과 불확실성이 확대되는 가운데, 자문위원회는 직원들의 고용 문제, 미래 지향적인 임금 체계 개선, 대내외 리스크 극복 방안 등에 대한 해결책을 모색하였으며, 노사 간 이견이 발생할 경우 중재자 역할도 수행하였습니다.

글로벌 노동조합 커뮤니케이션 현대자동차 해외법인 중 노동조합이 설립되어 있는 법인은 체코, 브라질, 인도 법인입니다. 중국지역 해외법인은 노동자 대표 조직인 공회가 설립되어 있습니다. 노동조합이 설립되어 있는 법인은 현지 노동관계 법규에 따라 노동조합과 단체교섭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직원들이 원하는 근로조건 및 복지제도 등의 파악을 위해 정기적 또는 수시 간담회를 실시하고 있으며 이를 기반으로 상호 간 합리적이면서도 노사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관점에서 합의점을 찾기 위해 노력 중입니다. 한편, 미국, 튀르키예, 인도네시아 법인에는 노동조합이 설립되어 있지 않지만, 직원들과의 적극적이고 직접적인 소통을 통해 직원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있습니다. 체코법인, 브라질법인, 인도법인 등 유노조 사업장의 경우 단체교섭으로 인한 협약 체결 시 단체협약의 일반적 구속력과 유사한 개념으로 비조합원까지 단체협약의 효력이 적용됩니다. 다만 국가별로 교섭방식은 상이하며, 특히 브라질법인은 산별 교섭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외 별도의 노조가 존재하지 않는 사업장은 단체교섭 및 협약 절차는 이루어지지 않지만, 법인 자체적으로 근로자 협의체 운영 혹은 직원대표 선임을 통해 복리후생 및 기타 근로조건(임금성 제외) 개선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히 인플레이션 및 물가 인상을 감안하여 근로자들의 근로조건 향상을 위해 노력합니다.

이와 더불어, 본사 차원에서는 2년마다 해외 생산법인 임직원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와 인터뷰 등을 실시하고 있으며 이를 바탕으로 직원들의 회사에 대한 만족도와 신뢰, 자부심 제고를 위한 개선 활동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각 해외법인은 개별적으로 직원-경영진과의 정기 간담회 실시, 고충 상담실 운영, 현장 순회 등을 통해 직원들의 고충과 요청사항을 선제적으로 해결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노력을 바탕으로 과거에는 교섭 관련하여 노사 이견 발생시, 노조는 파업 등 단체행동권을 활용하여 문제 해결하고자 하여 생산차질 발생이 다소 있었으나, 최근에는 노사관계가 한층 더 성숙되면서 대화와 타협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는 관행이 정립되고 있습니다.

미래 변화 대응 위한 노사 공동 노력 현대자동차는 산업 전환기 속 노사가 공동으로 대응하기 위해 미래변화대응TFT 및 고용안정위원회를 구성하여 논의를 진행하고 있으며, 미래 자동차 산업 변화 대응을 위해 국내 투자 및 경쟁력 강화 등 자동차 산업 발전 방안 구체화를 위한 노사 공동 노력도 진행 중에 있습니다. 또한, 노사는 미래 지속 가능한 지구 환경 조성을 위한 온실가스 감축 활동을 비롯하여, 부품 협력사와의 상생 노력도 지속하고 있습니다. 이 밖에도, 당사의 글로벌 위상에 걸맞은 글로벌 시민의식 함양을 위한 교육 및 캠페인 등도 지속하고 있습니다.

인권경영 및 인적자원 관리

공정한 보상 및 복리후생

성과 보상 체계

현대자동차는 개인의 업무 성과에 따른 변동급 지급은 물론, 회사의 경영 성과에 따른 성과금을 임직원에게 다양한 형태로 배분하고 있습니다.

성과 기반 보상 현대자동차는 성과 평가 결과에 따라 변동급여를 제공하고 있으며, 급여의 인상폭은 대내외 경제 여건, 시장 상황, 사업 성과를 고려하여 조정합니다. 기본급 설정 및 인상 과정에서 임직원 간 불합리한 차별을 두지 않으며, 글로벌 모든 사업장에서 법정 최저 임금 이상의 급여를 정해진 일자에 정기적으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모든 임직원의 변동급여는 업무 성과에 따라 공정하게 책정됩니다. 성과 평가 기반의 변동급 외에도 매년 경영 성과에 따른 초과 이익을 모든 임직원에게 배분하여 조직 발전을 위한 동기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우리사주제도 현대자동차는 직원의 근로의욕 고취, 업무몰입도 제고, 사업목적과 개인의 가치를 일치시키고자, 성과급의 일부를 주식으로 지급하는 우리사주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2024년 중 지급한 회사출연 우리사주는 1,510,345주이며, 모집한 개인출연 우리사주는 246,294주로 총 1,756,639주입니다. 우리사주제도를 통해 현재까지 지급한 총 주식은 6,082,777주이며, 2024년말 기준 보유 주식은 5,394,300주(지분율 2.58%)입니다. 당사 전체 인력의 약 90%인 정규 직원은 모두 우리사주제도 및 우리사주 매입제도의 대상입니다.

구분		2023년	2024년
신규 출연	회사 출연	980,120	1,510,345
	개인 출연	318,318	246,294
합계		1,298,438	1,756,639
소유주식 수 (지분율)		3,987,894 (1.86%)	5,394,300 (2.58%)

임직원 복리후생 제도

맞춤형 복지 프로그램 운영 현대자동차는 모든 임직원의 일과 삶의 균형은 물론 행복한 회사생활을 위해 다양한 복지 제도를 운영하여 급여를 통한 보상 이외의 혜택도 제공하고 있습니다. 임직원 본인의 결혼, 출산, 가족 사망 등 다양한 경조사 발생 시 경조금 및 휴가, 상조 서비스 등을 제공하고 있으며, 자녀 학자금, 차량 구매 및 정비 할인, 직장 어린이집 운영 등 직원의 근속년수 및 상황에 따른 혜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전 직원을 대상으로 매년 복지포인트를 부여하고 임직원 전용 온라인 쇼핑몰 운영 및 오프라인 가맹점 확대를 통해 직원 개인별 라이프스타일에 맞는 복지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선택적 근로시간제 현대자동차는 업무 성격을 고려하여 근로자가 스스로 효율적인 근로시간을 선택할 수 있는 선택적 근로시간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선택적 근로시간제가 적용되는 직군은 의무 근무시간을 제외한 선택가능 시간대 내에서 업무 시작과 종료 시간, 1일의 근로시간을 스스로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일반직(국내) 근로자의 경우, 월 소정 근로시간을 준수한다면 업무가 집중되는 시기에는 초과근무가 가능하고 그 외 시기에는 의무 근무시간만 근무해도 되는 유연한 근로시간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임직원 스스로 효율적인 근로시간을 정할 수 있도록 하는 선택적 근로시간제를 통하여 현대자동차는 임직원의 업무 몰입을 높이고 성과 창출을 지원합니다.

근로자 소득 손실 보장 지원 현대자동차는 산업재해로 인해 정상적인 근로가 불가능한 임직원의 소득 손실을 보전하기 위해, 산재보상보험법에 따라 보장되는 보상금 외에 추가적인 지원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단체협약에 따라, 직원이 산업재해로 인해 휴직하는 기간 동안 법령에 의해 보장되는 휴업급여 외에도 회사에서 추가 소득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산업재해로 휴직한 후 복직하는 근로자 중 장해가 남은 경우,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보장되는 장해급여 외에 장해 정도에 따라 추가적인 보상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퇴직자 지원 제도

퇴직연금 제도 현대자동차는 정년퇴직을 앞둔 직원들이 퇴직 후 삶과 노후를 대비할 수 있도록 전 직원을 대상으로 퇴직연금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퇴직연금 준비금 사외 적립을 통해 퇴직연금을 보호하고 있으며, 가입자를 대상으로 상품 교육을 실시하여 퇴직 후 임직원의 안정적인 기반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퇴직연금 운용금액 (단위 : 백만 원)

구분	2023년 말	2024년 말
보험상품	5,995,760	6,116,520
기타	1,968	1,395
합계	5,997,728	6,117,915

퇴직 예정자 교육 현대자동차는 임직원의 정년퇴직 이후 노후설계를 위하여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연령대와 직군에 따라 온라인 및 오프라인 교육과 전문 컨설팅을 5,834명에게 제공하였습니다.

2024 퇴직 예정자 미래설계 지원 프로그램 운영 성과

구분	매니저급			
과정명	미래설계 60과정	미래설계 전직특강	미래설계 59과정	미래설계 58과정
교육 대상	만 60세	만 60세	만 59세	만 58세
수료인원	1,282명	1,782명	732명	778명
내용	• 생애경력 연계한 인생설계 진로설계서 작성	• 제2의 인생설계 지원위한 연금 등 퇴직안내	• 창업/창직 외부 체험과정(제과 제빵, 바리스타, 농촌 체험 등)	• 인간관계/ 재무관리

구분	책임급	
과정명	미래설계 기본 과정	미래설계 전문 과정
교육 대상	만 59세	만 60세
수료인원	408명	431명
내용	• 퇴직에 대한 긍정적 인식 전환 및 제2의 인생 설계를 위한 경력 탐색 - 강의: 자산관리/자격증 - 컨설팅: 경력/재무	• 퇴직 후 전직 준비를 위한 핵심 정보 습득 및 구체적 실천 계획 수립 - 강의: 자산관리/행정처리 - 컨설팅: 재취업/창업/사회공헌/귀농귀촌

구분	카마스터	
과정명	미래설계 59 과정	미래설계 60 과정
교육 대상	만 59세	만 60세
수료인원	271명	150명
방식	온라인 교육(4시간)	온라인 및 집합 교육(16시간)
내용	• 변화관리, 재무설계, 경력 탐색과 확장 및 재취업 등 퇴직 이후 생애설계 지원	

인권경영 및 인적자원 관리

다양성 포용

현대자동차의 다양성

현대자동차는 다양한 특성과 경험을 가진 임직원이 함께 일하는 것을 중요한 가치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일하는 방식 Hyundai Way 중 하나로 '다양성 포용'을 선정해 글로벌 임직원에게 전파하고 있으며, 조직문화 진단 항목 중 '리더의 다양성 존중에 대한 인식'을 포함하는 등 다양성과 포용성이 존중되는 문화 구축을 위해 노력합니다. 다양성이 높을수록 조직의 역량이 높아지며, 새로운 아이디어와 혁신을 이끄는 원동력이 됩니다. 이에 현대자동차는 전세계 사업장에서 각 사업장별 특성을 고려해 포용성을 강화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이는 단순히 우리가 지향하는 가치를 선언하는 것을 넘어 소수자 또는 사회적 약자 존중 및 동행을 위한 제도/근무환경 개선, 임직원 공감대 형성 및 교육, 임직원 의견 청취와 모니터링 등과 같은 실제적인 활동을 포함합니다.

성별

현대자동차는 많은 여성이 주요 의사결정에 참여하는 리더로 성장하도록 독려하고, 성별에 관계없이 커리어를 계속해서 쌓아갈 수 있도록 일과 가정의 양립을 지원하고 편견과 차별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합니다. 성별 다양성을 확대해 나가기 위해 현대자동차는 국내/외 여성 관리자 비율을 설정하였고, 목표 달성을 위해 다양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목표 | 글로벌 여성 관리자 비율

국내 여성 관리자[1]	해외 여성 관리자[2]
2030년 15% (2023년 대비 2배 수준)	2030년 27% (2023년 대비 +10%p 수준)

1) 책임급 이상 일반직, 연구직, 별정직, 임원 포함 (자문역 제외)
2) 조직 일반 운영업무를 관리하며, 때때로 독립 업무/프로젝트를 담당 혹은 리딩하는 직급 이상

포용적 문화 조성 자동차 산업은 과거부터 남성 인력이 과반수를 차지하는 분야이지만 현대자동차 여성 임직원은 꾸준히 증가하며 기업활동에 다양한 관점을 더하고 있습니다. 현대자동차는 상대적으로 소수인 여성 임직원이 소외감을 느끼지 않도록 포용적인 문화 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합니다. 국내/외 다양성 확대를 위한 여러 활동을 장려하고 내부 구성원의 인식 변화를 위해 노력합니다.

주요 활동

• 2025년은 세계 여성의 날(3월 8일)을 맞아 성별 다양성 포용 문화 확산을 위해 다양한 커뮤니케이션 캠페인과 이벤트를 본사 및 해외 지사에서 시행했습니다.

지사	주요 내용
본사	• 여성 리더 간의 네트워킹의 장 마련
현대모터스포츠법인	• '모터스포츠 산업 내 여성 역량 강화'를 주제로 의견을 나누는 세미나 개최
호주판매법인	• 호주 최대 성평등 포럼 지원을 시작으로, 연중 세 차례에 걸친 주기적인 ERG(We Are Women in Automotive, WIA) 활동 예정
인도기술연구소	• 동기 부여 연설 및 현대 여성에 대한 비전을 표현하는 예술 워크샵 진행
중남미권역본부	• 'Hyundai Golden Women' 캠페인을 통해 각자의 분야에서 최선을 다하는 여성 구성원들의 모습 전달
북미권역본부	• 여성 구성원 간의 ERG(Women@Hyundai-ERG) 활동 지원 및 여성 리더 강연 진행
미국생산법인	• 동료들의 추천을 받은 여성 임직원들의 이야기를 릴레이 게시하는 '여성 스포트라이트' 캠페인 시행
중국기술연구소	• 여성 리더들과 여성 구성원 간의 네트워킹의 장 마련

• 2024년 11월 UN 여성역량강화원칙(Women's Empowerment Principles, WEPs)에 가입했습니다. WEPs는 성평등과 여성 역량 강화를 증진하기 위해 유엔여성기구(UN Women)와 유엔글로벌콤팩트(UNGC)가 발족한 이니셔티브로, 현대자동차는 이 원칙에 대한 지지를 선언합니다.

여성 친화적 근무환경 현대자동차는 여성 임직원이 경력 손실을 최소화하고 건강하게 커리어 성장과 가정 생활을 양립할 수 있도록 다양한 제도를 운영합니다. 특히 육아휴직 및 육아기 단축근로, 난임휴가 등을 관련법에서 정한 기준보다 적극적으로 지원해 임신·출산·육아기 직원을 포용할 수 있는 근무환경을 조성하였습니다. 또한 여성에 대한 언어적·신체적 폭력 및 괴롭힘을 엄격히 금지하고, 사례 적발 시 무관용 원칙에 의거해 시정합니다. 더불어 승진과 보임 등 임직원의 경력개발 기회에 있어서도 성별을 사유로 기회가 제한되지 않도록 성과와 역량 바탕의 운영 원칙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노력을 통해 여성 임직원이 지속적으로 증가했으며 2024년 기준 육아휴직 복귀율 98.5%, 유지율 97.5%로 매우 안정적인 리텐션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 국내 출산·육아·가족돌봄 지원 제도

구분	지원사항	주요 내용
출산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 임신 직원의 임신 초기(12주 이내) 또는 임신 후기(32주 이상) 1일 근로시간 중 2시간 단축 제공 • 시업 후 2시간, 종업 전 2시간 또는 시업 후 1시간 + 종업 전 1시간 중 선택 가능(고위험 임산부의 경우 임신 전 기간 근로시간 단축 가능)
	출산 전·후 휴가	• 임신 중인 여직원에 대해 출산 전후 90일간의 보호 휴가 지원 (다태아 임신의 경우 120일, 미숙아 출산의 경우 100일)
	유·사산 휴가	• 임신 중 유산, 사산 등 임직원 건강을 위하여 임신 주수에 따른 휴가 일수 부여
	난임휴가 및 난임시술비	• 난임 시술 시 연간 6일 난임휴가(5일 유급, 일단위) 부여 • 본인 및 배우자 난임시술 시 실비 지원
	태아 검진	• 태아 검진 시 28주까지는 4주에 1회, 29주~36주는 2주에 1회, 37주 이후는 1주에 1회 유급 근태 지원
	주중 출산휴가 지원	• 본인/배우자 임신 및 출산 시 임신 6개월~출산 2년 내에 회사 지정 호텔 숙식 제공(최대 2박)
	배우자 출산휴가	• 배우자가 출산한 남직원 대상 출산일로부터 120일 이내 최대 20일 지원
육아	육아휴직	•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 양육을 위해 남녀 직원 모두에게 자녀 한 명당 최대 2년까지 무급 휴직 제공(최대 4회 분할 가능) • 육아휴직 및 육아기근로시간 단축을 합산하여 총 2년 사용한 직원에 한하여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1년 추가사용 가능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 만 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 자녀 양육을 위해 남녀 직원 모두에게 자녀 한 명당 최대 3년간 육아기 단축근무 사용 가능 (1개월 단위 분할 가능) • 시업 후 2시간 또는 4시간/종업 전 2시간 또는 4시간/시업 후 2시간 + 종업 전 2시간 中 선택
	육아시간 부여	• 생후 1년 미만의 영아가 있는 여직원에 대하여 1일 120분의 유급 수유시간 제공
	사내 어린이집	• 본사, 강남, 선릉, 울산/아산/전주공장, 남양연구소 등 총 7곳 운영
	유아교육비	• 만 4~5세 자녀의 유아교육비 지원
	엄마아빠 바우처	• 자녀 출생 및 입학 시 필요한 물품을 구입할 수 있는 바우처 지원
가족 돌봄	가족돌봄 휴직	• 부모나 자녀, 배우자 또는 배우자의 부모가 질병, 사고, 노령으로 인해 돌봄이 필요한 경우 사용할 수 있으며 최대 90일 지원
	가족돌봄 휴가	• 부모나 자녀, 배우자 또는 배우자의 부모가 질병, 사고, 노령 또는 자녀의 양육으로 인하여 긴급하게 돌봄이 필요한 경우 최대 10일 휴가 사용 가능
	주재원 배우자 동반 휴직	• 육아휴직과 별도로 사내부부 중 1인이 해외주재원 선발되어 동반 가족이 부임 후 12개월 내 이주 및 주재기간의 50% 이상 연속하여 동반 거주하는 경우 배우자의 정규 주재기간에 한하여 휴직 사용 가능

인권경영 및 인적자원 관리

성별 임금 격차 임직원이 성별에 관계없이 동등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합니다. 개인별 업무 경험과 성과에 기반한 임금을 지급하고, 매년 성별 임금 격차를 분석해 변화 추이와 사유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또한, 인사제도 운영 시 성별 간 임금에 구조적인 격차가 발생하지 않도록 점검하며, 평가나 승진 등 임금에 영향을 미치는 의사결정으로 불합리한 차별이 생기지 않도록 리더를 대상으로 성평등 교육을 실시합니다.

• 주요 지역별 남성 대비 여성 임금

- **국내**[1] 매니저급은 남성 대비 여성 임금이 8.7%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책임급인 G3~G4 직급은 남성 임금이 각각 5.4%, 3.6%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책임급의 성별 임금 격차는 2023년 대비 2024년 G3~G4직급에서 각각 1.4%, 6.8% 감소하였습니다. 성별 임금 격차는 근속년수, 연차 차이 등으로 인해 발생하고 있으나, 매니저급과 책임급 모두 매년 격차가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추세입니다.

1) 일반직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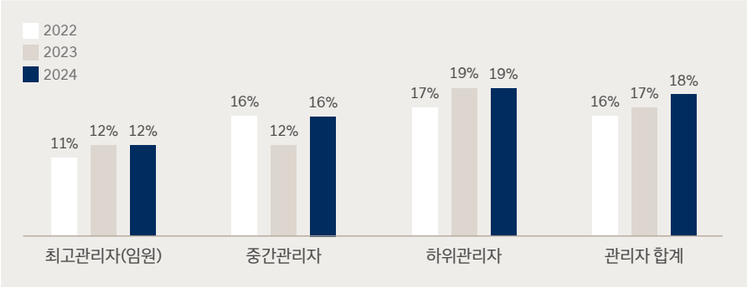
- **해외** 주요 사업장인 북미권역본부 기준, 국내 매니저급과 유사한 Grade 4~5 직급은 여성 임금이 남성 대비 1.7%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국내 책임급과 유사한 관리직에 해당하는 Grade 6~9 직급은 남성 임금이 여성 대비 0.6% 높으나, 해당 격차는 2022년 대비 2024년 1.2% 감소하였습니다. 또한 직급별 각각 비교 시에는 여성이 남성 대비 각각 0.2%(Grade 6), 1.4%(Grade 7), 2.1%(Grade 8)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Grade 9의 경우 남성과 여성이 동일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글로벌 여성 인력 추이 현대자동차는 해외지사들을 포함한 전체 여성 임직원 비율과 관리자 직급 여성 비율을 꾸준히 관리 중에 있습니다. 여성 임직원 및 관리자 비율 추이는 국내/외 모두 지속 상승 중이며, 특히 2024년의 경우 현대자동차 전 해외지사의 42%[2]에서 관리자 비율이 증가하는 추세를 보였습니다. 이러한 여성 임직원 비율의 꾸준한 상승 추이는 확대되는 비즈니스 상황과 증가하는 해외 임직원 수치에 따라 수반된 현상으로 볼 수 있습니다.

2) 2023년 → 2024년 비교 가능 56개 법인 한정 집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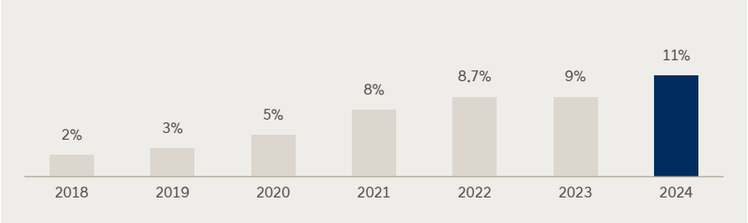
뿐만 아니라 자연 증가하는 여성 임직원 비율 추이와 함께 다양성 증진을 위한 법인들의 노력이 이를 뒷받침하고 있다는 점을 알 수 있으며, 실제로 최근 다양성 증대를 위한 목표 및 정성적인 프로그램을 보유 및 운영한 해외지사 12개 중 10개에서 정량적으로도 여성 임직원 수치가 증가하는 추이를 보였습니다. 더불어 전체 여성 임직원 비율이 증가되지 않은 나머지 두 지사에서도 여성 관리자 비율은 증가 추이를 보였다는 점에서, 실제 여성 비율 증대를 위한 지속적인 조직 차원의 노력이 동반되어야 정량적인 비율의 개선 또한 가능하다는 점을 알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멕시코판매법인은 인재 확보 정책을 수립해 채용 과정에서 모든 지원자가 남성으로 구성되지 않도록 하며 전체 임직원 여성 비율 40%를 목표로 노력한 결과, 2024년 해당 수치의 목표를 달성하였습니다.

• 전체 해외지사 여성 관리자 비율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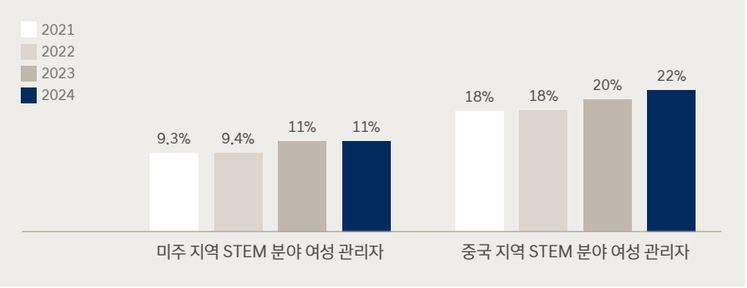
지역별로 살펴보면 유럽 지역의 경우 7년 연속 여성 임원 비율이 지속 상승 중으로, 2024년에는 여성 임원 비율이 두 자리 수를 넘어섰습니다. 또한 최근 2개년 지역별 여성 비율을 비교하여 보면, 미주 지역에서 가장 높은 여성 임직원 비율 상승률(9%p)을 보이며, 여성 관리자의 경우 인도 및 아중동 지역에서 가장 높은 상승률(4%p)을 보입니다. 이처럼 지역 및 권역별로 상이한 추이와 특성을 보유하고 있으며, 권역본부 · 생산법인 · 판매법인 등 조직의 특성을 고려한 직군 및 직급에 따른 세분화된 접근이 요구됩니다.

• 유럽 지역 여성 임원 비율 추이



직군 및 직급에 따라 세분화된 접근을 함에 있어, 특히 STEM 분야나 연구직 및 생산직군과 같이 여성 비율이 대표적으로 낮은 분야들의 성별 균형 개선에 집중할 필요가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미주와 중국 지역에서는 최근 4개년(2021년-2024년) 동안 STEM 분야 여성 관리자 비율이 지속 상승 추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더불어 인도기술연구소의 경우, 여성 비율 증대 목표 및 노력을 통해 3개년 STEM 분야 여성 관리자 비율이 지속 상승 중에 있습니다.

• STEM 분야 여성 관리자 비율 추이



연구직 직군을 살펴보면, 최근 3년간 국내 연구직 여성 비율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더불어 일부 해외지사에서도 여성 비율 증가 추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미국기술연구소의 경우 최근 2개년 연구직 직군의 여성 직원 수가 43% 증가하며 여성 비율 또한 2%p 상승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큽니다.

마지막으로 생산법인의 기술 · 생산 · 정비 직군[3]을 살펴보면 여성 비율이 증가하는 추이가 특히 잘 드러나지 않는다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최근 2개년 여성 생산직 비율 증가 추이를 보이는 현대상용기차(중국)유한공사와 같은 생산법인들의 사례는 주목할 만하며, 그 외의 생산법인에서도 여성 진출이 증가할 수 있도록 노력할 예정입니다.

3) 사무직 생산관리 직무 포함

이런 지속적인 증가 추세에도 불구하고 해외지사 중 전체 여성 비율이 20% 대에 머무르는 지역이 대다수라는 점에서 아직 나아갈 길은 많을 것입니다. 다만 최근(2024년 기준) 국내 채용 현황을 살펴보면 국내 본사 사업장에 입사한 일반직(정규직 기준) G1 직급의 49%는 여성이며, G2부터 G4 직급 모두 40% 전후의 여성 인력이 유입되고 있습니다. 더불어 국내 여성 임원 비율이 최근 6년(2019년-2024년) 사이에 4배 이상 증가하였으며, 사외이사의 43%가 여성으로 구성되는 등 점차 성별 균형이 개선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현대자동차의 여성 비율 증진을 위한 노력은 지속될 예정입니다.

인권경영 및 인적자원 관리

SPOTLIGHT

해외지사별 성별 다양성 개선 활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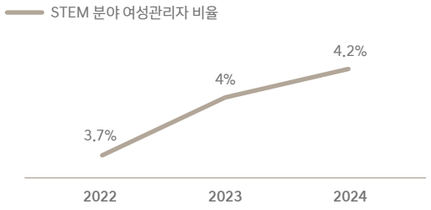
인도기술연구소

임직원을 대상으로 다양성 포용에 대해 지속적으로 소통하며, 특히 2024년 리더 대상 전사 타운홀 미팅을 통해 다양성 포용의 가치를 강조하였습니다. 이러한 노력은 여성 채용을 필두로 한 다양성 확보 및 육성으로 연결되어 최근 2개년 간 여성 연구직 비율의 전반적 증가와 함께, 최근 3개년(2022년-2024년) 간 STEM 분야의 여성 관리자 비율 증가 추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목표
- **2-4년 내 리더십 그룹 여성 2~4명 확대 목표**
- **2-4년 내 여성 채용 비율 20% 달성 목표**
  * 2024년 13%

프로그램
- **2025 다양성 확보 채용 전략 및 구조화된 내부 육성 계획을 통해 여성 리더십 확대 증진**

인도기술연구소 STEM 분야 여성관리자 비율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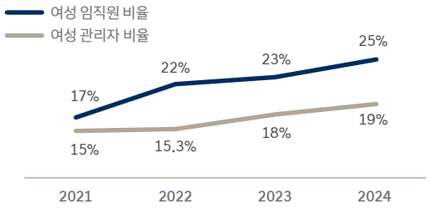


중남미권역본부

최근 4개년 동안 여성 임직원 수와 비율 모두 증가하여, 2024년 여성 임직원 비율은 25%까지 증가되었습니다. 여성 임직원 외에도 관리자 비율이 동시에 증가하였고, 더 나아가 중간관리자와 하위관리자 직급 모두 증가 추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기술·생산·정비직이 차지하는 비율이 높은 조직 특성을 고려하였을 때, 최근 2개년 동안 기술·생산·정비 직군의 여성 비율이 3%p 가량 증가하였다는 점이 유의미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프로그램/제도
- **여성 리더십 프로그램**
  - 여성 리더와 함께하는 세계 여성의 날 기념 이벤트를 매해 진행하며, 각 분야의 여성 리더들과 H-Mentoring 진행
- **다양성 포용 내부 진단 및 이니셔티브 개선**
  - 최근 2년 연속 다양성 내부 진단 실시, 2024년부터 다양성 이니셔티브 개선에 초점(포용적 업무 환경 조성 등)
- **출산 및 육아 관련 복지**
  - 탁아소 수당 및 임신기 검진 등을 포함한 포괄적인 출산 및 육아 복지 제공

중남미권역본부 여성 관리자 및 임직원 비율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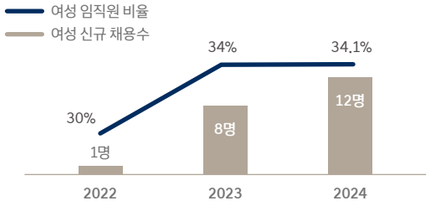
프랑스판매법인

성별 균형을 위한 목표 및 프로그램을 운영 중으로, 최근 3개년(2022년-2024년) 동안 여성 신규 채용 인원 및 여성 임직원 비율 증가 추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 최근 2개년 사무직 직군(35%→40%)과 하위관리자 직급(27%→29%)에서의 증가 추이를 보이며 향후에도 지속적인 성장이 예상됩니다.

목표
- **여성 직원 비율 지수와 남녀 성평등 지수로 여성 비율 및 목표 관리**
  - 보직자 여성 비율 50% 이상 유지, 전체 여성 비율 30% 이상 유지 목표

프로그램
- **여성 채용 확대 및 육성 강화 추진**
  - 여성 직원에게 경력 개발 관련 우호적인 교육기회 제공

프랑스판매법인 여성 신규 채용 및 임직원 비율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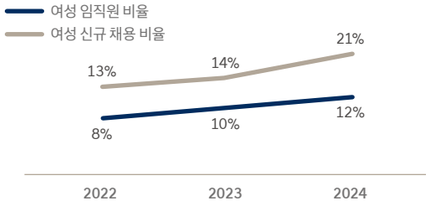
튀르키예생산법인

여성 직원 비율 향상 목표 및 프로그램 운영 중으로, 최근 3개년(2022-2024년) 동안 여성 채용 비율 및 임직원 비율 증가 추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목표
- **2025년 여성 직원 비율 15% 달성 목표**
  * 2024년 12%

프로그램
- **2025년 포용적 채용 계획 수립**
  - 채용 담당자 및 관리자 대상으로 무의식적 편견에 대한 교육 실시, 개인적 질문을 방지하기 위한 역량 기반 질문지 개발, 채용 공고 언어를 모든 잠재적 후보자를 포괄할 수 있도록 수정

튀르키예생산법인 여성 신규 채용 및 임직원 비율 추이



인권경영 및 인적자원 관리

문화적 다양성

현대자동차는 서로 다른 구성원의 문화 · 국가 · 생각 · 경험을 포용하는 과정에서 새로운 가치를 발견하고, 전세계 임직원이 보다 효과적으로 함께 일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합니다. 2025년에는 글로벌 전사 사업장 임직원 대상 D&I에 대한 교육 과정을 개발하여 운영할 예정입니다.

목표 | 다양성 인식 개선 교육 글로벌 전사 사업장 임직원 이수율

글로벌(국내+해외) 사업장 임직원 이수율

2025년 50%

- 주요 내용: 현대자동차의 지속적인 D&I 활동과 연계한 D&I 인식 강화 교육
- 교육 방식: 온라인 영상 콘텐츠

글로벌 교류 확대 전세계 사업장에서 다양한 국적과 문화적 배경을 가진 임직원이 함께 일하고 있습니다. 현대자동차는 임직원들이 Global one company로서 협업하고, 폭넓은 커리어 확장과 성장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노력합니다.

주요 활동
• 모든 사업장 간 인재 이동 확대를 위한 제도/시스템(Global Mobility Framework)을 지속 보완하며, 임직원에게 글로벌 사업장에서의 다양한 성장 기회를 제공합니다. 풍부한 경험을 갖춘 임직원들이 글로벌 사업장에서 유연하게 근무할 수 있도록, 프로젝트 참여 외에도 인력 육성 등 다양한 취지의 인재 이동 기회를 마련합니다. • 기술지원 출장 및 파견을 통해 신차 출시, 생산설비 설치, 고객 행사 등 중요한 이벤트 시 본사와 해외지사 간 풍부한 경험을 갖춘 임직원이 협력합니다.

글로벌 인재 허브 한국에 위치한 현대자동차 본사는 국가간 인력 교류가 가장 활발하게 이뤄지는 사업장으로, 다양한 배경을 지닌 글로벌 인재를 더 적극적으로 포용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임직원을 대상으로 문화적 다양성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고, 외국인 임직원의 의견을 지속적으로 청취해 포용적 문화와 근무환경을 제공하기 위한 개선을 실천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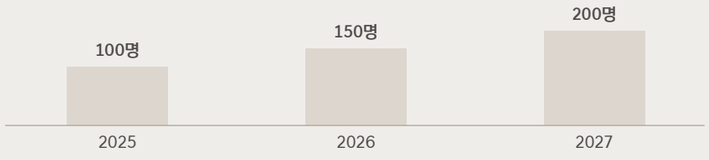
주요 활동
• 외국어 사용자의 정보 격차를 줄이기 위해 사내 주요 공지와 교육 내용을 영어로도 함께 제공하고, 주요 임직원용 사이트를 개편하여 영어 지원 범위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 외국인 임직원이 한국 생활과 문화에 원활하게 적응할 수 있도록 2025년부터 별도 온보딩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국내 외국인 입사자를 대상으로 전담 지원 조직을 운영하여 주거계약 지원, 24시간 생활지원 서비스 제공 등 불편함 없는 생활이 되도록 지원합니다. • 다양한 국가의 신입사원을 채용하기 위한 별도 인턴십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우수한 경력을 갖춘 해외 인재를 적극적으로 영입합니다. 특히, 2024년은 글로벌 인턴십 프로그램을 통해 2023년 대비 2배 이상의 외국인 신입사원을 선발하였습니다. • 2025년 상반기에는 글로벌 전사 사업장 임직원을 대상으로 D&I 마인드셋 함양을 위한 교육을 신규로 진행하였으며, 하반기에는 현대자동차의 지속적인 D&I 활동과 연계하여 D&I 인식 강화 교육을 추가 진행 예정입니다. • 2025년은 세계인의 날(5월 20일)을 맞아 당사 외국인 임직원들의 사례를 기반으로 다양성 포용을 강조하는 캠페인을 진행했습니다.

장애

현대자동차는 장애인이 수행 가능한 업무에 장애인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장애인 임직원이 독립된 구성원으로서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근무환경을 만들기 위해 노력합니다. 장애인 고용 확대에 대한 의지를 담아 3개년 국내 장애인 신규 채용 인원 목표를 설정하였고, 목표 달성을 위해 다양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목표 | 장애인 신규 채용(국내)

3개년 총 450명 채용



장애인 고용 확대 2025년부터 장애인 직접 고용을 확대하기 위해 별도의 채용 채널을 신설했습니다. 직접 고용을 위해 고용 직무를 발굴하였으며, 고용 확대를 위해 한국장애인고용공단과의 협력 체계를 구축하였습니다. 향후에는 초기 운영 과정에서 확인된 보완 사항을 반영하여 채용 규모와 직무를 지속 확대해 나갈 예정입니다. 또한, 채용된 장애인 임직원이 근무환경에 원활하게 적응할 수 있도록 별도 직무 교육을 실시하고, 사업장 내 편의시설도 보완해 나갈 예정입니다.

주요 활동
• 2025년 3월 장애인 신입 특별채용을 신규로 진행하였으며, 장애인 맞춤형 채용 프로세스 도입 및 업무 특성과 근무환경을 고려한 배치 등을 통해 선발규모와 직무를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 2025년 4월 한국장애인고용공단과 『장애인 고용증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함으로써 지속적인 장애인 고용 확대와 고용 안전을 위한 상호 협력 체계를 구축하였습니다.

장애인 인식 개선 장애인 구성원의 양적 확대, 원활히 일할 수 있는 근무환경 조성뿐만 아니라 장애인 협업 문화 구축 및 구성원의 인식 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향후에는 임직원의 장애인 인식에 대한 개선을 지속 모니터링할 예정입니다.

주요 활동
• 2025년에는 법정 필수 교육인 장애인 인식 개선 교육을 실시하는 것에서 나아가, 장애인의 날(4월 20일)을 맞아 임직원 대상 장애인 인식 개선을 위한 참여형 캠페인을 실시했습니다.

인권경영 및 인적자원 관리

SPOTLIGHT

해외지사별 ERG 활동

Employee Resource Groups

현대자동차는 공통적인 다양성 배경을 지닌 임직원이 서로의 관심사를 공유하고 문화를 교류함으로써 선도적인 조직문화를 형성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때문에 성별, 문화, 연령, 출신지역을 비롯한 공통의 관심사를 지닌 임직원들이 함께 소통하고 어울릴 수 있는 직원 리소스 그룹(Employee Resource Groups: ERG) 프로그램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임직원 개인 또는 팀 차원의 경력 개발 기회를 제공하고, 문화 기반 멘토링, 지역사회 참여 등 외부 연계활동을 통해 현대자동차 내부뿐만 아니라 지역사회에까지 긍정적 영향력이 확산되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북미권역본부 ERG 활동 사례

명칭	대상	주요활동
Women @ Hyundai	여성 임직원	• 여성 임직원, 고객, 협력사 임직원에게 주체성을 부여하는 포용적 환경 조성 • 여성 임직원 관점에서 커리어 개발을 위한 멘토링 프로그램 및 여성 지원 활동 운영
Hyundai @ Soul	흑인 및 아프리카계 미국인 임직원	• 흑인 및 아프리카계 미국인 커뮤니티 내 고용 브랜딩 제고 방법 논의 • 현대자동차 경영진의 문화적 역량 향상을 위한 다양한 지원
HANA (Hyundai Asian Network Alliance)	아시아계 임직원	• 아시아 문화 특성 및 관점을 활용한 전략 개발, 기술 및 네트워크 활용 기회 고민 • 기업 홍보 및 지역사회 행사 지원
Amigos Unidos	히스패닉/라틴계 임직원	• 라틴계 커뮤니티의 문화 지능을 활용한 경영 혁신 아이디어 제안 • 라틴계 임직원 관점에서 현대자동차 미래 방향성에 대한 아이디어 제시
Young Leaders	밀레니얼 세대 임직원	• 밀레니얼 세대의 강점을 활용한 다양한 아이디어, 해결책, 개선점 고민 • 소속 임직원 개인의 커리어 개발과 자기개발을 위한 멘토링 프로그램 실시
Equality	LGBTQ+ 임직원	• LGBTQ+ 임직원 대상 교육, 경력 개발, 네트워킹 및 직장 협업 기회 제공 • LGBTQ+ 커뮤니티 내 현대자동차의 브랜드 인지도를 제고하기 위한 아이디어 공유
Hyundai CARES	장애인 임직원	• 장애인의 직장생활 개선 및 장애에 대한 긍정적 인식 제고 • 선천적, 후천적 장애가 있는 임직원, 노화로 인한 장애가 있는 중장년 임직원 등 지원
Stars & Stripes	보훈 대상자	• 현대자동차 직원, 배우자, 가족 및 미군 참전용사 지지자들이 모이는 포럼 운영 • 소속감을 느낄 수 있는 안전하고 포용적인 공간 제공

캐나다판매법인 ERG 활동 사례

명칭	대상	주요활동
Women @ HAC	여성 임직원	• 산학협력 및 멘토링을 통한 자동차 업계 내 여성 경력 기회 확대 및 육성 지원 • 정례적 연사 세션 및 컨퍼런스 참여, 자선 사업 및 봉사 참여를 통한 지역사회 기여
Inclusion @ HAC	사회적소수자 임직원(다 인종/문화, LGBTQ+ 등)	• 다양한 분야 및 주제의 연사 세션을 시리즈로 진행 • 포용성을 주제로 한 중식 이벤트, 다양한 문화/종교의 날 기념 행사 진행
Parents @ HAC	부모 임직원	• 육아, 부모님 돌봄, 출산/육아 휴직 후 복직 등 다양한 형태의 가족을 모두 포용하는 커뮤니티 내 소통 활성화 • 내부 임직원 주도 연사 세션 진행 및 타사 제휴

보스턴다이나믹스 ERG 활동 사례

명칭	대상	주요활동
Boston Dynamics Women's Alliance Group (WAG)	여성 임직원	• 동료 멘토링 및 토의 그룹을 통해 여성과 앨라이(ally) 관련 논의 학습 • 세계 여성의 날과 여성 역사의 달 기념 • 주간 네트워킹 모임 진행
Boston Dynamics Young Professional Group (BDYP)	주니어 임직원	• 다양한 리더들과 그들의 여정, 조언, 교훈을 듣고 배우기 위한 일련의 멘토링 세션 • 임직원 몰입 강화를 위한 네트워킹 활동 및 이벤트 진행
Boston Dynamics Pride Group (Pride)	LGBTQ+ 임직원	• 주간 네트워킹 모임 진행 • 프라이드 달 기념 • 프라이드 역사와 함께 하는 시민권 교육, 스톤월(Stonewall) 운동가 인터뷰 진행
Boston Dinámicos	히스패닉/라틴계 임직원	• 국가 히스패닉 유산의 달 기념

중남미권역본부 ERG 활동 사례

명칭	대상	주요활동
Groupo Conexão	다양한 세대의 임직원	• 세대 간 지식 교류 증진, 이해 강화 활동 추진 (원탁 토의를 통해 세대 간 다양한 관점 탐색, 성장 기회 파악 및 고유한 강점 활용 등)
Groupo SOMOS	LGBTQ+ 임직원	• LGBTQ+ 커뮤니티 관련 주요 이슈에 대한 건설적인 토의 주도 • LGBTQ+ 임직원에게 정서적, 지역사회 기반의 지원 제공하여 연대 네트워크 조성
Groupo Ascendência	다 인종 임직원	• 인종 다양성과 형평성 및 포용성에 초점을 맞춘 강의와 연수 구성 • 인종 다양성에 대한 공감 및 존중을 함양하는 이니셔티브 추진
Groupo Empodera	여성 임직원	• 여성 임직원들의 전문적 성장을 활성화하는 교육 및 멘토링 프로그램 개발 • 고용 브랜딩 강화 목표의 내·외부 캠페인 등 여성 임파워먼트 관련 이니셔티브 지원
Groupo Habiliverso	장애인 임직원	• 장애인 직원의 접근성과 포용성을 높이기 위한 솔루션 발굴 및 제안 • 전 장애인 직원을 대상으로 심층 인터뷰 실시, 경험 토대의 개선 인사이트 발굴

호주판매법인 ERG 활동 사례

명칭	대상	주요활동
We Are (Women in Automotive)	여성 임직원	• 미래 여성 리더십 서밋 참여 및 지원 • 직장 내 여성 리더십 관련 주요 연사 초청, 관련 네트워킹 활동 추진

인권경영 및 인적자원 관리

SPOTLIGHT

외부 이니셔티브 참여 및 수상/인증 내역

본사

UN 여성역량강화원칙
(UN Women Empowerment Principle Signatory) 가입
2024

이데일리 좋은 일자리 대상 종합 대상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상)
2024

캐나다판매법인

Top 50 Best Workplaces in Canada
2024

Canada's Best Diversity Employer Top 100
2024

Reuter's D.R.I.V.E. Honours Award for DEI Commitment
2024

유럽권역본부

Financial Times Diversity Leaders Ranking
2024

영국판매법인

The Sunday Times Best Place to Work
2024

인도권역본부

Top Employer Certified
2024

북미권역본부

Great Place to Work Certified
2024

현대트랜스리드 미국판매법인

Great Place to Work Certified
2024

체코생산법인

Sodexo Employer of the Year
2024

인도네시아생산법인

Stellar Workplace Award
(Kontan National Media & GML Consulting)
2023

멕시코판매법인

Great Place to Work Certified
2024

튀르키예생산법인

Stevie Awards for Great Employers
2024

중남미권역본부

Great Place to Work Certified
2024

해외 Great Place To Work® 인증 사례

법인	인증 등급	인증 유효기간
북미권역본부	일하기 좋은 기업 인증	2025년 8월
멕시코판매법인		2025년 8월
현대트랜스리드 미국판매법인		2025년 6월
중남미권역본부		2025년 6월
호주판매법인		2026년 2월
캐나다판매법인	캐나다 TOP50 일하기 좋은 기업 인증	2025년

안전보건

현대자동차는 임직원을 포함한 모든 이해관계자의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 핵심가치로 설정하고, 안전보건에 대한 원칙과 기준을 바탕으로 지속적인 안전보건 증진 활동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전사 안전보건 체계를 구축하여 관련 법·규제를 준수하는 한편, 임직원을 포함한 모든 유형의 근로자의 건강 증진과 근로환경 개선을 위해 적극적으로 유해·위험요인을 발굴하여 개선해 나가고 있습니다. 안전보건 체계를 구축하고 중장기 로드맵과 핵심 성과목표를 설정하였으며, 성과목표 달성에 필요한 인적·물적 자원을 적극 투입하고 있습니다. 나아가 임직원을 포함한 모든 이해관계자에게 목표 달성 및 이행 현황 정보를 공유하여 참여와 소통 기반의 안전보건 문화를 확산하고자 합니다.

안전보건 리더십 강화

안전보건 체계

안전보건 거버넌스 구축 현대자동차는 연간 안전보건 체계 운영 및 목표, 실행계획, 이행현황 등에 관한 사항을 이사회에 보고하고 승인받고 있으며, 대표이사를 포함한 경영진은 월별 실적 및 주요 성과를 점검 · 감독하고 있습니다. 또한, 안전보건 총괄 거버넌스 운영을 위해 안전보건 최고책임자(대표이사 겸 Chief Safety Officer)를 선임하였으며, 전사 안전보건 담당 조직을 대표이사 직속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안전보건최고책임자 총괄 아래 사업장별 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안전보건관리 우선순위를 설정하고 실행계획을 수립하며, 전사 또는 사업장 단위별 안전보건관리자와 직원이 참여하여 안전보건 리스크를 발굴하고 공유하며, 개선 방향을 논의하는 회의를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산업안전보건 외부 전문가가 사업장 안전보건 실태를 점검하고 사고 발생 가능성에 대해 파악하며, 사후조사 절차에도 참여하고 있습니다. 경영진, 리더, 현장관리자 등 안전보건 관련 책임이 있는 임직원은 안전보건 관리 성과목표(KPI)를 설정하고 있으며, 목표 대비 이행 현황에 따라 성과를 평가합니다.

안전보건경영시스템 도입 국내외 모든 사업장은 안전보건 실행계획 수립, 유해·위험요인 발굴 및 개선 활동 수행, 안전보건 활동 이행실적 평가, 활동 분석 기반 개선조치 마련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안전보건경영시스템을 갖추고 있습니다. 2024년에는 각 사업장 별도로 추진하던 안전보건 인증을 전사 통합 인증 체계로 개편하고, 업무절차와 각종 안전보건 규정을 일원화하는 등 표준화를 통해 안전 관리 수준을 향상하였습니다. 이와 더불어 각 생산공장에서는 법·규제, 시장현황 등을 고려하여 사업장별로 안전보건경영시스템에 대한 제3자 인증을 획득하고 있습니다. 또한, 협력사가 자체적으로 안전보건 역량을 확보할 수 있도록 협력사의 안전보건경영시스템 구축을 유도·지원하고 있습니다.

안전보건경영시스템(ISO 45001) 인증 사업장

국내외 전체 생산법인

100%

안전한 일터 조성을 위한 노사 합동 정기점검 수행 현대자동차는 지난 2023년 노사 공동 선언을 통해 사업장 내 안전 최우선 문화 정착을 위한 노사 간 협력, 적극적인 투자 및 전문 인력 보강 등 안전관리 활동 강화 등을 선언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전 사업부가 현장 위험요인 개선 및 법규 준수를 통해 중대재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 '안전일터 조성의 날'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각 사업부장 및 실장 주관하에 안전 점검을 진행하고, 노안분과장 및 노안분과위원 등의 참여와 근무자 면담을 통해 현장 중심의 안전관리를 실시합니다. 점검 결과에 따라 위험요소 발굴 사항에 대해서는 즉각 개선 조치 및 보완 공사를 진행합니다. 2025년 1월에는 안전난간 설치 등 34건의 개선을 진행하였고, 보완투자를 추진함으로써 중대재해 위험공정 및 설비에서 발견된 위험요소를 지속적으로 개선하고자 합니다.

근골격계 예방 관리 체계 수립 현대자동차는 근골격계 질환을 사전에 예방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근골격계 예방관리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각 부서의 현장 임직원으로 구성된 근골격계 실행위원회는 월 2회 노사합동 현장 점검을 통해 고위험 직원 면담 및 위험요인 발굴을 진행하며, 월 1회 예방대책회의를 통해 사전 대응 방안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또한, 실행위원의 역량 강화를 위해 연간 32시간 이상의 전문 교육을 제공하여 예방관리의 효과성을 높이고 있습니다.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운영 현대자동차는 근로자의 안전과 건강을 보호하고 최적의 작업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사업장별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구성하여 분기별 회의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노사합동으로 운영되는 이 위원회는 산업재해 예방계획 수립, 안전보건관리규정 개정, 안전보건교육 실행, 작업환경 개선, 근로자 건강관리, 중대재해 예방 및 재발 방지 대책, 산업재해 통계 관리, 유해·위험기계·설비 도입 시 안전조치 등 안전보건과 관련된 주요 사항을 심의·의결합니다. 또한, 전사 차원의 안전보건 수준 향상을 위해 연 1회 통합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개최하여 안전보건 정책을 논의하고 개선 방향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안전비전전략 로드맵 마련 현대자동차는 2022년 12월, 안전 분야 전문가들이 연구·자문으로 참여한 가운데, 사업장의 안전경영체계를 심층 진단하고 글로벌 우수사례를 조사하여 안전경영체계 발전방안을 포함한 안전비전전략 로드맵을 마련하였습니다.

또한, 산업안전 심층진단을 통해 선정한 개선과제(안전문화, 노사관계, 안전교육, 안전예산, 위험성평가)를 단계별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 중 위험성평가를 최우선 개선분야로 선정하여, 2023년부터 안전 사각지대를 보완하기 위한 위험성 평가 기법을 도입하여 현대자동차 특성에 맞는 위험성평가 기반 자기규율 예방체계를 구축하였습니다. 이를 기반으로 글로벌 최고 수준의 안전 기업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관리체계를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가고자 합니다.

안전비전전략 방향

안전문화 정착	안전 최우선 핵심 가치 실현, 선진기업으로서 공정한 안전문화(Just Safety Culture)로 변모 등 현대자동차 고유의 안전문화 정착
안전교육 고도화	법·규제 요구수준 이상으로 안전교육을 강화하기 위해 임직원의 안전의식 제고 및 위험인지 역량 강화를 위한 전문 교육 프로그램 고도화
글로벌BEST 도약	글로벌 안전 거버넌스를 확대하기 위해 Headquarter 조직 중심의 미래 전략과제를 수립하고, 안전경영제도(Safety Career) 등 선진사례 시범 도입 적극 추진
현장중심 위험성 평가	전 직원이 참여하는 위험성 평가 활동을 통해 자율규제(Self-regulation) 정착 및 이를 위한 직원 역량 강화 프로그램 개발·고도화, 유해위험요인 도출 및 개선을 위한 시스템 구축
노사협력 강화	노사의 안전보건 기준 준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다양한 시스템(Safety Merit System) 도입 및 노사협력 강화
공생협력	협력사의 안전관리 역량을 현대자동차와 동일한 수준으로 향상시키기 위한 다양한 지원책(우수협력업체 발굴제도 등) 강화

안전보건

안전보건 관리 수준 점검

고위험요인(SIF) 중심의 사고관리 현대자동차는 고위험요인(Serious Injuries and Fatalities) 중점관리 개념을 도입하여, 중대재해발생 가능성이 높은 공정을 선정하고 해당 공정에서 발생하는 사고를 면밀히 조사하여 개선하는 중대재해예방 밀착활동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재해율과 선행지표인 안전보건경영 체계 개선, 산업재해 재발방지 활동 실행력 등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과정과 행위를 측정합니다. 재해율은 국내 사업장 기준 2023년 대비 약 14%p 감소하였으며, 재해가 빈번하게 발생하는 공정 개선에 적극적으로 투자하고 집중 관리하는 등의 활동이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현대자동차는 근로자의 건강권 보장을 위해 근로자가 적절한 치료를 받고 복귀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으며, 중대재해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다양한 안전문화 활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안전보건 관리수준 평가(H-SAT) 현대자동차는 사업장 안전보건 수준을 정량적으로 평가·분석하고, 취약부문을 개선하여 안전보건 수준을 상향 평준화하기 위해 자체 개발한 안전보건 관리수준 평가 도구인 'H-SAT(Hyundai- Safety Assessment Tool)'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안전보건 관리수준 평가 결과는 경영진 및 사업장 관리자의 성과지표(KPIs)와 연계하여, 안전보건 리더십 강화와 현장 사고예방 활동 활성화를 유도하고 있습니다. 안전보건 관리수준 평가는 안전, 보건, 소방 부문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중대재해 예방활동, 현장 안전관리, 안전보건경영체계 유지, 리더의 안전보건 책임과 역할 등의 세부 지표를 평가에 활용하고 있습니다. 2024년도에는 총 272건의 안전보건경영체계 보완점 및 현장문제점을 발견하였으며, 하반기 개선이행 평가를 통해 100% 개선 완료하였습니다.

안전관리 KPI 운영 현대자동차는 지속가능성 제고를 위해 안전을 기업 경영의 한 축으로 인식하여, 매년 안전관리 KPI를 수립하고 평가합니다. 평가 지표는 중대재해 예방 및 안전 거버넌스 구축을 목적으로 각 조직의 사업적 특성을 반영하여 설정하며, 각 조직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노력을 통해 안전경영을 실천 중에 있습니다. 평가지표는 선행지표(예방활동)와 후행지표(관리실적)로 구성되며, 선행지표로는 안전환경종합평가(H-SAT), 중대 위험요인 발굴 및 개선, 안전리더십 활동, 대고객 행사 안전관리 등이 있으며, 후행지표로는 중대재해 발생여부, 재해율, 부재율 등의 지표를 운영하여 생산공장 외에도 비생산부문까지 현대자동차 전 영역의 안전관리 활동에 대해 빈틈없이 점검하고 있습니다.

구분	대상	주요 평가지표	
국내	전 조직 (66개)	• 재해율/부재율[1] 목표달성률 • 오염물질 배출량 목표달성률 • 대고객 행사 안전관리	• 안전환경종합평가(H-SAT), 위험성평가 • 안전문화 조성 및 법규 준수 등
해외	생산법인 (7개)	• 재해율 목표달성률 • 오염물질 배출량 목표달성률	• 안전리더십 활동, 안전환경종합평가(H-SAT) • 사업장 우수 재해예방 활동 등

1) 전체 근무 가능 일수 대비 실제 결근한 일수의 비율로, 사업장 안전보건 수준을 간접적으로 나타내는 지표

안전보건 활동 및 재해 대응

안전보건 활동 추진

안전보건 관리 활동 현대자동차는 사업장 안전보건 관리를 위해 위험성 평가, 안전보건 진단, 소음·유해화학물질 등에 대한 작업환경 측정 및 비상상황 대응 훈련을 실시하고, 이를 바탕으로 작업환경, 기계·기구·설비 등의 안전조치와 건강장해 예방 및 증진활동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히, 매월 안전점검의 날 운영 및 고위험설비 현장점검을 통해 위험요인을 발굴하여 개선하고, 위험성평가단 운영을 통해 위험성을 발굴하고 개선하는 등 현장문화를 조성하고 있습니다.

또한, 임직원에게서 발생할 수 있는 직업성 질환을 예방하기 위해 유해인자에 대한 조사·평가를 실시하고, 개인별 건강검진과 치료 등 사후조치 활동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근골격계 질환 예방을 위한 대책 수립 및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근로자 생활습관 개선과 직무 스트레스 예방 활동도 지속 시행 중에 있습니다. 특히, 사업장에서는 금연 클리닉, 금연 캠프 운영, 금연 클린 공장 홍보 등을 포함한 보건관리 홍보 활동을 기획·추진하고 있습니다.

안전환경종합평가(H-SAT) 결과 및 개선 현황

	안전	보건	소방
관리체계 평가 항목	중대재해 예방활동, 안전보건관리체계 등	근로자 건강장해 예방활동, 보건 프로그램	비상대비 대응/훈련, 소방계획서 등
현장점검 항목	위험기계기구, 무인공정 방호조치 등	화학물질 관리, 작업환경 측정공정 관리 등	위험물/가스 현장관리, 화재 취약지 등
개선필요 사항	자동화설비 출입방지 조치 미흡, 위험성평가 위험요인 발굴 미흡 등	유해성 정보 자료 현장 비치 미흡 등	소화전 사용 요령 미부착, 용기 저장소 용기 관리 미흡 등
개선율	100%	100%	100%

안전보건 관리 활동 종류

위험성 평가
작업환경, 기계·기구·설비, 원재료, 가스, 증기, 작업행동 등 유해·위험 요인을 발굴하며, 위험 및 장해 예방 조치합니다.

안전보건 표지 부착
유해하거나 위험한 장소·시설·물질에 대한 경고표지, 비상상황 시 대응하기 위한 안내 등을 식별가능한 위치에 부착합니다.

작업환경 안전조치
작업환경 내 추락, 붕괴, 낙하, 기타 위험 발생 우려가 있는 장소별 관리 기준을 설정하고 주기적으로 유지·보수·점검합니다.

기계·기구·설비 안전조치
기계·기구·설비의 기능과 특성을 고려하여 방호조치를 취하며, 잠재적 위험이 없도록 유지·보수·점검합니다.

건강장해 예방·보건조치
원재료, 가스, 증기, 고온, 소음 등에 의한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해 필요한 예방·보건조치를 취합니다.

개인 보호장비 지급
작업환경 등에 적절한 개인보호구를 지급하고 예비보호구를 비치·관리하는 등 보호구 착용을 의무화합니다.

안전보건 진단
추락·붕괴·화재·폭발·유해물질 누출 등 재해 발생의 위험이 높은 사업장에 대해 안전보건 진단을 실시합니다.

비상상황 대응
추락·붕괴·화재·유해물질 누출 등 비상상황 시나리오에 따라 훈련하고, 소방장비 등의 기능 점검을 주기적으로 실시합니다.

유해물질 관리
취급 유해물질의 물질안전보건자료를 목록화 및 비치하며, 물리적·화학적 유해인자를 정기적으로 측정하고 개선 조치합니다.

건강증진 활동
건강진단을 정기적으로 실시하며, 호흡기, 근골격계 등 업무상 질병예방과 직무 스트레스 관리 등 프로그램을 운영합니다.

협력사 안전보건 지원
협력사 안전보건관리 시스템을 구축하여 위험성 평가를 내실화하며, 진단·교육·협의 밀착관리로 재해예방을 강화합니다.

재해 조사
재해 발생 시 원인조사를 실시하고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하며, 산업재해 등 통계 분석을 실시하여 성과개선 목표에 반영합니다.

안전보건

비상상황 종합 훈련 현대자동차는 비상조치훈련 계획에 따라 화재·폭발·누출과 같은 비상사태 발생 시 신속한 대피 및 대응을 통하여 인명 및 재산을 보호하고자 모의 훈련을 연 2회 실시합니다. 비상상황 종합 훈련을 통해 비상상황 대처 능력을 유지·향상시키고 있습니다. 종합 훈련은 위험성 평가 결과 주요 위험요인을 반영하여 계획을 수립하며, 상황별 시나리오 작성, 비상상황별 행동요령 이행, 개인별 분반 및 임무 수행으로 구성됩니다. 종합 훈련 담당자는 훈련이 기준과 절차에 따라 운영되고 있는지 평가하며, 평가기준을 지속적으로 개정함으로써 훈련 수준 및 강도를 향상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사업장 중대재해 예방 활동

구분	활동내용
모바일 정기 안전점검	• 작업공정 및 운영설비 안전성 확보를 위한 모바일 점검 도입
스마트 모션센서 설치	• 안전관리 사각지대 중심 해당 센서를 설치하여 중대재해 예방
인체감지 센서 설치	• 지게차 등 운반기계 조작 시 근로자 부주의에 의한 사고 위험성 저감 위한 인체감지 센서 등 설치
안전관리 규정서 개발	• 휴무시간 등에 이루어지는 비정형 공사작업 관리 위해 설계부터 시공까지 단계별 규정서 개발
고위험 설비 점검	• 협력사 납품 차량, 프레스공장 크레인, 이동식 간이 리프트 등 고위험설비에 대한 현장점검 실시

안전사고 발생 시 조치 절차 및 단계별 행동요령

진술 확보	공정 확인	사진 촬영	원인 분석	대책 수립
최초 목격자의 진술 확보	공정을 확인하고, 사고발생 원인 등 청취	전체 공정 및 사고 재연 사진 촬영	사고의 근본 원인 분석	여러 대책 수립 후 가장 이상적인 대책 적용

* 사고조사 행동요령: 사고 발생 시 상기 단계에 따라 확인하며, 누락시키거나 서두르지 않도록 함
** '6하 원칙'을 기초로 한 사고 조사 진행하여 정보 누락을 방지하고, 큰 원인부터 작은 원인(Top Down 방식)으로 확인함

단계별 안전관리

안전계획 수립	안전협의체	현장 안전점검
재해예방 능력평가	공사 안전관리계획	설치공사 안전점검
공사 안전관리계획	행사 안전관리계획	행사운영 안전점검
행사 안전관리계획	기타 협의사항	해체공사 안전점검

중대시민재해 대응 강화

중대시민재해 대응 역량 강화 활동 현대자동차는 원료·제조물의 설계, 제조, 관리상의 결함으로 발생 가능한 재해나, 실질적으로 지배·운영·관리하는 공중이용시설에서 발생 가능한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안전관리 범위를 확대하고, 경영책임자인 CSO의 안전보건 거버넌스 강화에 지속적인 노력을 기하고 있습니다.

원료 부문은 안전보건관계법령 중 현대자동차에서 준수하고 이행해야 하는 17개 법령(환경, 소방, 위험물, 가스, 원자력 등)에 대해 인력, 예산, 점검/개선, 교육 등 안전보건체계가 잘 운영되는지를 반기 1회 주기로 점검하고 보고합니다. 보고 결과에 대한 CSO 의견을 사업장에 전파하고 있으며, 전파된 내용이 현장에서 적용되는지를 지속적으로 확인·점검합니다.

제조물 부문은 현대자동차에서 개발하고 생산(차체·도장·조립 및 완성차 검사)하는 일련의 과정뿐 아니라 리콜, 캠페인 등 다방면에서 발생할 수 있는 VOC(Voice Of Customer)를 청취하고 문제점을 도출해 개선·관리하고 있습니다. 나아가 엄격한 품질체계 관리로 일관되고 우수한 자동차를 생산하고, 고객의 안전하고 편리한 이동을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공중이용시설(시설물, 다중이용시설 등) 부문은 용도와 면적에 따라 1~3종 시설로 구분하고, 각 건축물별 안전계획서를 수립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안전계획서는 '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 법률'을 바탕으로 현대자동차 12대 자체 관리 기준을 수립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정밀안전진단·정밀안전점검 등 법정점검뿐 아니라 자체점검(30년 이상의 노후 건물 등)을 통해 취약점을 지속 발굴하고 개선하고 있습니다.

또한, 현대자동차에서 주최하는 대(對)고객 행사에 대해 자체 안전관리 기준을 수립하고 그 기준에 따라 안전계획 수립, 안전협의체 운영, 현장 안전점검 등 단계별 안전관리를 통해 행사에 참여한 시민들이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행사를 즐길 수 있도록 관리합니다.

사업장별 중대재해 예방활동

아산 공장 신기술 적용 통한 사고 예방 강화

아산 프레스 공장에서는 무인운반차량(AGV)과 지게차의 충돌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교차 안전장치 센서 태그가 연동되는 안전정지 시스템을 구축하여 감지영역 범위를 확장하여 사고가 발생하기 전에 이동 중인 물체를 사전에 정지시킬 수 있도록 했습니다. 또한 AI 인체감지 시스템을 도입하여 감지구역 내 사람과 차량 이미지를 구분하여 비상정지를 가능할 수 있도록 하여 근로자와 차체의 협착사고를 예방하고 있습니다.

멕시코 공장 이중 안전장치 및 충돌방지 태그로 작업장 사고 예방 강화

멕시코 공장은 레일을 이용하는 운반설비에 발 끼임 방지 조치를 취하고, 작업용 리프트에 이중안전장치인 라이트 커튼 및 도어 마그네틱을 설치하여 근로자가 추락 및 끼임으로 인한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업장 내 작업 안정성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또한 운반차 운행경로 내 사각지대로 인한 보행자와의 충돌을 방지하기 위해 해당 구역에 진입하는 근로자에게 충돌방지태그를 착용하도록 하여 운반차가 근처에 진입할 때 사전에 태그가 진동해 사전에 위험 감지를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충돌방지 태그 적용으로 인해 기존 운전자 대상 위험 알림과 함께 근로자 대상 위험 알림이 더해져 충돌 위험을 최소화하고 있습니다.

튀르키예 공장 AI·센서 기반 안전 시스템 강화로 사고 및 화재 위험 최소화

튀르키예 차체 공장은 차량 리프팅 작업 중에 발생할 수 있는 근로자 충돌 사고 방지하기 위해 초음파 센서 및 알람 회로를 부착하여 리프터 운행 중 근로자 감지 시 리프터가 자동으로 멈추고 경고음이 발생하도록 안전 시스템을 강화하였습니다. 이와 더불어 프레스 공장 작업 라인 내 안전 사각지대를 없애기 위해 AI 비전 카메라를 추가 설치하여 근로자의 협착, 충돌 사고를 방지하고 있습니다. 또한 소화용수 공급 배관 상태 및 유량을 소방서에서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는 모니터링 시스템을 부착하여 화재 발생 시 진압 안정성을 강화하였습니다.

국내사업본부 카 캐리어 운전원 안전사고 예방 조치 및 하이테크센터 방문고객 안전확보

국내 카캐리어 운전원들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경량 안전모를 개발하고, 신차 상하차시 운전원들이 안전모를 착용할 수 있도록 설명회를 실시하여 안전지침을 준수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운전원의 의견 청취 내용을 바탕으로, 국토교통부 및 한국교통안전공단과 협업하여 차량에 장착할 수 있는 안전지지대를 개발하였고, 카캐리어에 이를 설치할 수 있도록 비용을 지원하였습니다. 이와 더불어 현대자동차의 종합정비센터인 하이테크센터를 방문하는 고객들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고객관점에서 전국 하이테크센터의 위험성평가를 진행하여 센터 내 고객의 이동 동선 및 이용 장소 등과 연관된 위험요인을 개선하였습니다.

안전보건

안전문화 확산 및 교육

안전보건 문화 확산

안전문화 진맥진단(Pulse Survey) 도입 2023년 현대차는 안전문화의 정량적 평가가 가능한 안전문화 지표(H-SCI)를 자체 개발하고 최초 진단하였으며, 2024년에는 약식 지표인 안전문화 진맥진단(Pulse Survey)을 추가 개발 및 도입하여 현장 안전문화를 진단 · 개선하고 있습니다. 안전문화 지표와 안전문화 진맥진단을 교차로 활용하여 안전문화 수준 추이를 분석하고, 관련 활동의 효과성을 평가하고 있으며, 부서 단위 웹 리포팅 제공을 통해 각 조직별 안전문화 개선 전략 수립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노력을 통해 현장 안전문화 정착과 자기규율 예방체계 구축을 유도하여 더욱 더 안전한 현대자동차를 만들어 나가고 있습니다.

현장 안전의식 함양 활동 CSO안전메시지, 사업부장 안전카드 뉴스, 임직원 가족이 참여하는 안전 연극, 자녀 안전포스터 공모전, 상/하반기 안전 강조 주간 운영 등을 통해 임직원 안전 의식 함양 활동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현장 참여 강화를 위해 안전 점검의 날 운영, 심폐소생술 부스 운영, 안전 신문고 포상을 확대하였으며, 안전문화 확산을 위해 고용노동부/공단과 협업하여 통근/구내버스에 안전문화 메시지를 부착하였습니다.

안전 전문 자격증 취득 지원 현대자동차는 임직원의 현장 안전 관리 전문 역량 강화를 위해 산업안전(산업)기사 자격증 취득 과정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산업안전(산업)기사는 산업 현장의 안전 관리 전문가로서 필요한 전문 지식과 기술을 검증하는 국가 기술 자격증입니다. 2023년 울산공장에서 시작하여 2024년에는 아산, 전주, 연구소, 판매/정비 부문까지 확대 운영하여, 임직원들의 안전 역량 개발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총 731명의 임직원이 과정을 수료하고, 634명이 자격증을 취득하였습니다.

2024년 산업안전기사 자격 취득 현황

구분	울산	아산	전주	연구소	판매/정비	총합
응시자(명)	355	65	76	157	78	731
합격자(명)	312	56	69	138	59	634
합격률(%)	88	86	91	88	76	87

산업안전기사 자격증 취득과정 운영

안전보건 교육 실시

안전보건 교육플랫폼 구축 및 콘텐츠 개발 현대자동차는 안전교육 플랫폼이라는 자체 교육 시스템을 구축하여 모든 임직원이 온라인, 모바일 환경에서 쉽고 편리하게 안전 보건 교육을 수강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안전 교육 콘텐츠는 총 115편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안전수칙, 사고예방, 중대재해 예방 등에 대해 영상별 단편영화, 예능, 토크쇼 등 다양한 콘셉트를 적용하여 흥미 있고 유익한 안전 교육 콘텐츠를 자체 제작하여 지속적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2024년 안전보건 교육 운영 현황

※ 중복포함

교육과정	교육대상		교육시간	교육이수(명)
정기교육	사무직 종사 근로자		반기 6 시간 이상	총합 : 501,140 집체 : 207,928 모바일 : 293,212
	그 외 근로자	판매업 종사자	반기 6 시간 이상	
		그 외 종사자	반기 12 시간 이상	
채용 시 교육	일용근로자 및 근로계약기간 1주 이하		1시간 이상	1,732
	일용근로자 및 근로계약기간 1주 초과 1개월 이하		4시간 이상	
	그 외 근로자		8시간 이상	
작업내용 변경 시 교육	일용근로자 및 근로계약기간 1주 이하		1시간 이상	69,050
	그 외 근로자		2시간 이상	
특별교육	일용근로자 및 근로계약기간 1주 이하 (타워크레인 작업 제외)		2시간 이상	1,704
	일용근로자 및 근로계약기간 1주 이하 (타워크레인 작업자)		8시간 이상	
기타교육	기타 안전보건교육 (화재예방, 기초훈련, 종합훈련 등)		-	44,731

안전보건

안전 체험관 및 VR 체험기기 교육 도입 임직원이 VR 기기를 착용해 가상현실로 구현한 위험요소를 체험하고 안전에 대한 경각심을 제고하도록 VR 체험형 안전교육 콘텐츠와 임직원 안전의식 함양을 위해 안전 체험관을 운영 중에 있습니다.

구분	사업장	오픈일	설비(종)
안전 체험관	전주공장	'24.10월(리모델링)	13종
	남양연구소	'24.11월	9종
VR 체험기기	아산공장	'23.11월	VR부스 2개

안전 체험관 및 VR 체험기기

협력사 안전보건 지원

협력사 중대재해 예방 현대자동차는 협력사의 안전관리 수준 향상을 위하여 안전교육 지원 및 안전관리 우수 협력사 포상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협력사 안전관리 전산 시스템을 개발하여 협력사의 재해 예방 역량을 사전에 평가하고, 적격 수급인을 선정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였습니다. 협력사의 안전관리 체계 구축을 위하여 협력사 정보 등록부터 협력사 안전관리 역량평가, 안전 협의체 운영, 합동점검 등 안전관리 활동을 추진하였습니다.

협력사 안전점검 및 안전관리 의식 강화 현대자동차는 협력사의 안전 관리 수준 향상 및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외부 전문기관을 활용하여 평가를 실시하고, 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협력사의 자율 안전 관리 체계 구축 및 안전 보건 수준 향상을 적극적으로 지원했습니다. 특히, 주요 부품에 대한 품목별 안전 등급을 부여하여 중대재해 발생 시 신속한 초동 대응 및 안정적인 부품 공급망 확보를 위한 관리 체계를 구축했습니다.

또한, 2021년부터 2023년까지 진행한 안전점검 결과가 미흡한 80개 협력사를 대상으로 맞춤형 진단 컨설팅을 추가로 실시하여 협력사의 안전 관리 역량 강화를 위한 실질적인 지원을 제공했습니다. 이와 더불어, 현대자동차는 협력사의 근본적인 안전 역량 강화를 위해 안전보건 상생협력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1, 2차 부품사를 대상으로 위험성 평가 컨설팅을 지원하여 자체적인 안전관리 체계를 구축하도록 돕고 있으며, 분기별 안전보건 상생협의체를 통해 협력사와 안전 동향 및 우수 사례를 공유하고 있습니다.

최근 안전사고 외에도 화재, 폭발 및 배터리 화재 사고 등 공급망을 위협하는 다양한 안전 리스크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소방 안전 관리를 강화했습니다. 위험물 시설, 도장 공정 및 가스 시설을 보유한 1, 2차 협력사 254개사를 대상으로 외부 전문 위탁 기관을 통해 사업장 전기 시설, 접지 및 정전기 등 주요 발화 위험 요소를 점검하고, 법적 규정에 맞는 소화전 설치 및 경보 설비 등 다양한 화재 예방 조치를 권고하여 협력사의 화재 예방 역량 강화를 적극적으로 지원했습니다.

또한, 협력사의 안전 의식 강화를 위해 1차 협력사를 대상으로 안전 관리 세미나 및 전시회를 개최했습니다. 세미나에서는 중대재해 예방 활동을 위한 현대자동차의 안전 보건 정책 및 핵심 추진 전략을 발표하고, 중대재해 처벌법 대응 방안을 공유하였습니다. 특히, 지게차 안전 장치, 안전 센서, 스마트 글라스 및 AMR(Autonomous Mobile Robot) 시연 등 최신 안전 기술을 선보여 협력사들이 현장에 필요한 안전 설비를 직접 확인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했습니다.

1,2차 협력사의 안전장치 비용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위험공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LOTO(Log out Tag out), 안전센서 및 지게차 안전장치를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협력사 안전팀장, 담당자들의 안전관리 실무업무 지원을 위해 안전아카데미, 안전세미나를 실시하였고, 현대자동차의 안전관리 우수사례를 협력사에 전파하는 등 협력사 안전수준 제고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 글로벌 상생협력센터, 산업안전상생재단을 통해 모든 협력사와 동종 산업중소기업에게 안전보건 교육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 외에도 현대자동차는 사업장 내 작업 및 공사를 위해 출입하는 모든 협력사를 대상으로 출입 전 안전교육을 이수하도록 요구하는 등 임직원 안전의식 고취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속가능한 공급망

현대자동차는 공급망의 지속가능성을 기업 경영의 필수 요소로 인식하고, 책임 있는 공급망 관리 체계를 구축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지속가능성 전략과 목표를 수립하고, 협력사와의 동반 성장을 위한 정책과 프로그램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공급망 실사를 통해 리스크를 사전에 식별하고 개선하며, 공급망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글로벌 이니셔티브와 협력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협력사의 역량 강화를 위해 금융·기술·품질·ESG 분야의 종합적 지원을 제공하고, 고충처리 절차를 운영하여 상생협력 기반의 지속가능한 공급망 관리 체계를 정착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현대자동차는 협력사와 함께 공급망 내 인권 및 환경 리스크를 사전에 예방하고 최소화하는 것을 목표로 지속가능한 가치사슬을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공급망 리스크 관리 강화

공급망 지속가능성 관리

공급망 지속가능성 전략 및 목표 현대자동차의 이해관계자는 차량의 설계부터 생산, 유통, 서비스 및 폐기까지 모든 단계에 걸쳐 참여하는 공급업체, 유통업체, 고객, 규제기관, 지역사회 등을 포함합니다. 이해관계자는 공정한 계약과 투명한 대금 지급을 통해 신뢰 관계를 구축하며 지속 가능한 성장을 기대하고, 현대자동차는 품질 경쟁력, 기술 경쟁력 강화, 공급 안정성, 친환경 생산체계를 통해 제품 신뢰성 및 브랜드 가치를 높이는 기회를 모색합니다. 현대자동차는 이해관계자의 니즈와 현대자동차의 위험 및 기회를 고려하여 공급망 관리 전략을 도출하고, 공급망의 지속가능성 향상을 위해 협력사 지속가능성 리스크 진단·실사 범위를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있습니다. 2022년부터 전 세계 1차 협력사 모두를 대상으로 공급망 지속가능성 평가를 시행하고 있으며, 모든 1차 협력사가 환경경영시스템(ISO 14001)과 안전보건경영시스템(ISO 45001) 인증을 획득할 것을 유도하고 있습니다. 또한, 협력사 지속가능성 역량 향상을 지원하기 위해 2025년까지 안전설비 구축, 보안시스템 구축, 탄소배출저감 등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공급망 관리 전략

5대 전략방향	성과 지표
품질 경쟁력	입고불량률, 클레임변제율, 품질경영, 제조공정 현장평가, 외주사 관리
기술 경쟁력	기초역량, 수행능력, 미래역량, 신뢰성 시험역량, S/W 검증역량
공급 안정성	원활한 부품공급(생산라인 정지 예방), A/S부품 납입률, KD부품 납입률
공정거래	대금지급 조건, 계약 공정성, 법/규제 준수, 상생협력 활동(동반성장 지원)
친환경 생산체계	환경경영시스템, 에너지 사용, 대기오염물질, 폐기품, 유해화학물질 관리

공급망 지속가능성 향상 목표

구분	지원 대상	지원 기간
안전설비 구축	1차사·2차사	2023~2025년 (3년간)
보안시스템 구축	1차사·2차사	
탄소배출저감 지원	1차사	
ESG 컨설팅 지원 프로그램 운영	1차사·2차사	

* 지원 대상: 업체규모 및 업종 등을 감안하여 1차사·2차사 중 선정

공급망 지속가능성 확산

협력사 행동규범 제·개정 현대자동차 협력사 행동규범은 재화와 용역을 제공하거나, 기타 거래를 위해 계약을 체결한 모든 협력사가 준수해야 할 윤리, 환경, 노동·인권, 안전·보건, 경영시스템 분야의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현대자동차와 계약을 체결한 모든 협력사는 행동규범을 준수해야 함과 동시에, 행동규범을 적용받는 모든 협력사는 거래업체(하위 협력사) 등 공급망 전반에 행동규범에서 제시하는 사항을 준수하도록 권장해야 합니다. 협력사는 경영 의사결정 및 사업 운영 과정에서 협력사 행동규범의 원칙을 반영해야 하며, 현대자동차가 직접 또는 제3자 기관을 통해 수행하는 지속가능성 리스크 진단 및 실사에 적극 협조해야 합니다. 또한, 현대자동차의 리스크 개선 권고에 따라 상호 협의를 통해 리스크 완화 계획을 수립하고, 실질적인 이행 조치를 수행해야 합니다.

공급망 지속가능성 관리 계획 및 프로그램과 관련한 주요 사항은 이사회 차원에서 감독 및 검토를 거쳐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고 있습니다. 특히, 협력사 행동규범에는 강제노동 근절을 위한 조항이 추가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현대자동차는 공급망 내 어떠한 단계에서도 직·간접적으로 강제노동을 이용하여 제조된 원재료, 부품 및 구성품을 조달하지 않으며, 협력사에도 강제노동 사용 금지 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이행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또한, 강제노동과 관련된 공급망 실사를 수행하도록 규정하여 공급망 내 인권 보호를 강화하고, 책임 있는 조달을 실현하고자 합니다.

현대자동차 협력사 행동규범

공급망 지속가능성 관리 담당 조직 현대자동차는 구매본부 내 전담조직을 통해 강화되는 글로벌 공급망 실사 규제에 대응하고 있습니다. 또한, 공급망 지속가능성 관리와 협력사 탄소중립 추진을 총괄하여, 국내외 완성차 공장에 공급되는 부품, 원부자재, 설비 등의 공급망 지속가능성 관리에 적시 대응하고 있습니다.

협력사 선정기준 내 지속가능성 반영 현대자동차는 안전보건 및 환경 관리 표준 가이드라인 배포, 지속가능성 리스크 진단·실사 등을 통해 협력사의 안전·환경 사고 발생 현황을 점검하고 있으며, 사고 발생 협력사에 대해서는 협력사 선정 시 페널티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또한, 현대자동차는 신규 협력사 선정 시 품질경영체제, 재무구조 및 경영능력에 관한 평가와 더불어 지속가능성 및 안전·보안 등에 대한 평가도 함께 시행하고 있습니다. 평가결과를 거래조건으로 반영하고 있으며, 기존 거래 협력사들도 해당 평가결과에 따라 입찰제재 등 페널티 적용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공급망 실사 규정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이를 당사 홈페이지 및 기본계약서에 반영하였습니다. 2024년에는 1차 협력사들과 체결하는 부품거래기본계약서, 견적요청서(Request For Quotation)를 전면 개정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기존 협력사에게도 강화된 규정을 적용할 수 있도록, 계약 갱신 시점에 공급망 지속가능성 기준을 준수할 것을 정기적으로 요구하고 있습니다. 특히 표준 부품거래 기본계약서에는 '지속가능경영'과 '환경오염의 최소화 및 안전경영'에 대한 조항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를 통해 현대자동차는 협력사가 협력사 행동규범을 준수하도록 법적 의무를 부여하고, 이를 위반할 시 신속히 시정 또는 중단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또한, 시정 요구에 불응하는 경우 협력사의 계약위반을 사유로 계약을 해지할 수 있음을 명시하였습니다. 이외에도 현대자동차는 견적요청서에 강제노동에 대한 무관용 원칙을 보장하기 위한 요구사항을 반영하는 등 협력사가 실질적인 지속가능성 관리를 이행하도록 계약 체결 및 갱신 과정에서 의무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협력사 등록 시 지속가능성 서류 구비 현대자동차는 협력사 평가 결과 거래자격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협력사의 평가보고서, 실태조사서, 재무제표뿐만 아니라, 윤리서약서, 친환경 부품공급 협정서, 품질서약서, 정보보호서약서 등 지속가능성 향상에 관한 서약을 협력사로부터 받고 있습니다.

협력사 분포 현황 현대자동차의 협력사는 전세계 다양한 지역에 분포되어 있습니다(한국, 미국, 중국, 유럽, 인도, 중남미, 동남아 등). 이 중 핵심부품 (수소연료전지부품, 배터리부품, 제어부품, 전동화부품 등)을 공급하거나 타협력사로의 대체가능성이 낮은 협력사, 그리고 거래규모가 큰 협력사들을 중점관리(핵심) 협력사로 선정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2024년 등록 및 관리하고 있는 1차 협력사는 1,494개(구매 비중 100%)로 국내 374개, 해외 1,120개입니다. 1차 협력사 중 중점관리 협력사는 58개(구매 비중 69%)입니다. 현대자동차는 1차 협력사뿐만 아니라, 사업운영에 상당한 영향력을 미치는 2차 협력사도 파악하고 있으며, 2차이상 협력사 중 중점관리 협력사는 48개입니다.

지속가능한 공급망

공급망 지속가능성 진단·실사 체계

리스크 진단·실사 절차 현대자동차의 공급망 지속가능성 리스크 평가관리는 서면진단-현장실사-개선 및 모니터링 단계로 구성되며, 공급망 내 발생가능한 지속가능성 리스크를 효과적으로 식별하기 위해 글로벌 동향에 따라 진단지표를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있습니다. 또한, 글로벌 공급망 실사 법령에 대응하기 위하여 강제노동 리스크 관련 공급망 컴플라이언스 프로그램을 구축하여 통합적 공급망 지속가능성 리스크 관리 체계를 강화하였습니다.

리스크 진단 지표 구성 현대자동차는 공정거래·환경·노동·안전 보건·공급망 실사 등과 관련된 법규 및 OECD 다국적기업 가이드라인(OECD Guidelines for Multinational Enterprises), EcoVadis, 책임있는 사업자 연합(RBA), 자동차부품공급망 관련 이니셔티브(Drive Sustainability) 등의 지표와 기준을 활용하여 현대자동차만의 공급망 지속가능성 리스크 진단 지표를 수립하였습니다. 공급망 지속가능성 리스크 진단지표는 윤리, 환경, 노동·인권, 안전·보건의 영역으로 구성되었으며, 협력사의 규모와 핵심지표 충족여부 등을 감안하여 평가결과를 공급망 운영전략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평가기관	• 제3자 외부 평가기관을 통해 진행하여 공정성 및 전문성 확보
평가 시 활용한 이니셔티브	• EU 기업 지속가능성 실사 지침 (EU CSDDD) • OECD 다국적 기업 가이드라인 • EcoVadis • Drive Sustainability • Responsible Business Alliance • UN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 UN Global Compact • Carbon Disclosure Project

리스크 진단·실사 단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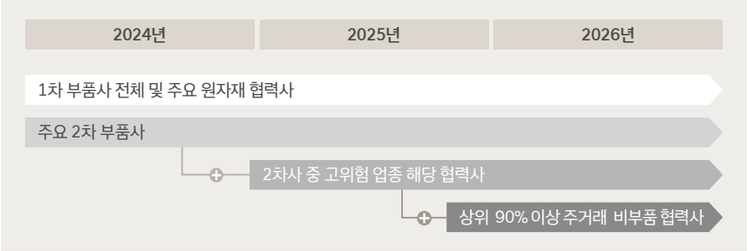
사전식별	• 예상되는 리스크를 협력사 소재 국가별, 산업별, 납품 제품별로 분석 • 외부 리스크 데이터 베이스 제공 업체 통해 강제노동 리스크 스크리닝 진행
서면진단	• 온라인 시스템(IT)에 접속하여 협력사가 지속가능성 리스크 수준을 자가진단 (Check-list) 및 근거문서 증빙
현장실사	• 외부 전문가와 공동으로 협력사를 방문하여 현장상황을 확인하거나, 증빙문서 진위 여부를 확인
개선조치	• 서면진단 또는 현장실사 과정에서 발견된 고위험 요소는 즉각 개선조치 요청, 또는 개선계획 수립 권고
모니터링	• 개선 계획 이행 현황에 대한 지속 모니터링 수행

공급망 관리 전략 연계 진단·실사 현대자동차는 협력사의 품질 경쟁력, 기술 경쟁력, 공급 안정성, 공정거래 준수, 친환경적 생산체계 구축을 위한 공급망 관리 5대 전략방향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5대 전략방향을 달성하기 위해 각 방향별 주요 성과지표(입고불량률, 신뢰성 시험역량, KD부품 납입률, 대금지급 조건, 에너지 사용량 등)를 수립하여 이행 현황을 정기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있습니다. 또한, 협력사가 당사의 공급망 관리 전략에 참여·이행하고 있는지 파악하기 위해 '전략 연계 관리 지표' 및 '지속가능성 리스크 진단 지표'를 설계하였으며, 해당 지표를 바탕으로 협력사 수준을 진단·실사(평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평가결과는 구매정책에 반영되고 있으며, 신규 거래 협력사의 경우 지속가능성 리스크 진단 평가에서 기준 점수 이하를 획득할 경우 개선 계획서를 제출해야 하며, 재평가를 실시해야 합니다. 재평가 결과, 기준 점수 미달 시에는 거래가 불가능합니다. 기거래협력사의 경우에도 평가결과를 입찰제도에 반영하여 기준점수 도달 시에만 신규입찰 참여가 가능합니다.

공급망 지속가능성 진단 실사 수행 3개년 로드맵 현대자동차는 전체 1차 부품사 대상으로 공급망 지속가능성 진단 실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2026년까지 2차 협력사 중 주요 업종 협력사와 구매 금액 기준 상위 90% 이상 주거래 비부품 협력사를 대상으로 지속가능성평가를 확대할 예정입니다. 특히, 사전 리스크 평가를 통해 환경, 인권 리스크가 높은 것으로 식별된 도장, 도금, 주조 및 단조 업종을 주요 리스크 관리 대상으로 선정하고, 해당 업종 협력사를 우선 대상으로 2025년부터 지속가능성 평가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공급망 지속가능성 진단 실사 수행 3개년 로드맵



사전식별(Risk Filter) 현대자동차는 공급망 내 잠재적 및 실제 발생 가능성이 높은 리스크를 사전에 식별하여, 보다 체계적이고 효과적인 리스크 진단 및 실사 프로세스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외부 데이터베이스를 활용한 리스크 스크리닝을 수행하며, 스크리닝 결과를 바탕으로 공급망 내 리스크 수준을 '높음', '중간', '낮음'의 3개 레벨로 구분합니다. 리스크 스크리닝 결과에 따라, 정기 모니터링, 추가 실사 등의 후속 조치를 권고 및 이행하고 있으며, 특히 '중간' 이상의 리스크 수준으로 평가된 협력사를 대상으로 공급망 매핑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공급망 매핑 대상은 알루미늄, 철강, 타이어, 배터리, 폴리실리콘 등 주요 부품군을 중심으로 하며, 외부 환경 변화 및 신규 리스크 발생 가능성에 따라 우선순위를 조정하여 운영됩니다.

공급망 리스크 사전 식별 단계

국가·업종·부품 및 원부자재별 리스크 파악	협력사가 소재한 국가별, 업종별, 납입 부품 및 원부자재별 리스크를 파악하여 관리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각국 정부 및 연구기관 발표자료, 각종 미디어 및 소셜 네트워크 자료 등을 활용합니다.
공급망 지속가능성 리스크 진단 결과 분석	확인된 리스크는 윤리, 환경, 노동·인권, 안전·보건 등 각 영역을 기준으로 분류하여 관리하고 있으며, 공급망 리스크 개선방안 도출 및 진단지표 개정 등에 반영합니다.
공급망 가시화 시스템 통한 공급망 매핑	1차 ~ N차 협력사의 공급망 현황을 보여주는 공급망 가시화 시스템을 운영 중이며, 공급망 가시화 시스템의 N차 공급망 정보를 외부 스크리닝 데이터베이스와 연계하여 리스크 식별 및 평가 절차가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추진 중입니다.

서면진단(Written Assessment) 현대자동차는 당사만의 차별화된 지표와 기준으로 공급망 지속가능성 리스크를 진단하고 있습니다. 서면진단은 국내외 모든 협력사가 접근가능한 온라인 평가시스템을 활용하여 실시되며, 협력사가 자가진단방식으로 평가지표에 응답하고 증빙문서를 첨부하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협력사 서면진단 결과는 협력사의 지속가능성 리스크 확인, 현장실사 대상사 선정, 고위험 협력사 구분 등의 기초자료가 됩니다.

지속가능한 공급망

현대자동차는 자체 평가와 더불어 공급망 전반의 인권 및 환경 리스크를 더욱 심층적이고 다각적으로 분석하여 사전에 예방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글로벌 지속가능성 평가기관인 에코바디스(EcoVadis)를 통해 2024년 4분기부터 2025년 1분기까지 국내 1차 부품사 전체를 대상으로 환경, 노동 및 인권, 윤리, 지속 가능한 조달 영역에 대한 추가적인 검증을 시행했습니다. 평가 결과, 현대자동차의 공급망에 속한 협력사들은 글로벌 산업 평균 대비 높은 평균 점수를 획득하며 전반적으로 우수한 수준을 나타냈습니다. 다만, 환경, 노동 및 인권 영역 대비 윤리 부문 및 지속 가능한 조달 영역은 상대적으로 낮은 점수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에 현대자동차는 해당 영역에 대한 협력사의 역량 강화를 위해 교육 프로그램 확대 및 맞춤형 컨설팅 지원을 강화하고, 또한, 필요에 따라 현장 실사를 병행하여 실질적으로 개선될 수 있게 지원할 예정입니다.

공급망 지속가능성 리스크 진단 지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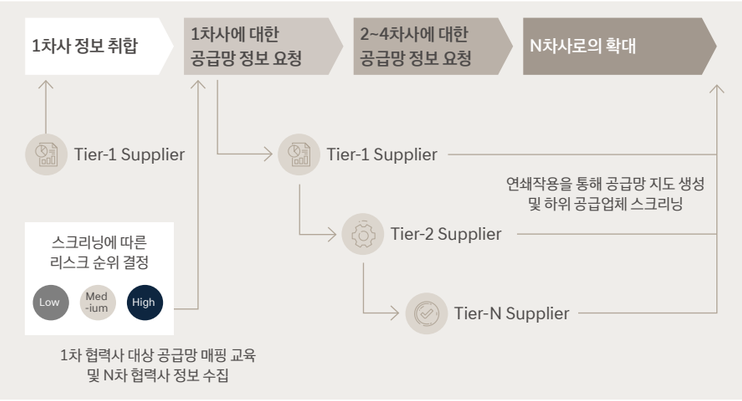
윤리	환경	인권·노동	안전·보건
• 부패, 뇌물수수 금지 • 윤리경영 • 책임 있는 조달(분쟁광물, 책임광물, 목재, 고무 및 EUDR 규제 원자재 등) • 위조부품 금지 • 지식재산권 보호 • 정보보안 • 협력업체 점검	• 환경경영시스템 • 기후변화 및 에너지 • 대기오염물질 • 수자원 관리 • 유해 폐기물 관리 • 화학물질 관리 • 해양 오염 방지 • 멸종위기 동식물종 보전 • 제품의 환경적 영향	• 근로조건 및 환경 • 차별금지 • 비인도적 행위 • 결사의 자유 • 아동노동 금지 • 강제노동 금지 • 토착민 • 생활임금	• 안전보건 경영시스템 • 산업재해 방지 • 적절한 주거 • 근로손실재해율 관리

현장실사(On-site Audit) 현대자동차는 협력사의 소재 국가, 업종, 납입 부품·원부자재, 서면진단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현장실사 대상 협력사를 선정하고 있습니다. 특히, 서면진단 결과 응답내용 및 증빙자료 제출이 미흡하거나, 잠재적 또는 실재적 지속가능성 리스크가 확인되는 협력사를 현장실사 대상에 우선 포함하고 있습니다. 리스크가 확인된 일부 협력사의 현장실사에는 독립적인 제3자 전문기관이 참여하고 있으며, 당사 구매부문과의 긴밀한 협업을 통해 진행되고 있습니다. 현장실사 과정에서는 협력사의 근로 조건 및 노동 환경, 원주민 인권 보호, 폐기물 및 오염물질의 적법 처리, 안전보건 체계, 정보 보안 관리 등 다양한 항목에 대해 시스템과 규정을 점검하였습니다. 앞으로는 현장 방문 시 발생할 수 있는 ESG 리스크를 보다 효과적으로 식별하고 대응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여 적용할 계획입니다.

분야별 주요 개선 사항 공급망 지속가능성 리스크 진단 결과 확인된 주요 미흡사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각 협력사에게 벤치마크 기업 평균 점수 및 최고점수와, 미비점 및 개선점에 관한 사항을 기재한 평가 결과 보고서를 배포하여 개선을 유도하고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 협력사의 실질적인 개선을 지원하기 위해 현대자동차가 제공할 수 있는 지원책을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실행하고 있습니다.

분야		개선 필요 사항	개선 방향
윤리	책임있는 원자재 조달	핵심 원자재 관리	협력사 대상 광물, 고무, 목재 등 주요 원자재 관리 교육 등을 통한 인식 제고
	정보보안	정보보안 리스크 관리	정보보안 실천 방안 교육 및 관리 우수 사례 전파
인권	임금	생활임금 지급 개선	협력사 대상 생활임금 기준 및 관련 사례 등 제공
	원주민	지역사회 영향 관리체계 구축	지역사회 소통채널, 인권 환경영향평가 기반 분석 등 영향관리 방법 공유
환경	기후변화	온실가스 감축 중장기 목표 수립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 이행 위한 협력사와의 공동 프로그램 개발
	에너지	에너지 전환 계획 수립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과 에너지 전환의 연계 프로그램 개발
	제품의 환경적 영향	제품 환경 영향 관리 강화	제품 환경 영향에 대한 협력사와의 공동 관리 수행

1차사부터 N차사에 이르는 연속적인 공급망 매핑 절차



협력사 현황 (단위: 개)

구분	합계	국내	해외	비고
1차 협력사	1,494	374	1,120	
1차 핵심 협력사	58	58	0	1차 협력사 중 구매비중 69%
2~N차 핵심 협력사	48	48	0	

공급망 지속가능성 리스크 진단·실사 결과 (단위: 개)

구분		합계	국내	해외	비고
ESG 리스크 서면진단	1차 협력사	1,494	374	1,120	
	중점관리 1차 협력사	58	58	0	중점관리 협력사 서면 진단률 100%
	중점관리 2차 협력사	48	48	0	
	기타 비부품 협력사	220	220	0	
서면진단 기반 고위험 협력사 식별	1차 협력사	19	8	11	
	중점관리 1차 협력사	2	2	0	
	중점관리 2차 협력사	0	0	0	
	기타 비부품 협력사	0	0	0	
ESG 리스크 현장실사	1차 협력사	195	138	57	서면진단 기반 고위험 협력사 19개 포함 고위험 협력사 ESG현장실사율 100%
	중점관리 1차 협력사	17	17	0	
	중점관리 2차 협력사	40	40	0	
	기타 비부품 협력사	72	72	0	
고위험 협력사 개선조치	부정적 영향이 발견된 협력사	19	8	11	고위험 요소 식별된 중점관리 1차 협력사 2개사 개선 계획 100% 이행완료
	중점관리 1차 협력사	2	2	0	
	중점관리 2차 협력사	0	0	0	
	기타 비부품 협력사	0	0	0	
	합의된 개선계획이 수립된 협력사	19	8	11	
	중점관리 1차 협력사	2	2	0	
	개선계획 이행완료 협력사	19	8	11	
	중점관리 1차 협력사	2	2	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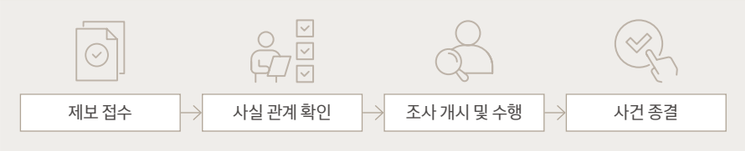
지속가능한 공급망

협력사 고충처리

협력사 소통 창구 운영 협력사에게 윤리적 행동과 탄소중립 이행을 위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 것은 당사와 협력사가 공정하고 투명한 상생협력관계를 구축하는 데 중요합니다. 이를 위해 현대자동차는 파트너 시스템 내에 공급망 지속경영센터, 협력사 소리함, 투명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며, '협력사 투명·윤리 실천 건의함'과 '2·3차 협력사 소리함'을 통해 협력사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다양한 제도개선을 위한 의견을 수렴하고 있습니다. 협력사로부터 고충이 접수될 경우, 내부적으로 사실 관계를 확인한 후 제보자에게 세부 조사 개시 여부를 회신합니다. 세부 조사는 객관적인 근거를 바탕으로 진행되며, 내부 규정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취해 최종적으로 마무리됩니다. 또한, 협력사가 현대자동차의 공정거래 법규 위반 사실을 관계 기관에 신고하거나, 당사와의 계약내용에 이의를 제기하더라도 해당 협력사와 거래를 중단하거나 거래 제품·수량을 제한하지 않는 '보복금지정책' 시행 등 협력사 공급망 전반의 공정한 거래 관행 구축과 투명성 강화를 위한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현대자동차 파트너 시스템

고충처리 프로세스



협력사 투명·윤리 실천 건의함 처리 현황 (단위: 건)

유형	접수 건수	처리완료
제도/프로세스	2	2
품질 관리	3	3
기타	2	2
합계	**7**	**7**

2, 3차사 협력사 소리함 처리 현황 (단위: 건)

유형	접수 건수	처리완료
지원 프로그램	26	26
제도/프로세스	24	24
기타	22	22
합계	**72**	**72**

이해관계자 참여

외부 이해관계자와의 대화 현대자동차는 공급망의 지속가능한 관리를 위해 이해관계자와의 대화를 중요한 요소로 인식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다양한 시각에서 지속가능성 전략을 점검하고 발전시키고 있습니다. 이러한 논의는 공급망 관리의 최신 트렌드를 식별하고, 모범 사례를 공유하며, 보다 효과적인 협력 방안을 모색하는 데 기여합니다. 2024년 3월과 10월, 현대자동차는 NGO 등 대외이해관계자와 두 차례 마련된 소통의 자리에서 공급망 내 인권 및 환경 관리 전략을 공유하였습니다. 이 자리에서 외부이해관계자들은 글로벌 이니셔티브 가입을 통한 이해관계자 협력 강화 및 배터리 소재 공급망에서의 인권 실사 강화 필요성 등을 강조하였습니다. 이러한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적극 반영한 현대자동차는 책임 있는 비즈니스 연합(RBA, Responsible Business Alliance), 책임 광물 이니셔티브(RMI, Responsible Minerals Initiative), 자동차 공급망 협의체인 Drive Sustainability에 가입하여 지속가능한 공급망 관리 체계 구축을 위한 협력을 강화하였습니다. 또한, 중점관리 대상 광물을 선정하여 기존의 분쟁광물 및 코발트뿐만 아니라 니켈, 리튬, 구리, 흑연 등 다양한 원자재까지 포함한 공급망 인권 및 환경 리스크 관리 체계를 마련하였습니다. 현대자동차는 앞으로도 이해관계자와의 지속적인 협력을 바탕으로 투명하고 책임 있는 공급망 운영을 실현해 나가겠습니다.

Responsible Business Alliance(RBA) 현대자동차는 글로벌 산업 연합인 책임 있는 비즈니스 연합(RBA, Responsible Business Alliance)의 회원으로서, RBA의 비전과 목표를 적극적으로 지지하며, 공급망 전반의 노동, 인권, 환경 기준 강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RBA는 글로벌 공급망 전반에 걸쳐 근로자, 환경 및 기업 경영에 지속 가능한 가치를 창출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기업 연합입니다. 회원사, 협력사 및 이해관계자는 RBA가 제시하는 선도적인 표준 및 관행을 통해 근로 조건, 환경 보호 및 경영 성과를 개선하기 위해 협력하고 있습니다. RBA 행동 규범은 OECD 다국적 기업 가이드라인, UN 기업과 인권 이행 원칙, UN 세계 인권 선언, ILO 노동자 기본권 선언 등 국제적으로 인정된 가이드라인을 기반으로 합니다. 현대자동차는 RBA 행동 규범을 준수하며, 사업장 운영 활동을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있습니다. 또한, RBA 행동 규범을 기반으로 현대자동차 협력사 행동 규범을 수립하여 공급망 관리 체계에 내재화하고, 이를 협력사에 전파하고 있습니다. 나아가, RBA를 통해 공급망 내 인권 문제 해결을 위한 산업 간 대화 및 기준 설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며, 책임 있는 공급망 구축을 위한 협력을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Drive Sustainability 현대자동차는 자동차 공급망 내 지속가능성 개선 및 강화를 목표로 하는 글로벌 자동차 제조사들의 전략적 파트너십인 Drive Sustainability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공급망 전반의 환경, 인권 및 노동 환경 기준을 향상시키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현대자동차는 Drive Sustainability와의 협력을 바탕으로 공급망의 지속가능성을 강화하고, 보다 책임 있는 기업 운영을 실현해 나가겠습니다.

Responsible Minerals Initiative (RMI) 현대자동차는 책임 광물 이니셔티브(RMI, Responsible Minerals Initiative)의 회원으로서, 분쟁 광물 공급망의 투명성 확보와 책임 있는 광물 조달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RMI는 기업이 책임 있는 광물 조달을 실천할 수 있도록 다양한 도구와 정보를 제공하며, 특히 책임 광물 보증 프로세스(RMAP, Responsible Minerals Assurance Process)를 통해 제련소와 정련소가 RMAP 표준 준수 여부를 검증합니다. 현대자동차는 RMI의 실무 그룹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며, RMI의 글로벌 네트워크 및 전문성과 협력하여 공급망 내 리스크를 면밀히 분석하고 대응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외부 이해관계자와의 소통을 강화하고, 책임 있는 광물 조달을 위한 지속적인 개선을 추진하며, 윤리적이고 지속가능한 공급망 구축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이해관계자 고충 접수 및 대응 현대자동차는 협력사의 고충 제보를 위한 '파트너 시스템' 뿐만 아니라, 공급망 전반에 걸쳐 인권, 노동 환경, 윤리, 환경과 관련된 우려 사항을 제기할 수 있는 다양한 소통 채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NGO, 연구 기관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들과 적극적으로 소통하며, 그들이 제기하는 우려 사항을 면밀히 검토하고 대응하고 있습니다. 현대자동차는 공급망 내 실질적 및 잠재적 인권·환경 리스크를 파악하는 과정에서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참여를 중요하게 여기며, 이를 바탕으로 투명하고 책임 있는 공급망 관리를 실현해 나가고자 합니다.

지속가능한 공급망

원자재 공급망 관리

책임있는 광물 관리

책임광물 선정 현대자동차는 구매력을 단순히 경영 활동에 필요한 수단을 넘어, 지역사회를 보호하는 책임 있는 조달의 기회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당사는 원자재의 출처를 명확히 이해하고, 인권을 존중하며, 국제 기준을 준수하는 동시에 환경 및 지역사회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는 조달 체계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책임광물 선정 과정에서는 글로벌 법규 동향, 고위험 지역 분포도, 지역사회에 미치는 인권·환경 리스크 영향도, 당사의 조달 전략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총 22종의 책임광물을 선정하였으며, 그 중에서도 분쟁광물 및 배터리 광물을 최우선 관리 대상으로 지정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현대자동차는 공급망 내 인권 리스크를 효과적으로 파악하고, 책임 있는 광물 조달을 실현해 나가고 있습니다. 책임광물은 매년 앞에서 설명한 요소를 고려하여 중점 관리 대상 광물을 재선정하고 있습니다.

책임광물 중대성 평가 결과

● 낮음 ● 보통 ● 높음

평가 기준	분쟁광물 (주석, 텅스텐, 탄탈륨, 금)	배터리 소재 (코발트, 리튬, 니켈, 천연흑연 등)	기타 광물 (운모, 백금, 팔라듐, 로듐 등)
글로벌 법규	●	●	●
고위험 지역 분포	●	●	●
인권·환경리스크	●	●	●
전략적 조달	●	●	●
이해관계자 관심	●	●	●
기타(글로벌 인증 여부 등)	●	●	●
중대성 평가 결과	● 중점 관리 대상	● 중점 관리 대상	●

책임광물 관리 방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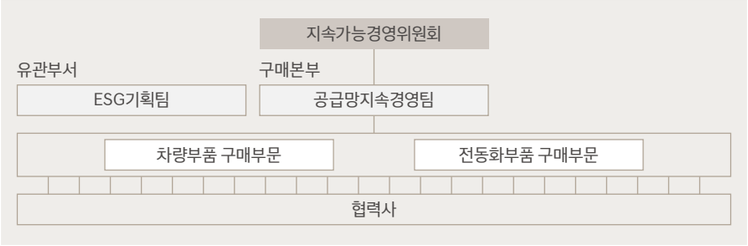
구분	관리방안
분쟁광물	RMAP[1] 인증 제련소 여부 확인 (CMRT)
배터리 소재	인증 제련소 여부 확인 (EMRT), OECD 가이드라인 기반 현장 실사
기타 광물	LPPM[2] 등 관련 인증 여부 확인, OECD 가이드라인 기반 리스크 식별 및 완화 조치 수행

1) RMAP(Responsible Minerals Assurance Process) : RMI (Responsible Minerals Initiative) 에서 운영하는 책임있는 광물 보증 프로세스로, 공급망 내 분쟁 광물 사용 여부 확인 및 책임있는 광물 조달을 위한 시스템과 프로세스를 평가하여 인증 부여
2) LPPM(London Platinum and Palladium Market): 런던 귀금속 시장의 백금 및 팔라듐 거래 감독 기관으로, 해당 기관에서 백금 및 팔라듐 공급망의 윤리적이고 책임 있는 운영을 위해 책임있는 원자재 조달 인증 프로그램 운영

책임광물 관리 로드맵 현대자동차는 지속 가능한 공급망 구축의 핵심 요소로서 책임광물 관리를 위한 단계별 로드맵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2024년 당사는 광물 중대성 평가 결과를 토대로 분쟁광물(주석, 탄탈륨, 텅스텐, 금)과 코발트를 중점 관리 대상으로 선정하여 관련 정책을 강화하고 관리 체계를 확립하는 데 집중했습니다. 2025년에는 관리 대상 광물을 확대하여 중대성 평가를 통해 니켈, 리튬, 흑연 등 배터리 소재를 중점 관리 대상으로 추가 선정하였습니다. 이와 더불어, 현대자동차의 책임광물 정책을 개정하고, 관리 프로세스를 고도화하여 더욱 체계적인 관리 기반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또한, 추가 선정된 중점 관리 대상 광물에 대해서는 공급망 매핑 및 현장실사를 수행함으로써 실질적인 리스크를 식별하고 관리할 예정입니다. 2026년에는 관리 범위를 책임광물 22종 내 기타 광물까지 확장하여 실질적인 관리 수준을 한층 강화할 예정입니다. 이러한 단계적인 접근을 통해 현대자동차는 책임광물 공급망의 투명성과 회복력을 제고하고 인권 존중을 실현하고자 합니다.

책임광물 관리 거버넌스 현대자동차는 분쟁 및 고위험 지역에서 발생하는 인권침해 문제를 심각하게 인식하고 있으며, 이를 근절하고 노동자의 건강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책임광물 정책 준수 및 사회적 책임 이행을 위한 관리 체계를 구축하고, 구매본부 공급망지속경영팀이 책임광물 관리 프로세스를 운영합니다. 공급망지속경영팀은 각 부서와 협력하여 리스크를 지속적으로 점검하며, ESG기획팀 등 유관부서와 협력합니다.

책임광물 관리 거버넌스



책임광물 관리 프로세스 현대자동차는 글로벌 공급망 내 책임 있는 원자재 조달을 실현하기 위해 체계적인 책임광물 관리 프로세스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OECD 공급망 실사 가이드라인(OECD Due Diligence Guidance), RMI(Responsible Minerals Initiative), EU 배터리 규제 등의 국제 기준을 준수하며, 단계별 접근 방식을 통해 공급망 내 인권 리스크를 최소화하고 있습니다. 먼저, 책임 있는 광물 조달을 위한 광물 관리 정책 및 운영 계획을 수립하여 인권 보호, 강제노동 근절 등의 원칙을 명확히 합니다. 이후 리스크 스크리닝 및 평가 단계에서는 지정학적 리스크 분석을 통해 고위험 지역을 식별하고, CMRT(Conflict Minerals Reporting Template), EMRT(Extended Minerals Reporting Template) 조사와 함께 ESG 지표(강제노동 리스크 등) 및 제3자 실사 데이터를 활용한 정성적 평가를 병행합니다. 이러한 분석을 바탕으로 위험이 있다고 판단되는 공급망과 당사가 선정한 중점관리 대상 책임 광물에 대해 OECD 가이드라인 기준으로 실사를 진행하여 실질적인 리스크를 검증할 예정이고, 실사 결과를 반영하여 협력사와 함께 개선 계획을 수립 및 모니터링할 것입니다.

책임광물 관리 프로세스

지속가능한 공급망

책임있는 원부자재 조달 정책 현대자동차는 불필요한 자원 낭비를 최소화하고 불법 관행으로 인한 환경 피해 및 인권 침해를 방지하기 위해 책임 있는 원부자재 조달 정책을 수립했습니다. 조달 과정을 철저하게 모니터링하여 가치사슬 내 근로자와 원주민 인권을 보장하고, 에너지 효율성 향상 및 친환경 물류 확장을 통해 환경에 대한 부정적 영향을 줄이고자 합니다. 원부자재 사용량 및 환경·사회적 영향 등을 고려해 우선순위에 따라 관리하고, 투입 최적화 및 재투입을 통해 재활용 원부자재 사용도 점진적으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또한, 관리 프로세스 내 참여가 필요한 유관부서 임직원 교육을 진행함으로써 조달 과정에서 지속가능성을 저해하는 문제를 보고하도록 장려합니다. 나아가 현대자동차는 원부자재 리스크를 관리하기 위해 법률 및 규제 준수, 산업 동향을 고려해 성과개선 목표를 설정하고, 이행현황을 지속적으로 점검합니다. 주요 의사결정권자가 참여하는 경영회의체를 통해 지속 가능한 조달 정책을 승인하고 위험 대응 전략을 논의하며, 불만 접수 및 해결을 위한 채널을 운영함으로써 법적 및 평판상의 위험이 큰 경우 적절한 대응을 결정합니다.

현대자동차 책임있는 원부자재 조달 정책

분쟁광물(책임광물) 정책 현대자동차는 분쟁지역에서 인권 침해, 환경 파괴 등 비윤리적으로 채굴 및 유통되는 분쟁광물이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으며, 분쟁지역에서 비윤리적으로 채굴되는 분쟁광물(주석, 탄탈륨, 텅스텐, 금)의 사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또한, '소비자에게 적법하고 윤리적인 유통과정을 거친 제품을 제공한다'는 기본방침에 따라, 협력사와 공동으로 분쟁광물 관리 프로세스를 운영하여 제품 내 분쟁광물 포함 여부를 철저하게 조사해 나가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콩고민주공화국 코발트 광산의 아동노동 이슈 등을 관리하고자 OECD Due Diligence Guidance에 따라 코발트 공급망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있습니다. 현대자동차는 협력사에게 분쟁광물 관리 가이드를 제공하고 관련 설명회를 지원해 분쟁광물에 대한 인식 제고를 돕고 있으며, 나아가 협력사의 거래처에도 분쟁광물 미사용 및 사회적 책임을 다하기를 촉구하는 광물 구매 정책이 확대될 수 있도록 지속 노력하겠습니다.

현대자동차 분쟁광물(책임광물) 정책

고위험(위험관리) 지역 선정 현대자동차는 아프리카 10개 국가(콩고민주공화국, 르완다, 부룬디, 수단, 앙골라, 우간다, 잠비아, 중앙아프리카공화국, 콩고, 탄자니아) 등 분쟁지역을 위험관리 대상 지역으로 선정하여 관리하고 있으며, 해당 지역에서 불법 또는 비윤리적으로 채굴·유통되는 분쟁광물과 코발트의 사용 여부를 협력사 대상으로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있습니다. 또한, 분쟁광물 위험지역에서 소싱하는 부득이한 경우에 내부적인 검토를 통해 문제가 없음을 확인하고 사용할 수 있는 프로세스를 구축하였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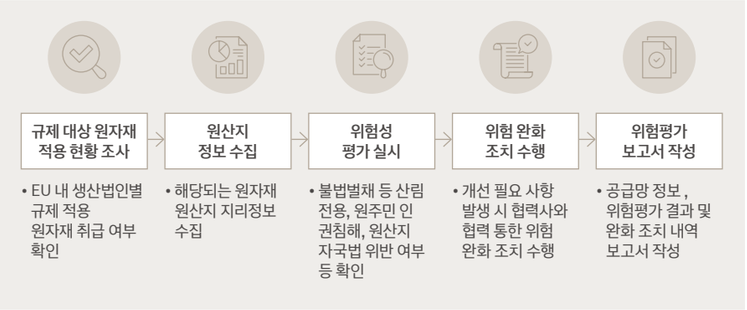
협력사 분쟁광물 현황 조사 및 리스크 확인 주석, 탄탈륨, 텅스텐, 금, 코발트를 사용하는 협력사를 대상으로 현황조사를 실시하였고, 1차 협력사 및 전기차 배터리 협력사에 대해 분쟁광물 및 코발트를 사용한 부품을 공급하는 하위 협력사로부터 CMRT·EMRT 자료를 접수하였습니다. 협력사 대상으로 애로사항을 청취함과 동시에, 분쟁광물 관리 프로세스에 적극 대응해야 함을 재차 설명하는 등 모든 조사대상 협력사가 자료를 제출하도록 권고하였습니다.

협력사가 제출한 CMRT·EMRT 자료를 기반으로 협력사가 RMAP 인증 제련소와 거래하고 있는지 점검하였으며, 인증 제련소와 거래하지 않는 협력사에는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광물 구매 정책 시행 및 인증 제련소와의 거래를 요청하였습니다. 또한 미인증 제련소에서 분쟁광물을 공급받는 1차 협력사에 대해 미인증 제련소와의 거래 여부에 대한 중장기 개선계획서를 별도로 요구하는 등 모든 협력사가 분쟁광물을 철저하게 관리하고 사회적 책임을 충실히 이행할 수 있도록 유도하여 관련 리스크를 개선하고 있습니다.

협력사 분쟁광물 인식 제고 현대자동차는 협력사의 분쟁광물 현황 조사를 통해 주요 전기차종 생산에 투입되는 품목이 분쟁광물이나 코발트를 사용하고 있는지 사전 파악하였습니다. 또한, 분쟁광물을 사용하는 1·2차 협력사, 전기차 배터리 협력사, 당사 구매 담당자를 대상으로 분쟁광물 관리 배경, 주요국 분쟁광물 규제 동향, 당사 분쟁광물 관리방침, CMRT·EMRT 소개 및 조사 계획, RMAP 인증 제련소 거래 여부 등에 대한 설명회와 교육을 실시하는 등 분쟁광물 관리에 대한 전반적인 인식 제고 활동을 실시하였습니다.

EU 산림전용방지규정 대응을 위한 원자재 공급망 관리 현대자동차는 EU 산림전용방지규정(EUDR)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규제 대상인 목재, 고무, 팜유 등 7개 원자재의 원산지 지리정보를 수집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EU 역내로 수입되는 품목뿐만 아니라, EU 역내에서 EU 역외 생산법인으로 수출되는 품목까지도 면밀히 검토하였습니다. 조사 결과, 주요 원산지는 한국, 태국, 인도네시아, 베트남, 말레이시아 등으로 확인되었으며, 외부 전문 기관과의 협업을 통해 국가별 산림전용 및 인권 위험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단계적으로 위험성 평가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위험성 평가에는 원주민 인권 침해, 토지사용 전환, 원산지에 대한 산림전용 등 EUDR에서 요구하는 핵심 사항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위험성 평가 과정에서 중대한 위험요소가 식별될 경우, 즉각적인 완화 또는 제거 조치를 신속히 수행하여 책임 있는 공급망 관리를 강화할 계획입니다.

EU 산림전용방지규정 대응 프로세스



원주민 인권 보호를 위한 FPIC 절차 준수 현대자동차는 주요 원자재 조달과 관련된 공급망 내 사업 운영이 지역 사회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인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프로젝트 계획 수립 과정에서 해당 원주민 공동체의 자유로운 사전인지동의(FPIC, Free Prior and Informed Consent)를 확보하는 것을 중요한 원칙으로 삼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동의 절차를 넘어, 해당 공동체에게 충분하고 시의적절한 정보를 제공하고, 그들의 고유한 문화와 가치, 그리고 의사 결정 구조를 존중하는 과정을 포함합니다.

현대자동차는 원주민 권리 지원과 관련하여 다양한 이해관계자들과 지속적으로 협력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협력을 통해 당사의 사업 계획 수립 단계에서 토지 권리 및 원주민 권리를 실질적으로 인정하고 존중하는 정책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지속가능한 공급망

공급망 역량 강화 및 상생협력

협력사 역량 강화

글로벌상생협력센터 글로벌상생협력센터(GPC)는 '현대자동차와 협력사가 동반성장하는 선순환 체계 구축'이라는 기본철학을 바탕으로, 자동차 산업 전반의 역량강화 및 경쟁력 향상 활동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1·2차 협력사를 대상으로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며, 협력사가 자체 교육을 필요로 할 경우 교육시설 및 강사를 지원합니다. 현재 글로벌상생협력센터는 1·2차 협력사를 대상으로 미래 경쟁력, 글로벌 역량, 리더십, 자동차 산업 전문가 양성, 직무 기본 교육 등 5가지 카테고리에 대해 17개 트랙과 650여 개의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자동차부품산업진흥재단 현대자동차는 자동차 부품 협력사의 품질 기술 경영의 전반적인 역량 강화를 도모하고자 자동차부품산업진흥재단과 협력하여 현장지도 활동, 분야별 교육 등 여러 프로그램을 통해 자동차 부품 산업계의 품질 및 기술력 향상과 인재 육성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협력사 경영컨설팅 협력사가 R&D, 생산, 품질, 물류, 원가, 경영활동 분야 관리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전문경험 및 노하우를 전수하는 경영컨설팅 활동을 무상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2024년 협력사 대상 교육 현황 (단위: 명)

구분	교육 참여자		비고
자동차부품 산업진흥재단	품질아카데미	1,741	맞춤교육 과정 16개 운영
	일반교육 등	2,231	경영일반교육 및 세미나 등
글로벌상생협력센터	업종별 교육 등	84,552	650개 과정 운영
합계		88,524	

자동차부품산업진흥재단 현장지도 및 교육사업

현장지도	기술지도	생산현장 품질/기술 지도
	경영컨설팅	전문가의 부문별 노하우 전수
교육사업	품질아카데미	품질시스템 확립 위한 16과정 운영
	품질기술 세미나	업종별 기술지도 우수사례 전파
	경영일반교육	생산성 혁신을 위한 교육 운영
	부품사 방문교육	현장을 직접 방문하여 교육 지원

협력사 기술지도 프레스, 열처리, 용접, 도금, 단조 등 금속분야, 고무, 도장, 전기전자, IT 등 비금속분야 협력사의 부품 품질 개선 및 생산성 향상을 위해 자동차부품산업진흥재단을 통한 기술지도 활동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협력사의 품질불량 개선, 원재료 구매비용 절감, 생산성 향상 등의 효과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기술 지도 (품질·기술지원단)

구성	업종별 전문위원
기간 및 빈도	연 3~12개월 간 생산현장의 품질·기술 애로사항에 대한 맞춤형 지원
지도 분야	품질/기술 중점 애로사항을 청취하여 개선을 지원하며, 품질관리시스템 운영에 대한 중점 지도를 통해 공급자 품질인증제도(Supplier-Quality Mark) 대응력 향상

경영 컨설팅 (경영혁신지원단)

구성	분야별 경영전문위원
기간 및 빈도	연 3~12개월 간 무상으로 경영 전반에 대한 컨설팅
지도 분야	연구개발, 생산기술, 품질관리, 기획 등의 경영 전반에 대한 컨설팅 지원

기술지도 및 경영 컨설팅 지원 협력사 수 (단위: 개)

구분	2022	2023	2024
기술지도	102	108	192
경영컨설팅	43	30	12

협력사 대상 지속가능경영 확산·전파

동반성장 소식지 배포 현대자동차는 협력사와 동반성장을 위하여 운영하고 있는 프로그램을 소개하고, 산업 안전, 정보보안, 지속가능경영 분야의 주요 정책 및 활동을 협력사와 공유하고자 동반성장 소식지인 '상생협력 Letter'를 제작하고 있습니다. 격월 주기로 발간하여 대외문, 동반성장포털, 협력회 홈페이지를 통해 모든 1차 협력사에 배포하고 있습니다.

현대자동차 동반성장포털

2024년 지속가능경영 분야 주요 배포내용

- 6월 EU 산림전용방지규정 동향
- 8월 EU 기업 지속가능성 실사 지침
- 10월 콩고 코발트 수입 금지법
- 12월 EU 강제노동금지규정

협력사 ESG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및 지원 현대자동차는 지속가능한 공급망 구축 및 책임 있는 조달을 실현하기 위해, 협력사의 사업장 인권·환경 리스크 관리 강화 및 상위 공급망 관리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협력사의 주요 인권·환경 담당자를 대상으로 ESG 전문가 양성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이 교육에서는 공급망 및 인권 관련 규제 동향, 주요 개념, 현대자동차의 '공급망 지속가능성 진단실사' 수행 지표에 대한 세부 가이드를 제공하였으며, 타 협력사의 인권·환경 리스크 관리 우수사례를 공유함으로써 협력사의 실무적 대응 역량을 강화하였습니다. 또한, 협력사가 글로벌 규제 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공시, 산림전용방지 등 주요 규제별 설명회를 개최하여 적절한 대응 방안을 안내하였습니다. 아울러, 현대자동차는 협력사와의 탄소 전략을 조화롭게 연계하기 위해 자사의 탄소중립 추진 방향을 공유하며, 공급망 전반의 기후 대응 역량 강화를 위한 협력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2024년 협력사 ESG 역량 강화 교육 (단위: 개)

구분	주요 내용	참여 협력사
ESG 역량 강화	협력사 ESG 전문가 양성[1]	600
	ESG 중요성 및 인권, 환경 리스크 사례	3,721[2]

1) 온/오프라인 과정 통합 집계, 중복 인원 포함
2) 1, 2차 협력사 참여

2024년 협력사 ESG 세미나 운영 (단위: 명)

구분	주요 내용	참여 인원
글로벌 규제 대응	협력사 규모별 적정 공시 방안	525
	EU 산림전용방지규정 대응 방안	260

※ 중복 인원 포함

지속가능한 공급망

품질 경쟁력 제고

5스타 제도 협력사의 품질·기술·납입 수준을 정량적으로 평가하고 평가결과를 제공하여, 협력사가 개선목표를 구체적으로 설정해 개선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5스타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5스타 인증 협력사에게는 신차 개발 시 부품 공급 협력사 우선자격을 부여하는 등의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협력사는 5스타 제도를 통해 품질·기술·납입 수준의 경쟁력을 강화함과 동시에, 품질관리 비용 절감, 독자 수출능력 확보 등의 효과도 기대할 수 있습니다.

5스타 평가항목

품질 5스타	기술 5스타	납입 5스타
• 품질관리체제 • 입고 불량률 • 클레임비용 변제율 • 품질경영 실적 등	• 기술개발 인력, 투자 • 신기술 개발, 특허 • 제품개발절차 R&D 활동 수행수준	• 생산라인 정지 건수, 시간, 변제율 • A/S 부품 납입률 • KD 부품 납입률

2·3차 협력사 품질평가 (SQ 마크 인증) 자동차 부품 품질에 주요영향을 미치는 전문업종을 선정하고, 해당 업종 2·3차 협력사의 품질 향상을 목적으로 하는 '공급자 품질인증제도(Supplier-Quality Mark)'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원부자재 검사기준 운영, 설비보존 및 일상점검 활동, 작업표준 작성 및 보완 등 공정관리, 완제품 검사, 시정조치 및 지속적 현장개선 등 품질관리 활동 등을 기준으로 2·3차 협력사를 심사하여 우수 협력사에 SQ 마크 인증을 부여합니다.

협력사 대상 품질교육 현대자동차는 협력사의 품질 경쟁력을 글로벌 최고 수준으로 육성하기 위해 국내 1·2차 협력사 대상 품질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글로벌상생협력센터에서 온라인 플랫폼 운영 및 집체 교육을 병행 실시하여 협력사가 품질교육을 쉽게 수강할 수 있도록 하며, 품질경영 시스템 구축, 품질 기술, 관리 및 보증 등 품질 전반에 대한 교육을 제공하여 협력사의 제품품질 관리 역량 제고를 지속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2024년 품질안전 교육 프로그램 운영 결과 (협력사)

구분	교육 내용	이수협력사	이수 인원	주기
1·2차 협력사	도장·사출·용접·열처리·절삭가공·전기전자 등 분야별 품질 기술 교육, 품질경영시스템 구축, 전자제품 품질 보증, 품질검사 실무, 설계품질 관리 등	4,641	8,536	상시

* 국내 모든 협력사 대상(100% 범위) 교육 시행

협력사 품질 회의 현대자동차는 협력사의 품질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해 '협력사 품질 세미나'를 개최하였습니다. 2024년에는 국내 1차 협력사를 대상으로 품질 세미나를 진행하였으며, 이를 통해 품질 정책 및 전략, 주요 품질 이슈 및 개선 사례, 공급망 품질 관리 방안 등을 공유하였습니다. 해외 공장에서는 현지 협력사 대표가 참여하는 '협력사 품질 월간 회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본 회의에서는 당사 납품 품질 관련 우수 사례 및 개선 필요 사항을 공유하고, 시행된 개선 조치에 대한 진행경과와 효과성을 모니터링합니다. 또한 격월로 동반 진출 협력사 법인장 대상 세미나를 실시하여 품질 관련 동향 및 품질 향상을 위한 노하우를 공유하고 있습니다.

2024년 국내 협력사 품질 세미나

내용	품질 정책 및 이슈 개선 사례 공유
참여 협력사	국내 1차 협력사
주기	연 1회

2024년 해외 생산법인 협력사 품질회의

내용	품질 관련 동향 및 노하우 공유
참여 협력사	동반진출 협력사 100%
주기	격월 1회

2·3차 협력사 품질기술 육성 2·3차 협력사에 자동차 관련 전문기술 및 노하우를 보유한 전문가를 파견하여, 2·3차 협력사의 품질·기술·생산성을 향상시키는 '품질기술 육성' 활동을 지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게스트 엔지니어 제도 현대자동차의 신차 개발 과정에 부품 협력사의 설계·평가 업무 담당 연구원(협력사 임직원)이 참여하는 게스트 엔지니어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대자동차는 협력사 연구원이 상주할 수 있는 사무환경과 부품성능 평가에 필요한 시설·장비·시험장을 무상으로 지원하며, 당사의 부품설계 및 성능개발 노하우를 전수하고 있습니다. 신차 부품설계 및 성능개발 협업을 통해 현대자동차와 협력사는 부품 및 성능개발 효율성 증대, 조기 품질 확보, 협력사 기술인력 육성 등의 효과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기술 개발력 향상

협력사 R&D 기술 지원 현대자동차가 보유한 R&D 기술개발 노하우를 공유하고, 협력사의 부족한 기술에 대해 역량 강화를 지원하는 동반성장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협력사 R&D 기술지원 프로그램은 품질 마인드 향상을 위한 과거사례 및 기능·설계개념 교육, R&D 부족 부문을 사전에 분석하여 핵심현안을 개선하는 맞춤형 기술 지원, 신기술·신공법을 활용하여 제품 개발능력을 향상시키는 R&D 역량강화 지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품질개선, 맞춤형 기술, R&D 역량강화 지원 과정에서 협력사 요청사항을 조사하여 기술지원 프로그램 개선에 반영하고 있으며, 동종산업 협력사 간 협의체 및 교류회를 운영하는 등 상호 소통·협력도 지속하고 있습니다.

특허권 무상제공 현대자동차가 보유하고 있는 특허를 무상으로 협력사에 개방하고, 협력사가 필요로 하는 특허권을 이전하는 특허권 무상제공 활동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협력사가 특허권 이전을 신청하는 경우, 협력사의 주요 사업분야, 보유 및 개발 중인 기술, 특허권 보유 현황, 이전을 희망하는 특허권에 대한 현장조사 및 지원상담을 실시하며, 협력사와 협의 과정을 거쳐 특허권 이전 확정 및 특허계약을 체결합니다. 현대자동차는 특허권 이전 후, 해당 특허권을 적용한 R&D 고도화 및 제품 적용 사례를 공유하는 신기술전시회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스마트공장 육성 1·2차 협력사 중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제품의 기획부터 판매까지 모든 생산과정을 ICT 기술로 통합하여, 최소 비용과 시간으로 고객 맞춤형 제품을 생산하는 스마트공장 육성 사업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2019년부터 2024년까지 총 300억 원을 출연하여 980여 개 협력사가 스마트공장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구축 관련 컨설팅 및 설비투자를 지원하였습니다. 스마트공장 육성 사업은 1·2차 협력사의 생산설비 현황을 고려하여 부분적 표준화, 데이터 관리, 생산정보 실시간 모니터링이 가능한 기초 수준, 수집된 정보 기반의 제어, 시뮬레이션을 통한 의사결정 최적화를 지원하는 중간 수준, 모니터링부터 제어-최적화까지 자율로 진행되는 고도화 수준으로 구분하여 추진되고 있습니다.

협력사 기술보호 현대자동차는 협력사의 핵심 기술자료 및 영업비밀을 안전하게 보관하고, 협력사의 핵심 기술 유출 및 분쟁 발생 시 기술개발 사실을 입증하는 기술자료 임치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협력사와 공동으로 기술을 개발함과 동시에 특허도 공동으로 출원하여, 중소 협력사가 기술 및 특허를 침해 받을 가능성을 사전에 예방하고 있습니다. 이 외에도 특허출원 및 특허검색방법 등에 대한 온라인 기반 특허교육 실시, 협력사의 특허출원 비용 절감 지원 등 직·간접적으로 협력사 기술보호 활동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지속가능한 공급망

지속성장 기반 강화

납품대금 현금 지급 및 원자재가격 조정 매출액 5천억 원 미만 중견기업 및 중소기업에게 납품대금 전액을 현금으로, 매출액 5천억 원 이상 대기업 및 중견기업에게는 어음(60일)으로 지급하며, 주 1회 단위로 납품대금을 지급합니다. 수출용 부품을 납품하는 대기업·중견기업·중소기업에게는 납품대금 전액을 현금으로 월 1회 지급하고 있습니다. 또한, 현대자동차는 원자재가격 인상으로 인한 협력사 비용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원자재가격 변화로 인한 영향을 당사가 흡수하고 있습니다. 철판, 귀금속의 경우, 현대자동차가 국제가격 기준으로 직접 구매하여 협력사에 공급하는 사급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알루미늄, 플라스틱 등은 국제가격 등에 따라, 협력사에게 지급해야 할 대금을 조정하는 연동제도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해외시장 동반진출 및 수출확대 지원 현대자동차는 협력사의 지속 성장과 세계화를 지원하기 위해 해외시장에 협력사와 함께 진출하고 있습니다. 2024년 말 기준, 1차 협력사 360개, 2차 협력사 426개 등 총 786개 협력사와 해외시장에 동반 진출하였으며, 이를 통해 협력사는 해외 OEM 업체로부터 수주할 수 있는 기회도 확보하고 있습니다. 국내 부품 협력사가 해외수출을 확대할 수 있도록 물류 공동화, 원산지 증명 시스템 구축을 지원하고 있으며, 협력사가 해외수출 과정에서 겪는 고충을 파악하고 이를 실질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활동도 지속적으로 모색하고 있습니다.

협력사 대상 주요 자금지원 프로그램

미래성장 상생펀드	**374억 원 예치, 935억 원 지원** 1·2차 협력사의 품질개선 및 생산성 향상 위한 투자자금을 저금리로 지원 (IBK기업은행)
미래성장 동반펀드	**1,500억 원 예치, 2,250억 원 지원** 1·2차 협력사의 품질개선 및 생산성 향상 위한 투자자금을 저금리로 지원 (현대커머셜)
2·3차 협력사 전용 대출 펀드	**2,000억 원 예치, 2,000억 원 지원**[1)] 2·3차 협력사의 경영환경 개선 위한 투자자금 및 운영자금을 저금리로 지원 (우리은행, 신한은행)
사업 다각화 지원펀드	**500억 원 예치, 1,000억 원 지원** 내연기관 부품협력사의 전동화 확대에 따른 사업다각화 투자자금을 저금리로 지원 (하나은행)
원자재가 연동제 지원펀드	**500억 원 예치, 1,000억 원 지원** 1차 협력사에 대한 원자재가 연동제를 2·3차사에 확대하기 위해 1차 사에 운영자금을 저금리로 지원 (신한은행)
대출이자 지원펀드	**1,000억 원 예치, 2,000억 원 지원** 금리 인상에 따른 유동성 지원을 위해 1·2차 협력사의 운영자금을 저금리로 지원 (하나은행, 신한은행)

1) 현대자동차, 기아, 현대모비스 3사 공동 출연

상생협력을 위한 파트너십 강화

상생협력 5스타 제도 운영 1차 협력사와 2차 협력사 간 상생협력 강화와 동반성장 문화 조성을 위해, 2차 협력사에 대한 1차 협력사의 상생협력 노력을 평가하여 입찰 과정에 반영하는 '상생협력 5스타'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1차 협력사 대상으로 2차 협력사에 대한 상생협력 활동을 평가하며, 현금지급비율, 대금지급기일 등 대금지급 조건, 표준하도급계약서 사용 등 계약의 공정성, 경영자금·연구개발·생산성 지원 등 상생협력 지원을 평가항목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2차 협력사 대상으로 1차 협력사의 상생협력 활동에 대한 체감도를 정성적으로 평가하고 있으며, 공정거래·거래조건 등과 같은 거래관계, 경영자금·연구개발·생산성 등의 협력관계, 비전 공유 및 추진체계 등 운영 전반에 대한 설문항목으로 평가를 실시합니다.

상생협력 5스타 제도

목적	1차·2차 협력사 간 상생협력 및 동반성장
개요	1차 협력사의 2차 협력사에 대한 상생협력 노력을 평가하여 협력사 선정(입찰) 시 반영 (연 1회 평가)

1차 협력사의 상생협력활동 실적 (정량 평가: 50%)	2차 협력사의 상생협력 체감도 (정성 설문: 50%)
• 대금지급 조건 (현금지급비율, 대금지급기일 등) • 공정한 계약체결 (표준하도급계약서 사용 여부 등) • 상생협력 지원 (자금, 연구개발, 생산성 지원 등)	• 거래관계 (공정거래, 거래조건) • 협력관계 (자금, 연구개발, 생산성 지원 등) • 운영체계 (비전 공유, 추진체계 등)

동반성장지수 평가 최우수 획득 동반성장위원회 주관으로 연 1회 200여 개 주요 대기업의 동반성장수준을 평가하는 동반성장지수 평가에서 2024년 5년 연속 최우수 등급을 획득하였습니다. 동반성장지수는 공정거래위원회가 주관하는 '공정거래협약 평가'와 동반성장위원회의 '동반성장 종합평가'를 통해 대·중소기업 간 동반성장 수준을 계량화한 지표입니다. 공정한 계약 체결, 하도급거래 등 법 위반 사전 예방·사후감시 시스템 구축, 상생협력 지원 제도 운영 실적과 중소기업 대상 체감도 설문조사 및 실제 동반성장 제도 실적 수준을 종합적으로 평가받아 최우수 등급을 획득하였습니다.

협력사 테크 데이 개최 현대자동차는 'R&D 협력사 테크 데이'를 개최하여 협력사의 우수 기술을 포상하고, 신기술 사례를 공유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협력사의 기술 역량을 높이고, 지속가능한 공급망 구축 및 상생 협력 강화를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R&D 협력사 테크 데이

협력사 네트워킹 강화 현대자동차는 공급망 내 핵심 이해관계자인 협력사와 긴밀히 협력하며, 인권 및 환경 리스크 관리 전략을 공유하고 협력사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는 체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협력사의 지속가능성 역량을 강화하고, 공급망 전반의 책임 있는 경영을 실현하고자 합니다. 국내 협력사를 대상으로 매 분기 협력사 지속가능 협의회를 개최하여 공급망 지속가능성 진단실사, 협력사 대상 컨설팅 지원, 탄소 저감 프로그램 등을 안내하였으며, 2024년 한 해 동안 총 354개 협력사가 참여하였습니다. 운영 과정에서 협력사의 인권·환경 리스크 관련 애로사항을 접수하고, 이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 및 개선 조치를 시행하였습니다.

또한, 국내 1차 협력사가 참석한 파트너십 데이에서는 현대자동차가 운영하는 공급망 컴플라이언스 시스템 현황과 인권 리스크 식별 전략을 공유하였습니다.

해외 협력사와의 협력 강화를 위해 현대자동차는 Global Supplier Day를 개최하였으며, 이 자리에서 책임광물 관리 전략, 공급망 지속가능성 진단실사 확대 정책, 구매 전략과의 연계성을 공유하였습니다. 또한, 협력사와 함께 온실가스 배출 저감 전략 및 LCA(Life Cycle Assessment) 산정 강화 및 적용 범위 확대 방안을 논의하였습니다. 2024년 Global Supplier Day에는 총 102개 협력사가 참여하였으며, 현대자동차는 이를 통해 글로벌 공급망 내 지속가능성 실천을 더욱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협력사 지속가능 협의회 통해 접수된 공급망 인권/환경 리스크 관련 협력사 건의사항

구분	협력사 의견	현대자동차 대응 내용
탄소 배출	탄소 배출 검증 및 저감과 관련한 당사 지원 계획 공유	1차 협력사 대상 현대자동차 탄소중립추진 정책 공유 설명회 개최
공급망 인권·환경 리스크 식별	협력사의 공급망 인권·환경 리스크 실사를 위한 가이드 제공	1차 협력사 대상 ESG 전문가 양성 교육 통한 상세 가이드 제공
규제 동향	공급망 규제별 주요 제재 국가 및 규제품목별 생산국 정보 요청	전체 협력사에 배포하는 소식지인 '상생협력레터'에 규제 동향 공유

고객경험 혁신

현대자동차는 제품과 서비스가 소비자 및 최종 사용자에게 미치는 실제적·잠재적 영향을 고려하여 '고장 없는 무결점 품질의 자동차'라는 품질철학 아래 안전 분야의 신기술 개발을 선도하며 운전자와 승객 및 보행자를 보호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자동차의 개발 단계에서부터 판매 후에도 조기감지-조기개선-조기조치 프로세스를 운영하여 품질안전 문제의 대형화를 예방하는 등 전 과정에 걸쳐 품질안전 체계를 고도화하고 있습니다. 또한 고객의 목소리를 청취하고 차량 이용 주기 전반에 걸친 편의 서비스 제공으로 고객이 최고의 'CAR- LIFE'를 누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며, 윤리적 마케팅, 그린워싱 리스크 예방 활동 등을 통해 지속가능한 브랜드로 자리매김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제품책임

제품품질 관리

고객 안전품질 거버넌스 품질과 안전은 과거로부터 현재까지 그리고 미래에도 양보와 타협이 없는 현대자동차의 최우선 가치이며, 2024년에는 이러한 가치 실현을 위해 안전과 품질을 모두 관할하는 하나의 통합체제(GSQO, Global Safety & Quality Office)를 출범하였습니다. 차량 안전 및 품질 관리 철학의 근원적 변화를 추진하고 고객가치를 제고하기 위해 브라이언 라토프(Brian Latouf) 사장을 최고 안전 및 품질 책임자(GCSQO)로 임명하였으며, 차량 개발부터 생산, 판매 이후까지 모든 단계에서의 품질 관리 정책을 총괄하고, 내부 프로세스 혁신 등을 통해 고객 지향성을 더욱 강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현대자동차는 품질문제에 대한 경영층 의사결정이 가능한 정기회의체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품질회의는 13개 이상 부문 (품질, R&D, 글로벌사업관리 등)이 참석하여 품질에 대하여 경영층 논의와 부문간 소통을 강화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주요 품질문제를 근본 개선하고 품질현안에 대한 신속한 의사결정을 지원함으로써 제품 품질향상에 힘쓰고 있습니다.

품질관리 체계 구축 현대자동차는 신차개발 선행 품질관리, 양산차량 품질관리, 고객불만 대응 및 품질보증의 품질관리 프로세스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품질관리시스템을 통해 확인된 품질 리스크, 품질 불량 사례, 소비자 불만 등은 전사 사업장뿐만 아니라, 협력사에도 공유하여 개선방안을 마련하는 등 체계적인 품질관리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남양기술연구소 파이롯트센터에서는 양산에 앞서 시험차량으로 차체 강성과 기능 등 품질을 측정 및 검증하고 있으며, 글로벌품질센터를 개소하여 선행 양산차량의 품질을 고객 관점에서 집중적으로 점검하고 있습니다.

품질관리시스템 구축 고객의 다양한 품질안전 요구사항을 만족시키기 위해 전사 통합 품질관리 시스템을 구축하였으며, 각 생산사업장 또한 품질관리시스템을 운영하여 자동차 설계, 부품 개발, 공정 운영, 선행 양산, 생산 등 모든 과정에서 철저하게 품질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또한, 정기적인 내부 감사를 통해 제품 제조 과정에서 책임 있는 품질 관리를 촉진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국내외 생산 사업장은 ISO 9001(품질경영시스템) 또는 이를 기반으로 하는 자동차 산업 품질경영시스템 규격 인증을 취득하고 있으며, 품질경영시스템 규격 전환에 맞추어 인증을 전환·갱신하고 있습니다.

품질관리 기법 현대자동차는 품질관리 기법을 도입 및 적용하여 '무결점 품질'을 통한 시장 경쟁력 강화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품질관리 기법은 '각 분야별 최고의 전문가(Man)', '최적의 설비(Ma-chine)', '철저한 검증(Measurement)', '무결점 품질의식(Moral)'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를 기반으로 현대자동차는 연구개발, 생산, 판매, 서비스 등 전 분야에서 고객에게 최고 품질의 차량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전동화 특화 품질관리 표준 전 세계적인 전동화 패러다임 전환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하이브리드, 전기차, 수소전기차 등 전동화 차량별 특화 품질관리 표준 및 기준을 제정·활용하고 있습니다. 지속적인 품질 확인, 발생 사례 분석, 개선활동 등을 통해 품질 리스크를 관리하고 있으며, 수집·분석한 데이터를 바탕으로 품질관리 표준 및 기준을 지속적으로 개정하고 있습니다.

품질경영시스템(ISO 9001) 인증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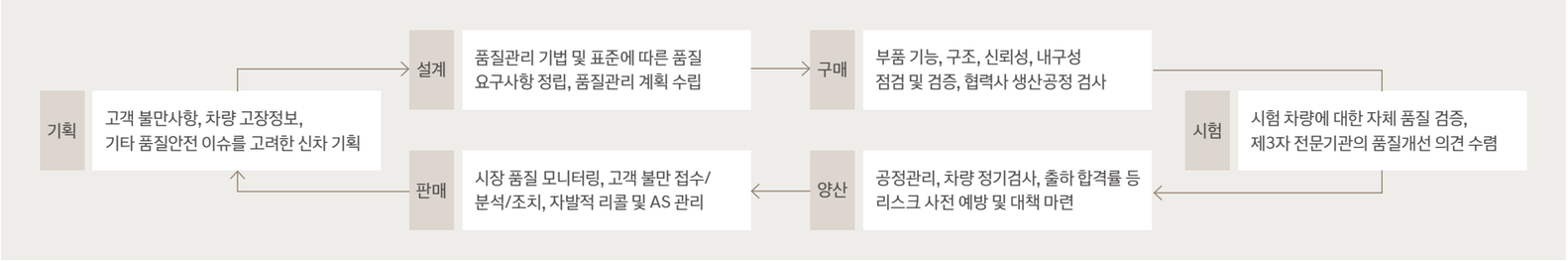
대상 사업장 수

27개

제3자 인증 비율

100%

품질관리 프로세스



고객경험 혁신

품질 리스크 선행 관리 현대자동차는 차량 디자인, 설계 등 신차 개발 초기 단계부터 부품 협력사 사전 검증 및 생산공정 품질 점검을 실행하고 있으며, 이를 바탕으로 품질 리스크와 관련 생산공정 저해 요소를 사전에 제거하고자 합니다. 제품 도면을 기반으로 부품의 기능, 구조 신뢰성 및 내구성을 점검하고, 협력사 공정 검사 및 생산공정 자체 검사를 통해 최종 품질을 승인하고 있습니다. 또한, 테스트 차량에 대한 자체 검증뿐만 아니라 고객 및 품질 관련 전문기관의 시승 의견을 바탕으로 주요 문제점을 파악하고, 개선 활동을 수평적으로 전개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정기적인 품질점검회의를 통해 신차 양산 이전 최종 단계에서 품질 리스크 점검 및 조치 결과를 최고경영층에 보고하고 있습니다.

양산 품질 리스크 사전 예방 통계적 공정 관리, 정기검사, 출하 합격률 현황 등의 정보를 종합하여 품질 리스크가 감지되는 경우, 품질 개선을 위한 합동조사 및 대책마련 활동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부품 협력사 공정 관리, 품질예방 활동 평가, 품질 검사장비 유효성 검증, 부품 신뢰성 시험 등 차량 생산과정에서 품질 리스크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 예방활동을 철저히 하고 있으며, 생산 과정에서 발생가능한 차량 품질 리스크를 예방·관리하기 위한 컨트롤 타워를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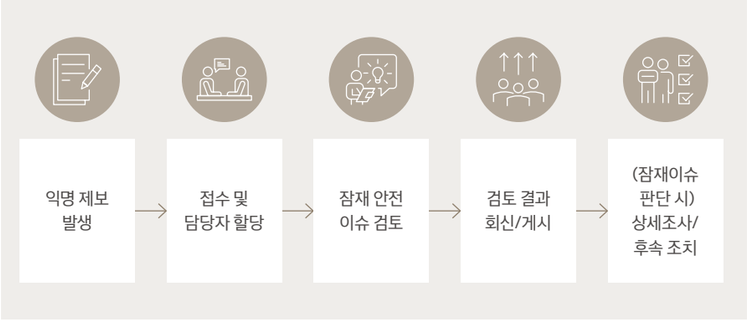
품질 검증 역량 강화 현대자동차는 선행, 제조, 시장품질 각 분야의 역할과 주요 업무에 대한 교육을 상시적으로 실시하여 품질 밸류체인 전반의 검증 역량을 높이고 있습니다. 각 교육과정들은 기초 이론교육 뿐만 아니라, 필요시 실습 및 체험을 병행하여 진행됩니다. 외부 교육 전문기관과의 협업을 통한 품질검증 전문가 과정을 개발·운영하여 전동화 전환에 따른 신기술 검증, 고객 관점 품질문제 검증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2024년 품질안전 교육 프로그램 운영 결과 (임직원)

교육 과정명	대상	교육유형/주기	이수자 수
함께 예방하는 고객안전사고	전사 임직원	상시 콘텐츠	1,803명
품질 아카데미	품질본부 일반직	집합 과정 (24차수 운영)	482명

고객안전품질신문고 운영 현대자동차는 고객 안전을 보다 향상시키기 위해 전 임직원을 대상으로 하는 내부 제보 채널 '고객안전품질신문고'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해당 채널은 각종 위험(상해, 사고, 화재 등)의 발생 가능성이 있어 고객의 안전에 지장을 주는 사항을 신속히 파악하고 개선하기 위해 개설되었으며, 제보자에게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익명성을 보장하고 있습니다. 제보내용을 검토하고 검토 결과를 게시하며, 실제로 상세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해당 제보건을 '잠재 안전품질 문제'로 선정하고 적절한 후속조치를 취하여 고객 안전에 대한 인식을 제고합니다. 2021년 8월 운영·게시 이후 2025년 1월까지 안전품질신문고를 통해 접수된 제보는 누적 536건으로, 검토 중인 19건을 제외하고 접수 건수의 95%에 대해서는 조치를 완료하였습니다.

고객안전품질신문고(DFS, Drum for Safety)



자동차 안전성 평가

충돌 안전성 평가 현대자동차는 미국 도로교통안전국(NHTSA, National Highway Traffic Safety Administration) 및 각국의 교통사고 데이터 그리고 국내 서비스 네트워크, 품질 부문에서 제공받는 여러 정보를 연구에 활용함으로써 보다 복합적인 사고 유형에 대응하고 있으며, 이를 개발 프로세스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연구의 결과로 지난 2019년, 세계 최초로 2차 사고 발생 방지를 위한 '복합 충돌 에어백'을 개발하였습니다. 또한, 현대자동차는 실차 충돌 시험에서 탑승자의 역할을 대신하는 27종, 170세트의 인체 모형(더미, Dummy)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는 업계 최대 수준의 규모로, 다양한 충돌 상황에 따른 미세한 상해도 정밀하게 계측할 수 있어 승객 안전 성능 향상에 많은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현대자동차는 1개 차종을 새롭게 개발할 때 최고 수준의 충돌안전성 확보에 약 4천 시간의 평가와 시험, 그리고 약 100억 원에 달하는 비용을 투입하고 있습니다.

전기차 안전성 평가 현대자동차는 전기차의 안전성과 성능을 최우선으로 고려하며, 혁신적인 기술 개발에 지속적으로 투자하고 있습니다. 현대차의 전기차는 고객의 다양한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우수한 주행 가능 거리와 효율적인 충전 성능을 갖추고 있으며, 충돌 안전 성능에서도 높은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이러한 성과는 여러 외부 기관의 검증을 통해 입증되었습니다. 아이오닉 5와 아이오닉 6은 각각 2022년과 2023년에 '세계 올해의 차'로 선정되어 성능과 품질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또한, 미국 IIHS 충돌안전평가에서 최고 등급인 TSP+(Top Safety Pick +)를 획득하고, 유로 NCAP에서도 최고 등급인 별 5개를 받으며 우수한 충돌 안전성을 인정받았습니다. 이처럼 현대자동차는 글로벌 전기차 시장에서의 입지를 확고히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연구 개발을 통해 고객에게 더욱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전기차를 제공함으로써, 지속 가능한 미래 모빌리티를 선도할 것입니다.

현대자동차그룹 충돌시험장
(남양연구소 안전시험동)

규모	시험동	40,000 m^2	충돌장	2,900 m^2
충돌시험 횟수	시험동	연간 650 회		
성능	최고 속도	100 km/h	최대 중량	5 톤

고객경험 혁신

2024년 NCAP 평가 현대자동차는 매년 주요 지역별 대표적인 차량 안전 평가 기관으로부터 안전도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신차 안전성 평가 프로그램(NCAP, New Car Assessment Program)에서는 싼타페, 아이오닉 5, 펠리세이드, 투싼 등 20여개 차종이 한국, 유럽, 미국, 인도 등 각국에서 최고 등급인 5 star를 획득했습니다. 이들은 미국 고속도로 안전보험협회(IIHS) 충돌 평가에서도 우수 등급을 획득 받았으며, 현대자동차는 16개 차종이 TSP(Top Safety Pick) 이상 등급을 받았습니다.

2024년 NCAP 안전성 평가 선정 차량

지역명	5-star (1등급) 획득 차종	비율[1]	평가대상 차종 수
한국	싼타페	50%	총 2개 차종
유럽	싼타페	50%	
미국	아이오닉 5, 펠리세이드, 싼타크루즈 등 총 23종	76.7%	총 30개 차종
호주	싼타페	50%	총 2개 차종
인도	투싼	100%	총 1개 차종

1) NCAP 평가는 매년 출시된 모든 브랜드별 신차를 대상으로 하지 않으며, NCAP에서 랜덤으로 선정한 평가대상 차종 대비, 5-star등급(최우수 등급)을 획득한 차종의 비율임.

품질 보증 및 관리

현대자동차는 차량 개발부터 생산까지의 품질관리는 물론, 판매 이후 고객 안전과 보호를 위한 품질 보증 및 관리 활동을 확대 추진하고 있습니다.

무상수리 보증 현대자동차는 승용·SUV·상용(트럭, 버스) 등 차량 종류별 평균 수명주기, 내구성 등을 고려하여 무상수리 보증기간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특히 하이브리드·전기차·수소전기차에 적용되는 별도의 엔진 및 동력전달 주요 부품에 대해서는 무상수리 보증기간을 연장하여 친환경차의 지속가능성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승용·SUV 기준, 차체 및 일반 부품 3년/6만km, 엔진 및 동력전달 부품 5년/10만km, 하이브리드 10년/20만km, 전기차·수소전기차 10년/16만)[1]. 또한, 과거에 생산된 배출가스 다배출 차량에 대해서는 촉매 장치, 전기 제어장치, 기타 배출가스 부품을 보증하는 등 차량 주행으로 인한 대기 오염물질 배출을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2]

1) 승용 및 SUV 기준, 상용(트럭, 버스) 포함 세부사항은 홈페이지 참조.
2) 배출가스 관련 부품 보증기간 및 특별 보증차량 세부 내용은 홈페이지 참조.

자발적 리콜 및 리콜 재발방지 협의체 운영 현대자동차는 고객을 선제적으로 보호하기 위해 자발적으로 차량 리콜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고객의 불만사항을 상시 모니터링하여 사고 발생 가능성이 높은 제조상의 결함이 확인되는 경우, 차량 리콜을 확정하고 고객에게 결함 사항, 시정 조치, 무상 서비스 등 보상내용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또한, 리콜 및 품질 보증으로 인한 재무적 리스크를 사전 관리하기 위해 판매보증 충당금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KASO&QA본부 주관으로 R&D, 구매, 품질, 생산관리 부서 등이 참여하는 리콜 재발방지 협의체는 실장(임원)급이 참여하는 월간 회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회의에서는 리콜 원인 및 개선책 반영 현황을 종합적으로 점검하고, 부문별 리콜 예방 활동 공유 및 프로세스, 시스템, 제도 개선안에 대한 협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자발적 리콜 수행 프로세스

STEP 1	STEP 2	STEP 3	STEP 4
국가별 관청(국토교통부, NHTSA 등)에 리콜 실시 결정 신고	고객에게 결함사항, 시정조치 내용, 관련 보상기준 등 안내 후 리콜 실시	리콜 시행 초기 조치 방안의 유효성, 작업 용이성 등 모니터링	조치 실적 정기적으로 관리하여 시정률이 저조할 경우 고객 재통지 실시

자발적 리콜 현황 (단위: 만 대, 백만 원)

구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리콜 차량 수	272	389	548	308
리콜 비용	1,442,300	320,900	485,173	511,012

판매보증 충당금 설정 현황 (단위: 백만 원)

구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당기 초	8,514,173	9,048,185	10,399,527	9,121,153
해당기간 발생	2,551,716	3,133,544	3,442,626	3,229,923

인공지능 기반 품질관리 현대자동차는 최상의 제품을 만들기 위해 인공지능과 빅데이터를 활용한 스마트 팩토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제품의 품질관리, 생산 설비, 물류 등 공장 내 모든 시스템의 데이터는 물론 외부 정보까지 수집·분석해 빅데이터화하고, 인공지능이 이를 기반으로 공장을 운영합니다. 정확한 데이터를 확보하고 불필요한 과정은 덜어내 제품 생산의 정확성과 효율성을 높이며 이를 통해 품질향상에 기여합니다. 2023년 11월 완공된 싱가포르 글로벌 혁신센터(HMGICS, Hyundai Mobility Global Innovation Center in Singapore)는 인공지능, 사물인터넷(IoT) 등을 접목한 지능형 제조 플랫폼을 개발하고 검증하는 테스트베드의 역할을 수행하며, 이를 통해 완성형 스마트 팩토리 생태계인 E-FOREST 구축을 가속화하고 있습니다.

품질 VoC 대응 현대자동차는 전사 고객불만 대응체계를 확립하기 위해 VoC(Voice of Customer) 기반의 업무 혁신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품질본부, 연구개발본부 등이 참여하는 VoC 개선 협의회를 운영하여 품질 개선 안건을 다각화하고, 긴급 VoC에 대응하는 등 고객 의견에 기반한 품질 개선에 주력합니다. VoC 데이터를 연계, 통합, 분석할 수 있는 다양한 기법과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으며, 고객의 불편사항은 각 서비스 거점에 전달하여 개선을 위한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고객 안전과 만족을 최우선으로 하는 노력의 연장선으로, 차량 판매 후 고객 사용기간 3개월 이내 발생하는 클레임 건수를 연계한 품질지수를 CEO의 KPI 중 5%로 반영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주요 품질 VoC 대응 사례

제네시스 2개 차종에 대한 자발적 리콜 진행 결정

현대자동차는 2024년 9월, 내부 평가과정에서 발견된 ccIC(connected car Integrated Cockpit)* 소프트웨어 오류사항을 개선하기 위해 고객 불만 제기 이전에 자발적 리콜을 진행하였습니다. GV60 및 GV80 모델에서 후진 주행 중 10km/h를 초과할 경우 RVM(Rear View Monitor) 영상이 종료되는 문제가 당사 내부 평가 중에 발견되었습니다. 이 현상은 ccIC 부팅 전후 특정 조건에서 발생하며, 문제의 원인은 후방 영상 표출 소프트웨어 로직 오류로 확인되었습니다. 고객 불만은 제기되지 않았지만 후방 가시성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안전문제로 판단하였으며, 이에 당사는 선제적이고 적극적인 시장조치의 일환으로 GV60, GV80 총 1,845대를 대상으로 ccIC 소프트웨어의 업데이트를 위한 자발적 리콜을 진행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또한, 소프트웨어 설계를 강화하고 테스트 케이스를 보강함으로써 유사한 문제가 재발하지 않도록 검증 프로세스를 개선하고 있습니다.

*ccIC(connected car Integrated Cockpit) : 클러스터, 내비게이션, 헤드업 디스플레이를 하나의 제어기로 통합한 인포테인먼트 플랫폼

고객경험 혁신

고객만족 극대화

고객응대 및 소통 채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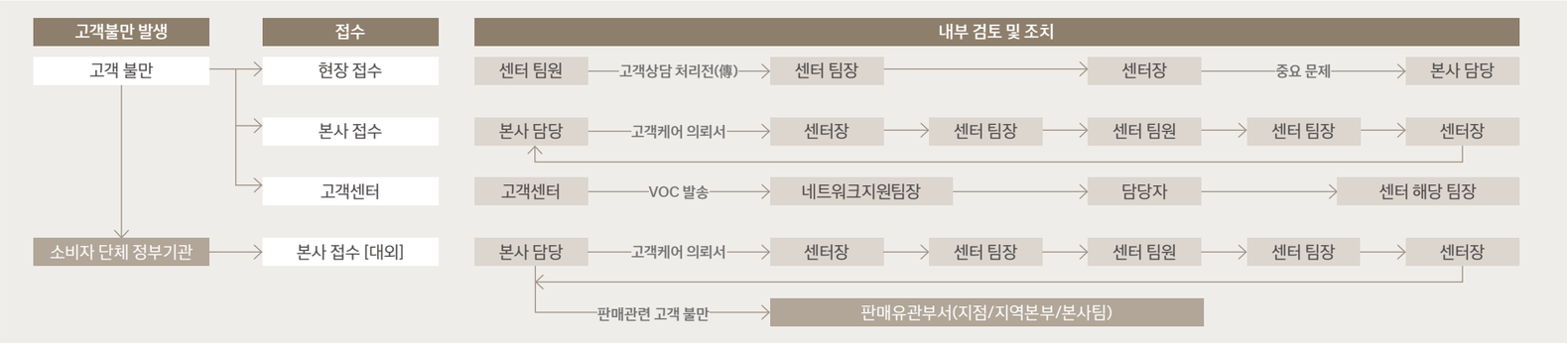
고객 응대 표준 가이드 운영 현대자동차는 차량 구매와 정비 과정에서의 고객 경험을 바탕으로 '고객 응대 표준 가이드'를 제작·배포하고 있습니다. 본 가이드는 개별 고객 응대 방향성을 명확히 제시하고, 고객 접점별 핵심 응대요소에 집중하게 함으로써 고객이 언제, 어디서나 일관된 우수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해외 권역 및 판매법인은 고객 서비스 전략 방향을 수립하여, 지역별 시장 특성과 고객의 기대 수준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고객 응대 활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고객 응대 역량 강화 차량 판매, 서비스 등 고객접점 채널 임직원의 CS 역량 강화를 위해 '서비스 융복합 교육체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ICT 기반의 CS 학습 환경을 통해 임직원들은 차량에 대한 지식과 고객상담 스킬 관련 교육을 수강할 수 있습니다. 특히, 현대자동차 'CS Way'라는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고객 응대 솔루션을 현장에 전파하여 고객 응대 역량을 향상시키고 있습니다. 또한, 현대자동차 공식 서비스 협력사 '블루핸즈'를 운영하는 대표자를 대상으로 서비스 트렌드와 블루핸즈 CS 향상 방안을 제시하고, 고객 응대 우수사례와 다양한 상황에 따른 맞춤형 응대 방안을 공유하는 등 고객 응대 역량 향상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2024년 CS 교육 프로그램 운영 결과

교육 프로그램	이수자 수
고객 커뮤니케이션 스킬	4,646
리더십 개발 및 의사결정	113
심화 응대 상황 교육	85

고객 피해 보상 및 분쟁 해결 절차



고객의 목소리(VoC) 반영 현대자동차는 고객의 목소리(VoC)를 중요한 경영 요소로 인식하고, 이를 기반으로 서비스 품질과 제품 개선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고객의 다양한 의견과 피드백을 체계적으로 수집하고 분석하여, 이를 서비스 및 제품 품질 향상의 최우선 요소로 삼고 있습니다. 이러한 노력의 일환으로, 현대자동차는 2024년 기준 다수 인입된 제품 품질, CCS 및 서비스 관련 VoC 내용을 집중적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현대자동차는 데이터에 기반하여 모든 고객 이슈에 대해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대응함으로써 고객 만족도를 극대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체계적인 접근을 통해 고객의 신뢰를 얻고, 지속적인 관계를 구축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현대자동차는 고객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며, 이를 통해 더욱 혁신적이고 고객 지향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할 것입니다.

고객 피해 보상 및 분쟁 해결 현대자동차는 고객 피해 보상 및 분쟁 해결을 위해 적극 노력하고 있습니다. 고객은 현장 접수, 본사 접수, 고객센터를 통해 불만 및 피해 사실에 대해 신고할 수 있으며, 대부분 전국 하이테크센터 직원들이 고객 상담, 보상 품의 및 지급까지의 절차를 진행합니다. 현대자동차는 품질, 제도, 응대 과실을 포함하여 피해의 원인이 당사의 귀책인 경우, 직접(차량 수리비용) 및 간접 손실(대물, 상해 등 확대 피해) 등 확인 가능한 손실액 전체에 대해 서비스, 현물, 현금성으로 보상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사안의 중요도에 따라 본사 고객케어 관리 부문의 업무 지원을 통해 원활한 해결을 위해 협업을 진행합니다. 특히 고객불만으로 인한 소송, 장기 미출고, 장기 미해결 건에 대해서는 실시간으로 현황을 파악하고 있습니다. 고객서비스솔루션팀에서는 각 센터별 장기 미결 현황 보고를 받고, 해당 사안에 대해 본사 담당자와 종결 지원을 진행합니다. 화재, 차량사고와 같은 소송 건에 대해서는 기술적 자료 작성 및 소송 대응방안 수립을 위해 법무팀, 연구소 및 품질본부와 협의를 진행하며, 지속적인 품질문제 주장이 제기되는 경우 품질 개선 부문과 협업하여 합동조사를 실시하고 고객 대응방안 수립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2024년 VoC 접수 현황

구분	건수	비율
① 문의	4,778,742	96.70%
② 불만	154,967	3.10%
③ 제안	5,474	0.10%
④ 칭찬	3,852	0.10%

2024년 VoC 유형별 분류

구분	건수	비율
① 판매	332,330	6.7%
② 서비스	702,553	14.2%
③ 멤버십	182,068	3.7%
④ 품질	1,015,168	20.6%
⑤ CCS	1,108,622	22.4%
⑥ 긴급출동	1,004,295	20.3%
⑦ 예약	230,658	4.7%
⑧ 인증중고차	78,435	1.6%
⑨ 업무지원	288,906	5.8%

고객경험 혁신

서비스 거점 및 브랜드 현대자동차는 믿음과 신뢰를 주는 서비스 거점을 통해 언제 어디서나 고객이 최고의 'CAR-LIFE'를 누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직영 하이테크센터와 전국 약 1,200개의 공식 서비스 협력사인 '블루핸즈'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고객 서비스 접근성을 강화하였습니다. 또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전동차 보유 고객을 위해 전기차 수리 가능 블루핸즈 1,000여개 및 수소전기차 수리 가능 블루핸즈 180여개로 확대 운영하고 있습니다.

블루핸즈	• 현대자동차 공식 서비스 협력사 – 고객의 안전과 편의를 위한 환경 개선은 물론, 고객과 가장 가까운 곳에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네트워크
블루멤버스	• 현대자동차 오너 대상 서비스 – 2007년부터 시작된 현대자동차 오너를 위한 고객 서비스로 차량관리는 물론, 다양한 블루멤버스 특화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고객의 즐겁고 편리한 CAR-LIFE 지원
블루링크	• 현대자동차 커넥티드 카 서비스 – 최신 IT 및 통신기술을 활용해 원격제어, 안전보안, 차량관리, 길 안내 서비스를 제공하는 커넥티드 카 서비스

올 케어 서비스 현대자동차는 올 케어 서비스를 통해 고객의 차량 관리와 안전을 위한 다양한 서비스를 한눈에 알기 쉽게 제공합니다. 고객의 더 편리한 카라이프를 위해, 방문세차/손세차 서비스, 제네시스 에어포트 서비스, 전기차 특화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전기차 특화 서비스에는 차량 픽업 및 충전 후 기계식 세차와 딜리버리를 제공하는 픽업앤충전, 방문 급속충전과 유리세정, 점검을 포함한 EV안심케어, 충전 구독 요금제인 럭키패스 H가 있습니다. 카 케어 부문은 보증제도 및 관련 서비스 상품, 사고 시 차체 수리 등을 지원하는 부가 서비스 상품, 정기 점검 서비스 등을 제공합니다. 보증제도는 차량 · 부품별 보증 기간을 안내하며, 선택형 보증제도를 제공합니다. 부가 서비스로는 바디케어 서비스, 워런티 플러스, EV 플러스 케어가 있습니다. 사전 예방을 위한 점검 서비스에는 블루안심점검, 찾아가는 오토케어, 찾아가는 비포서비스가 포함됩니다. 긴급 상황 대처를 위한 서비스로는 긴급출동 서비스, 찾아가는 충전 서비스, 수소차 긴급 딜리버리, 홈투홈 서비스, 과잉정비 예방 프로그램, 고객 차량 지원 서비스 등을 제공합니다.

• 과잉정비 예방 프로그램 운영 현대자동차는 고객 신뢰도 제고 및 서비스 경쟁력 향상을 위해 과잉정비 예방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대자동차 공식 서비스 네트워크인 블루핸즈를 이용한 고객은 과잉정비가 의심될 경우, 현대자동차 고객센터를 통해 접수 후 조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후 외부 보험사가 주관하는 조사 결과에 따라 최대 1천만원 한도 내에서 과청구 금액 100~1,000% 보상이 진행됩니다.

• EV 라이프 통합 케어 프로그램 현대자동차는 2024년 전기차 고객 케어를 강화하기 위해 EV 에브리케어 프로그램을 런칭하고, 고객이 차량을 살 때부터 팔 때까지 전기차를 경험하는 모든 순간을 빠짐없이 케어하고 있습니다. 구매 혜택으로 고객의 주거 및 충전환경을 고려하여 충전 크레딧 또는 홈 충전기 등을 지원하며, 보유기간 내 보증 기간 연장, 바디케어 서비스, 신차교환 프로그램 등을 통해 막연한 불안감을 해소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픽업 앤 충전, 찾아가는 충전 등 고객 편의 및 긴급 상황 지원을 위한 각종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고객의 안전한 전기차 운행을 위한 안심 점검을 정기적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노력은 현대자동차의 지속가능경영 목표 달성에 기여하며, 고객 경험을 한층 더 향상시키고 있습니다.

글로벌 고객 서비스 최적화 현대자동차는 애프터서비스 전 과정에서 주요 신기술 및 트렌드를 반영한 차별화된 고객 경험 프로세스를 구현하고자 합니다. 이에 따라 각 국가별 고객에게 최적화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본사에서 해외 판매 법인 및 대리점의 고객 서비스 전략 방향성 수립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2024년에는 해외 주요 시장별 서비스 역량을 점검하고 향상하는 글로벌 TFT를 통해 서비스 경쟁력을 강화하였습니다. 이 밖에도 시장별 특성 및 고객 기대 수준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맞춤 전략으로 글로벌 고객 관리를 지속 강화할 것입니다.

글로벌 딜러 역량 향상 교육 현대자동차는 소비자 및 최종사용자와 접점을 형성하는 글로벌 딜러 역량 강화를 위해 딜러 소속 직원들에게 교육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현대 글로벌 딜러 5,300개 지점을 대상으로 하며, 고객을 응대하는 판매 사원과 서비스 어드바이저 그리고 정비사를 포함합니다. 2024년 교육과정은 판매교육과 승용 기술교육으로 구분되어 있고, 브랜드 기초 지식과 고객 응대에 대한 공통 교과와 직무별 특화 교육 등 총 105개 교과목을 개설 및 운영하였습니다.

글로벌 현대 One App '마이현대' 런칭 현대자동차는 2024 년 11 월, 기존의 마이현대, 블루링크, 디지털키(1.0) 앱을 하나로 통합한 새로운 '마이현대' 앱을 선보였습니다. 새로운 '마이현대' 앱은 차량 원격 제어, 충전 상태 확인, 차량 상태 모니터링, 정비 및 세차 서비스 예약 등 다양한 기능을 제공합니다. 고객은 하나의 앱으로 차량 관리와 관련된 정보에 손쉽게 접근할 수 있고, 더욱 편리하게 차량 관련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셔클(모빌리티 서비스) 활용 이동약자 지원 현대자동차는 수요응답형 모빌리티 서비스 '셔클'을 활용하여 교통약자 이동권 증진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대부도에서 운영중인 수요응답형 교통수단(DRT, Demand Responsive Transit) '똑버스'는 노인, 임산부, 어린이 등 교통약자를 대상으로 하며, 휠체어 탑승이 가능한 쏠라티 특장차량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국내 CSV 활동 - 모빌리티

현대자동차 올 케어 서비스(승용)[1)]

카라이프	카 케어		
편리한 카라이프 서비스	보증제도 및 서비스 상품	사전 예방 및 점검	긴급 상황 및 정비
카라이프 서비스 • 세차 전국 세차 서비스 예약 서비스 • 에어포트 서비스 여행 기간 동안 점검 및 정비 제공과 전용 안심 주차장에 차량을 보관 **전기차 특화 서비스 (현대 EV 충전 솔루션)** • 픽업앤충전 차량 픽업-충전-딜리버리 + 기계식 세차(옵션) 제공 • EV안심케어 급속충전(20kWh) , 유리세정, 점검 • 럭키패스 H 충전 구독 요금제	**보증수리 제도** 차종별, 부품별 보증기간 내 수리 **소모품 교환 서비스** **선택형 보증제도** 라이프스타일에 따라 차체 및 일반부품 계통의 보증기간을 선택하여 변경 **부가 서비스 상품** • 바디케어 서비스 신차 출고 최대 1년 (또는 주행거리 2만km) 동안 단독사고로 인해 발생하는 차량의 외장 손상에 대해 판금, 도장, 교체 등을 보장 • 워런티 플러스 추가 계약 기간 / 주행거리 동안 보증 기간을 연장하는 서비스 • EV 플러스 케어 바디케어 서비스와 워런티 플러스를 합리적인 가격에 제공	**블루안심점검** 국내 판매 차량 보유 블루멤버스 회원 (상용 8년 (연 1회), EV 10년 (연1회), 상용 3년 (총7회) **찾아가는 오토케어 서비스** 고객님이 요청하신 장소를 방문하여 엔진오일세트 교체(필수) 및 소모품 교체(선택) **찾아가는 비포서비스** 고객님이 요청하신 장소를 방문하여 차량 기본점검 및 정비상담 등을 제공하는 방문 서비스	**긴급출동 서비스** 차량고장으로 주행이 어려운 상황에 긴급출동 및 조치 **찾아가는 충전 서비스** 블루멤버스 회원대상 긴급 충전 서비스 무상 제공 **수소차 긴급 딜리버리** 차량 문제(방전 및 연료 소진) 발생 시 견인 서비스 제공 **홈투홈 서비스** 고객을 방문해 차량 인수 후 수리 및 인계하는 서비스 **과잉정비 예방 프로그램** 블루핸즈 과잉정비 발생 시 보험 조사 및 보상 실시 **고객 차량 지원 서비스** 보증수리 입고 고객을 위해 수리 기간 동안 차량 제공

1) 국내에서 제공되는 서비스를 기준으로 작성하였으며, 국가별로 일부 서비스 내용이 상이할 수 있음

고객경험 혁신

지속가능한 브랜드

브랜드 관리

브랜드 관리 시스템 현대자동차는 브랜드 글로벌 포털인 '현대 브랜드 홈(Hyundai Brand Home)'을 통해 브랜드 전략·아키텍쳐·이미지를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브랜드 전략은 전사가 일관되게 대외 커뮤니케이션을 할 수 있도록 브랜드의 방향성을 안내하고, 브랜드 아키텍쳐는 차량·기술·서비스 등의 브랜드 및 상표체계와 사용방식을 정의하며, 브랜드 이미지는 디자인 가이드라인을 개발/배포하여 브랜드를 시각적으로 구현하는 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브랜드 전략, 체계, 가이드라인이 현장에서 올바르게 적용되고 있는지 관리·감독하기 위해, 브랜드 및 상표 이미지 등의 적용·활용 실태를 정기적으로 검수하는 글로벌 브랜드 모니터링 활동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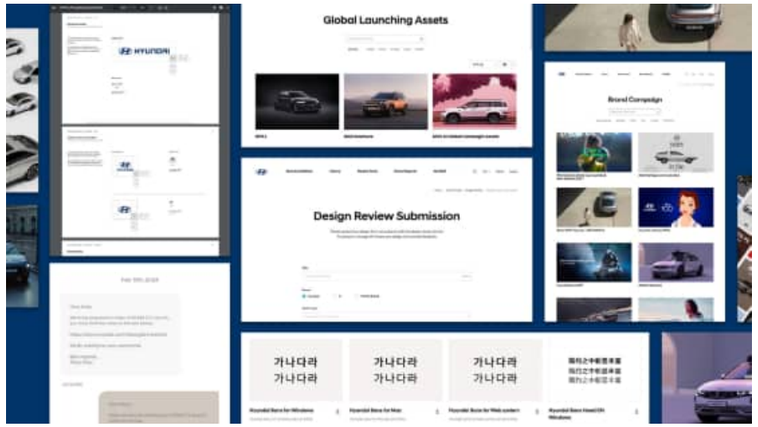
브랜드 지표 추적 조사 브랜드별 가격, 성능, 품질, 친환경성 분야로 구성된 지표를 바탕으로, 고객의 현대자동차 브랜드 인지도, 구매의향, 만족도 등을 확인하기 위한 '브랜드 추적 조사(BTS, Brand Tracking Study)'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특히, 브랜드 선호도 측면에서는 당사 브랜드의 신뢰성, 경쟁력, 서비스, 경제성뿐만 아니라, 브랜드가 보유하고 있는 친환경성, 사회적 책임, 진정성 요소도 조사하고 있습니다.

브랜드 추적 조사는 전동화 브랜드에 대한 고객의 구매의향, 인지도, 선호도, 속성정보(혁신성, 편의성, 친환경성 등) 등을 포함합니다. 또한, 고객을 대상으로 당사 브랜드 차량의 시장가치를 평가받는 등 브랜드의 시장경쟁력을 파악하고 있습니다. 브랜드 추적 조사 결과는 판매지역별 브랜드 전략 수립의 기초 자료로 활용하고 있으며, 이를 바탕으로 고객 커뮤니케이션 메시지를 도출하는 등 마케팅 과정에 적극 반영하고 있습니다.

브랜드 지표 추적 조사결과 분석 브랜드 추적 조사를 통해 고객이 당사 브랜드를 선호하지 않는 사유, 구매 이전·과정·이후 등 고객경험 단계별 불만족 원인, 온·오프라인 채널에서의 부정적 경험 등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이를 기반으로 고객의 인식 개선을 위해 브랜드가 갖추어야 할 속성을 파악하여 재정의하고 있으며, 고객경험 혁신을 위한 콘텐츠 관리 방안 및 판매채널 운영 개선사항도 발굴하고 있습니다.

브랜드 지표 추적 조사 항목

가격	• 경쟁사 대비 당사 차량 가격에 대한 고객의 수용성(Price Perception 조사 기반)
성능	• 시장 평균 = 100을 기준으로 내구성, 첨단 기술력 등의 점수 분석
품질	• 시장 평균 = 100을 기준으로 보증 수준, A/S 품질, 신뢰성 등의 점수 분석
브랜드	• 시장 평균 = 100을 기준으로 브랜드 평판, 진정성, 헤리티지, 인지 등의 점수 분석
지속가능성	• 시장 평균 = 100을 기준으로, 친환경성, 사회적 책임 항목, 모빌리티 비전, 혁신성 등의 점수 분석 • 친환경 차종이 Brand Perception 전반에 미치는 영향을 별도 분석



현대 브랜드 홈 (Hyundai Brand Home)

윤리적 마케팅

광고 및 마케팅 윤리 선언 현대자동차는 고객의 올바른 제품·서비스 구매 의사결정을 유도하고 건전한 광고 및 마케팅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광고 및 마케팅 윤리'를 선언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현대자동차는 제품·서비스 정보를 소비자에게 정확하게 전달하고, 경쟁 기업 또는 제품·서비스를 부당하게 비교하지 않으며, 정보 취약계층을 보호하지 않는 광고 및 마케팅 행위를 하지 않는 것을 기본 원칙으로 선언하였고, 이에 더해 제품·서비스에 대한 친환경성 주장을 포함하는 표현을 할 때에는 그에 대한 요건을 갖추어 진행할 것을 약속하였습니다.

광고 및 마케팅 윤리 선언

제품 환경·안전 정보 라벨링 현대자동차는 차량 제작의 전 과정에서 발생하는 차량 연비, 배출가스 등 제품 환경 관련 정보는 물론, 안전벨트, 승객 감지 시스템, 카시트 탈부착 장치 등 안전과 관련된 정보도 투명하게 공개하고 있습니다. 제품과 서비스의 환경적·사회적 영향에 대한 허위, 과장, 축소를 엄격히 금지하며, 관련 정보를 라벨링하여 고객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주요 판매 지역별 제품 정보 라벨링

한국	제품	차종, 차명, 차대번호, 차량 총 중량, 제작연도, 타이어 등 자기인증 정보	유럽	제품	차량 ID, 각종 단품 인증 E-마크 (램프, 안전벨트, 경적기, 미러, 글라스 등)
	환경	연비, 배출가스 관련 표지판 정보		환경	디젤엔진 스모크, 배터리 리사이클링, 연료, 냉매 관련 정보
	안전	에어백 경고 등 정보		안전	ISOFIX CRS 앵커[3] 정보, 임시 스페어타이어 속도, 에어백 경고 정보 등
중국	제품	차량 ID, VIN(W/screen), 도난방지 정보	북미	제품	MSRP(Manufacturer's Suggested Retail Price) 정보
	환경	연비 정보		환경	VECI[4] 냉매 정보
	안전	CCC[1], CRS[2] 경고 에어백 정보		안전	타이어 공기압, 안전 인증, 에어백 경고 정보

1) CCC(China Compulsory Certification, 중국강제인증)
2) CRS(Child Restraint System, 카시트 등 어린이 안전장치)
3) ISOFIX CRS 앵커: 국제 표준 아동용 카시트 고정 장치
4) VECI(Vehicle Emission Control Information, 배출가스 인증정보)

고객경험 혁신

그린워싱 예방

그린워싱 리스크 점검 프로세스 구축 현대자동차는 최근 강화되고 있는 글로벌 ESG 관련 법규 및 규제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친환경성 표시 광고물 현황을 점검하고, 향후 그린워싱 발생을 예방하기 위한 리스크 점검 프로세스를 구축하였습니다. 현대차는 2024년 1월, 환경부 가이드라인을 기반으로 국내 20여 개 마케팅 및 홍보 관련 부서를 대상으로 현황 점검을 실시하였으며, 총 260건 중 32%에 해당하는 게시물에서 리스크 보유 가능성을 사전에 파악하여 수정 조치를 완료하였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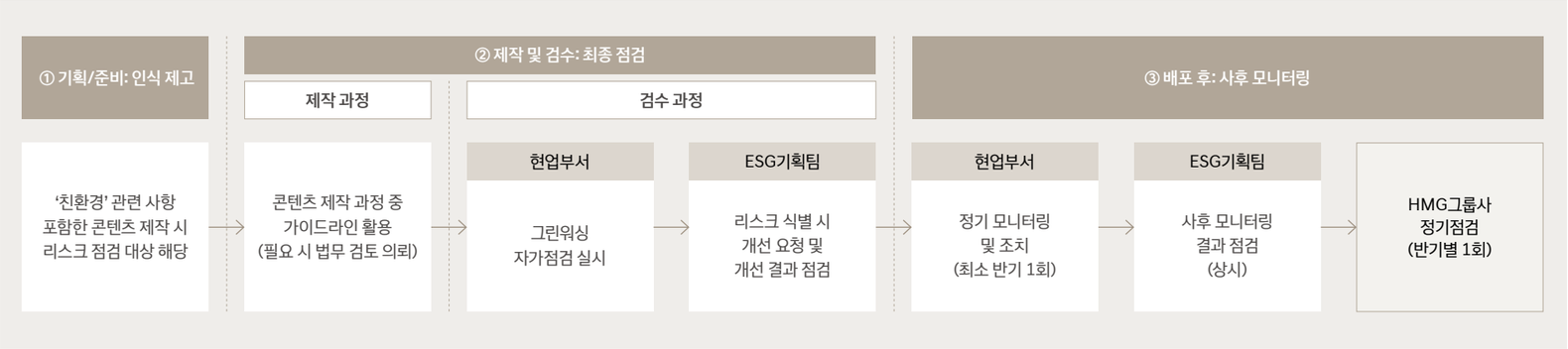
이후 그린워싱에 대한 임직원의 낮은 인식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해 팀장 및 실무자를 대상으로 온·오프라인 교육을 총 4회 실시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한국 미국 EU 등 해외 8개국 관련 법규 및 사례를 기반으로 업그레이드된 자가점검 체크리스트를 활용하여 해외 36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422건의 게시물을 점검하였으며, 이러한 과정을 통해 현대자동차그룹 공통의 글로벌 그린워싱 가이드라인을 발간하였습니다.

특히 현대차는 표시 광고물의 기획 단계부터 제작, 검수, 배포에 이르는 전 과정에서 그린워싱 리스크를 예방하기 위한 사전 점검 프로세스를 마련하고, 콘텐츠 배포 이후에도 정기적인 사후 모니터링을 시행할 예정입니다. 이를 통해 향후 그린워싱으로 인한 경영 리스크를 예방하고, 이해관계자들에게 보다 정확하고 명확한 지속가능경영 정보를 전달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입니다.

현대자동차그룹 그린워싱 예방 행동수칙 : 기획 단계에서의 6가지 원칙

원칙 1	포괄적이고 근거 없는 표현의 자제	• 피해야 할 표현 : 근거없는 "친환경적", "지속가능성 보장" 등의 표현 • 대안적 표현 : 포괄적 표현 대신 구체적인 환경적 혜택을 설명하여 정확성 제고
원칙 2	탄소중립 표현 시 구체적인 계획과 증빙자료 제시	• 피해야 할 표현 : 구체적 이행계획/증빙 없이 "탄소중립", "넷 제로" 용어 사용 • 대안적 표현 : 각 연도별 탄소중립 이행 계획 제시, 탄소 크레딧 사용 계획 병기
원칙 3	오해의 소지가 있는 비교 및 인증 표현 자제	• 피해야 할 표현 : "타사보다 친환경적" 또는 "최고의 친환경 품질" 등의 표현 • 대안적 표현 : "(비교대상인) A제품보다 30% 낮은 배출량이 인증됨" 같이 표현
원칙 4	정량화된 데이터와 구체적인 용어 사용	• 피해야 할 표현 : "물 사용 절감" 또는 "에너지를 적게 사용" • 대안적 표현 : "이 제품 생산 과정에서는 기존 모델 대비 20%의 물을 절약함"
원칙 5	재활용 원료를 사용 시 구체적인 비율 명시하기	• 피해야 할 표현 : "재활용 원료로 제작된 제품" • 대안적 표현 : "이 제품 시트의 원단은 30%의 PET 재활용 원료 포함"
원칙 6	법적 요구 사항을 자발적 활동으로 표현하지 않기	• 피해야 할 표현 : "우리는 2035년부터 전기차만 생산합니다." • 대안적 표현 : 법적 준수와 자발적인 노력을 명확히 구분하여 전달

그린워싱 리스크 점검 프로세스



*본 프로세스는 현대자동차 본사기준 프로세스를 제시한 것이며, 해외사업장의 경우 각 국가별 법규 및 시장 상황에 따라 자체 점검 프로세스 구축 및 운영 중

CSV 이니셔티브

CSV 추진체계

CSV 추진체계

CSV 전략 추진 현대자동차는 2022년 발표한 지속가능경영을 위한 글로벌 CSV (Creating Shared Value, 공유가치창출) 이니셔티브 'Hyundai Continue'를 2024년에도 지속적으로 추진하였습니다. Hyundai Continue는 친환경, 모빌리티, 미래세대 세 가지 중점 영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국내 사업장뿐만 아니라 글로벌 사업장과 함께 다양한 활동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CSV 전략체계

비전	Progress for Humanity		
미션	공유가치 창출(CSV)을 통한 사회 임팩트 확산과 지속가능한 기업 생태계 구축		
CSV 이니셔티브	Hyundai continue		
중점 영역	Earth 지구와 사람의 공존을 위한 노력을 계속하겠습니다.	Mobility 자유로운 이동과 연결을 위한 노력을 계속하겠습니다.	Hope 미래세대의 희망을 위한 노력을 계속하겠습니다.
추진 방향	생태계 복원, 자원순환, 기후변화 대응, 생물다양성 보전 활동	이동약자/소외지역 이동 지원, 교통안전기술 지원, 미래 모빌리티 연계 활동	미래세대 교육, 건강 및 성장 지원, 인재육성 활동

CSV 이니셔티브

CSV 프로젝트

폐기물 수거 및 업사이클링

해양 생태계 보존

해양 생태계 보존을 위해 현대자동차는 2021년부터 유럽, 한국, 미국에서 해양 폐기물을 수거하고, 이를 재활용하는 업사이클링 활동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협력 파트너 헬시 씨즈(Healthy Seas)와 함께 해양 생태계를 위협하는 유실 어망을 비롯한 다양한 플라스틱 폐기물을 수거하여 해양 생태계 복원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수거한 폐어망은 섬유 생산업체 아쿠아필(Aquafil)을 통해 에코닐(ECONYL®)이라는 나일론 섬유로 재탄생됩니다. 에코닐은 유럽 내 판매되는 아이오닉5 및 아이오닉6 차량의 플로어 매트 소재로 쓰이고 있습니다.

이처럼 현대자동차는 환경 정화 활동과 수거한 폐기물을 활용한 업사이클링 활동을 하며, 여러 단체 및 벤처 기업과의 협업을 통해 자원 순환 인프라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2024 주요 성과 유럽, 한국, 미국 등 전 세계 8개국에서 24번의 수거 및 교육 활동을 지원했으며, 약 172톤의 해양 폐기물을 수거하였습니다. 그중 폐어망은 약 63톤에 달하였습니다. 수거 활동에는 총 107명의 자원봉사 다이버가 참여해 해양 생태계 정화 활동에 동참하였습니다.

향후 추진 계획 수거 활동을 지속하여 바다를 정화하며, 다양한 업무 협약을 통해 폐어망 수거 인프라를 확충하고 친환경 소재 양산을 확대할 계획입니다.

지역사회 환경문제 개선

인도네시아 환경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2022년 8월부터 페플라스틱 수거 및 업사이클링 활동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자카르타 지역 내 20개 중·고등학교 및 4개 아동친화공간(Child Friendly Integrated Public Space) 에서 기후, 순환경제를 주제로 환경 교육을 운영하고 있으며, 2024년에는 총 1,968명의 아동이 교육에 참여하여 환경 인식을 제고하였습니다. 또한, 지역내 페플라스틱 수거함을 설치하여 지역주민의 분리배출 활성화를 독려하였습니다. 현재 총 71개의 수거함을 운영하며 연간 12톤의 페플라스틱을 수거하였고, '25년 상반기까지 수거함을 100개 이상으로 확대할 예정입니다. 브카시(Bekasi) 지역에 폐기물 재활용 센터를 설립하여 운영함으로써 인도네시아 지역사회 폐기물 처리량을 줄이고, 가치 있는 자원으로 재활용하여 지역사회 순환경제 구축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2024 주요 성과 자카르타 지역 내 페플라스틱 수거함 운영을 통해 2024년 연간 약 12톤의 페플라스틱을 수거하였습니다. 또한, 환경교육 6회 및 또래전달교육 98회를 진행함으로써 총 1,968명의 아이들에게 환경 보호의 중요성에 대해 교육하였습니다.

향후 추진 계획 플라스틱 수거 외에도 환경교육 및 아동주도 캠페인 등의 인식 개선 활동을 통해 지역사회 폐기물 수거 문화를 정착시키고 있습니다. 페플라스틱 수거함 설치 확대와 지속 운영을 통해 민관협력을 주도하고 순환경제 구축에 기여할 것입니다.

친환경
Earth

아이오닉 포레스트

현대자동차는 2016년부터 미국, 브라질, 독일, 튀르키예, 필리핀, 인도 등 13개국에서 숲을 조성하는 '아이오닉 포레스트'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2024년에는 한국수목원정원관리원, 트리플래닛과 함께 지속 가능한 산림 생태 복원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하였으며, 향후 아이오닉5 및 아이오닉9을 기반으로 제작된 친환경 산림 경영용 차량 '아이오닉 드론 스테이션'을 활용해 보다 효과적인 생태계 복원과 연구를 지원할 것입니다. 또한, 아이오닉 포레스트 튀르키예에서는 임직원들이 장학생들과 함께 숲 조성 자원봉사를 추진하는 등 현대자동차는 글로벌 아이오닉 포레스트 프로젝트를 통해 2024년까지 약 90만 그루의 나무를 식재하였습니다.

앞으로도 현대자동차는 지구와 사람의 공존을 위해 전 세계 여러 파트너와 협력하여 나무 심기, 산불 피해지 복구 등 다양한 친환경 활동을 전개할 예정입니다.

2024 주요 성과 한국수목원정원관리원과 지속 가능한 산림 생태 복원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하였고 생태 복원을 위해 아이오닉 드론 스테이션을 적극 활용할 계획입니다. 또한, 미국, 독일, 사우디아라비아, 필리핀 등에서 한 해 동안 400,000여 그루의 나무를 식재하였습니다.

향후 추진 계획 2025년부터 2035년까지 전 세계적으로 약 200만 그루의 나무를 심을 예정입니다. 한국, 미국 등의 산불 피해지 숲을 복원하고 인도 마하라슈트라 지역에서 숲을 조성함으로써 지역 생태계 회복에 기여할 계획입니다. 또한, 아이오닉9 드론 스테이션을 구축해 드론 씨드볼 식재를 추진할 예정입니다.

CSV 이니셔티브

모빌리티
Mobility

전기차 자동 충전 로봇 활용 '지금은 충전중' 캠페인

현대자동차는 로보틱스 기술을 활용하여 휠체어 사용 운전자, 임산부 등 이동 약자의 이동성을 개선하고 신체적 한계를 극복하는 데 앞장서고 있습니다. 현대자동차의 로보틱스랩은 전기차 충전소 인프라 접근성의 한계를 해소하고 이동 약자의 충전 편의성을 증진할 수 있는 전기차 자동 충전 로봇(ACR)을 개발했습니다. ACR은 차량과의 통신을 통해 충전 도어를 열고, 충전구를 정밀하게 인식하여 자동으로 충전 케이블을 삽입하고 탈거하는 등 모든 작업을 수행합니다. 또한, 차량이 충전 중에도 안전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로봇의 자세를 조정하는 기능을 갖추고 있습니다. 딥러닝 기반의 3차원 자세 추정 기술을 적용하여 충전기 인식 오차를 2mm 이내로 최소화했으며, -20~40°C의 극한 온도와 90% 이상의 습도를 견딜 수 있는 내환경성을 갖추어 IP65 등급의 방수·방진 기술로 외부 환경에서도 최적의 성능을 발휘하도록 설계되었습니다.

현대자동차는 '지금은 충전중' 캠페인을 통해 이동 약자들이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였습니다. 이 혜택을 제공받아 새빌 E-pit 충전소에 캠페인 기간동안 설치된 ACR 시스템을 직접 체험하였습니다. 이러한 활동은 이동 약자들에게 더 자유로운 이동성과 사회적 연결을 제공하는 현대자동차의 비전 '인류를 향한 진보'를 실현하는 중요한 단계로 평가되며, 앞으로도 ACR 같은 기술의 상용화를 통해 지속 가능한 모빌리티 솔루션을 제공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입니다.

2024 주요 성과 2024년 6월, 최대 4인으로 구성된 93팀에게 제주 여행 경비, 아이오닉5 렌트, 그리고 ACR 충전 경험을 제공하여 날씨에 구애받지 않는 편안한 전기차 여행을 지원했으며 48일 동안 93팀이 ACR 자동 충전을 총 100회 경험하였습니다. 캠페인 만족도는 5점 만점에 4.95로 매우 높았습니다.

향후 추진 계획 현대자동차는 ACR 기술의 상용화를 목표로 성능과 안정성 향상을 위한 지속적인 연구 개발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노력을 통해 이동 약자들의 편의성을 극대화하고, 보다 많은 사용자들이 쉽게 접근 가능한 전기차 충전 인프라를 구축하고자 합니다.

셔클(모빌리티 서비스) 활용 이동약자 지원

현대자동차는 수요응답형 모빌리티 서비스 '셔클'을 활용하여 교통약자 이동권 증진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2023년 7월 안산시, 경기교통공사, 경원여객, 안전생활실천 시민연합과 '이동약자의 이동 지원사업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하고, 대부도에서 수요응답형 교통수단(DRT, Demand Responsive Transit)을 활용한 이동케어 '똑버스' 운영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똑버스는 대부도 내 노인, 임산부, 어린이 등 교통약자를 대상으로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으며, 탑승객은 '똑타' 애플리케이션 및 전화호출, 주요 시설 내 설치된 키오스크를 활용해 탑승 신청이 가능합니다. 또한, 이동 편의성 향상을 위해 휠체어 탑승이 가능한 쏠라티 특장차량 2대를 기부하였으며, 셔클 플랫폼 '똑타' 이용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똑타는 인공지능을 결합한 수요응답형 교통수단 '셔클'을 기반으로 개발된 경기도 맞춤형 모빌리티 플랫폼입니다. 서비스 이용자가 출발지와 도착지를 입력하면, 실시간 수요 및 교통상황을 반영해 차량이 배차되어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는 것이 특징입니다.

현대자동차는 기술을 활용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 활동에 앞장서며, 앞으로도 다양한 모빌리티 기술을 적극 활용해 일상 속 이동이 더욱 편리해질 수 있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2024 주요 성과 현대차의 기술을 활용한 이동약자 지원 서비스를 통해 이동 편의성을 개선하였으며, 지난 한 해 동안 누적 이용 횟수는 노약자 5,609회, 자가용 이용이 불가한 청소년 7,774회입니다.

향후 추진 계획 대부도 이동약자 지원 사업 지속과 더불어, 경찰청의 고령운전자 운전면허 자진반납사업과 연계하여 교통소외지역의 이동권 보장을 위해 차량 30대 지원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2025년 상반기에는 4개 지역을 대상으로 차량 8대를 확대 지원할 계획입니다.

CSV 이니셔티브

미래세대
Hope

현대 호프온휠스

Hyundai Hope on Wheels

'호프온휠스'는 1998년부터 26년째 운영되고 있는 현대자동차 미국법인의 대표적인 사회공헌 활동입니다. 이 사업은 1990년대 현대차가 미국 뉴잉글랜드 지역의 현대차 딜러들과 함께 소아암 연구 기금을 마련해 다나-파버 암 연구소의 지미 펀드를 지원하면서 시작되었습니다. 이후 미국 전 지역 현대차 딜러들이 참여하게 되었고 현재는 미국에서 세번째로 큰 소아암 관련 재단으로 성장하였으며 자동차 판매 1대당 일정 금액을 기부하고, 현대차는 매칭 방식으로 추가 기금을 조성하여 소아암 연구와 치료, 일상 회복, 소아암 인식 개선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2024년에는 미국뿐만 아니라 호주와 한국에서도 딜러와 함께 소아암 극복 지원을 위한 활동을 진행했습니다. 더불어 2025년 딜러 네트워크 기반의 파트너십을 통해 프로그램을 전세계로 확장하고 있으며, 현대자동차는 어린이들이 행복한 미래를 꿈꿀 수 있도록 소아암 어린이 치료, 연구 및 지원뿐만 아니라 포용적 사회를 구축할 수 있도록 지원할 것입니다.

2024 주요 성과 미국에서는 현대 호프온휠스 26주년을 기념하여 소아암 연구 및 환자 지원을 위해 2천 6백만 달러를 기부하였습니다. 프로그램 설립 이후 현재까지 175개 이상의 병원 및 연구 기관에 1,300개 이상의 프로그램 및 연구를 지원하며, 누적 기부금 2억5천만 달러를 달성했습니다. 또한 글로벌 확산 전개의 시작으로 호주, 한국에서도 현대 호프온휠스를 연계한 소아암 어린이 지원 활동을 전개했습니다.

향후 추진 계획 2025년에는 글로벌 확산에 집중하여 캐나다, 멕시코, 브라질에 소아암 어린이 지원 프로그램을 신규 런칭할 계획이며, 소아암 환아 치료비 지원 외에도 치료 연구를 위한 후원과 소아암 인식 개선을 위한 활동을 지속하겠습니다.

모빌리티 교육

미래 모빌리티 학교

현대자동차는 2016년 교육부와 업무협약(MOU)을 체결하고 초등학교, 중학교 자유학기제 진로체험 교육 프로그램 '미래 모빌리티 학교'를 시작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청소년들이 이론 학습과 실습 및 체험 활동을 통해 모빌리티 산업을 보다 쉽게 이해하고 관련 직업을 탐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또한 미래세대의 모빌리티 산업 이해도 향상을 위해 스마트 시티, 클린 에너지, 미래 모빌리티 기술 및 지속가능성 등의 주제를 다루는 완성도 높은 수업자료와 교구재를 제작하여 프로그램을 진행하며, 진로교육 기회의 불평등 해소를 위해 지원 대상 선정 시 농어촌 학교, 특수학교, 대안학교 등의 소규모 학교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또한, 유네스코 아시아태평양 국제이해교육원(APCEIU)과 협업하여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캄보디아 등 아세안 국가에서 해외 프로그램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2024 주요 성과 2024년에는 국내 초등학교와 중학교 330개교 및 해외학교 12개교를 대상으로 프로그램을 진행하였습니다. 특히 유네스코 아시아태평양 국제이해교육원(APCEIU) 및 교육부와의 협업으로 아세안 국가와의 교육 교류를 지원하면서 태국까지 대상 국가를 확대했습니다.

향후 추진 계획 다양한 지역의 어린이들에게 새로운 경험과 균등한 교육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미래 모빌리티 인재 육성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입니다.

H-모빌리티 클래스

현대자동차는 2020년부터 국내 이공계 학부생 및 대학원생을 대상으로 하는 미래 인재 양성 프로그램 'H-모빌리티 클래스'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H-모빌리티 클래스는 미래 전략기술인 파워트레인 · 전동화 · 에너지솔루션 · 자율주행 총 4개 과정에 대한 기본교육과 심화교육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심화교육의 경우 학습 내용을 내재화하고 실전 역량까지 갖춘 모빌리티 인재로 성장할 수 있게끔 오프라인 실습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2024 주요 성과 2024년 1,600명의 교육생이 H-모빌리티 클래스에 참가하였고, 과정 몰입도 및 프로그램 효과성을 제고하고자 교육과정 리뉴얼을 진행하였습니다. 2021년부터 지금까지 미래 모빌리티 분야 R&D 인재 양성에 기여한 점을 높게 평가받아, 한국경영자총협회로부터 청년고용친화기업 ESG 기업상을 수상하였습니다.

향후 추진 계획 2025년에는 실습 설계 고도화 및 최신 트렌드 반영을 토대로 기술 역량 강화에 기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도약하고자 합니다. 글로벌 모빌리티 선도 기업으로서 체계적 육성 지원을 통해 모빌리티 인재 저변을 확대하고자 합니다.

정보보안 및 개인정보보호

정보보안

정보 보안 체계

현대자동차는 스마트 모빌리티 체제로의 전환에서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고도화된 정보 보안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보안전담 조직을 통해 사업추진 과정에서 발생 가능한 해킹 및 정보 유출 위협에 대한 대응 체계를 구축하고 모니터링해 왔으며, 2022년 유럽에서 '사이버 보안 관리 체계(CSMS)' 인증을 취득한 바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모든 내부 임직원 대상의 보안 정책을 운영하고 이를 연 1회 검토하고 있으며, 임직원의 보안 의식 향상을 위해 보안정책에 대한 교육 및 보안 뉴스레터, 보안의 날 캠페인, 악성메일 대응 훈련 등 다양한 보안 예방활동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정보보안 관련 비즈니스 연속성 계획(BCP)과 사고 대응 절차를 수립하고 연 2회 점검하고 있습니다. 점검은 반기별 모의훈련을 통해 수행하며, 훈련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상·하반기마다 범위와 방식을 달리하여 실시합니다. 상반기 훈련에서 도출된 미흡 사항을 보완하여 하반기 훈련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정보 자산 취약성 분석

현대자동차는 업무 시스템의 안전한 구축·운영을 위해 전산 시스템에 대한 보안성 검토 절차를 수립 및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절차를 통해 보안 취약점을 관리하고, IT 기술 발전에 따라 보안 가이드를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있습니다. 특히, 외부 전문기관을 통해 모의 해킹을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실질적인 공격 가능성과 대응 체계를 함께 점검하고 있습니다. 2024년 주요 대내·외 시스템과 주요 정보시스템을 대상으로 모의 해킹 취약점 점검을 진행하였으며, 발견된 보안취약점에 대한 지속적인 개선 조치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현대자동차는 2006년부터 현재까지 ISO 27001 인증을 유지하고 있으며, 대고객 홈페이지 및 커넥티드카 서비스에 대해 2020년부터 ISMS 인증을 취득하여 종합적인 정보보호 관리체계에 대한 검증을 받았습니다.

주요 정보 보안 관련 활동

1. 해외법인 보안강화를 위한 전문인력 배치 및 점검활동 강화
2. 보안 모니터링시스템 고도화 및 자체 침투활동을 통한 보안 위협대응 강화
3. 침해사고 발생 시 신속한 대응을 위한 연 1회 이상 모의훈련 '정보보안사고 대응 지침' 내 명시
4. 연 1회 이상 임직원 피싱메일 훈련 및 감염자 악성코드 감염 예방 교육 실시
5. 월 1회 이상 전 임직원 대상 보안 뉴스레터 배부 및 임직원 보안의 날 시행

정보 보안 조직 구성 및 역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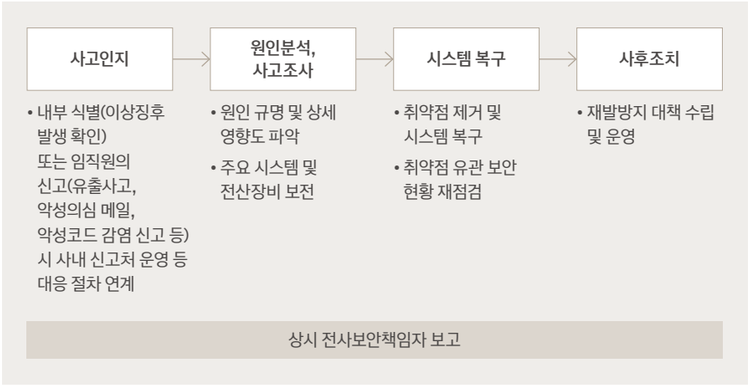
현대자동차는 정보보호 활동을 체계적이고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전담조직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전사 정보보호를 총괄하는 최고책임자(CISO)를 현대정보보호센터장으로 지정, 전사 개인정보보호를 총괄하는 최고책임자(CPO)를 보안경영지원실장으로 지정하였습니다. 상세 활동으로는 보안정책 수립, 보안시스템 구축, 내·외부 서비스에 대한 상시 보안 취약점 점검, 해외 보안 관리, 연 1회 정보보호 관리체계 운영 내부감사 등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현대자동차 정보보안 정책

정보보안위원회

현대자동차는 경영층 주관의 보안 최고의사결정기구인 '정보보안위원회'를 정기 개최하여, 주요 유관 부문(HR, 감사, 법무, 연구소, 생산공장 보안 등) 임원들이 회사보안과 관련한 주요 안건에 대하여 연 2회 심의 및 의결하고 있습니다.

보안사고 처리 절차



정보 보안 조직 구성

정보보안 및 개인정보보호

개인정보보호

개인정보보호 거버넌스

현대자동차는 개인정보보호법을 비롯한 관련 법률을 준수하기 위하여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를 구축 및 운영하고 있습니다. 전사 개인정보 보호책임자(CPO, 보안경영지원실장) 및 전담조직(개인정보보호팀)을 공식 지정하여 개인정보보호 업무를 총괄하고 있으며, 각 서비스 주관부서와 함께 대내외 동향 및 주요 안건을 논의하는 개인정보보호 협의체를 연 1회 이상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대자동차의 제품 및 서비스의 제공과 품질 개선 등을 위해 필요한 개인정보는 사전 동의(Opt-in방식) 원칙을 기반으로 고객이 동의한 범위 내에서만 수집, 이용, 제공되며, 추후 처리 정지/동의 철회(Opt-out방식)할 수도 있습니다. 고객이 개인정보처리방침을 상시로 열람할 수 있도록 프라이버시센터를 통해 투명하게 공개하고 있으며, 2024년에 개인정보처리방침을 통해 정보주체에게 공개된 '개인정보 수집, 이용, 제공 목적' 외의 용도로 데이터가 사용된 건수는 0건입니다.

현대자동차 개인정보보호 정책

개인정보보호 관리적 조치

현대자동차는 개인정보의 안전한 활용을 위해 다양한 관리적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개인정보보호 정책 및 가이드를 수립·운영하며, 전사 임직원 및 개인정보 처리업무 수탁사 대상 정기적인 교육을 통해 개인정보보호 인식을 향상시키고 있습니다. 또한 개인정보 처리 실태 점검 및 오남용 모니터링을 수행하고, 발견된 잠재적 취약점을 즉각적으로 개선하고 있습니다. 개인정보 처리 서비스 및 시스템 구축·변경 시 설계 단계에서부터 개인정보보호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하고 발생할 수 있는 침해 요소를 분석하여 위협을 최소화하는 프로세스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개인정보보호 기술적 조치

현대자동차는 개인정보 침해 및 유출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다양한 기술적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대한 접근권한을 필요 최소한으로 부여하여 개인정보 유·노출을 예방하고, 개인정보 송수신 구간 및 고유식별정보 등 중요정보 저장 시 암호화를 통해 외부 공격에 의해 유출되더라도 활용이 불가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백신 및 침입 차단·탐지 시스템 등 보안 솔루션 설치 및 버전을 최신으로 유지하고 있으며, 상시 모니터링을 통해 해킹 등의 외부침입에 대한 대비 체계를 갖추고 있습니다. 이 외에도 개인정보보호 법률 및 정보보호인증 등에서 요구하는 보호조치를 적용 및 운영 중입니다.

정보주체 권리보장

현대자동차는 정보주체의 권리보장을 위해 프라이버시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정기적으로 현행화하고 있습니다. 고객 또는 법정대리인은 웹사이트/앱 마이페이지 또는 고객센터를 통해 언제든지 자신의 개인정보에 대한 열람/정정/삭제/처리 정지 등 권리를 요구할 수 있으며, 현대자동차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고객 요청에 대해 지체 없이 대응하고 있습니다.

내부 점검 및 외부기관 인증

개인정보보호 법률 및 내부규정 준수를 위해 내외부 점검 및 수탁사 개인정보 관리실태에 대한 자체점검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대고객 홈페이지 및 커넥티드 카 서비스 등 주요 서비스와 시스템에 대해 2020년부터 정보보호인증체계(ISMS) 인증을 취득하여 유지하고 있으며, 국제 정보보호 관리체계(ISO/IEC 27001) 인증을 10년 이상 유지함으로써 글로벌 인증기관으로부터 정보보호 관리체계를 인정받고 있습니다. 이 외에도 국가기관인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고유식별정보실태조사, 방송통신위원회의 위치정보사업자 실태조사 등 관련 법률에 따라 정기적인 실태 점검을 받고 결과에 따른 개선을 이행하고 있습니다.

Governance

ESG 경영에 있어서 G(거버넌스)는 ESG 가치 창출을 위한 기반이자 기본입니다. 견고한 기업지배구조 구축과 책임 있는 기업 행동을 통해 기업가치를 높일 수 있으며, 다양한 리스크에 대응하고 기회를 포착하여, 지속가능한 성장을 이룰 수 있기 때문입니다.
현대자동차는 글로벌 기업에 부합하는 선진 지배 구조를 기반으로, 사회적·경제적·환경적으로 바르게 성장하고자 끊임없이 노력합니다.

4.1	이사회 책임 경영
4.2	주주 친화 경영
4.3	윤리·준법 경영
4.4	리스크 경영
4.5	조세 의무

이사회 책임 경영

현대자동차는 건전하고 투명한 지배구조를 구축하고자 '이사회 다양성 및 사외이사 독립성 가이드라인'을 수립하고 다양성, 독립성, 전문성을 갖춘 이사를 선임하며, 기업지배구조헌장을 제정하고 더 나은 거버넌스 체계 실현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사회는 최고 의사결정기구로서 정관을 기반으로 지속적이고 균형적인 성장을 목표로 운영되며, 경영진에 대한 감독 기능을 수행합니다. 이와 같은 이사회 책임 경영과 이해관계자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현대자동차는 주주 권익 및 기업가치 극대화를 실현하고 있습니다.

이사회 구성

이사회 구성 현황

현대자동차 이사회는 효과적이고 신중한 의사결정을 위해 총 12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상법에 의거하여 이사회 총 인원의 과반수 이상인 7명을 사외이사로 구성하여 독립성을 보장하고 있습니다. 이사회는 경영, 회계, 금융, 법률, 미래 · 산업기술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로 구성되며, 성별, 인종, 종교 등에 따른 차별 없이 다양성을 존중합니다.

사외이사 비율	58.3%	여성이사 비율	33.3%

이사의 임기

2025년 3월 말 기준, 이사회 총 12명의 평균 재임기간은 2.8년이며, 한국 상법에 의거하여 사외이사의 재임기간은 6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2025년 3월에 선임된 이사는 사내이사 2명(재선임 1명, 신규선임 1명), 사외이사 3명(신규선임 3명)입니다.

이사회 선임 및 최고경영자 승계 정책

현대자동차의 모든 이사는 주주총회 의결을 통해 선임됩니다. 사외이사의 경우, 회사 경영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전문성을 가진 유능하고 책임 있는 인사를 균형 있게 선임하기 위하여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에서 추천한 후보 중에서 선임됩니다. 당사는 다양한 관점과 경험을 보유한 이사를 선임하여 경영 환경 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최고경영자 승계 후보군은 주요 경영진이 협의하여 선정하며, 단기/중장기 내부 후보군 외에 외부영입도 병행하고 있습니다. 이사회는 정기적 논의 및 후보군 추천 등을 통해 승계정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사의 독립성 및 겸직 제한

현대자동차는 국제적 표준을 적용한 엄격한 독립성 가이드라인을 통해 대한민국 상법이 요구하는 이사회 관련 법적 기준을 충족하고 있습니다. 사외이사는 독립성 가이드라인을 준수하고 모범적인 윤리의식 및 직업의식을 기반으로 이해관계자의 권익을 대변해야 합니다. 따라서 당사는 회사와 중대한 이해관계를 가지지 않은 사람만을 사외이사로 선임하고, 이들은 독립적으로 기업의 효율적인 운영을 모니터링하며 기업 가치를 제고하는 역할을 수행합니다.

또한, 사외이사는 충실한 직무수행을 위해 충분한 시간과 노력을 투입해야 하며, 상법에 따라 당사 외 2개 이상의 다른 회사에 이사, 집행위원 또는 감사로 선임될 수 없습니다. 타기업 겸직을 허용 받기 위해서는 겸직하려는 직무 관련 내용을 이사회에서 사전 승인받아야 합니다.

이사회 구성 다양성 및 사외이사의 전문성

현대자동차는 성별, 국적, 인종, 종교 등 다양성을 존중하여 이사를 선임하고 있습니다. 2025년 3월 말 기준, 이사회에는 3명의 외국 국적 이사(호세 무뇨스, 도진명, 벤자민 탄)와 4명의 여성 이사(진은숙, 이지윤, 최윤희, 김수이)가 있습니다.

심달훈 이사는 약 30년 동안 국세청에서 근무한 경력을 바탕으로 회계 및 세무 분야에서 전문적 지식과 풍부한 경험을 보유한 회계/재무 전문가이며, 이지윤 이사는 카이스트 항공우주공학과 교수이자 지능형 교통 및 자율 무인 시스템 안정성 보장 분야의 세계적 권위자입니다. 장승화 이사는 국제거래법 분야 전문가이며, 다양한 국제 기구 및 정부 기관에서의 경험을 보유한 국제 통상 전문가입니다. 최윤희 이사 또한 법무 전문가로 중앙노동위원회, 국가인권위원회 활동 등 노사관계 관련 풍부한 전문성을 갖추고 있습니다. 김수이 이사는 오랜기간 CPPIB 등 글로벌 금융기관에서 축적한 경험과 폭넓은 안목을 보유한 재무/금융 전문가이며, 도진명 이사는 글로벌 반도체 기업인 퀄컴에서 아시아 부회장 등 주요 보직을 역임한 전문 경영인입니다. 벤자민 탄 이사는 주요 글로벌 연기금 중 한곳인 GIC(싱가포르투자청)에서 오랜 기간 아시아 지역의 포트폴리오를 관리하며 글로벌 비즈니스 및 금융시장에 대한 다양한 지식과 전문성을 보유하였습니다.

이사회 다양성 및 독립성 가이드라인

이사회 구성 현황

* 2025년 3월 말 기준

구분	성명	직위	경력		최초 선임일	성별	국적
사내이사	정의선[1]	대표이사 · 회장	現 현대자동차 그룹 회장		2010.03.12	남성	대한민국
	호세 무뇨스	대표이사 · 사장	現 현대자동차 담당사장		2023.03.23	남성	미국·스페인
	이동석	대표이사 · 사장	現 현대자동차 국내생산담당, 안전보건 최고책임자(CSO)		2022.03.24	남성	대한민국
	이승조	사내이사 · 부사장	現 현대자동차 재경본부장		2024.03.21	남성	대한민국
	진은숙	사내이사 · 부사장	現 현대자동차 ICT담당		2025.03.20	여성	대한민국
사외이사	심달훈	사외이사	現 우린 조세파트너 대표	前 중부지방국세청장	2021.03.24	남성	대한민국
	이지윤	사외이사	現 카이스트 항공우주공학과 교수	前 미 항법학회 이사	2021.03.24	여성	대한민국
	장승화	사외이사	現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現 국제중재법원(ICC) 중재인	2023.03.23	남성	대한민국
	최윤희	사외이사	現 건국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現 노동법이론실무학회 비상임이사	2023.03.23	여성	대한민국
	김수이	사외이사	前 CPPIB 글로벌 PE부문 대표		2025.03.20	여성	대한민국
	도진명	사외이사	現 케어메디 기타비상무이사	前 퀄컴 아시아 부회장	2025.03.20	남성	미국
	벤자민 탄	사외이사	前 GIC 아시아 포트폴리오 매니저		2025.03.20	남성	싱가포르

1) 이사회 의장

이사회 역량구성표(BSM)

역량 지표	사내이사					사외이사						
	정의선	호세 무뇨스	이동석	진은숙	이승조	심달훈	이지윤	최윤희	장승화	김수이	도진명	벤자민 탄
리더십	●	●	●	●	●	●	●	●	●	●	●	●
회계/재무/경영	●	●	●	●	●	●			●	●	●	●
산업/기술	●	●	●	●	●		●			●	●	
법률/정책			●			●		●	●			
글로벌 역량	●	●			●	●	●		●	●	●	●
ESG	●	●	●	●	●			●	●	●	●	●

이사회 책임 경영

이사회 운영

이사회 소집 및 개최

이사회는 이사회 의장 또는 이사회에서 달리 정한 이사가 소집하며, 소집 시에는 회의일 7일 전까지 각 이사에게 소집을 서면 또는 구두로 통지해야 합니다. 단, 이사 전원의 동의가 있을 때에는 소집 절차 생략이 가능합니다. 이사회의 결의는 이사 과반수 출석과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이루어지나, 관계 법령에서 달리 정한 경우에는 관계 법령을 따릅니다. 이사회의 의안은 의장이 제안하며, 기타 이사가 제안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요지를 의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이사회는 의사록을 작성해야 하며, 의사록에는 의사의 안건, 경과 요령, 그 결과, 반대자와 그 이유를 기재하고 의장과 출석한 이사가 기명날인 또는 서명을 해야 합니다.

이사회에 관한 사항

2024년 이사회 참석률

평균 참석률	사내이사 참석률	사외이사 참석률
100 %	100 %	100 %

이사회 의사결정 프로세스

2024년 이사회 개최 현황

구분	개최일자	내 용	가결여부	찬성률	참석률
1차 정기	1.25	제56기 재무제표 승인의 건	가결	100%	100%
		제56기 영업보고서 승인의 건			
		2024년 사업계획 승인의 건			
		안전 및 보건에 관한 계획 승인의 건			
		금융소비자보호헌장 제정 및 관련 기준 개정의 건			
		준법지원 활동 내역 및 계획	보고	N/A	
		2023년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			
		글로벌 차량 안전 현황			
임시	2.16	제56기 정기주주총회 소집 및 상정안건 승인의 건	가결	100%	
		해외법인 증자 참여 승인의 건			
		계열회사와의 영업양수도 거래 승인의 건			
		이사 경업(競業) 승인의 건			
		2023년 내부회계관리제도 평가결과	보고	N/A	
임시	3.21	대표이사 선임의 건	보고	100%	
		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지속가능경영위원회,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보수위원회)			
		이사 경업(競業) 승인의 건			
		자기주식 소각 승인의 건			
		임원 주식보상제도 도입 승인의 건			
2차 정기	4.25	제57기 1분기 배당 승인의 건	보고	100%	
		자기주식 처분 승인의 건			
		해외법인 증자 참여 및 지분인수 승인의 건			
		해외법인 증자 참여 승인의 건			
		2024년 1분기 경영실적	보고	N/A	
임시	6.4	해외법인 지급 보증 승인의 건	가결	100%	
		플랫폼 중개사업 추진 승인의 건			
		북미 친환경 물류 합작법인 설립 현황	보고	N/A	
		HMI IPO 진행 상황			
3차 정기	7.25	제57기 2분기 배당 승인의 건	가결	100%	
		해외법인 지분 거래 및 법인 증자 참여 승인의 건			
		2024년 2분기 경영실적	보고	N/A	
		상용 수소차 충전 인프라 투자법인 유상증자 참여			
임시	8.22	자기주식 처분 승인의 건	가결	100%	
		밸류업 프로그램 추진 방향 승인의 건			
임시	10.8	타법인 출자 지분 처분 승인의 건			
4차 정기	10.24	제57기 3분기 배당 승인의 건			
		이사 경업(競業) 승인의 건			
		해외주식예탁증서(GDR) 상장 폐지 승인의 건			
		2024년 3분기 경영실적	보고	N/A	
임시	11.27	이사 등과 회사 간의 거래 승인의 건	가결	100%	
		이해관계자와의 거래 한도 승인의 건			
		자기주식 취득 승인의 건			
		해외법인 자금보충약정 승인의 건			
		승용 수소차 충전 인프라 투자법인 추가 투자 참여	보고	N/A	
		안전보건 주요 현안 발생			
임시	12.20	대표이사 선임의 건	가결	100%	
		해외 합작법인 증자 참여	보고	N/A	

이사회 책임 경영

이사회 운영 및 활동 평가

현대자동차는 매년 사외이사에 의한 자체적인 이사회 및 위원회 운영 평가를 실시하고 있으며, 그 결과를 이사회에서 논의함으로써 이사회와 위원회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사회 구성의 적절성 및 운영의 효과성에 대한 객관적인 평가를 받고자, 정기적으로 독립된 제3자를 통해 평가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이사회 전문성, 효율성, 효과성 측면에서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현황을 파악하였고, 이사회의 구성이 부적절하거나 비효과적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점을 발견할 수 없다는 평가 결과를 받았습니다. 또한 동종산업 국내외 우수사례 벤치마킹을 통해 현대자동차 이사회의 발전방안을 도출하고, 최종 제3자 의견을 바탕으로 향후 이사회 및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시 반영될 수 있도록 개선해 나갈 것입니다.

선임사외이사 제도 도입 및 사외이사회 신설

당사는 2025년 4월, 이사회 의사결정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선임사외이사 제도를 도입하고, 선임사외이사 제도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사외이사만이 참석하는 회의체인 사외이사회를 신설하였습니다. 선임사외이사는 사외이사 대표로서 사외이사회를 소집 및 주재하고, 사외이사의 의견을 수렴하여 이사회에 개진하며, 이를 통해 주주·이사회·경영진 간 더욱 원활한 커뮤니케이션이 이루어지도록 지원합니다. 당사는 선임사외이사가 원활하게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 인력을 배치하는 등 선임사외이사 제도의 안착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초대 선임 사외이사로는 심달훈 이사가 선임되었습니다.

이사회 보수 지급

이사 보수지급 기준

이사의 보수는 주주총회에서 결의된 한도 내에서 집행되며, 보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됩니다. 사내이사는 직무, 직급, 리더십, 회사 기여도, 인재육성 등의 평가 요소를 반영하여 급여를 책정합니다. 상여는 회사 재무성과(매출, 영업이익 등)와 개인 성과 등을 종합하여 책정한 성과 인센티브를 기초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사외이사와 감사위원회 위원의 경우, 독립성 및 투명성을 보장하기 위해 고정 보수로 지급하며, 별도 경영 성과급은 지급하지 않습니다.

보수 지급내역

(단위: 백만 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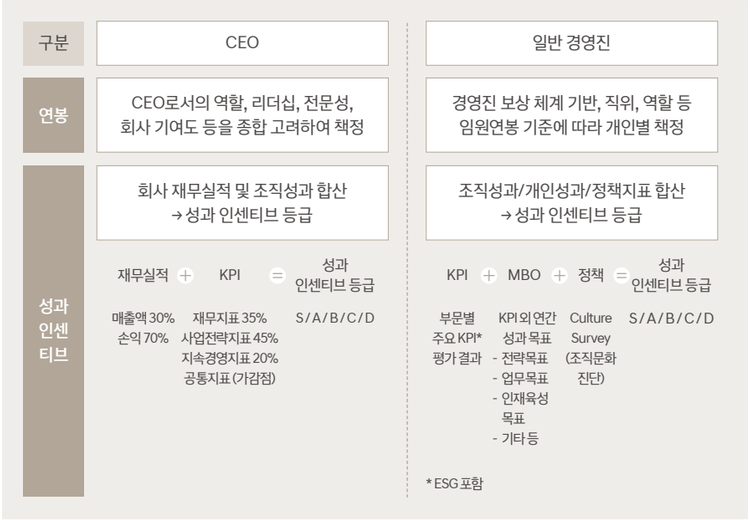
구분	CEO[1]	이사회[2]	사외이사	직원	CEO-직원 보수 비율
1인당 평균 보수액	3,399	1,402	120	124	27.4배

* 상세 내용은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공시된 2024년 사업보고서를 참고 바랍니다.
1) CEO: 장재훈 대표이사 사장 기준
2) 사내이사 및 사외이사 전원 포함 기준

경영진 성과평가 및 보수지급

현대자동차 경영진의 보수는 직급 및 직책에 기반하여 책정되는 연봉과 당해 연도의 성과에 따라 결정되는 성과 인센티브로 구성됩니다. 연봉은 당사의 경영진 보상 체계를 기반으로 직위, 직책(역할) 수준에 따라 개인별로 책정되며, 경영진 보상체계는 산업 환경, 사업 규모, 동종업계의 보상 트렌드 등을 종합하여 설정됩니다. 성과 인센티브는 회사의 사업 실적과 개인의 성과평가 등급을 종합적으로 반영하여, 기본연봉의 0~200% 범위 안에서 지급됩니다. 대표이사의 성과는 재무실적과 KPI를 반영하고, 일반 경영진의 성과는 KPI와 MBO, 그리고 정책 이행도를 반영하여 5단계 등급으로 평가됩니다. KPI 평가에는 대내외 ESG 평가결과 및 ESG 중점 개선과제 수행 성과 등 지속가능경영 항목을 반영하여, ESG 경영 내재화를 실천하고 있습니다.

경영진 성과연계 보수지급



이사회 책임 경영

이사회 산하 위원회

감사위원회

감사위원회 구성 감사위원회 제도의 투명성과 독립성을 확보하기 위해 상법에서는 위원의 선임과 구성에 대하여 엄격한 규정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감사위원회 위원은 주주총회에서 선임된 이사 중 선임되어야 하고, 3명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되어야 하며, 사외이사가 위원의 3분의 2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또한, 1명 이상의 위원은 주주총회에서 감사위원회 위원이 되는 이사로서 분리선출 되어야 하며, 감사위원회의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해 최소 1명 이상의 회계·재무 전문가 선임이 필요합니다.

당사는 감사위원회 구성과 관련된 상법 규정을 충실히 이행하고 있습니다. 당사의 감사위원회는 5명 전원 사외이사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 중 이지윤 사외이사는 감사위원회 위원이 되는 이사로서 분리선출 되었습니다. 그리고 심달훈 이사 및 김수이 이사는 회계·재무 전문가입니다. 특히, 중부지방국세청장 등 오랜 기간 세무전문가로 재직한 심달훈 이사는 감사위원회 위원장으로서 내부 감사 조직과는 다른 시각에서 당사의 전반적인 리스크 관리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감사위원회 역할 현대자동차의 감사위원회는 법무, 금융, 회계·재무, 미래기술 등의 다양한 전문성을 갖춘 5명의 사외이사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감사위원회는 이사와 경영진의 업무활동의 적법성을 확인하고, 기업재무활동에 대한 건전성과 타당성 및 재무보고의 정확성을 감독하며, 외부감사인의 선정 및 변경·해임 관련 주주총회 보고, 기타 법령 및 정관, 감사위원회 운영규정에서 정하는 사항들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또한 감사위원회는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설계 및 운영실태를 평가하고 있으며, 현대자동차의 내부회계관리제도는 '내부회계관리제도 설계 및 운영 개념 체계'에 근거하여, 중요성의 관점에서 효과적으로 설계 및 운영되고 있다는 평가결과를 받았습니다.

감사위원회 구성 현황

구분	사외이사	사외이사	사외이사	사외이사	사외이사
성명	심달훈	이지윤	장승화	김수이	도진명
전문분야	재무·회계·세무	미래·산업 기술	국제통상·법무	글로벌 · 금융	글로벌 · 경영

비감사용역 승인

현대자동차는 외부감사인의 독립성을 정기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있습니다. 외부감사인의 비감사업무는 독립성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판단되는 범위 내에서 공정하게 수행되고, 활동 중 확인된 중요사항은 감사위원회에 보고된 이후 매 분기 정기보고서를 통해 공시하고 있습니다. 외부감사인의 독립성을 보다 강화하기 위해 2023년부터 외부감사인과의 비감사용역 계약 체결 시, 사전에 감사위원회의 승인을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외부감사인과의 비감사용역 내역

사업연도	계약일	용역내용	수행기간	용역보수 (백만 원)
제57기	2022.06.23	한-캐나다 APA 갱신 자문 업무	2022.08.05~타결시까지	150
	2023.12.20	한-스페인 상호합의 및 쌍방 APA 지원	2023.12.20~타결시까지	180

보수위원회

보수위원회 구성 2019년 정기주주총회에서 보수위원회 설치를 위한 정관 개정 이후 제4차 정기이사회에서 보수위원회 규정을 제정하였습니다. 보수위원회의 과반수를 사외이사로 구성해야 하는 이사회 규정에 따라, 보수위원회 3명의 위원은 모두 사외이사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보수위원회 역할 현대자동차의 보수위원회는 등기이사 보수 결정 과정에 대한 객관성과 투명성 확보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등기이사의 보수한도 및 사내이사의 보수체계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 및 의결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보수위원회 구성 현황

구분	사외이사	사외이사	사외이사
성명	최윤희	심달훈	장승화
전문분야	노동법 · 법무	재무·회계·세무	국제통상·법무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구성 현대자동차는 관련 법규와 회사 정관 및 이사회 규정에 의거하여 회사의 사외이사 후보를 추천하기 위한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를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는 사외이사 3명과 사내이사 1명 총 4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관련 법규에 따라 총 인원의 과반수가 사외이사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역할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는 주주총회 전에 사외이사 후보를 추천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는 추천 후보의 전문성과 개인적 역량이 주주의 이익과 부합하는지, 기업가치의 훼손 또는 주주의 권익 침해 이력이 있는지를 면밀히 검토하여, 기업 경영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후보자를 추천하고 있습니다.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구성 현황

구분	사외이사	사외이사	사외이사	사내이사
성명	이지윤	도진명	벤자민 탄	호세 무뇨스
전문분야	미래·산업 기술	글로벌 · 경영	금융 · 주주권익 보호	경영전반 총괄

이사회 책임 경영

지속가능경영위원회

지속가능경영위원회 구성 현대자동차는 2021년에 투명경영위원회를 확대 개편하여 지속가능경영위원회로 발족하였습니다. 기존에 4명으로 구성되었던 투명경영위원회가 지속가능경영위원회로 역할이 확대됨에 따라 사외이사 7명과 사내이사 1명을 포함하여 총 8명의 위원으로 확대하여 구성되었습니다. 특히 벤자민 탄 사외이사는 GIC(싱가포르투자청)에서 재직했던 글로벌 금융 전문가로서 현대자동차의 주주환원가치 및 자본배분 정책에 대한 전문가적 식견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지속가능경영위원회 역할 현대자동차의 지속가능경영위원회는 ESG 정책·계획·주요 활동 등을 심의·의결하는 책임과 의무를 가지고, ESG 경영의 실질적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과거 투명경영위원회의 역할을 넘어 점차 중요성이 증가하고 있는 안전/보건 관련 주요 계획 및 이행 점검, 주주권익의 보호 등에 대해서도 지속가능경영위원회에서 논의하고 있습니다. 지속가능경영위원회는 이사회의 투명성 강화 및 주주소통 확대 노력, 임직원 관련 윤리적 이슈 점검 등 내외부적으로 현대자동차의 지속가능경영 실천을 향상시킬 수 있는 다양한 활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지속가능경영위원회 구성 현황

구분	사외이사	사외이사	사외이사	사외이사
성명	심달훈	이지윤	장승화	최윤희
전문분야	재무·회계·세무	미래·산업 기술	국제통상 · 법무	노동법 · 법무

구분	사외이사	사외이사	사외이사	사내이사
성명	김수이	도진명	벤자민 탄	호세 무뇨스
전문분야	글로벌 · 금융	글로벌 · 경영	금융 · 주주권익 보호	경영전반 총괄

2024년 지속가능경영위원회 개최 현황

구분	개최일자	내 용	가결여부	찬성률	참석률
1차 정기	1.25	계열금융회사와 약관에 의한 금융거래 승인의 건	가결	100%	100%
		이해관계자와의 거래 한도 승인의 건			
		2024년 사회공헌 주요활동 계획 승인의 건			
		특수관계인에 대한 기부금 증여 승인의 건			
		2023년 4분기 이사 등과 회사 간의 거래 실적	보고	N/A	
		2023년 하반기 이해관계자와의 거래 실적			
		2023년 4분기 사회공헌 활동 실적			
		2023년 하반기 임직원 윤리규범 이행실태 점검 결과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 실시사항 및 추진계획			
		2023년 하반기 거버넌스 활동 내역			
임시	3.21	2024년 ESG 추진 방향 승인의 건	가결	100%	
		사업장 및 공급망 ESG 진단실사 결과	보고	N/A	
2차 정기	4.25	계열금융회사와 약관에 의한 금융거래 승인의 건	가결	100%	
		계열회사와의 거래(완성차 해상운송) 재승인의 건			
		2024년 1분기 이사 등과 회사 간의 거래 실적	보고	N/A	
		2024년 1분기 사회공헌 활동 실적			
		2024년 1분기 준법지원 활동내역 및 공정거래 자율준수 활동내역			
		2024년 상반기 거버넌스 NDR 주요 내용			
임시	6.4	대규모 내부거래(포티투닷 증자 참여) 승인의 건	가결	100%	
3차 정기	7.25	계열금융회사와 약관에 의한 금융거래 승인의 건			
		2024년 상반기 이해관계자와의 거래 및 이사 등과 회사 간의 거래 실적	보고	N/A	
		2024년 2분기 사회공헌 활동 실적			
		2024년 상반기 임직원 윤리규범 이행실태 점검 결과			
		2024년 2분기 준법지원 활동내역 및 공정거래 자율준수 활동내역			
		2024년 상반기 거버넌스 활동 내역			
임시	8.22	중장기 전략 및 재무 목표	보고	N/A	
임시	9.30	계열회사와의 수익증권 거래기간 변경 승인의 건	가결	100%	
4차 정기	10.24	계열금융회사와 약관에 의한 금융거래 승인의 건			
		계열회사와의 거래(브랜드 사용료) 승인의 건			
		계열회사와의 거래(계동사옥 임대) 승인의 건			
		2024년 3분기 이사 등과 회사 간의 거래 실적	보고	N/A	
		2024년 3분기 사회공헌 활동 실적			
		2024년 3분기 준법지원 활동내역 및 공정거래 자율준수 활동 내역			
		2024년 안전 및 보건 계획 진행 현황			
		신사업 진행 경과			
임시	11.27	계열회사와의 거래(완성차 해상운송) 승인의 건	가결	100%	
		계열회사와의 거래(기아와 자산매각) 승인의 건			
		계열회사 유상증자 참여 승인의 건			
		현대차 탄소중립 전략 업데이트 승인의 건			

주주 친화 경영

현대자동차는 주주의 정당한 요구와 제안을 존중하고, 주주의 가치와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기업의 가치가 정당하게 평가받을 수 있도록 의사결정 과정과 경영의 건전성을 유지하며, 전체 주주의 이익을 고려하여 경영의사를 결정함으로써 주주의 이익이나 권리가 부당하게 침해되지 않도록 노력합니다. 이를 위해 국내 상법에 규정된 주주의 이익 분배 참여권, 주주총회 참석 및 의결권 행사, 정기적이고 시의적절하게 정보를 제공받을 권리 등을 기본적으로 보장함과 동시에 NDR 등의 적극적인 IR 활동을 통해 주주와 소통하고, 투명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주주총회

주식발행 현황

현대자동차의 발행 주식의 총수는 271,427,974주이며, 보통주 209,416,191주, 우선주 62,011,783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정관상 발행 가능한 주식의 총수는 600,000,000주(1주의 액면가액: 5,000원)이며, 이 중 의결권이 없는 우선주의 발행 가능한 주식의 총수는 150,000,000주입니다. 2024년 말 기준, 보통주 외에 3종의 우선주를 발행하고 있으며, 우선주에 대해서는 잔여재산 분배, 상환, 전환 등에 대한 권리는 제공되지 않습니다. 최근 3년간 우선주 주주총회는 개최되지 않았습니다.

주식발행 현황

구분		발행가능 주식 수	발행 주식 수	가결 여부
보통주		450,000,000	209,416,191	의결권 있음
우선주	우선주	150,000,000	23,871,988	의결권 없음
	2 우선주		35,759,391	의결권 없음
	3 우선주		2,380,404	의결권 없음

*2024년 말 기준

주주총회 소집 및 통고

현대자동차에서는 대표이사가 이사회 결의를 거쳐 매 결산기 종료 후 3개월 내에 정기주주회의를, 필요에 따라 임시주주회의를 소집합니다. 주주 전원의 동의가 있지 않는 한, 미리 주주에게 통지한 회의 목적사항 외에는 결의할 수 없으며, 총회를 소집할 때에는 총회일로부터 2주 전에 각 주주에게 회의 목적사항을 기재한 통지서 또는 전자문서를 발송하여야 합니다. 다만, 상법 규정에 의하여 일정 수 이하의 주식을 소유한 주주에 대한 소집통지는 전자공시시스템에 공고하는 방법 등으로 갈음할 수 있습니다. 현대자동차는 주주에게 충분한 기간을 두고 주주총회 관련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업무 프로세스를 개선하여 2020년부터 정기주주총회 4주 전에 소집공고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주주총회 결의 (1주 1의결권 부여)

현대자동차의 주주는 상법 및 정관에 근거하여 보유 중인 주식의 종류와 수에 따라 그 소유 주식 1주당 1개의 공평한 의결권이 부여되고 있습니다. 주주총회의 결의는 법령에 다른 정함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과반수로 하되 발행주식총수의 4분의 1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주주는 다른 주주를 대리인으로 하여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대리인은 그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면을 주주총회 개회 전에 회사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의결권 행사 및 위임

현대자동차의 주주총회에서는 주주의 직접 참여 및 의결권 대리행사, 의결권 대리행사권유에 의한 방식으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1주 1의결권을 원칙으로 주주총회 의결 정족수를 확보하고 주주총회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임장 용지를 주주에게 직접 교부하거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 혹은 전자우편을 발송하여 교부하고 있습니다.

제52기 정기주주총회부터는 전자투표제도를 도입하여 주주에게 의결권 행사의 편의성을 제고하였습니다. 이 외에도 주주총회 시 안건별 찬반 주식수를 공개하는 등 투명한 정보공개를 위해 다양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사 선임 개별 안건 상정

현대자동차는 이사의 선임을 개별 안건으로 상정하고 있으며, 주주총회에 출석한 주주의 과반수의 동의에 의해 이사를 선임하고 있습니다.

제57기 정기 주주총회 (2025년 3월)

부의 안건			가결 여부
재무제표 승인	제1호	제57기 재무제표 승인의 건	원안대로 승인
정관 일부 변경	제2-1호	사업목적 추가	원안대로 승인
	제2-2호	분기배당 개선	원안대로 승인
	제2-3호	부칙 (2025.03.20)	원안대로 승인
이사 선임	제3-1-1호	사외이사 선임의 건 (김수이)	원안대로 승인
	제3-1-2호	사외이사 선임의 건 (도진명)	원안대로 승인
	제3-1-3호	사외이사 선임의 건 (벤자민 탄)	원안대로 승인
	제3-2-1호	사내이사 선임의 건 (정의선)	원안대로 승인
	제3-2-2호	사내이사 선임의 건 (진은숙)	원안대로 승인
감사위원회 위원 선임	제4-1호	감사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김수이)	원안대로 승인
	제4-2호	감사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도진명)	원안대로 승인
이사 보수한도 승인	제5호	이사 보수한도 승인의 건	원안대로 승인

주주 현황

합계

209,416,191

	주주명	종류	지분율 (%)	주식 수
1	현대모비스	보통주	21.86	45,782,023
2	국민연금공단	보통주	7.54	15,794,905
3	정몽구	보통주	5.44	11,395,859
4	THE GOVERNMENT OF SINGAPORE	보통주	3.55	7,431,211
5	정의선	보통주	2.67	5,598,478
6	우리사주조합	보통주	2.58	5,394,300
7	기타	보통주	56.36	118,019,415

* 2024년 말 기준
** 정부기관 보유 지분 중 황금주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 국민연금공단 소유주식 수는 최근 소유자 명세(2024년 말 기준) 등을 토대로 기재하였으므로, 실제 주식 소유 현황과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주주 친화 경영

주주환원

주주환원 정책

현대자동차는 주주가치 제고를 위해 지속적으로 배당을 실시해오고 있으며, 배당 규모는 향후 회사의 지속적인 성장을 위한 투자와 경영실적 및 Cash Flow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주주가치 제고 및 주주신뢰 강화를 위해 2023년 4월 25일 '중장기 주주환원 정책'을 공시하였습니다. 배당의 가시성 확대와 안정성 확보를 위해 연간 연결 지배주주 귀속순이익 기준 25% 이상의 배당성향(우선주 포함)을 달성하고, 2023년 2분기부터 분기배당을 실시하고 있으며, 기보유 자사주 중 발행주식 수의 3%에 해당하는 물량을 향후 3년간 1%씩 소각하는 등 적극적인 자사주 소각 정책을 이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2024년 8월 28일 CEO Investor Day에서 펀더멘털 개선에 대한 자신감과 이사회, 경영진의 강력한 주주환원 확대 의지를 반영한 '밸류업 프로그램'을 발표했습니다. 2025년부터 2027년까지 총주주환원율 (TSR : 배당금 + 자사주 매입/소각) 기준 최소 35%를 달성하고, 3년 평균 ROE 11~12%를 지향하며, 연간 최소배당금 10,000원(분기배당 2,500원)과 3년간 최대 4조원의 자사주 매입 규모 설정 등 주주가치 제고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한편, 배당을 결의한 이사회 당일 거래소에 해당 사실을 공시하고, 정기보고서에도 배당에 관한 사항을 충실히 기재하여 주주분들께 안내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이사회가 결산배당기준일을 지정할 수 있도록 제 55기 주주총회에서 정관을 개정하였고, 분기배당 또한 배당기준일을 지정할 수 있도록 제 57기 주주총회에서 정관을 개정하여 주주 편의성을 제고하였습니다. 최근 3개년간 구체적인 배당 내역은 아래의 표와 같습니다.

최근 3개년 주주환원 현황

사업연도	주식종류	주식배당	현금배당			배당성향
			주당 배당금 (원)	총 배당금 (백만 원)	시가 배당률	연결 기준
2024년	보통주	-	12,000	2,439,175	5.6%	25.1%
	우선주	-	12,050	262,442	7.9%	
	2 우선주	-	12,100	418,010	7.7%	
	3 우선주	-	12,050	28,213	7.9%	
2023년	보통주	-	11,400	2,320,806	4.7%	25.1%
	우선주	-	11,450	251,054	7.4%	
	2 우선주	-	11,500	399,821	7.3%	
	3 우선주	-	11,450	26,975	7.5%	
2022년	보통주	-	7,000	1,412,321	4.5%	24.9%
	우선주	-	7,050	154,579	8.8%	
	2 우선주	-	7,100	246,846	8.8%	
	3 우선주	-	7,050	16,609	9.1%	

주주와의 소통

투명한 정보공시

현대자동차의 공시는 당사 홈페이지 및 DART, KIND 등 공시조회시스템 등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당사는 2024년 총 196건의 공시를 제출하였고, 기업가치 제고계획, 배당기준일 변경 안내 등의 자율공시 5건과 영업실적, 실적전망 등 공정공시 19건을 실시하여 회사에 대한 폭 넓은 정보를 제공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또한, 외국인 주주와 이해관계자를 위해 영문 홈페이지를 별도로 운영 중이며, 영문공시가 의무화되기 이전부터 영문공시를 실시하여 외국인 주주와의 소통을 강화하였습니다. 이러한 정보공시 강화 노력에 힘입어 당사는 한국거래소가 선정하는 2024년도 유가증권시장 공시우수 법인으로 선정되었으며, 앞으로도 충실한 정보 제공, 경영 가이던스 제시, 해외투자자를 위한 영문 자료 공개 확대 등의 노력을 이어갈 계획입니다.

IR 홈페이지 개편

당사 IR 홈페이지에 대한 접근성과 편의성 개선을 목적으로, 주주 및 투자자, 애널리스트 등 시장 관계자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반영하여 '23년말 IR 홈페이지를 전면 개편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시장의 의견을 반영하여 IR 홈페이지를 더욱 업그레이드해 나갈 계획입니다.

기업설명회 개최

현대자동차는 매년 1월, 4월, 7월, 10월 전후로 연간, 1분기, 상반기, 3분기 실적 발표를 위한 기업 설명회를 정기적으로 개최하고 있습니다.

2020년 1분기 경영실적발표부터 모든 주주들의 IR 접근성 제고를 위해 누구나 청취할 수 있는 웹캐스팅을 실시간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2019년부터는 CEO Investor Day를 개최하여 중장기 경영 목표를 제시하고 투자자 이해도를 제고하고 있습니다. 한편, 당사는 투자자와의 면담을 진행하며 필요시 최고 경영진이 직접 참여하여 적극적으로 주주와 소통하고 있습니다.

기업설명회 정보 및 일정

Governance Non-Deal Roadshow

현대자동차는 매년 Governance NDR을 시행하여, 주주권익보호 담당 사외이사가 직접 당사 거버넌스 개선 활동 및 지속가능경영 활동과 목표에 대해 주주들에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향후에도 ESG 경영 현황과 성과를 지속적으로 시장과 소통할 수 있는 정기적인 기업설명회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CEO Investor Day

2024년 8월, 현대자동차는 CEO Investor Day를 개최하여 당사의 2030 중장기 전략을 발표했습니다. 당사의 2030 중장기 전략은 불확실한 시장 환경 속에서 지속가능한 리더십을 확보하기 위한 현대자동차만의 유연한 대응 체계인 '현대 다이내믹 케이퍼빌리티'를 통해 시장에 기민하게 대응하면서, 모빌리티와 에너지라는 두 축을 중심으로 새로운 미래를 만들어 가기 위한 의지를 담고 있습니다. 당사는 EV 신공장 건설 및 인프라 구축 비용 51.6조원을 포함하여 향후 10년 간 총 120.5조원을 투자할 예정입니다. 현대 다이내믹 케이퍼빌리티 측면에서 현대자동차는 하이브리드 적용 차종을 기존 7종에서 14종으로 확대하고, 차세대 하이브리드 시스템(TMED-II)을 확대 적용하며, 북미와 중국에서 EREV를 전개해 나갈 것입니다. 한편, 2030년까지 경제형 EV에서부터 럭셔리, 고성능까지 전기차 풀라인업을 구축하고, 총 21개 모델을 출시하여 소비자들에게 더 다양한 선택지를 제공할 것입니다. 모빌리티 측면에서는 차량 데이터와 AI 기반으로 기능과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개선하는 SDV 체계로 전환하고 SW 중심 전환을 통해 SW 플랫폼 기반 AAM, 로봇 등 다양한 모빌리티 서비스를 연결하고자 합니다. 또한, 현대자동차는 EV 에너지 영역에서 당사 EV 고객의 충전부터 배터리 재활용까지 EV 이용 전반에 걸친 솔루션을 제공하고, 현대자동차 그룹사 역량을 결집하여 수소 생산부터 활용에 이르기까지 전체 수소 가치 사슬에 걸쳐 엔드 투 엔드 솔루션을 제공하는 수소 생태계 구축을 통해 수소 사회의 조기 실현을 달성하고자 합니다.

윤리·준법 경영

현대자동차는 윤리·준법 경영을 확산하고 공정거래를 준수함으로써 고객, 주주, 협력사, 지역사회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에 대한 경제적·법적 책임을 다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윤리경영 이행의 총괄 감독과 더불어 윤리경영 관련 주요 정책 및 실천규범 개정 관련 의결은 2021년 3월 확대 개편된 이사회 내 지속가능경영위원회가 담당하고 있으며, 윤리헌장 및 실천규범 등을 제정하여 임직원의 윤리적인 업무 수행을 돕고, 준법지원 온라인 시스템, 자가점검, 가이드라인, 뉴스레터 등을 통해 준법의식을 제고하고 있습니다. 또한 공정거래 자율준수 강화를 위한 경영진의 의지를 전사적으로 전파하고 임직원을 대상으로 정기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윤리경영 확산

현대자동차그룹 5대 윤리헌장

현대자동차는 윤리경영 헌장을 제정함으로써 윤리와 준법정신을 바탕으로 사업을 수행하여 글로벌 선도기업으로서 모범을 보이고자 합니다. 5대 윤리경영 헌장은 임직원이 고객, 주주, 협력사, 지역사회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와의 관계에서 스스로 윤리경영을 실천할 수 있도록 가이드라인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현대자동차그룹 5대 윤리헌장

1. 우리는 명확하고 투명한 기준을 갖고 업무를 수행하며, 성실과 최선으로 주어진 책임을 다한다.
2. 우리는 시장에서 정정당당하게 경쟁하며, 계약관계에 있는 상대방과 공정하게 거래한다.
3. 우리는 고객가치 실현을 위해 안전한 제품과 최상의 서비스, 올바른 정보를 제공하고 개인정보를 철저히 보호한다.
4. 우리는 구성원 개개인을 독립된 인격체로서 존중하고, 이를 위해 공정한 근로조건과 안전한 근무환경을 제공한다.
5. 우리는 글로벌 기업시민으로서 사회적 책임 이행을 통해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함께 번영할 수 있는 지속가능한 발전을 구현하는 데 기여한다.

윤리헌장 및 실천규범

현대자동차 윤리헌장 및 실천규범은 구체적인 실천 강령으로, 윤리 의식을 고취시키기 위하여 윤리경영 관련 절차와 내용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윤리규범은 부패 및 뇌물, 차별, 정보 비밀 유지, 이해관계 상충, 독점 금지 및 반경쟁적 관행, 자금세탁 및 내부거래, 환경, 보건 및 안전, 내부고발에 대한 내용 등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현대자동차 윤리헌장 및 실천규범

반부패/뇌물금지 정책

현대자동차 반부패/뇌물정책은 2021년 6월에 제정되어 부패 및 뇌물 관행 리스크를 사전 예방하고 구성원이 윤리·도덕적 가치를 지킬 수 있도록 가이드하고 있습니다. 이 정책은 모든 형태의 뇌물 및 부정청탁을 금지하고 급행료를 근절하며, 정치적 목적의 기부 및 후원을 금지하고, 자선기부 및 후원에 대한 내부 집행기준 및 절차 등의 지침을 담고 있습니다. 또한, 부패 및 뇌물 리스크에 대한 상시 모니터링을 위해 전 임직원 및 이해관계자의 접근이 가능한 신고체계를 구축하고 위반 사항 발생 시 즉각 필요 조치를 이행한다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현대자동차 반부패/뇌물정책

윤리헌장 및 실천규범(부패 및 뇌물 수수 등) 위반 예방 및 모니터링 프로그램

현대자동차는 윤리헌장 및 실천규범과 반부패/뇌물정책에 리베이트를 포함한 뇌물 및 관행적 수수료 등의 내용을 포함하여 당사 및 협력사 임직원이 투명하고 공정한 거래를 지속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현대자동차는 신임 임원, 신규·경력 입사자, 부임 전 주재원 등 새로이 준법교육이 필요한 임직원들을 대상으로 적시에 윤리규범(반부패/뇌물 등)을 주제로 교육을 진행하여 임직원들에게 반부패/뇌물 리스크에 대한 경각심을 가지고 예방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2024년에는 반부패/뇌물 관련 교육이 총 26회 진행되었습니다.

그 외에도, 준법경영지원시스템을 통하여 반부패/뇌물 관련 수시 법률자문을 진행함으로써, 임직원들은 업무 전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또는 업무상 배임/횡령 등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한 번 더 체크할 수 있고, 이로써 반부패/뇌물 리스크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한편, 준법지원상담센터(시스템, 전화, 이메일) 운영을 통하여 임직원 윤리규범 위반 리스크를 제보 받고 있습니다. 또한, 매년 반기별 정기감사 및 수시감사를 통해 임직원 윤리규범 이행실태를 점검하고 있으며, 그 결과를 이사회 산하 지속가능경영위원회에 보고하고 있습니다.

윤리헌장 및 실천규범(부패 및 뇌물 수수 등) 위반 신고 대응 및 위반사항 처리 절차

현대자동차는 윤리·준법 경영 확산과 리스크 예방을 위해 준법경영시스템 내 준법지원상담센터를 운영함으로써 임직원의 준법 업무를 지원하고 법 위반 신고를 가능하게 하고 있습니다. 담당부서인 감사실은 사이버 감사실을 포함한 다양한 채널을 통해 불공정 거래 행위, 금전, 금품 또는 향응의 부당한 요구나 제공, 직권 오남용 및 청탁행위 등 윤리경영에 위배되는 행위 제보를 접수받고 있으며, 제보 활성화를 위하여 제보자의 익명성 보장 및 책임감면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준법통제기준 시행지침 제12조 제2항에 따라 정기적으로 임직원 대상 준법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신고채널인 사이버감사실, One Click HR, 준법지원상담센터에 대해 안내하고 있습니다.

제보를 접수한 주관부서에서는 내용을 확인하고 관련부서에 이관하거나 직접 점검을 실시하여 그에 따른 시정 또는 징계조치 의견을 담당부서에 전달합니다. 담당부서에서는 주관부서의 의견을 바탕으로 적절한 조치를 취합니다.

현대자동차 직장윤리규정 제 11조 '윤리규범 위반에 대한 징계'에 의거하여, 윤리규범 위반자는 내부 징계위원회 규정에 따라 처리함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며, 해고, 정직, 감봉 등의 징계처분을 할 수 있습니다. 윤리규범 위반 사실을 접수한 부서는 조사내용을 서면으로 작성하여 인사담당부서에 즉시 통보하며, 인사담당부서는 통보 받은 사항을 검토한 후 징계위원회 규정에 따라 처리 여부를 결정합니다. 협력업체가 연루되었을 경우, 사안의 경중을 고려하여 거래중단, 변상조치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합니다.

윤리규범 (부패 및 뇌물수수 등) 신고 대응 및 위반사항 처리 프로세스

1. **제보 접수** : 온라인 (사이버 감사실), 전화 등
   ※ 제보자 보호 준칙 준수
2. **사전 조사** : 제보 내용의 구체성 확인 및 근거 확보
   ※ 사전 조사계획 보고 및 승인 후 조사 착수
3. **감사** : 대상자, 유관부서, 협력업체 등 조사를 통한 사실 확인
4. **조치 의뢰** : 개선방안 (재발방지 대책) 수립 및 징계 조치 의뢰 내부 보고 후 유관 부문에 의견 전달

주요 제보 채널

사이버 감사실 현대자동차 사이버 감사실	전화 제보 +82-2-3464-3500
팩스 +82-2-3464-8813	서신 접수 현대자동차그룹 감사실

윤리·준법 경영

윤리규범 위반에 대한 징계 조치

현대자동차는 2024년 부패 및 뇌물수수, 차별 및 괴롭힘, 고객정보, 이해관계 상충, 자금세탁, 내부자거래 관련 총 8건에 대해 징계(해고/정직/감봉/견책/경고 등)의 조치를 한 바 있습니다.

구분	징계 건수 (건)
부패 또는 뇌물 수수	5
차별 및 괴롭힘	3
고객정보	0
이해관계 상충	0
자금세탁 또는 내부자거래	0

제보자 보호

현대자동차는 윤리헌장 및 실천규범과 직장윤리규정 내규에 임직원 윤리 및 준법 관련 내부신고자 보호 조치를 명문화하고 관련 법 규정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내부신고자 보호 조치로는 내부신고자 및 관련 정보 비밀 유지, 불이익 처분 및 보복 행위에 대한 엄격한 금지 등이 있습니다. 윤리규범 위반 행위자가 신고자에 대한 보복 및 색출을 시도하거나 그 밖의 2차 가해 행위를 한 사실이 확인될 경우, 직장 윤리규정 3장 9조 (규정 위반에 대한 처리)에 따라 가중처벌을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조사 과정에서 행위자 및 참고인에게 보복행위에 대한 무관용 원칙을 안내하고 내부신고자 보호 및 비밀유지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제보자 보호조치

1. 비밀 보장	제보자 동의 없이 제보자의 신분을 공개하거나 암시하는 행위 금지
2. 신분 보장	제보, 진술 및 자료제출 등의 이유로 거래관계 또는 소속부서로부터 불이익이나 차별에 대해 보호
3. 책임 감면	제보와 관련하여 제보자의 과실 또는 오류가 발견된 경우 해당 제보자에 대해 징계를 감면

윤리준법경영 내재화

임직원 성과관리 및 승진 현대자동차는 직원 역량평가에 직장 내 윤리 관련 항목을 포함하여 평가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핵심 평가 요소에는 인재존중, 규범준수가 포함되며, 리더 대상 역량평가에는 원칙과 소신이 포함됩니다. 또한, 임직원 승진 심의 시 윤리/준법 관련 중징계를 받은 경우 승진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습니다. 해당 내용은 회사의 승진 공통 심의항목으로 모든 임직원에게 동일하게 적용되는 필수 항목입니다.

준법윤리경영 실천 서약 현대자동차는 매년 준법윤리경영 실천 서약을 통해 임직원의 행동강령 내재화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사업장 윤리경영 실사

현대자동차는 본사, 연구소, 공장 등 국내 사업장과, 유럽, 북미, 중남미, 인도, 중국 등 해외 권역본부, 연구소, 공장을 대상으로 윤리 항목을 포함한 ESG 리스크 진단 실사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전 사업장을 대상으로 매년 증빙자료 기반의 서면평가를 수행하고 있으며, 생산공장을 대상으로 3년 주기로 제3자 전문가에 의한 현장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현대자동차는 윤리헌장 및 실천규범을 기반으로, 국내외 표준, 산업 이니셔티브 평가 지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윤리경영 평가 지표를 설계하였습니다. 윤리 원칙 및 규정 수립, 교육 및 전파, 조직 R&R 구성 현황 등 기본적인 윤리경영 체계를 비롯하여, 비윤리행위 제보채널 및 처리 절차, 제보자 보호, 개인정보 보호 및 정보보안 등 포괄적인 영역에 대한 점검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점검 결과를 바탕으로 우수한 관리 체계 및 절차를 보유한 사업장의 사례를 공유하여 타 사업장의 관리수준 제고를 독려하고 있습니다.

사업장 윤리경영 실사 절차

지표 설계	• 현대자동차 윤리헌장 및 실천규범, 국내외 표준/이니셔티브 고려 지표 설계
서면 평가	• 윤리경영 체계 구축 수준, 세부 관리 절차에 대한 증빙 기반 평가
현장 점검	• 근로자 인터뷰 등 실질적 관리 관행 점검을 위한 현장 방문 점검
결과 분석	• 서면진단 및 현장실사 결과를 토대로 개선 필요 영역 식별
개선 조치	• 발견사항에 대한 개선방안 수립 및 이행

준법경영·준법지원제도

준법경영

준법경영은 현대자동차가 경영 및 기업활동을 함에 있어서, 규범을 준수하고 기업윤리를 지키기 위해 투명하고 공정한 업무수행을 추구하는 경영정신입니다. 현대자동차는 준법경영을 위하여 2012년 준법통제기준을 제정하였으며, 이후 준법지원인을 선임하는 등 상법상 준법지원제도를 도입하여 다양한 준법지원활동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준법지원체계 구축 및 운영

준법통제 규정·정책 준법통제기준은 회사가 법령을 준수하고 회사 경영을 적정하게 하기 위하여 임직원이 직무 수행 시 따라야 할 준법통제에 관한 기준 및 절차를 규정한 것입니다. 현대자동차는 준법통제기준을 근거로 준법지원활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또한, 현대자동차는 윤리헌장 및 실천규범을 두어 임직원의 행동기준을 제시하고 있고, 그 외 반부패/뇌물정책, 개인정보보호 정책 등 다양한 컴플라이언스 관련 정책을 두어 임직원이 이를 준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준법지원조직 현대자동차는 준법지원인이 회사의 법적 리스크를 예방하기 위한 준법지원활동을 실시하고, 그 내역 및 유효성 평가 결과를 이사회에 정기적으로 보고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현대자동차는 각 부서의 장을 준법지원책임자로 임명하여 이들이 소속 부서의 준법통제활동을 수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모니터링 현대자동차는 공정거래, 반부패, 개인정보 등 다양한 법 영역에 관해 준법자가점검을 실시하여 각 부서 및 임직원이 스스로 업무 관련 법적 리스크를 진단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발견된 리스크를 각 부서에 안내하여 스스로 개선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2024년에는 공정거래 교육 프로그램인 공정거래 CP아카데미 교육 주제와 연계하여 준법자가점검을 진행하였습니다. 1~2분기에는 그린워싱 및 경영간섭 관련한 부서별 준법자가점검을 시행하여 대상 부서 100% 참여율을 달성하였으며, 3~4분기에는 공정한 업무수행을 주제로 전체 임원 및 책임급 직원을 대상으로 한 개인별 준법자가점검을 시행하였습니다. 또한, 공정거래 고위험부서 (구매/영업/재경) 대상으로 임직원 준법자가점검을 별도 시행하는 등, 업무특성을 고려한 자가점검 문항을 개발하여 현업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지속적으로 파악하며 대응하고 있습니다.

윤리·준법 경영

준법경영을 위한 정보 제공

준법가이드라인 배포 현대자동차는 업무영역별 약 40여 종의 준법 가이드라인을 발간하여 임직원이 업무 수행 시 알아야 할 관련 법령의 주요 내용과 대응 방안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2024년에는 '공정거래 자율준수 가이드'을 두 차례 개정하여 공정거래 관련 법령의 개정사항을 신속히 반영하였고, 그린워싱 규제에 대응할 수 있도록 그린워싱 부록도 추가하였습니다. 또한, 공정거래 자율준수 가이드의 핵심 내용을 요약한 '공정거래 자율준수 리플렛(공정거래 자율준수 가이드 엑기스)'를 추가로 배포하여, 업무 수행 시 공정거래 자율준수 가이드를 보다 활발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준법문화 확산

현대자동차는 다양한 방식 및 콘텐츠로 준법문화 확산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온라인 시스템을 통해 임직원에게 법률 자문, 계약 검토, 준법 상담 등을 상시 제공하고 있으며, 업무 영역별 표준계약서(국문 계약 32개, 영문 계약 20개)를 제공하여 임직원들이 법을 준수하며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2024년에는 전 임직원 참여 준법 행사를 상·하반기 2회 실시하여 임직원들이 준법/공정거래 자율준수 활동을 친숙하게 접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해외법인 컴플라이언스 전개의 일환으로, 인도 및 인도네시아 법인에 현지화된 개인정보 매뉴얼을 제공하고 이에 대한 대면 교육을 진행하였으며, 컴플라이언스 프로그램 점검도 지원하였습니다.

준법통제체제 유효성 평가

현대자동차는 준법통제기준 및 관련 체제가 법적 위험을 적시에 예방하거나 발견할 수 있도록 유효하게 설계 및 운용되고 있는지 여부를 제3자를 통해 정기적으로 평가하고, 이를 바탕으로 적극적인 개선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공정거래 자율준수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

현대자동차는 공정하고 투명한 경영을 추진하기 위해 매년 상·하반기에 최고경영자의 공정거래 자율준수 의지를 전 임직원에게 전파하고, 공정거래 자율준수 행동지침을 제작하여 실제 업무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전반적인 공정거래 관리·감독을 위해 자율준수관리자를 이사회에서 선임하고 있습니다. 사업장별 책임과 의무를 강화하기 위해 분기별 공정거래 자율준수 운영 실적 및 차년도 계획을 이사회 내 위원회인 지속가능경영위원회에 보고하고 있으며, 전사적으로 다양한 공정거래 교육 실시 및 정기 소식지 발송을 통해 공정거래 자율준수 문화를 조성하고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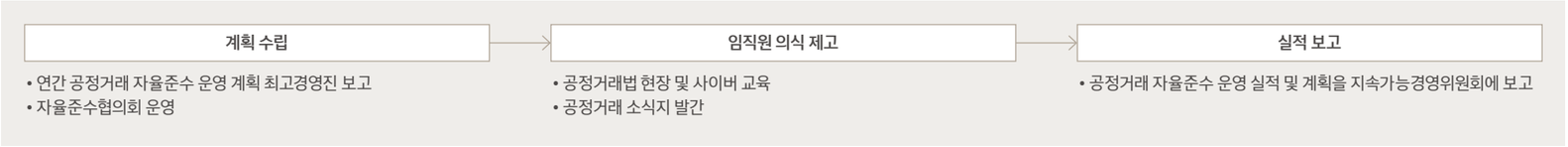
공정거래 교육 실시

현대자동차는 정기적으로 임직원 대상의 다양한 공정거래 관련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2024년에는 일반직·연구직·법무직 등 전 직원 대상 거래상지위남용(갑질) 온라인 준법교육을 실시하고, 매분기 자율준수협의회 위원, 자율준수담당자, 주제별 유관부서 대상 '공정거래 CP아카데미'를 개최하여 업무에 특화된 공정거래 및 준법교육을 실시하는 등 준법지원조직과 자율준수관리자의 소통을 강화하고 리스크를 선싱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또한, 전 임직원에게 준법뉴스레터를 격월로 발송하며, 기존 줄글 형식에서 10장 내외의 카드뉴스 형식으로 대폭 개선하는 등 임직원의 접근성을 높였으며, 연 3회 임원진을 대상으로 한 뉴스레터를 제작하여 배포하였습니다.

공정거래 교육 현황

연도	교육 횟수 (회)	참여 인원 (명)
2024년	11	28,341

공정거래 자율준수 운영 프로세스



공정거래 자율준수 교육

현대자동차는 공정거래 자율준수 교육 운영지침 (제 7조 교육실시) 에 따라 교육대상자에 맞는 맞춤형 교육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맞춤형 교육에 포함되는 특별 교육 프로그램은 고위험부서, 임원 및 경영진, 자율준수 프로그램 위반자 등을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고위험부서는 업무상 공정거래 관련 법령을 많이 사용하게 되는 부서 (구매, 영업, 재경 등) 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2024년에는 구매본부를 대상으로 하도급법 중 기술자료 관련 대면교육을 실시하였고 (온라인 동시 중계), 약 395명의 구매본부 직원이 참석하였습니다.

공정거래 CP(Compliance Program) 운영 효과성 평가

현대자동차는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이 법규 위반 방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효과적으로 작동하는지 점검하고자 매년 2회 이상 공정거래 CP 운영 효과성 평가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 운영규정 및 효과성 평가 운영지침에 근거하여 2023년에 효과성 평가를 실시한 이래로 평가 주체 및 방식을 지속적으로 고도화하고 있으며, 제3자 기관의 평가의견을 참고하는 등 추가적인 개선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리스크 경영

현대자동차는 전기차, 자율주행, 커넥티비티와 같은 기술 패러다임의 변화와 ESG 및 경영 리스크 증대로 인한 급변하는 대내외 경영환경에 대응해야 하는 상황에 당면하였습니다. 새로운 패러다임은 현대자동차가 글로벌 선도업체로 도약할 기회를 주는 동시에 불확실성으로 인한 리스크를 수반합니다. 이에 현대자동차는 전사 차원의 체계적인 리스크 관리를 위해 2023년 리스크 전담조직인 BRM(Business Risk Management)실을 신설하였으며 핵심 리스크 지표와 연동된 성과 평가 및 교육을 진행하는 등 전사 리스크 관리체계를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핵심 리스크에 대한 철저한 분석과 지속적인 관리 프로세스 강화를 통해 위기를 기회로 삼아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글로벌 리스크 관리 체계

리스크 거버넌스

현대자동차는 선제적 리스크 관리를 위해 각각의 역할과 책임에 따라 이사회, 경영진, 임직원들이 리스크 식별·평가·우선순위 선정 과정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이사회 이사회는 미래 리스크 및 기회 요인에 대응하기 위해 수립된 전사 경영전략, 전기차 확대 전략 등에 대한 최고의사결정기구로서 역할과 책임이 있으며, 미래 리스크 요인을 관리·감독하고 있습니다. 또한 ESG 영역에서 리스크를 사전 완화하고 예방하기 위해 전사 ESG 리스크 대응과제 추진방안과 이행 현황도 이사회 산하 지속가능경영위원회에 안건 상정 및 보고되고 있습니다. 2024년에는 지속가능한 경제활동의 재무실적에 대한 공시 요구에 대응하여 EU 택소노미 데이터 산출 및 기후변화 리스크 재무 영향 분석 프로세스 구축, 신규 투자 시 ESG리스크 점검 강화 등 7개 리스크 대응과제가 선정되었으며, 과제 추진계획 및 이행실적도 지속가능위원회 보고를 통해 관리·감독되고 있습니다.

경영진 전사 경영전략을 총괄하는 Strategy & Governance 담당 중역이 전사 리스크 관리를 담당하고 있으며 CEO를 포함한 C레벨 경영진으로 구성된 '경영위원회'가 운영됩니다. 위원회는 월 단위로 C-level 경영위원회(Management Committee Meeting)를 소집하여 전사에 미치는 영향이 큰 중대 리스크에 대해서 대응방안을 논의하고 관리하고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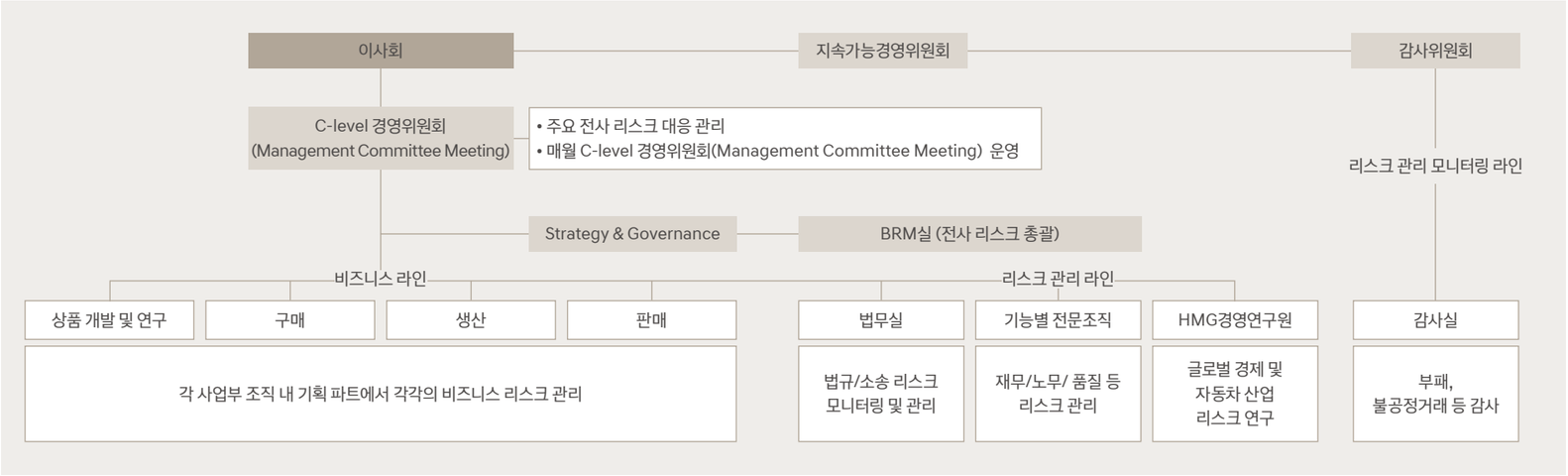
전담 조직 2023년 신설된 BRM(Business Risk Management)실이 전사 리스크 관리를 전담하고 있으며, 사업본부 내 선정된 리스크 관리 담당자들 중심으로 해당 본부 내 리스크를 전담 관리하고 있습니다.

감사 조직 감사위원회 내 감사실은 리스크 관리 및 컴플라이언스 프로세스의 효과성에 대한 독립적인 내부 감사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부패, 불공정 거래 등과 같은 리스크에 대한 내부 관리 체계에 대한 효과성, 컴플라이언스 프로세스 등에 대한 감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본부별 리스크 관리 현대자동차는 전사적 차원 외에도 본부별로 세분화된 리스크 관리 체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가치사슬별(연구개발-구매-생산-판매)로 구성된 본부 내 기획팀에서 리스크 담당자가 선정되어서 해당 본부 내 리스크를 식별하고 관리하고 있습니다. 판매의 경우 미주, 유럽, 인도 및 아시아, 중국 등 권역별로 조직이 구성되어 있으며, 권역 내 기획담당 조직에서는 해당 지역의 시장에서 발생되는 시장 리스크를 중점적으로 식별하고 관리하고 있습니다. 또한, 가치사슬별 사업본부와 독립적으로 운영되는 리스크 관련 조직에는 법규 및 소송 리스크를 관리하는 법무실, 재무·노무·품질 등을 관리하는 기능별 전문조직, 거시·미시 시장 리스크 분석을 담당하는 경영연구원이 있으며, 감사위원회 내 감사실에서는 부패, 불공정 거래 등 리스크들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현대자동차는 본부별 리스크 관리 체계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임직원 리스크 식별·보고 체계를 구축하였습니다. 확인된 리스크는 주·월·상시 리스크 및 업무 점검회의를 기반으로 식별·점검하며, 보고 및 선제 대응하는 순서로 관리합니다.

리스크 관리 체계



리스크 경영

리스크 대응 방향성

현대자동차는 점차 강화되고 있는 안전, 환경 규제에 대해 종합적인 대응 능력을 강화하고자 환경경영 강화, 제품 및 사업구조의 전동화 전환, 자원순환 체계 고도화, 안전경영 시스템 강화를 위해 노력해 왔으며, 글로벌 시장에 대한 정밀 분석을 통해 리스크 대응 체계를 발전시키고자 하는 의지를 보여왔습니다. 보다 효과적인 리스크 대응을 통해 지속가능한 성장의 방향으로 나아가고자 하는 현대자동차의 의지는 2024년 새롭게 수립된 자사의 경영 전략인 '2030 전략'과 현대자동차만의 업무 방식인 '현대 웨이(Hyundai Way)'에 반영되어 있습니다.

2030 전략은 지속 가능한 리더십을 확보하기 위해 불확실한 시장 환경 속에서 발생하는 리스크와 기회요인을 적극적으로 파악하고 기민하게 대응하기 위한 현대자동차만의 유연한 대응 체계이며, 모빌리티와 에너지라는 두 축을 중심으로 새로운 미래를 만들어 가기 위한 전략입니다. 현대자동차는 2030 전략을 기반으로 미래 리스크와 기회요인에 기민한 대응을 통해 완성차 제조를 넘어 다양한 모빌리티로의 확장을 추진해나갈 것이며 수소의 기회요인을 극대화하여 에너지 사업자의 역할도 강화해나갈 것입니다.

현대 웨이는 리스크와 기회요인을 대응하는 현대자동차만의 업무 방식으로 5개의 방향성과 10가지 방식(Way)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고객 최우선, 도전적 실행, 글로벌 지향, 소통과 협력, 인재 존중의 5가지 방향성은 리스크 및 기회요인의 대응 방향성을 제시하고 있으며 실제 업무에 있어서는 최고 수준의 안전과 품질, 집요함, 회복 탄력성, 데이터 기반 사고 등 10개의 방식은 임직원들이 리스크 및 기회요인을 대응함에 있어 갖추어야 할 자세와 원칙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리스크 점검 체계

현대자동차는 사업 전반에서 발생하는 리스크 요인을 선제적으로 파악하고 대응하기 위해 리스크 점검 체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전사 리스크 전담조직인 BRM(Business Risk Management)실이 리스크를 점검하고 식별된 리스크에 대한 현업 대응체계 및 수준을 점검하고 있습니다. 리스크 대응 체계가 미흡하거나 부재할 경우, 리스크 대응 내부 조직간의 R&R를 명확하게 하여 리스크 대응의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 외에도 발생가능성이 높고 재무에 미치는 영향력이 큰 중대 리스크를 선별하여 CEO를 포함한 C레벨 경영진으로 구성된 C-level 경영위원회(Management Committee Meeting)에서 매달(연간 12회) 점검하고 리스크로 인한 영향 분석결과에 대해 검토하며, 대응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특히 중대 리스크에 대한 신속한 대응이 미흡할 경우 사업활동 제약, 재무 손실 등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주요 리스크 사전 예방과 완화에 역량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또한 현대자동차 내 최고 의사결정기구인 이사회 산하 지속가능경영위원회는 주요 ESG 리스크와 당사 대응 과제에 대해 반기별로 보고받고 있으며, 대응 과제별 이행 현황을 모니터링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감사위원회 산하 감사실은 부패, 불공정 거래 등과 같은 리스크에 대한 내부 대응 체계를 정기적으로 최소 연간 2회 이상 감사하고 있는 등 효과적인 내부 리스크 점검 및 감사 체계를 구축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내부 점검·감사 체계 외에 내부 리스크 대응 전략 및 프로세스에 대해 최소 연간 2회 이상 컨설팅 기관을 통한 외부 검토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주요 리스크 지표 연동 보상 체계

CEO 등 C레벨의 경영진들의 KPI에 글로벌 손익 관리 등의 재무 리스크 지표들이 포함되어 있으며, 시장점유율, 신차 품질문제, 전기차 판매 목표 달성 여부 등 비재무적 리스크 지표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경영진의 KPI 지표를 바탕으로 매년 성과 평가가 시행되며, 그 결과는 경영진의 인센티브를 포함한 보수 체계와 연동됩니다.

특히 CFO의 경우 글로벌 손익 및 매출액, 현금 유동성 등 재무적 리스크 지표와 더불어 시장 점유율과 같은 시장 리스크 지표, 전기차 판매 확대, 가격 경쟁력(원가 절감), 주가 및 ESG 평가 등 비재무적 리스크 지표들도 CFO의 KPI에 반영되어 있습니다.

전기차 판매, 지역별 플릿 평균 탄소 배출량 또는 연비규제 준수, 미래사업 관련 인재 확보, 사업장별 온실가스 배출 목표 달성, 차량 리콜 등 주요 리스크 지표들이 각 유관 본부의 KPI에 반영되어 있습니다. 해당 본부의 성과 평가는 KPI 기반 평가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성과 평가결과는 본부장뿐 아니라 사업 본부 임원 평가에도 반영됩니다. 각 본부의 팀장 및 팀원의 성과평가 목표 입력 시 KPI 지표는 임원의 목표와 연계되어 해당 본부 임직원의 성과 및 보상체계와 직간접적으로 연계되어 있습니다.

제품 및 서비스 개발·승인 시 리스크 점검

현대자동차는 제품개발 및 승인 단계별 리스크 기준을 기반으로 제품 개발 리스크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특히 자동차 기본 성능 점검부터 실제 공장에서 대량 생산하는 각 과정에서 점검이 필요한 리스크들을 확인하고 해당 차종에 대한 차량 양산 투입을 결정하고 있습니다.

주요 리스크 점검 기준은 크게 연구소와 생산공장 측면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연구소 측면에서는 '제품 기능 오작동 리스크 확인 및 제거를 위한 연구소 내 Proto 차량 제작 및 검수'와 '차량 양산 가상환경 상에서 부품 조립 문제 발생 리스크 확인 및 제거'로 구분되며, 생산공장 측면에서는 '실제 공장 내 양산 환경 조건 상에서 부품 조립 문제 발생 리스크 확인 및 제거', '대량생산 시 발생 가능한 리스크 확인 및 제거'로 구분됩니다. 4가지 리스크 기준 점검 과정을 모두 거친 후 최종 차량 양산 투입을 결정하고 있습니다.

전사 리스크 교육

사외이사의 사업 이해도 증진 및 리스크 관리 관련 전문성 강화를 위해 매년 사업 현황, ESG 리스크, 다양성, 신사업 관련 리스크 등의 주제로 세미나 교육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2024년에는 현대자동차 리스크 대응체계 및 주요 리스크 관리 현황, 현대자동차그룹 수소 비전과 수소 비즈니스 전략, ESG정보공시 규제 심화에 따른 기업 차원 대응 방안, 규제 대응을 위한 공급망 인권 리스크 관리 필요성에 대한 교육을 진행했습니다.

현대자동차는 전체 임직원을 대상으로 2024년에 수립한 현대자동차의 미래 리스크 및 기회 요인에 대한 전사 대응 전략인 '2030 전략'과 현대자동차만의 업무 방식인 '현대 웨이'를 기반으로 리스크 대응 방향성을 교육하고 있습니다. 온라인 교육, 워크숍, 현대웨이 전사 모범사례 임직원 공유, 현대 웨이 우수 사원(Hyundai Hero) 포상 등 다양한 교육 방법을 기반으로 2030 전략과 현대 웨이를 국내외 임직원들에게 전파 및 내재화하고 있습니다. 이와는 별도로 2022년 이후 매년 정기적으로 회사 ESG 데이터를 제공하는 실무 담당자들 대상으로 외부 전문가를 초빙하여 새롭게 부각하는 ESG 이슈와 리스크에 대해서 세미나 형식의 교육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2024년에는 ESG 영역에서 최근 부각되어 있는 순환경제와 공정한 전환 이슈와 연계된 리스크에 대해 교육했습니다. 아울러 최신 주요 리스크 동향을 다룬 'Weekly B.I.Briefing(리스크 동향 보고서)' 등을 사내 인트라넷을 통해 공유하는 등 리스크 관리 교육을 활성화시키고 있습니다.

리스크 경영

주요 리스크 현황

리스크 선호도 결정 프로세스

현대자동차는 '리스크 식별 – 영향(중요도)/발생가능성 분석 – 우선순위 설정 – 리스크 선호도 결정–대응 추진'의 프로세스를 통해 회사를 둘러싼 리스크의 선호도를 결정하고 대응 전략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Strategy & Governance 내 BRM실의 자체 리스크 센싱 체계에서 식별된 주요 리스크들에 대해 재무적, 사업적 영향을 기반으로 영향(중요도) 및 발생 가능성을 분석/평가합니다.

이러한 분석/평가 결과 기반으로 대응 우선순위를 설정합니다. 우선순위가 높은 리스크에 대해서는 1) 현대자동차 비전과 목표, 미래 경영전략(2030 전략)과 부합성, 2) 시장 내 입지 및 재무적 능력을 포함한 리스크 감내 능력, 3) 잠재적 손실 또는 이득 규모 등의 3가지 원칙을 기반으로 리스크 선호도를 결정합니다.

규제 리스크

자동차 회사는 기업 활동에 대한 규제는 물론, 제품과 관련된 환경·안전·품질·인증 등에 있어 다양한 규제 리스크에 노출되어 있으며, 이러한 규제들은 사업활동뿐만 아니라 재무적 측면에서도 지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특히 주요국에서 시행되고 있는 플릿 평균 CO_2 배출규제 및 기업 평균 연비규제의 경우, 해당 국가의 탄소감축 목표 달성을 위해 지속적으로 강화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EU는 2023년 승용차 CO_2 배출량을 2030년까지 2021년 대비 55% 감축, 2035년에는 100% 감축하여 EU 내 차량 CO_2 배출량을 제로화하는 규제 목표를 확정한 바 있으며, 자동차업체들이 이를 충족하기 위해서는 전기차에 대한 전면적인 확대가 불가피한 상황입니다.

현대자동차는 주요국의 CO_2 배출규제 또는 연비규제 리스크를 사전 예방하기 위해 전기차 라인업과 판매를 지속적으로 강화하는 한편, 단기·중장기 판매물량 계획 시 전기차 물량을 포함한 규제 대응 물량을 산출하여 반영하고 있습니다.

지정·지경학적 리스크

2017년 한국정부의 사드 배치로 인한 한중갈등이 현대자동차 중국 판매에 심각한 타격을 준 사례와 같이, 주요국들의 정치·정책 변화와 연관된 리스크는 사업 활동과 재무에 지대한 영향을 주고 있어 선제적 대응이 중요합니다. 2025년 초 미국 트럼프 정부가 들어오면서 미국 정부의 정책 변화로 인한 리스크가 확대되고 있습니다. 특히 트럼프 정부는 중국 외에 캐나다, 멕시코, 유럽 등에 보편적 관세 부과, 자동차, 철강 등에 관세 부과를 추진 중이며 바이든 정부의 인플레이션법(IRA) 철회와 전기차 세제 혜택 폐지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미국 정부의 정책 변화는 현대자동차 사업 활동과 재무에 지대한 영향을 줄 것으로 전망됩니다.

현대자동차는 한국·미국·EU·중국 등 주요국의 정책과 정치적 리스크를 모니터링하는 전담 조직(PCO, Policy Coordination Office)을 중심으로 선제적으로 정치·정책 리스크를 파악하고 현대자동차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여 대응하고 있습니다.

소재·부품 조달 리스크

차량 반도체 공급 부족으로 자동차 회사의 생산 지연이 장기화된 사태와 같이 특정 부품의 수급불안이 전체 생산을 지연시키는 리스크로 확대될 수 있습니다. 또한 최근 원자재 및 에너지 가격 상승이 원가 상승을 초래하면서 수익성에도 부정적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특히 책임광물 소비가 내연기관차 대비 약 6배 많은 전기차의 경우, 최근 자동차업체들의 전기차 생산이 급증하면서 광물 수급 부족 등과 같이 공급 측면의 리스크도 심화되고 있습니다. 아울러 신규 광산 개발 증가로 인한 환경 및 인권 침해 사례가 증가하면서 책임 있는 광물 소싱에 대한 이해관계자 요구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현대자동차는 전략 소재와 부품에 대한 적정 재고 확보, 핵심 부품에 대한 내재화 추진, 전략 소재에 대한 직접 구매 확대 등을 통해 소재 및 부품 조달 리스크에 대응하고 있습니다. 또한 시황 변동 상시 모니터링과 손익 영향 자동 산출시스템을 구축하여 원자재 가격 변동으로 인한 손익 리스크에 대응하고 있습니다.

거시경제 리스크

자동차는 경기에 민감한 대표적인 소비재로 거시 경제적 리스크에 크게 영향을 받는 제품입니다. COVID-19로 인한 경기부진을 타개하기 위한 주요국들의 양적완화와 공급망 붕괴,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등이 물가급등을 초래하였으며, 미국을 중심으로 한 주요국들이 고물가 위기를 타개하기 위해 강도 높은 통화긴축 정책을 지속하면서 글로벌 경제는 '3고(고물가, 고금리, 고환율)' 영향을 크게 받았습니다. 이러한 정책으로 인해 주요국의 경기부진이 가시화되고 있으며 일부 국가는 마이너스 성장률을 기록하며 경기침체를 겪고 있습니다.

현대자동차는 거시경제 및 산업 리스크를 예측하고 분석하는 전문 조직(HMG 경영연구원)을 중심으로 신차 수요와 연관성이 높은 경기선행지표를 기반으로 경기순환주기와 신차 중장기 수요를 예측·분석하는 모형을 개발하여 경기로 인한 수요변화에 대한 예측력을 강화하였습니다. 또한, 미국 금리인상 가속화, 유럽 경기침체 현실화, 중국 경기불안 심화 등의 거시경제적 리스크가 동시 다발적으로 발생하는 상황을 가정하여 글로벌 경제위기 시나리오 분석을 시행하였습니다. 아울러 최악의 시나리오에 대비하여 생산·판매 조정, 새로운 대체시장 발굴, 신모델 출시 강화 등을 통해 거시경제적 리스크에 대응하고 있습니다.

주요 재무 리스크

주요 국가들의 금리 정책 변화로 인한 기업들의 자금 조달에 들어가는 이자비용의 변동성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미국달러 강세로 인해 주요국들의 화폐 가치도 지속적으로 하락세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특히 원달러 환율이 지속적으로 상승하는 등 금융시장 불안이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현대자동차는 주주이익의 극대화 및 자본비용의 절감을 위하여 최적의 자본구조를 유지하도록 관리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관련 리스크들에 대한 민감도, 스트레스 분석을 통해 시장 리스크(환·이자·가격), 신용 리스크, 유동성 리스크, 파생상품 리스크 등이 현대자동차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합니다. 또한, 식별된 리스크를 관리하기 위해 파생상품계약 등을 체결하여 리스크 회피수단으로 사용하고 있으며, 법인별 단기·중장기 차입금에 대한 부채비율을 지속적으로 점검하는 한편, 차입구조 효율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환 리스크 관련해서는 원화 절상 및 절하 시나리오별로 환 리스크를 파악하여 환헤지 확대, 환손실 만회 방안 등의 사전 대책을 수립하여 환율 변동으로 인한 재무 리스크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리스크 경영

주요 리스크 노출도 및 대응 현황

구분		주요 리스크 내용	리스크 노출도 평가		대응 조치
			발생 가능성[1]	크기[2]	
비재무 리스크	규제 리스크	환경, 안전 등을 포함한 제품과 사업장 관련 규제 리스크	중	상	차량 CO_2 규제 대응하여 사업계획에 규제대응 물량 반영 등
	지정·지경학적 리스크	미국, 유럽 등 주요국의 정책 변화로 인한 리스크	상	상	현지 생산비중 증대 및 자급자족적 현지 생산체계 구축 등
	거시 경제적 리스크	글로벌 경기 침체로 인한 신차 수요 감소 리스크	중	중	경기로 인한 수요변화 예측력 강화, 글로벌 경제 시나리오 분석 등
	소재·부품 조달 리스크	조달비 상승 리스크, 공급 지연·중단 리스크	중	상	전략 소재와 핵심 부품에 대한 적정 재고 확보, 핵심 부품 내재화 등
	운영 리스크	제품·기술개발, 생산, 판매 등과 연관된 리스크	중	하	각 본부별 기획부문에서 운영 리스크 파악/분석/대응
재무 리스크	환 리스크	주요 외화 시세 변동으로 인한 환 리스크	중	중	원화 절상·절하 시나리오별 분석 통해 환 리스크 관리 등
	금리 리스크	금리정책 변화로 인한 차입금에 대한 이자비용 변동	중	중	여유 유동성 보유법인 위주 차입 상환 등 금리상승 리스크 대응
	유동성 리스크	현금 유동성 부족 리스크	하	중	장단기 자금계획 정교화, 자금조달 체계 구축 등

1) 발생가능성((Likelihood) 평가 기준: 상(High) 50% 이상, 중(Medium) 25~50%, 하(Low) 25% 미만,
2) 크기(Magnitude) 평가 기준:
양적 평가: 비즈니스에 미치는 정량적 영향이 매출액 또는 당기순이익의 일정 수준의 영향을 주는지 여부
질적 평가: 비즈니스에 미치는 영향이 향후 전략 및 의사결정을 수반시키는지 여부

잠재 리스크

전기차 캐즘 현상으로 인한 차량 탄소 규제 리스크 증가

RISK CONTEXT

글로벌 전기차 시장은 2023년 말부터 일부 국가들의 전기차 보조금 삭감, 높은 전기차 가격과 부족한 충전인프라, 배터리 안전문제 등으로 인해 불확실성이 확대되며 캐즘을 겪고 있습니다. 캐즘이란 기술혁신 초기단계에서 시장이 급성장하다가 일정 시점에 성장이 정체되는 현상을 말합니다. 특히 중국과 함께 글로벌 전기차시장을 주도하던 EU 전기차시장은 캐즘 현상으로 인해 성장세가 둔화되고 있습니다. 유럽자동차제조업협회에 따르면, EU 전기차 시장은 '24년에 시장 규모가 전년대비 5.9% 감소하였고, 전기차의 전체 시장 점유율도 '23년 14.6%에서 '24년 13.6%로 줄어들었습니다. 이러한 EU 내 전기차 수요 감소는 자동차업체들의 EU 차량 탄소(CO_2) 규제 대응을 어렵게 하고 있습니다. EU는 승용차 CO_2 배출량을 '25년 '21년 대비 15% 감축, '30년 55% 감축에 이어 '35년 100% 감축하는 규제 목표를 확정하였습니다. 전문가에 따르면 '30년 규제 목표를 충족하기 위해 자동차업체는 EU 판매량의 80%를 전기차로 판매해야 합니다. 향후 자동차업체들이 EU에서 최대 160억 유로 규모의 벌금에 직면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현대자동차는 '24년 기준 EU에서 약 60.9만 대의 차량을 판매했으며, 이 중 전기차는 6.6만 대로 전체 판매량의 약 11%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전기차 캐즘은 중단기적으로 현대자동차의 전기차 판매량 둔화를 초래할 가능성이 있어 차량 탄소 규제 리스크를 증가시킬 수 있습니다.

HYUNDAI'S APPROACH

현대자동차는 캐즘 현상으로 인한 전기차 수요 둔화를 극복하고 향후 승용차 모델의 평균 CO_2 배출량을 낮추기 위해 두 가지 방향성을 중심으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우선 전기차 수요 둔화를 극복하기 위해 보급형(캐스퍼 EV) 전기차를 포함한 신규 전기차 모델 출시 등 전기차 라인업을 지속적으로 강화하는 한편 외부 충전이 필요 없는 주행거리 연장형 전기차(EREV : Extended Range Electric Vehicle)를 추가 투입할 예정입니다. 내연기관 차종의 평균 CO_2 배출량을 줄이기 위해서는 전기차 판매 확대와 더불어 CO_2 배출이 많은 차종에 하이브리드 모델을 확대할 예정입니다. 주로 준중형 및 중형 차급 중심으로 적용됐던 하이브리드 시스템을 CO_2 배출이 많은 대형 및 럭셔리 차급으로 확대하여 기존 7개 차종의 하이브리드 모델을 향후 14개 차종으로 확대 제공할 계획입니다. 특히 현대자동차의 판매차량 평균 CO_2 배출량 감축 폭을 둔화시키고 있는 제네시스의 경우 전기차 전용 모델을 제외한 전 차종에 하이브리드 모델을 제공할 예정입니다.

강제노동금지 규제 확산에 따른 리스크 증가

RISK CONTEXT

아동노동을 포함한 강제노동을 금지하는 규제가 EU, 미국, 캐나다 등 주요국 중심으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24년 3월, EU 이사회와 의회는 공급망을 포함한 제품 제조과정에서 강제노동과 결부된 제품에 대한 EU 역내 유통과 수입을 금지하는 규제인 강제노동금지법(AFLR, Anti-Forced Labor Regulation) 시행에 잠정 합의했으며, 2024년 12월 EU집행위원회는 해당 법규를 공식적으로 발효하였습니다. '27년말부터 법규가 시행될 예정입니다. '27년말 법규 시행 시 제품 업스트림 제조과정에서 강제노동에 연루됐다고 의심되는 제품은 기업이 소명할 때까지 EU 판매 및 수입 금지되며, 최종적으로 강제노동과의 연관성이 판정될 경우 기업 자체 비용으로 전량 회수 또는 폐기해야 합니다. 강제노동방지법을 미준수할 경우, EU 역내 판매·수출 중단 리스크는 물론 강제노동 의심 또는 판정 부품의 수입 중단으로 인한 EU 현지공장 생산 지연 및 중단 리스크 등이 우려됩니다.

현대자동차는 '24년 기준 EU에서 60.9만 대의 차량을 판매하고 있으며 EU판매차량(현지 생산물량과 국내 수출물량)이 EU 강제노동금지법에 직접적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앞서 '22년부터 위구르강제노동금지법(UFLPA, Uyghur Forced Labor Prevention Act)을 시행 중인 미국에서는 일부 글로벌 자동차업체의 일부 부품이 강제노동에 연루되었다는 의혹이 제기되어 해당 업체의 차량 수 천대의 통관 절차가 보류되었습니다.

HYUNDAI'S APPROACH

현대자동차는 EU, 미국, 캐나다 등으로 확산 및 강화되는 강제노동금지 규제에 대한 통합적 리스크 대응 체계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공급망 및 사업장의 인권 리스크 실사를 통해 잠재적인 위험을 사전에 식별하고 관리함으로써, 인권 존중 및 지속가능한 공급망 구축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공급망 내 강제 노동 리스크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2023년부터 법무실과 구매본부가 협력하여 외부 전문기관의 데이터베이스를 활용한 협력사 리스크 스크리닝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리스크 스크리닝을 통해 위험이 식별된 협력사에 대해서는 정기 모니터링, 추가 실사 등 후속 조치를 통해 공급망 내 인권 위험도를 신속하게 인지하고 대응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였습니다.

또한, 국내외 1차 및 주요 2차 협력사를 대상으로 매년 서면 진단 평가를 실시하고 있으며, 서면 평가 결과를 기반으로 고위험 협력사를 선정하여 현장 실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다층적인 접근 방식을 통해 공급망 전반의 인권 리스크를 효과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자사 사업장 및 자회사에 대해서는 강제 노동, 안전 보건, 윤리 경영, 환경 등 다양한 측면의 인권·환경 리스크 진단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진단 결과 개선이 필요한 사항이 발견된 사업장에 대해서는 개선 계획 수립 및 조치를 통해 지속적인 개선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조세 의무

조세 전략

현대자동차는 세무 리스크 관리가 지속가능경영의 선제 조건이며, 세법을 준수하는 것이 고객의 이익 확보, 주주의 이익 극대화 및 국가 재정 기여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음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당사는 납세자로서 납세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과세 관청의 공평 과세 원칙을 존중하고, 사업을 운영하는 현지 과세 당국이 제정한 조세 규정과 원칙을 준수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사회 및 감사위원회는 재무상태 및 재무성과, 내부회계관리제도를 정기적으로 검토 및 승인하고 있습니다.

현대자동차 조세 정책

조세 리스크 관리

현대자동차 조세 리스크 관리 정책의 핵심은 '엄격한 법규 준수'입니다. 당사는 투명한 조세문화를 형성하는 데 앞장서기 위해 과세 당국의 요청이 있을 시 사실관계 소명 및 증빙 제공에 성실하게 임하고 있습니다. 또한 상업적 실체가 없는 조세구조를 활용한 조세회피 행위 및 조세피난처 국가 이용을 엄격히 금지하고 있으며, 창출된 가치를 낮은 세금 관할 구역으로 이전하지 않습니다. 나아가 사전에 세무 리스크를 예방하기 위해 국가별 세법 차이 및 조세 제정 의도를 파악하고 분쟁 소지를 분석함으로써 글로벌 기업으로서 리스크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과세당국 간 과세권 경쟁으로 인한 이중 과세 리스크를 방지하기 위해 거래 시 정상가격원칙을 따르고 있습니다.

국가별 조세 보고[1)]

국가	한국	미국		독일	체코	튀르키예	인도	브라질	인도네시아	캐나다
법인명	1 현대자동차 주식회사 (HMC)	2 미국판매법인 (HMA)	3 미국생산법인 (HMMA)	4 유럽권역본부 (HME)	5 체코생산법인 (HMMC)	6 터키생산·판매법인 (HMTR)	7 인도권역본부 (HMI)	8 중남미권역본부 (HMCSA)	9 인도네시아생산법인(HMMI)	10 캐나다판매법인 (HACC)
주요 활동	완성차 제조 및 판매	완성차 및 부품 판매	완성차 및 부품 판매	마케팅 및 완성차 판매	완성차 및 부품 판매	완성차 및 부품 판매	완성차 제조 및 판매	완성차 제조 및 판매	완성차 제조 및 판매	완성차 제조 및 판매
총 임직원 수 (명)	75,819	1,282[2)]	4,305	283	2,823	2,446	10,190	3,249	1,855	278
매출액 (백만 원)	79,060,777	46,315,068	15,473,386	16,288,589	11,056,791	5,204,563	11,090,993	3,948,594	1,887,675	6,375,399
세전이익 (백만 원)	15,283,857	2,004,153	386,624	48,593	745,568	311,424	1,249,132	107,168	67,209	264,274
미지급법인세 (백만 원)	1,659,840	25,618	(2,779)[3)]	22,287	5,982	0	0	0	0	26,235
법인세비용 (백만 원)	3,043,322	458,228	71,863	24,326	175,324	65,530	323,439	26,265	783	70,178

1) 해당 재무정보는 별도재무제표 기준(내부거래 제거 전)이며, 전세계 주요 생산법인을 포함함(연결재무제표의 매출액 112%, 세전이익의 115% 수준)
2) 미국판매법인(HMA)은 북미권역본부(HMNA), 제네시스미국판매법인(GMNA)과 동일한 법인격을 공유하며, HMA의 임직원 수에는 HMNA 및 GMNA 인원이 포함됨
3) 선제 인식된 세액 대비 실제 납부세액이 많아 환급예상분으로 미지급법인세 마이너스 발생함

Sustainability Factbook

5.1 지표 및 데이터
5.2 Global Network
5.3 인증 및 특허 현황
5.4 GRI 인덱스
5.5 ESRS 인덱스
5.6 TCFD 인덱스
5.7 SASB 인덱스
5.8 WEF IBC Stakeholder Capitalism Metrics
5.9 제3자 검증의견서
5.10 온실가스 검증의견서
5.11 보고서 개요

지표 및 데이터

재무

요약 재무제표(연결)

구분		단위	2022	2023	2024	비고
재무상태						
	자산총계	십억 원	255,742	282,463	339,798	
	부채총계	십억 원	164,846	180,654	219,522	
	자본총계	십억 원	90,897	101,809	120,276	
재무성과[1]						
	매출액	십억 원	142,151	162,664	175,231	
	영업이익	십억 원	9,825	15,127	14,240	
	판매비와 관리비	십억 원	18,447	18,357	21,510	
	당기순이익	십억 원	7,984	12,272	13,230	연결당기순이익 비지배 지분 포함
수익성 지표[1]						
	영업이익률	%	6.9	9.3	8.1	
	순이익률	%	5.6	7.5	7.5	

1) 2023년 기말, Hyundai Motor Manufacturing Rus LLC (HMMR)이 처분 자산집단 및 중단영업으로 분류됨에 따라, 2022년도 데이터 재작성

요약 재무제표(별도)

구분		단위	2022	2023	2024	비고
재무상태						
	자산총계	십억 원	83,412	85,065	96,144	
	부채총계	십억 원	27,657	24,277	26,921	
	자본총계	십억 원	55,756	60,787	69,223	
재무성과						
	매출액	십억 원	65,308	78,034	79,061	
	영업이익	십억 원	2,829	6,671	6,599	
	판매비와 관리비	십억 원	9,342	9,600	11,728	
	당기순이익	십억 원	3,702	7,343	12,241	
수익성 지표						
	영업이익률	%	4.3	8.5	8.3	
	순이익률	%	5.7	9.4	15.5	

경제적가치 배분(연결)

현대자동차 감사보고서

구분		단위	2022	2023	2024	비고
합계		십억 원	96,741	113,645	115,982	
	배당금총액(주주 및 투자자)	십억 원	1,830	2,999	3,148	
	이자비용(주주 및 투자자)[1]	십억 원	523	558	451	연결재무제표 주석 중 '금융수익 및 금융비용' 참고
	종업원급여(임직원)[1]	십억 원	10,638	12,078	13,480	연결재무제표 주석 중 '비용의 성격별 분류' 참고
	원재료비(협력사)[1]	십억 원	80,682	93,205	94,516	연결재무제표 주석 중 '비용의 성격별 분류' 참고
	법인세(정부)[1]	십억 원	2,979	4,627	4,232	연결재무제표 주석 중 '법인세' 참고
	기부금(지역사회)[1]	십억 원	89	178	155	연결재무제표 주석 중 '기타수익/비용' 참고

1) 2023년 기말, Hyundai Motor Manufacturing Rus LLC (HMMR)이 처분 자산집단 및 중단영업으로 분류됨에 따라, 2022년도 데이터 재작성

경제적가치 배분(별도)

구분		단위	2022	2023	2024	비고
합계		십억 원	53,731	65,468	65,366	
	배당금총액(주주 및 투자자)	십억 원	1,830	2,999	3,148	
	이자비용(주주 및 투자자)	십억 원	190	116	112	재무제표 주석 중 '금융수익 및 금융비용' 참고
	종업원급여(임직원)	십억 원	7,007	7,861	8,559	재무제표 주석 중 '비용의 성격별 분류' 참고
	원재료비(협력사)	십억 원	44,184	52,031	50,405	재무제표 주석 중 '비용의 성격별 분류' 참고
	법인세(정부)	십억 원	474	2,332	3,043	재무제표 주석 중 '법인세' 참고
	기부금(지역사회)	십억 원	46	129	99	재무제표 주석 중 '기타수익/비용' 참고

지표 및 데이터

재무

연구개발 투자

구분	단위	2022	2023	2024	비고
연구개발비용 계	백만 원	3,340,589	3,973,573	4,589,424	
정부보조금	백만 원	(4,016)	(4,708)	(2,977)	
연구개발비/매출액 비율	%	2.3	2.4	2.6	연구개발비용 계/당기매출액 x 100

투자기여(연결)

구분	단위	2022	2023	2024	비고
총자본지출(CAPEX)	십억 원	3,879	6,455	7,252	본사 및 해외사업장 기준
감가상각비 (Depreciation)	십억 원	5,048	4,946	4,287	연결재무제표 주석 중 '비용의 성격별 분류' 참고
차액(자본지출-감가상각비)	십억 원	(1,169)	1,509	2,965	
자사주 매입	십억 원	193	0	232	
합계(배당금 지급+자사주 매입)	십억 원	2,023	2,999	3,380	

생산/판매

생산 현황

구분		단위	2022	2023	2024	비고
합계		대	4,000,294	4,289,776	4,146,335	
	국내	대	1,732,639	1,947,351	1,858,136	
	인도	대	706,000	765,000	767,000	
	중국[2]	대	255,000	241,300	165,338	
	미국	대	332,900	369,000	361,632	
	체코	대	322,500	340,500	330,890	
	러시아[2]	대	44,163	N/A	N/A	
	브라질	대	209,045	204,300	209,538	
	튀르키예	대	208,100	242,100	245,000	
	베트남[2]	대	63,020	46,835	55,251	
	인도네시아	대	82,500	79,580	85,750	
	싱가포르	대	N/A	581	640	
	기타[3]	대	44,427	53,229	67,160	

2) 중국/러시아: 승용 완성차 기준, 베트남: HTMV(승/상용)
3) 기타: HTBC(중국상용), HTCV(베트남상용), CKD(승/상용), 러시아상용 등

판매 현황

구분		단위	2022	2023	2024	비고
합계		대	3,942,922	4,216,898	4,141,959	
	국내	대	688,884	762,077	705,010	
	해외	대	3,254,038	3,454,821	3,436,949	

지표 및 데이터

Environmental (환경)[1)]

에너지 사용량

구분		단위	2022	2023	2024[2)]	비고
합계		MWh	7,580,603	7,544,671	7,273,062	
	전기(비재생)	MWh	3,376,795	3,259,913	3,059,868	
	전기(재생)	MWh	280,498	473,166	614,312	
	LNG	MWh	3,525,029	3,383,641	3,280,385	
	디젤, 등유, 휘발유	MWh	131,268	131,697	165,331	
	스팀, 열	MWh	94,027	102,349	106,244	
	기타 연료	MWh	172,986	193,905	46,922	프로판, 부탄 등
집약도		MWh/대	1.90	1.76	1.75	

1) 환경 데이터의 보고 범위는 국내 전 사업장 및 해외 12개 생산법인이며, 모든 대당 집약도는 생산대수 기준
2) HMGICS 사용량은 포함되지 않았으며, HMGICS의 2024년 사용량은 2025년 하반기 제3자 검증 예정

온실가스 배출량

구분		단위	2022	2023	2024[3)]	비고
Scope 1+2 합계		tCO_2-eq	2,404,069	2,275,751	2,097,809	2024년 배출 목표: 2,190,757 tCO_2-eq
	Scope 1	tCO_2-eq	719,949	696,590	679,822	
	Scope 2	tCO_2-eq	1,684,120	1,579,161	1,417,987	시장 기반 기준
Scope 1+2 집약도		tCO_2-eq/대	0.601	0.531	0.506	
Scope 3[4)]		tCO_2-eq	137,935,453	148,126,153	147,253,154	Scope 3 Category별 배출량은 p.39 참조

3) HMGICS 배출량은 포함되지 않았으며, HMGICS의 2024년 배출량은 2025년 하반기 제3자 검증 예정
4) 산정 방법론 변경으로 인해 2022~2023년 배출량 재산정

주요 원자재 사용량[5)]

구분	단위	2022	2023	2024	비고
철 사용량	톤	1,151,012	1,230,799	1,238,092	
철 스크랩	톤	388,900	410,665	407,423	
알루미늄 사용량	톤	146,270	156,930	138,184	
알루미늄 스크랩	톤	41,773	39,116	40,963	
철/알루미늄 사용 집약도	톤/대	0.324	0.323	0.332	

5) 일부 사업장이 철 사용량과 스크랩량의 과거 데이터를 수정하여, 사업장 합산 수치를 정정하여 공시함

용수 취수량[6)]

구분		단위	2022	2023	2024	비고
합계		톤	19,409,623	20,691,252	19,092,233	
	도시(공업)용수	톤	17,891,560	19,006,576	17,164,301	
	표층수	톤	1,089,350	1,204,112	1,462,944	
	지하수	톤	428,714	468,297	456,966	
	해수담수	톤	0	12,267	8,022	

6) 일부 사업장이 취수량의 과거 데이터를 수정하여 사업장 합산 수치를 정정해서 공시함

사업장유형/공급원별 취수량

구분		단위	2022	2023	2024	비고
생산공장 합계		톤	16,883,551	17,932,813	16,308,211	
	도시(공업)용수	톤	15,381,390	16,288,164	14,430,974	
	표층수	톤	1,089,350	1,204,112	1,462,944	
	지하수	톤	412,811	428,270	406,271	
	해수담수	톤	0	12,267	8,022	
연구소 합계		톤	1,759,529	1,992,256	2,054,039	
	도시(공업)용수	톤	1,759,529	1,992,256	2,054,039	
	표층수	톤	0	0	0	
	지하수	톤	0	0	0	
	해수담수	톤	0	0	0	
판매/서비스 합계		톤	238,879	246,475	250,057	
	도시(공업)용수	톤	238,879	225,189	226,269	
	표층수	톤	0	0	0	
	지하수	톤	0	21,286	23,788	
	해수담수	톤	0	0	0	
기타(본사,연수원) 합계		톤	527,664	519,709	479,926	
	도시(공업)용수	톤	511,761	500,968	453,019	
	표층수	톤	0	0	0	
	지하수	톤	15,903	18,741	26,907	
	해수담수	톤	0	0	0	

지표 및 데이터

Environmental (환경)

지역/공급원별 취수량[7)]

구분		단위	2022	2023	2024	비고
한국 합계		톤	12,891,157	14,219,435	12,677,526	
	도시(공업)용수	톤	12,870,446	14,175,433	12,620,005	
	표층수	톤	0	0	0	
	지하수	톤	20,711	44,002	57,521	
	해수담수	톤	0	0	0	
유럽 합계		톤	781,725	844,406	808,390	
	도시(공업)용수	톤	712,787	734,280	708,065	
	표층수	톤	0	0	0	
	지하수	톤	68,938	110,126	100,325	
	해수담수	톤	0	0	0	
미주 합계		톤	2,193,991	2,033,620	2,449,966	
	도시(공업)용수	톤	1,708,728	1,598,773	1,992,304	
	표층수	톤	146,198	120,679	158,542	
	지하수	톤	339,065	314,169	299,120	
	해수담수	톤	0	0	0	
아시아 합계		톤	3,542,751	3,593,791	3,156,352	
	도시(공업)용수	톤	2,599,599	2,498,091	1,843,928	
	표층수	톤	943,152	1,083,433	1,304,403	
	지하수	톤	0	0	0	
	해수담수	톤	0	12,267	8,022	

7) 지역 분류 기준을 변경함에 따라 재산정하여 공시함

용수 사용량[8)]

구분	단위	2022	2023	2024	비고
용수 사용량	톤	10,578,611	11,181,546	10,220,059	
용수 방류량	톤	8,831,012	9,509,706	8,872,174	
용수 재활용량	톤	2,284,150	2,631,445	2,928,451	
용수 재활용 비율	%	21.6	23.5	28.7	
용수 사용량 집약도	톤/대	2.64	2.61	2.46	

8) 용수 사용량은 취수량에서 방수량을 뺀 값이며, 일부 사업장이 취수량의 과거 데이터를 수정하여 사업장 합산 수치를 정정하여 공시함

오염물질 배출량

구분		단위	2022	2023	2024	비고
대기오염물질 합계[9)]		톤	1,977	1,661	1,832	
	SOx	톤	314	71	70	
	NOx	톤	754	508	599	
	먼지	톤	910	1,082	1,163	
대기오염물질 집약도		kg/대	0.494	0.387	0.442	
수질오염물질 합계[9)]		톤	827	841	822	
	TOC(COD)	톤	655	648	628	
	BOD	톤	122	125	138	
	SS	톤	50	68	56	
수질오염물질 집약도		kg/대	0.207	0.196	0.198	
VOCs 및 THC		톤	8,322	9,204	8,398	VOCs(Volatile Organic Compounds): 휘발성 유기화합물
VOCs 및 THC 배출량 집약도		kg/대	2.08	2.15	2.03	THC(Total Hydrocarbon): 총 탄화수소
유해화학물질 사용량[10)]		톤	11,524	9,316	9,184	

9) 일부 사업장이 대기(NOx)와 수질(TOC/BOD)오염물질의 과거 데이터를 수정하여 사업장 합산 수치를 정정해서 공시함
10) 유해화학물질의 경우 특정 유해화학물질(NaOH, HCl 등) 사용량에서 사업장 소재 국가가 지정한 유해화학물질 사용량으로 지표 정의를 변경하여 재산정함

폐기물 발생량[11)]

구분		단위	2022	2023	2024	비고
합계[12)]		톤	649,173	1,047,968	929,013	
	일반 폐기물	톤	533,696	571,322	557,142	
	지정 폐기물	톤	40,553	43,123	55,241	
	건설 폐기물	톤	74,924	433,523	316,630	
폐기물 배출 집약도[13)]		톤/대	0.018	0.016	0.019	
폐기물 재활용량		톤	578,957	978,312	849,485	
폐기물 재활용 비율		%	89.2	93.4	91.4	

11) 일부 사업장이 폐기물 발생량의 과거 데이터를 수정하여 사업장 합산 수치를 정정해서 공시함
12) 2023년 이후 국내 신공장(전기차 공장, 하이퍼 캐스팅 공장) 건설 추진과 해외 기존 공정 용도 변경 등으로 폐기물 발생이 증가함
13) 총 폐기물에서 재활용량을 뺀 폐기물 배출량의 대당 실적으로 기재함

지표 및 데이터

Environmental (환경)

폐기물 유형별 처리방식별 처리량[14)]

구분		단위	2022	2023	2024	비고
일반 폐기물		톤	533,696	571,322	557,142	
	소각 (열회수)	톤	11,862	14,079	16,207	
	소각 (열미회수)	톤	6,291	6,520	6,270	
	매립	톤	20,686	19,311	20,603	
	재활용	톤	487,346	526,257	506,472	
	기타	톤	7,511	5,155	7,590	생분해 등
지정 폐기물		톤	40,553	43,123	55,241	
	소각 (열회수)	톤	13,284	13,850	18,017	
	소각 (열미회수)	톤	2,310	2,232	2,134	
	매립	톤	1,290	1,886	2,407	
	재활용	톤	16,811	19,246	26,508	
	기타	톤	6,857	5,909	6,175	생분해 등
건설 폐기물		톤	74,923	433,522	316,630	
	소각 (열회수)	톤	0	0	0	
	소각 (열미회수)	톤	0	0	0	
	매립	톤	120	710	121	
	재활용	톤	74,800	432,809	316,506	
	기타	톤	3	3	3	생분해 등

14) 일부 사업장이 폐기물의 과거 데이터를 수정하여 사업장 합산 수치를 정정하여 공시함

환경투자 및 녹색구매

구분	단위	2022	2023	2024	비고
환경투자 비용[15)]	억 원	5,061	8,611	9,716	
녹색구매 실적[16)]	억 원	12	5,653	6,599	

15) 전동화 차량 개발비와 사업장 환경개선 시설 투자비 포함 (단, 사업장 환경개선 투자비의 경우 국내 사업장만 포함)
16) 녹색구매 실적은 환경마크 등 친환경 인증을 취득한 제품의 구매 실적이며 현대자동차는 내부 녹색구매지침을 기반으로 환경마크 인증 제품, 우수 재활용 마크 제품, 유해물질 저감 제품 등 친환경 인증 제품을 구매하고 있음

친환경차 매출 비율[17)]

구분		단위	2022	2023	2024	비고
합계		%	17.3	21.6	22.3	관리회계 기준 총 매출 대비 비율
	EV	%	8.5	9.9	7.4	
	HEV	%	6.5	9.7	13.1	
	PHEV	%	1.7	1.6	1.2	
	FCEV	%	0.6	0.4	0.6	

17) 친환경차 기준: EV, HEV, PHEV, FCEV

Full-LCA 수행 차종 판매 비율

구분	단위	2022	2023[18)]	2024[19)]	비고
합계	%	25.03	40.90	62.20	판매대수(선적) 기준

18) 2023년 LCA 인증 제품 매출 비율: 투싼 ICE (10.2%), 아반떼 ICE (5.0%), 코나 Electric (0.5%), 아이오닉 6 (1.9%)
19) 2024년 LCA 인증 제품 매출 비율: 투싼 ICE (9.1%), 아반떼 ICE (4.5%), 코나 Electric (1.6%), 아이오닉 6 (1.0%)

지표 및 데이터

Social (사회)

지역별/성별 인력 현황(국내/해외, 국가별)

구분			단위	2022	2023	2024	비고
국내 합계			명	73,431	74,203[1]	75,819	2024년 12월 31일, 직접 고용 인원 수 기준 (본사 소속 해외 파견 인원 수 포함)
	남성		명	68,809	69,076	70,114	
	여성		명	4,622	5,127	5,705	
해외 합계			명	52,638	50,706	50,588	
	남성		명	45,045	42,797	42,108	
	여성		명	7,593	7,909	8,480	
	미주 합계		명	18,229	19,389	18,805	
		남성	명	14,798	15,518	14,603	
		여성	명	3,431	3,871	4,202	
	유럽 합계		명	10,010	7,655	7,654	2023년 러시아 공장 철수로 대규모 인력 감소 발생[2]
		남성	명	8,447	6,328	6,256	
		여성	명	1,563	1,327	1,398	
	- EEA 합계		명	N/A	N/A	4,589	EEA(European Economic Area)[3] 인력 현황은 2024년부터 집계
		남성	명	N/A	N/A	3,789	
		여성	명	N/A	N/A	800	
	중국 합계		명	9,340	7,745	7,606	
		남성	명	7,695	6,160	6,041	
		여성	명	1,645	1,585	1,565	
	인도 합계		명	9,976	10,935	11,475	
		남성	명	9,688	10,599	11,039	
		여성	명	288	336	436	
	기타 합계		명	5,083	4,982	5,048	
		남성	명	4,417	4,192	4,169	
		여성	명	666	790	879	

1) 2023년 국내 본사 소속 해외 파견 인원수 미반영 사항 정정 공시
2)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로 인한 러시아 공장 사업 철수로 인해 대규모 인력 감소 발생
단, '희망 퇴직' 절차를 통해 감축대상 인원 총 1,700여명 전원 '자발적 희망퇴직' 완료 (연봉 1년치+근속연수에 따른 급여 보상을 희망 퇴직 위로금으로 제공)
3) EEA(European Economic Area)는 유럽연합(EU)과 유럽자유무역연합(EFTA)의 일부 국가가 합쳐 구성된 경제협력지역으로 해당 인력 현황은 2024년부터 집계

직군별 인력 현황

구분		단위	2022	2023	2024	비고
합계		명	126,069	124,909	126,407	
	임원	명	758	792	813	임원 직급 중 연구위원 13명 제외
	연구위원	명	20	20	13	
	연구직	명	17,216	18,245	20,008	
	사무직	명	25,613	24,248	25,645	
	기술/생산/정비직	명	66,384	64,381	61,856	
	영업직	명	7,330	7,503	7,186	
	기타직	명	8,748	9,720	10,886	자문역, 별정직, 촉탁 등

국적별 인력 현황(국내 기준)[4]

구분		단위	2022	2023	2024	비고
합계		명	73,395	74,160	75,753	
총 관리직 수		명	17,060	18,024	18,955	
대한민국		명	73,325	74,077	75,647	
	관리직	명	17,004	17,961	18,887	총 관리직 대비 99.64%
미국		명	42	48	63	
	관리직	명	34	38	40	총 관리직 대비 0.21%
캐나다		명	8	15	17	
	관리직	명	7	12	14	총 관리직 대비 0.07%
중국		명	9	10	12	
	관리직	명	6	6	6	총 관리직 대비 0.03%
독일		명	11	10	14	
	관리직	명	9	7	8	총 관리직 대비 0.04%

4) 인원 수 기준 상위 5개 국적별 인원 수

연령별 인력 현황

구분		단위	2022	2023	2024	비고
합계		명	126,069	124,909	126,407	
	30세 미만	명	26,249	26,979	27,564	
	30세 이상 ~ 50세 미만	명	65,028	62,376	64,402	
	50세 이상	명	34,792	35,554	34,441	

지표 및 데이터

Social (사회)

성별 인력 현황

구분	단위	2022	2023	2024	비고
합계	명	758	792	813	
여성 임원	명	50	59	64	
국내	명	17	21	21	
미주	명	19	26	27	
유럽	명	5	6	8	
중국	명	6	5	3	
인도	명	0	0	1	
기타	명	3	1	4	
남성 임원	명	708	733	749	
여성 임원 비율	%	6.6	7.4	7.9	여성 임원 / 총 임원 수 * 100
남성 임원 비율	%	93.4	92.6	92.1	남성 임원 / 총 임원 수 * 100
합계	명	126,069	124,909	126,407	
여성 임직원	명	12,215	13,036	14,185	여성 임원 + 직원
국내	명	4,622	5,127	5,705	
북미	명	3,431	3,871	4,202	
유럽	명	1,563	1,327	1,398	
중국	명	1,645	1,585	1,565	
인도	명	288	336	436	
기타	명	666	790	879	
남성 임직원	명	113,854	111,873	112,222	남성 임원 + 직원
여성 임직원 비율	%	9.7	10.4	11.2	여성 임직원 수 / 총 임직원 수 *100
남성 임직원 비율	%	90.3	89.6	88.8	남성 임직원 수 / 총 임직원 수 *100

구분	단위	2022	2023	2024	비고
총 여성 임원(최고 관리자) 수	명	50	59	64	
총 여성 임원(최고 관리자) 비율	%	6.6	7.4	7.9	총 여성 임원 수 / 총 임원 수
총 관리자 수	명	23,713	26,477	27,990	관리자: 책임급 이상 전체
총 여성 관리자 수	명	2,155	2,759	3,277	
총 여성 관리자 비율	명	9.1	10.4	11.7	총 여성 관리자 수 / 총 관리자 수
국내 관리자 수	명	17,088	18,043	18,502	
여성	명	1,071	1,360	1,576	
해외 관리자 수	명	6,625	8,434	9,488	
여성	명	1,084	1,399	1,701	
총 하급 관리자 수	명	17,416	20,140	21,604	하급 관리자: 책임급 이상 중 비보직자
총 여성 하급 관리자 수	명	1,603	2,276	2,642	
총 여성 하급 관리자 비율	명	9.2	11.3	12.2	
국내 하급 관리자 수	명	13,470	14,327	15,207	
여성	명	939	1,198	1,408	
해외 하급 관리자 수	명	3,946	5,813	6,397	
여성	명	664	1,078	1,234	
수익창출 부서 임직원 수[5]	명	117,489	120,020	120,452	
여성	명	9,695	12,278	13,254	
수익창출 부서 여성 임직원 비율	%	8.3	10.2	11.0	
STEM 직책 임직원 수[6]	명	59,344	56,262	61,396	
여성	명	2,590	3,000	3,216	
STEM 직책 여성 임직원 비율	%	4.4	5.3	5.2	

5) 수익 창출 부서 기준: 기획, 상품, R&D, 구매, 생산, 판매, 마케팅, 품질, 서비스 등 비즈니스 관련 부문
6) STEM(과학, 기술, 공학 및 수학) 인원 기준: R&D, 구매, 공장-일반/연구직, 품질, ICT 등 과학/기술/공학/수학 관련 부문

지표 및 데이터

Social (사회)

장애인 근로자 현황

구분		단위	2022	2023	2024	비고
합계		명	N/A	N/A	1,932	
	국내	명	1,920	1,701	1,530	12월 신고 인원 기준 (한국장애인고용공단)
	해외	명	N/A	N/A	402	해외 장애인 임직원 수 2024년부터 집계
장애인 고용률		%	N/A	N/A	1.62	장애인 근로자 수 / 총 임직원 수 * 100
	국내	%	2.82	2.50	2.19	장애인 근로자 수 / 국내 상시 근로자 수 * 100
	해외	%	N/A	N/A	0.79	장애인 근로자 수 / 총 해외 임직원 수 * 100

소속 외 근로자 현황(국내 기준)

구분		단위	2022	2023	2024	비고
합계		명	4,756	4,688	4,615	사업보고서 기준
	남성	명	2,482	2,438	2,310	
	여성	명	2,274	2,250	2,305	

교육 현황(국내 기준)

구분			단위	2022	2023	2024	비고
교육대상 인원 수			명	72,257	73,020	74,586	12월 31일 기준 (해외 주재원 제외)
총 교육비용			억 원	636	806	851	
인당 교육 비용			만 원	86.6	108.7	112.2	총 교육비용 / 전체 인원 수
	직급별						
		최고관리자	만 원	399.6	323.8	122.0	
		중간관리자, 신입사원, 비관리직	만 원	86.2	109.2	114.0	
	성별						
		남성	만 원	86.7	108.6	113.6	
		여성	만 원	107.6	134.5	119.9	
	연령별						
		30세 미만	만 원	77.9	106.1	118.0	
		30세 이상 ~ 50세 미만	만 원	150.4	179.3	128.1	
		50세 이상	만 원	29.9	38.8	95.7	
인당 교육 시간			시간	33.8	46.7	40.8	직원에게 제공한 총 교육시간 / 전체 인원 수
	직급별						
		최고관리자	시간	32.4	33.5	30.1	직급별 총 교육시간 / 직급별 인원 수
		중간관리자, 신입사원, 비관리직	시간	34.3	47.5	41.6	
	성별						
		남성	시간	33.2	45.6	40.7	
		여성	시간	50.9	72.0	51.1	
	연령별						
		30세 미만	시간	62.8	77.5	65.4	
		30세 이상 ~ 50세 미만	시간	38.8	52.8	44.1	
		50세 이상	시간	21.7	31.2	28.2	
인당 교육 일수			일	4.2	5.8	5.1	인당 교육시간 / 8시간 (1일 근로시간 8시간 적용)

지표 및 데이터

Social (사회)

노동조합 가입 현황(국내 기준)

구분	단위	2022	2023	2024	비고
가입대상 인원 수[7]	명	44,554	43,092	42,220	
가입인원 수	명	42,296	40,985	39,662	매년 12월 말 기준
가입 비율	%	94.9	95.1	93.9	

7) 2024년부터 가입대상 인원수 재정의하여 공시: (기존) 총 종업원 수 → (변경) 단체협약에 근거한 조합원 가입 대상 인원 수.

파업 발생 현황

구분	단위	2022	2023	2024	비고
총 파업발생 건수[8]	건	0	1	2	
파업으로 인한 근로손실일수	일	0	1	2	1천명 이상의 근로손실 발생일 기준

8) 금속노조 주관 정치 파업. 통상 교섭시 쟁의권을 획득하고 시행한 파업이 아닌 정치 파업 2건 참여. 단, 단체교섭 관련 파업 실적 없음.(6년 연속 무분규 타결 달성)

육아휴직 현황(국내 기준)[9]

구분		단위	2022	2023	2024	비고
육아휴직 사용 인원 수		명	688	661	639	당해 육아휴직을 사용한 근로자 (휴직 연장 포함으로 기준 변경)
	남성	명	350	301	292	
	여성	명	338	360	347	
육아휴직 사용 비율		%	17	16	15	당해 출생일로부터 1년 내 자녀가 있는 근로자 중 당해 출산 이후 1년 내 육아휴직을 사용한 근로자의 비율
	남성	%	8	7	7	
	여성	%	93	96	91	
복귀율						당해 복직예정자 중 당해 복직한 인원 비율 (휴직 연장 인원은 복직예정자에서 제외로 기준 변경)
	남성	%	96.5	95.4	97.4	
	여성	%	98.3	98.0	98.5	
유지율						직전 해 육아휴직 복귀 인원 중 '12개월 이상' 근속한 인원 비율[10]
	남성	%	94.3	97.3	96.6	
	여성	%	96.0	94.7	97.5	

9) 변경된 기준에 따라 과거 데이터 소급 적용하여 과거 데이터 재작성함(2024년부터 사업보고서 내 육아휴직 현황 공시 의무화 → 사업보고서 및 SR 공시 기준 일원화)
10) 육아휴직 유지율 기준 변경내용: '복귀 후 당해년도 말 재직 중 인원'에서 '복귀 후 12개월 이상 근속 인원'으로 기준 변경

신규 채용 현황

구분		단위	2022	2023	2024	비고
합계		명	23,018	25,419	23,631[11]	
성별						
	남성	명	20,344	22,467	20,228	
	여성	명	2,674	2,952	3,403	
연령대별						
	30세 미만	명	13,939	16,551	14,531	
	30세 이상 ~ 50세 미만	명	6,624	5,900	5,293	
	50세 이상	명	2,455	2,968	3,807	
국적별(국내 기준)						인원 수 기준 상위 5개 국적별 인원 수
	한국	명	8,110	10,741	11,056	
	미국	명	4	9	10	
	캐나다	명	1	5	4	
	영국	명	0	0	3	
	중국	명	1	1	2	

11) 글로벌 수요 감소로 인한 신규 채용 및 자연퇴직자 대체 충원 축소

내부 충원 현황(국내 기준)

구분	단위	2022	2023	2024	비고
내부충원 비율	%	92.0	96.4	96.5	사내공모 및 전보 포함, T/O 대비 배치 비율

청년인턴 고용 현황(국내 기준)

구분	단위	2022	2023	2024	비고
총 고용인원 수	명	120	117	176	인턴 / 연구인턴 / 채용전환형 인턴 / 체험형 인턴
정규직 전환율	%	30.0	41.0	49.4	2024년 채용 전환 인원 수: 87명

지표 및 데이터

Social (사회)

이직률

구분	단위	2022	2023	2024	비고
연초 임직원 수	명	118,042	121,608	120,233	
국내	명	66,523	70,902	69,645	당해년도 1월 31일 기준
해외	명	51,519	50,706	50,588	당해년도 12월 31일 기준
총 이직률	%	11.4	10.8	9.5	
자발적 이직률[12]	%	6.8	5.6	4.3	
국내 이직률	%	5.5	5.4	4.9	
성별					
남성	명	3,499	3,694	3,294	
여성	명	144	122	123	
연령대별					
30세 미만	명	150	524	140	
30세 이상 ~ 50세 미만	명	400	385	197	
50세 이상	명	3,093	2,907	3,080	
직급					
최고관리자	명	95	8	35	
중간관리자	명	103	540	574	2023년부터 하급관리자를 중간관리자에 포함
비관리직	명	3,445	3,268	2,808	
국내 자발적 이직률[12]	%	0.94	0.81	0.39	
해외 이직률	%	19.0	18.3	15.7	
성별					
남성	명	8,567	8,213	5,863	
여성	명	1,206	1,078	2,089	
해외 자발적 이직률[12]	%	14.0	12.4	10.3	

12) 자발적 이직: 정년퇴직 혹은 해고 등의 사유가 아닌 임직원 본인의 자발적 이유로 이직하는 경우

성별 임금 현황(2024년)

구분	단위	남성	여성	비고
임직원 평균 총급여[13]	백만 원	125	112	
성별 임금 격차				
경영진				
평균 기본급	원	363,768,905	353,370,350	
평균 총급여[13]	원	462,844,708	495,780,348	
관리직				일반/연구직 책임급
평균 기본급	원	99,801,021	91,792,429	
평균 총급여[13]	원	157,774,933	138,780,973	
직원				일반/연구직 매니저급
평균 기본급[14]	원	58,953,220	61,249,004	

13) 기본급 및 성과급 등을 포함한 연간임금총액
14) 급여 및 상여 포함

조직문화 진단

구분	단위	2022	2023	2024	비고
직원 참여도	%	72.9	79.8	81.1	
직원 만족도(진단 결과)	점	72.9	76.6	79.4	

정기 성과평가 적용 비율

구분	단위	2022	2023	2024	비고
전체 적용 비율[15]	%	N/A	N/A	100	2024년부터 공시
남성	%	N/A	N/A	100	남성 적용 인원 수 / 남성 임직원 수
여성	%	N/A	N/A	100	여성 적용 인원 수 / 여성 임직원 수

15) 일부 예외자 제외 (계약직, 신규 입사자 등)

지표 및 데이터

Social (사회)

사회공헌

구분		단위	2022	2023	2024	비고
유형별 지출						
	현금 기부	백만 원	44,998	125,133	94,221	
	현물 기부	백만 원	2,925	4,546	5,246	
	임직원 봉사	백만 원	832	911	1,249	임직원 봉사 시간의 금전적 가치 환산[16]
	경영 비용	백만 원	10,466	14,929	20,655	
영역별 지출						
	지역사회 투자	백만 원	39,506	113,358	86,067	
	단순 기부	백만 원	6,632	15,424	12,620	
	상업용	백만 원	12,251	15,826	21,435	
권역별 지출						
	국내	백만 원	58,389	144,608	120,122	
	해외	USD	22,394,209	27,896,064	33,153,512	
임직원 자원봉사 실적(국내 기준)						
	봉사횟수	회	627	613	1,074	
	봉사인원	명	5,592	7,436	8,207	
	봉사시간	시간	15,016	19,005	19,345	

16) 임직원 연간 봉사시간 x 임직원 평균 시급(평균연봉 / 연간근무일수 / 시간)

기부/출연/후원단체

구분		단위	2022	2023	2024	비고
기부금/출연금 유형별 지출 합계		백만 원	5,180	6,009	4,674	
	협회 및 비과세 단체	백만 원	5,180	6,009	4,674	산업 유관 협회·단체
	로비 및 이익 단체	백만 원	0	0	0	
	정치 기부금	백만 원	0	0	0	
	기타	백만 원	0	0	0	
주요 후원 단체별 지출						
	자동차부품산업진흥재단	백만 원	3,300	10,972	12,794	
	한국자동차모빌리티산업협회	백만 원	2,178	2,453	2,360	
	한국자동차연구원	백만 원	332	230	237	
	한국수소연합	백만 원	200	200	200	
	한국교통장애인협회	백만 원	100	100	120	

품질

구분		단위	2022	2023	2024	비고
품질지수(JDPower 설문조사 기준)						
	미국 내구품질지수(현대)	순위 (점수)	일반 3위 (148점)	일반 6위 (170점)	일반 9위 (198점)	
	미국 신차품질지수(현대)	순위 (점수)	일반 12위 (185점)	일반 10위 (188점)	일반 3위 (162점)	
	미국 내구품질지수(제네시스)	순위 (점수)	고급 1위 (155점)	고급 2위 (144점)	고급 5위(200점)	
	미국 신차품질지수(제네시스)	순위 (점수)	고급 1위 (156점)	고급 5위 (176점)	고급 3위(184점)	
품질관리 시스템 인증		%	100	100	100	국내·외 전 사업장 ISO 9001 인증

고객만족

구분		단위	2022	2023	2024	비고
고객만족도 조사 결과						
	고객만족도 – 현대고객경험지수(HCXI)	점수	72.1	72.2	71.0	판매/정비 1:1 가중치 부여
	외부기관 평가 – 국가고객만족도(NCSI)	순위	전 부문 1위	전 부문 1위	전 부문 1위	준중형, 중형, 준대형, 대형, 컴팩트RV, 대형RV, 전기차
	외부기관 평가 – 한국품질만족지수(KS-QEI)	순위	전 부문 1위	10개 부문 1위 (총 14개 부문)	12개 부문 1위 (총 14개 부문)	럭셔리세단E세그, 중형, 대형SUV, 전기차, 자동차AS 등 12개 부문
	외부기관 평가 - 한국산업의 고객 만족도(KCSI)	순위	전 부문 1위	전 부문 1위	전 부문 1위	승용, RV, 경형, 전기차
	국내 정비서비스 만족도(HCXI)	점수(순위)	71.8(1위)	72.5(1위)	73.0(1위)	직영/블루핸즈 1:1 가중치 부여
	해외 판매 고객 만족도(NPS)	점수(실시국가)	87.7(35개국)	90.6(35개국)	93.8(34개국)	
	해외 정비서비스 만족도(NPS)	점수(실시국가)	77.5(35개국)	78.8(35개국)	82.3(34개국)	

지표 및 데이터

Social (사회)

안전보건

구분		단위	2022	2023	2024	비고
임직원 사망 사고자 수		명	1	2	2	
사내 협력사[17] 사망 사고자 수		명	0	0	0	
산업재해자 수 합계		명	508	593	561	업무 상 질병 146건, 업무 관련 사망사고 1건
	국내	명	478	559	483	
	해외	명	30	34	78	
산업재해율 합계		%	0.55	0.58	0.56	
	국내	%	0.81	0.93	0.80	
	해외	%	0.07	0.08	0.20	
임직원 LTIFR[18]		건수/백만 근로시간	1.94	1.89	1.90	국내(울산/아산/전주공장) 및 해외생산법인 기준 근로자가 6개월 내에 사고 이전과 동일한 상태로 회복할 수 없는 부상 건수 60건
사내 협력사 LTIFR[18]		건수/백만 근로시간	1.53	1.05	1.01	
임직원 OIFR[19]		건수/이십만 근로시간	0.53	0.77[21]	0.67	
임직원 TRIR[20]		건수/이십만 근로시간	N/A	0.97	1.79	2023년부터 집계
사내 협력사 TRIR[20]		건수/이십만 근로시간	N/A	0.23	0.20	2023년부터 집계

17) 현대자동차 사업장 내 상주 협력사
18) 근로손실재해율(LTIFR, Lost-Time Injuries Frequency Rate) = (사고성재해건수x1,000,000) ÷ 연 근로시간
19) 직업성질환발생률(OIFR, Occupational Illness Frequency Rate) = (직업 관련 질병 발생 건수)/(총 작업시간) x 200,000
20) 총기록가능한산업재해율(TRIR, Total Recordable Incident Rate) = (기록 가능한 사고 건수)/(총 작업시간) x 200,000
21) 근로시간 집계 오류로 인해 2023년 데이터 정정공시함

Governance (지배구조)

준법교육

구분		단위	2024	비고
총 교육 횟수		회	54	
지역별				
	국내 교육	회	41	
	해외 교육	회	13	
교육 주제별				
	특별 준법교육	회	25	공정거래 포함, 해외법인 포함
	상시 준법교육	회	29	신임 임원, 신규입사자, 경력입사자, 주재원 등 대상
교육 방식별 총 횟수				
	온라인	회	11	
	오프라인	회	43	
교육 방식별 시간				
	온라인	시간	14	
	오프라인	시간	45	
준법 리스크 중점 모니터링 교육		명	395	구매본부 대상 하도급법 기술자료 관련 대면교육

주요 법규/규칙 위반[1]

구분		단위	2022	2023	2024	비고
개인정보 사고 건수[2]		건	0	0	2[3]	2024년에 발생한 사고는 0건
정보보안 사고 건수		건	0	0	0	
표시/광고 위반 건수		건	0	0	0	
환경 관련 과태료 및 벌금[4]	환경 관련 위반 건 수	건	0	1[5]	2[6]	
	과태료 및 벌금	백만 원	0	4,023	45,724	

1) 법규 및 규칙 위반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사업보고서 'XI. 그 밖에 투자자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 3. 제재 등과 관련된 사항'을 참고
2) 규제기관(개인정보보호위원회, 방송통신위원회 등)으로부터 현대자동차㈜로 과태료·과징금·시정조치 등 처분 받은 사례를 기준으로 산정함
3) 2022년 7월 침해사고 1건과 9월 유출사고 1건 발생했으며, 2건에 대해 2024년 8월 개인정보보호위원회로부터 행정처분 받아 10월에 과태료 납부를 완료함
4) US$10,000 이상의 환경법규 위반 건수만 포함됨
5) 미국 판매(HMA) 및 연구법인(HATCI) 판매 차량 제어기 변경 인증 자진 신고 누락으로 벌금을 지불했고, 재발방지 위해 제어기 변경 신고 프로세스 및 업무 매뉴얼을 개선함
6) 독일(2024년 5월), 한국(2024년 7월)에서 환경 관련 건으로 아래와 같이 벌금을 지불함
- 독일 : 유럽(HME)과 독일판매법인(HMD), 유럽연구법인(HMETC)의 관리 감독 의무를 소홀히 한 과실로 인한 일부 디젤차량의 실도로에서 Euro 5, 6b 기준대비 배출가스 초과 배출로 독일 질서위반법 위반으로 질서위반금(약 2,989만 유로)을 지불함. 조사를 통해 고의성은 없었음을 확인받았으며, 재발 방지 위해 내부 기술 컴플라이언스 체계를 강화함.
- 한국 : 울산공장은 대기환경보전법과 환경 분야 시험/검사 등에 대한 법률 위반으로 벌금(3천만 원)을 지불함. 재발 방지 위해 환경 전문기관 컨설팅 실시로 문제 진단/개선방안 도출 및 환경법규 준수 프로세스 강화 등을 시행함

Global Network

현대자동차는 해외 주요시장에 생산공장과 판매법인, 연구소 등을 운영하고 있으며, 글로벌 판매 네트워크를 통해 전 세계 고객에게 자동차와 함께하는 행복한 삶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권역본부

7 개

생산

14 개

판매

26 개

연구

9 개

기타

18 개

* 인도권역본부, 중남미권역본부 : 생산, 판매 통합(단일) 법인

인증 및 특허 현황

사업장별 인증 현황 (ISO Certification)

구분		인증 유효 기간	비고
ISO 14001 (환경경영)	국내 사업장(울산공장/아산공장/전주공장/ 남양연구소/본사/국내사업본부)	2024년 - 2026년	국내사업장 통합 인증
	미국생산법인(HMMA)	2024년 - 2026년	
	북경현대기차유한공사(BHMC)	2024년 - 2027년	
	인도생산법인(HMI)	2023년 - 2026년	
	브라질생산법인(HMCSA)	2024년 - 2027년	
	체코생산법인(HMMC)	2024년 - 2027년	
	튀르키예생산법인(HMTR)	2024년 - 2027년	
	인도네시아생산법인(HMMI)	2022년 - 2025년	
	현대상용기차(중국)유한공사(HTBC)	2023년 - 2026년	
	싱가포르글로벌혁신센터(HMGICS)	2023년 - 2026년	
	베트남생산법인(HMTV)	2024년 - 2027년	
	HTWO광저우법인	2024년 - 2027년	
	멕시코 생산법인(HYMEX)	2024년 - 2027년	
ISO 45001 (안전보건경영)	국내사업장(울산공장/아산공장/전주공장/ 남양연구소/마북연구소/의왕연구소/판교연구소/ 본사/국내사업본부/국내하이테크센터)	2024년 – 2027년	국내사업장 통합 인증
	미국생산법인(HMMA)	2024년 – 2026년	
	북경현대기차유한공사(BHMC)	2024년 – 2027년	
	인도생산법인(HMI)	2023년 - 2026년	
	브라질생산법인(HMCSA)	2024년 - 2027년	
	체코생산법인(HMMC)	2024년 - 2027년	
	튀르키예생산법인(HMTR)	2024년 – 2027년	
	인도네시아생산법인(HMMI)	2022년 - 2025년	
	현대상용기차(중국)유한공사(HTBC)	2023년 - 2026년	
	싱가포르글로벌혁신센터(HMGICS)	2023년 – 2026년	
	베트남생산법인(HMTV)	2024년 – 2025년	
	HTWO광저우법인	2024년 – 2027년	
	멕시코 생산법인 (HYMEX)	2024년 - 2027년	

구분		인증 유효 기간	비고
ISO 27001 (정보보안경영)	국내 사업장	2024년 - 2027년	
ISO 9001(품질경영)	국내·외 사업장	2024년 - 2027년	
ISO 50001 (에너지경영)	북경현대기차유한공사(BHMC)	2025년 - 2028년 (인화/양진공장)	
	인도생산법인(HMI)	2024년 - 2027년	
	튀르키예생산법인(HMTR)	2025년 - 2027년	
	인도네시아생산법인(HMMI)	2023년 - 2026년	

국내외 특허 현황

지표명		단위	2022	2023	2024
특허보유 건수(누적)		건	35,772	37,788	39,385
신규특허 출원(연도별)	총 신규특허 출원 수	건	7,729	6,853	7,436
	미래기술 (자율주행, 커넥티비티)	건	780	729	799
	환경기술[1](전동화, 수소에너지, 재활용, 바이오 소재, CCUS[2])	건	2,194	1,702	2,151
	기타	건	4,755	4,422	4,486

1) 환경기술: 탄소중립 실현 위한 친환경 기술을 구분하여 집계
2) CCUS: Carbon Capture, Utilization and Storage

GRI 인덱스

Universal Standards

GRI Standards		Page	Note
No.	Title		
2-1	조직의 세부정보	144	
2-2	조직의 지속가능성보고에 포함된 기업	144	사업보고서 p.479-484
2-3	보고기간과 빈도, 그리고 연락처	144	
2-4	정보의 재기술	45-46, 115-118, 121	
2-5	외부 검증	137-143	
2-6	활동, 가치사슬 그리고 기타 비즈니스 관계	3-4, 14	
2-7	고용 유형별 임직원, 그리고 성별/지역별 현황	118-120	
2-8	임직원이 아닌 근로자	120	
2-9	지속가능경영에 대한 책임이 있는 거버넌스 구조 및 구성	9-10, 97-101	
2-10	거버넌스 기구의 임명 및 선정	97	
2-11	최고 거버넌스 기구의 의장	97	
2-12	지속가능경영에 대한 영향을 관리하는 최고 거버넌스 기구의 역할	9-10, 22, 101	
2-13	지속가능경영에 대한 영향을 관리하는 책임의 위임	9-10, 22, 101	
2-14	지속가능성 보고에 대한 최고 거버넌스 기구의 역할	101	
2-15	이해충돌 방지 및 완화를 위한 장치	97, 100	
2-16	중요 이슈에 대한 최고 거버넌스의 의사소통	98	
2-17	최고 거버넌스 기구의 지식, 기술 및 경험 향상	10	
2-18	최고 거버넌스 기구의 성과평가	99	
2-19	최고 거버넌스 구성원 및 고위 임원진에 대한 보상 정책	17, 99	
2-20	최고 거버넌스 구성원 및 고위 임직원에 대한 보수 결정 프로세스	100	
2-21	연간 총 보상의 비율	99	
2-22	지속가능경영 전략 성명서	3-4	
2-23	책임 있는 비즈니스 활동을 위한 정책적 약속	20, 47, 53-54, 74, 104-105	
2-24	책임 있는 비즈니스 활동을 위한 정책적 약속 통합 및 이행 방법	20, 56-57, 70, 74	
2-25	조직이 기여한 것으로 확인된 부정적 영향을 해결하기 위한 프로세스	21, 56-57, 70, 77	
2-26	책임 있는 비즈니스 활동을 위해 우려를 제기할 수 있는 프로세스	13, 21, 57, 77, 104-105	
2-27	법·규정에 대한 컴플라이언스	124	
2-28	가입 협회	123	
2-29	이해관계자 참여에 대한 접근방식	12-13	
2-30	단체협약에 포함되는 전체 근로자 수 및 비율	121	
3-1	중요 이슈를 결정하는 프로세스	14	
3-2	중요 이슈 목록	15-17	
3-3	중요 이슈 관리	15-17, 61, 69-73, 74, 82, 83-85	

Topic Specific Standards - Economic

GRI Standards		Page	Note
No.	Title		
201-1	직접적인 경제적 가치 창출과 배분	113	
201-2	기후변화의 재무적 영향과 사업활동에 대한 위험 및 기회	22-38	
201-3	확정급여제도와 기타 퇴직제도	62	
201-4	정부로부터 받은 재정적 지원	114	
202-1	주요 사업장이 위치한 지역의 최저 임금과 비교한 성별 기본 초임 임금 비율	122	
202-2	주요 사업장이 위치한 현지에서 고용된 고위 경영진의 비율	118	
203-1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투자와 지원 서비스의 개발 및 영향	123	
203-2	중요한 간접적 경제 효과	123	
205-1	부패 위험을 평가한 사업장의 수 및 비율, 파악된 중요한 위험	104-106	
205-2	반부패 정책 및 절차에 대한 공지와 훈련	104-106	
205-3	확인된 부패 사례와 이에 대한 조치	104-106	
206-1	경쟁저해행위, 독과점 등 불공정 거래행위에 대한 법적 조치	-	
207-1	세금에 대한 접근법	111	
207-2	조세 거버넌스, 통제 및 리스크 관리	111	

GRI 인덱스

Topic Specific Standards - Environmental

GRI Standards		Page	Note
No.	Title		
301-1	사용 원재료의 중량이나 부피	45, 115	
301-2	재생 원재료 사용 비율	45	
301-3	재생 원료 사용 제품 및 포장재 비율	-	
302-1	조직 내부 에너지 사용량	45, 115	
302-2	조직 외부 에너지 사용량	39	
302-3	에너지 사용량 집약도	39, 115	
302-4	에너지 소비 절감	24-25	
303-1	공유 자원으로서의 용수 활용	45-46, 134	
303-2	폐수 관련 영향에 대한 관리	-	
303-3	용수 취수량	45, 115-116	
303-4	용수 방류량	45, 115-116	
303-5	용수 사용량	45, 115-116	
304-1	생물다양성 가치가 높은 구역 또는 주변지역에 소유, 임대, 관리 중인 사업장	-	
304-2	활동, 제품, 서비스가 생물다양성에 미치는 중대한 영향	47-49	
304-3	보호 또는 복원된 서식지	47-49	
304-4	사업으로 인해 영향을 받는 지역에 서식하는 IUCN 적색목록 종과 국가보호종	49	

GRI Standards		Page	Note
No.	Title		
305-1	직접 온실가스 배출량(Scope 1)	39-40, 115	
305-2	간접 온실가스 배출량(Scope 2)	39-40, 115	
305-3	기타 간접 온실가스 배출량(Scope 3)	39-40, 115	
305-4	온실가스 배출량 집약도	39, 115	
305-5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	24-34	
305-7	질소산화물(NOx), 황산화물(SOx) 그리고 다른 주요 대기오염물질 배출량	116	
306-1	폐기물 발생 및 폐기물 관련 주요 영향	43-46	
306-2	폐기물 관련 주요 영향 관리	43-46	
306-3	폐기물 발생량 및 종류	117	
306-4	폐기물 재활용 현황	46, 117	
306-5	매립 외 기타 폐기물 처리 현황 (에너지 회수 여부)	117	
308-1	환경 기준 심사를 거친 신규 공급업체	75-76	
308-2	공급망 내 부정적인 환경적 영향 및 이에 대한 조치	76	

GRI 인덱스

Topic Specific Standards - Social

GRI Standards		Page	Note
No.	Title		
401-1	신규채용자 수 및 이직자 현황	121-122	
401-2	임직원 복리후생 제도	61-67	
401-3	육아휴직 사용, 복귀, 유지	63, 121	
403-1	안전보건경영시스템 구축	69	
403-2	안전보건 위험성 평가, 산업재해 조사	69-72	
403-3	안전보건 개선 활동	63, 69-70	
403-4	근로자 대상 안전보건 커뮤니케이션	69-73	
403-5	근로자 대상 안전보건 교육 및 훈련	70-73	
403-6	근로자 건강증진 프로그램	70	
403-7	사업운영과 직결된 안전보건 영향 예방 및 완화	70-73	
403-8	안전보건경영시스템 적용 대상 근로자	69	
403-9	임직원, 협력사 재해 및 부상발생 현황	124	
403-10	임직원, 협력사 질병발생 현황	124	
404-1	임직원 1인당 평균 교육 시간	120	
404-2	임직원 역량 강화 및 전환 지원을 위한 프로그램	58-60, 62	
404-3	업무성과 및 경력개발에 대한 정기적 피드백을 받은 근로자 비율	122	

GRI Standards		Page	Note
No.	Title		
405-1	범주별 거버넌스 기구 및 근로자의 구성 현황	98	
405-2	남성 대비 여성의 기본급 및 보상 비율	64, 122	
406-1	차별 사건 및 이에 대한 조치	57, 105	
407-1	결사 및 단체교섭의 자유 침해 위험이 있는 사업장 및 공급업체	55, 76	
408-1	아동 노동 발생 위험이 높은 사업장 및 공급업체	55, 57, 76	
409-1	강제 노동 발생 위험이 높은 사업장 및 공급업체	55, 57, 76	
411-1	원주민 권리 침해 사건 수	-	침해 사례 없음
413-1	지역사회 참여, 영향평가 그리고 발전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 사업장	12, 47-49, 90-93, 123	
414-2	공급망 내 부정적인 사회적 영향 및 이에 대한 조치	76	
415-1	국가별, 수령인 및 수혜자별 기부한 정치자금의 규모	123	정치자금 기부 사례 없음
416-1	제품 및 서비스의 안전보건 영향평가	84-85	
416-2	제품 및 서비스의 안전보건 영향에 관한 규정 위반 사건	84-85, 124	
417-1	정보 및 라벨을 위해 필요한 제품 및 서비스 정보 유형	88	
417-2	제품 및 서비스 정보와 라벨링에 관한 법률규정 및 자율규정을 위반한 사건	124	위반 사례 없음
417-3	마케팅 커뮤니케이션과 관련된 규정 위반	124	위반 사례 없음
418-1	고객 개인정보보호 위반 및 고객 데이터 분실과 관련하여 제기된 불만 건수	124	

ESRS(European Sustainability Reporting Standards) 인덱스

ESRS 2. 일반 공시 (General Disclosures)

Indicator No.	Title	Page
ESRS 2 BP-1	지속가능성보고서 작성 기준, 보고 기간, 보고 범위 및 경계	144
ESRS 2 BP-2	지속가능성 정보에 포함된 추정·가정·외부자료, 정보의 변경과 오류에 관한 사항	29, 39, 45, 46, 113, 115-118, 121, 124
ESRS 2 GOV-1	최고의사결정기구의 구성 현황, 영향·위험·기회 요인을 관리·감독하는 책임과 역할	9-10, 22, 97-101
ESRS 2 GOV-2	최고의사결정기구가 보고·심의·의결한 지속가능성 영향·위험·기회 요인	98, 101
ESRS 2 GOV-3	최고경영진을 포함한 경영층의 성과평가지표(KPIs)에 포함된 지속가능성 주제	10, 17, 21, 40, 70
ESRS 2 GOV-4	지속가능성 리스크 진단 및 실사를 관장하는 거버넌스, 진단 및 실사 방법과 절차	53-56, 75-76
ESRS 2 GOV-5	지속가능성 정보공시 과정 및 결과로 인한 리스크, 해당 리스크의 개선 및 완화방안[1]	-
ESRS 2 SBM-1	시장 여건 및 영업의 개황, 사업전략, 사업모델, 가치사슬의 주요 특징	6-7, 26-27
ESRS 2 SBM-2	조직의 사업운영 관련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반영하는 절차와 방식	12-13
ESRS 2 SBM-3	지속가능성 이슈가 조직의 사업전략 및 사업모델에 미치는 영향·위험·기회	14-16
ESRS 2 IRO-1	지속가능성 이슈의 영향·위험·기회를 식별 및 평가하는 프로세스	14
ESRS 2 IRO-2	지속가능성보고서 내 ESRS 정보공개 요구사항을 다루는 위치	130-132

1) 국내외 전 사업장의 ESG 데이터 취합-검수-공시 효율성 및 신뢰성 확보 위해, 2022년부터 IT 시스템 기반의 'ESG 플랫폼' 운영

ESRS E1. 기후변화 (Climate Change)

Indicator No.	Title	Page
ESRS E1-1	기후변화 완화를 위한 전환 계획	34
ESRS E1-2	기후변화 완화 및 적응에 관한 조직의 정책	20, 24-34
ESRS E1-3	기후변화 완화 및 적응에 관한 조직의 계획, 자원, 예산	24-26, 31-34, 40
ESRS E1-4	기후변화 완화 및 적응과 관련한 조직의 목표	21, 24-26, 34, 40-41
ESRS E1-5	에너지원별 사용량, 매출액 기준 에너지 사용량 원단위(집약도)	115
ESRS E1-6	Scope 1, 2, 3 및 총 온실가스 배출량, 매출액 기준 온실가스 배출량 원단위(집약도)	39, 115
ESRS E1-7	사업장 및 공급망 탄소 감축량, 외부 프로젝트로 획득한 배출권	16, 33
	제품·서비스 탄소 회피량	15, 28
ESRS E1-8	내부탄소가격 설정과 활용·적용 현황[2]	-
ESRS E1-9	중대한 물리·전환 위험으로 인한 재무영향, 기회요인으로 인한 재무영향	23, 35-38

2) 내부탄소가격은 배출권거래제(ETS) 가격과 연동하여 산정하며, 에너지 효율성 향상, 저탄소 전략·투자 추진, 저탄소 사업기회 발굴 및 포착 등에 활용

ESRS E2. 오염 (Pollution)

Indicator No.	Title	Page
ESRS E2-1	환경오염 예방 및 통제에 관한 조직의 정책	20, 46
ESRS E2-2	환경오염 예방 및 통제에 관한 조직의 계획, 자원, 예산	21, 46
ESRS E2-3	환경오염 저감과 관련한 조직의 목표	50
ESRS E2-4	토양오염물질, 수질오염물질, 대기오염물질 배출량	50, 116
ESRS E2-5	(고위험성, 잠재적 우려) 유해물질 사용량, 유해물질 포함 제품·서비스 매출 비중	116
ESRS E2-6	환경오염 사고 등 위험요인의 재무영향, 환경오염 관리에 따른 기회요인의 재무영향	21, 124

ESRS(European Sustainability Reporting Standards) 인덱스

ESRS E3. 수자원 및 해양자원 (Water and Marine Resources)

Indicator No.	Title	Page
ESRS E3-1	수자원 및 해양자원 보호·관리에 관한 조직의 정책	20, 45-46
ESRS E3-2	수자원 및 해양자원 보호·관리에 관한 조직의 계획, 자원, 예산	21, 33, 45-46
ESRS E3-3	수자원 및 해양자원 보호·관리 관련 조직의 목표	46
ESRS E3-4	용수 취수량, 사용량, 방류량, 재사용 또는 재활용량과 원단위(집약도)	45, 115-116, 135
ESRS E3-5	수자원 및 해양자원 관련 위험, 기회요인으로 인한 재무영향	21

ESRS E4. 생물다양성 및 생태계 (Biodiversity and Ecosystems)

Indicator No.	Title	Page
ESRS E4-1	생물다양성 및 생태계 복원을 위한 중장기 전환 로드맵[3]	-
ESRS E4-2	생물다양성 및 생태계 복원에 관한 조직의 정책	20, 47
ESRS E4-3	생물다양성 및 생태계 복원 관련 조직의 계획, 자원, 예산	48
ESRS E4-4	생물다양성 및 생태계 복원 관련 조직의 목표[3]	48
ESRS E4-5	생물다양성에 영향을 미치는 사업장, 영향을 받는 생물 종 및 개체, 보호 및 복원 활동	48-49
ESRS E4-6	생물다양성 및 생태계 관련 위험, 기회요인으로 인한 재무영향	21

3) 현대자동차 '생물다양성 보호 정책', '산림파괴 예방 정책'을 통해 중장기 지향점과 활동 및 성과목표 제시

현대자동차 생물다양성 보호 정책 현대자동차 산림파괴 예방 정책

ESRS E5. 자원사용 및 순환경제 (Resource Use and Circular Economy)

Indicator No.	Title	Page
ESRS E5-1	자원사용 및 순환경제에 관한 조직의 정책	20, 42-44
ESRS E5-2	자원사용 및 순환경제에 관한 조직의 계획, 자원, 예산	42-44
ESRS E5-3	자원사용 및 순환경제 관련 조직의 목표	42-44, 46
ESRS E5-4	재활용 가능/불가능 원재료 투입량, 재사용/재활용 소재 사용량	45, 115
ESRS E5-5	회수 및 재활용 가능한 제품·서비스 생산량, 소각/매립/재활용 등 유형별 폐기물 처리량	43, 116-117
ESRS E5-6	자원사용 및 순환경제 관련 위험, 기회요인으로 인한 재무영향	21

ESRS S1. 직접 근로자 (Own Workforce)

Indicator No.	Title	Page
ESRS S1-1	근로자의 노동·인권에 관한 조직의 정책	54
ESRS S1-2	영향에 대해 노동자 및 노동자 대표와 소통하기 위한 프로세스	61, 69
ESRS S1-3	부정적 영향 개선 프로세스와 노동자가 우려사항을 제기할 수 있는 창구	57, 61, 104
ESRS S1-4	노동자에 대한 중대한 영향에 대한 조치와 노동자 관련 중대한 위험 완화 및 중대한 기회 추구를 위한 접근 방식, 이러한 조치의 효과	54-73
ESRS S1-5	노동자에 대한 중대한 부정적 영향 관리, 긍정적 영향 개선, 중대한 위험 및 기회 관리 관련 목표	54, 69
ESRS S1-6	기업 내 노동자 특성	118-119
ESRS S1-7	기업 내 비정규직 노동자 특성	120
ESRS S1-8	단체교섭을 적용받는 근로자 비율, 단체협약을 적용받지 않을 경우의 사유와 조치	61, 121
	파업 건수, 파업으로 인한 손실 일수, 파업 해결을 위한 조치 및 협의 등	121
ESRS S1-9	성별 근로자의 평균 시급 차이, 남성 대비 여성 시급 비율	122
	가족돌봄휴가(출산 및 육아휴가 등) 대상자, 휴가 사용자, 휴가사용 복귀 후 유지율	121
ESRS S1-10	공정임금을 산정하는 방법론, 공정임금 이하로 급여를 지급받는 근로자 비율[4]	62, 122
ESRS S1-11	정부 및 조직의 사회보장 프로그램을 적용받지 못하는 근로자 비율	62
ESRS S1-12	장애인 고용 비율, 성별 장애인 근로자 수	120
ESRS S1-13	성과평가 및 경력개발 리뷰를 받은 근로자 비율	58, 122
	근로자 1인당 평균 교육시간 및 교육비용	120
ESRS S1-14	안전보건경영시스템(자체, 제3자 검토, 제3자 인증) 적용받는 근로자 비율	69, 126
	부상 및 질병 발생 건수, 부상발생률, 질병발생률, 근로손실일수 등	124, 136
ESRS S1-15	일과 삶의 균형 지표	62-63, 121
ESRS S1-16	최고수준의 급여를 받는 개인 대비 근로자 급여 중간값 비율	99
ESRS S1-17	근로자의 노동·인권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리스크 및 조치 건 수	55-56, 70-73
	근로자의 노동·인권 관련 제보의 접수, 조사, 조치 및 재발방지 계획 수립 건 수	55-56, 70-73

4) 국내외 사업장이 위치한 현지 법률의 최저임금 이상을 급여로 책정하며, 근무시간에 따라 산출된 정확한 임금을 정해진 일자에 정기적으로 지급

ESRS(European Sustainability Reporting Standards) 인덱스

ESRS S2. 가치사슬 노동자 (Workers in the Value Chain)

Indicator No.	Title	Page
ESRS S2-1	근로자의 노동·인권에 관한 조직의 정책	73-74, 79
ESRS S2-2	근로자의 노동·인권 영향에 대해 근로자 또는 근로자 대표와 협의하는 절차	74, 76-78
ESRS S2-3	근로자 또는 근로자 대표가 노동·인권 관련 중대한 위험을 제보할 수 있는 채널[5]	77
ESRS S2-4	중대한 위험과 영향을 조치 및 완화하는 방식, 해당 조치 및 완화의 효과	74-82
ESRS S2-5	중대한 위험과 영향 관리에 관한 조직의 목표	74

5) 현대자동차그룹 투명구매실천센터를 통해, '투명/윤리 실천 건의함', '2·3차 협력사 소리함'을 운영

ESRS S3. 지역사회 영향 (Affected Communities)

Indicator No.	Title	Page
ESRS S3-1	지역사회 환경·안전·보건·인권 영향에 관한 조직의 정책	90
ESRS S3-2	조직의 활동으로 인해 영향을 받는 지역사회와 소통하는 절차	12
ESRS S3-3	지역사회가 부정적 영향을 제보할 수 있는 채널, 해당 제보사항에 대응하는 절차	12
ESRS S3-4	지역사회에 대한 중대한 영향을 조치 및 완화하는 방식, 해당 조치 및 완화의 효과	90-93
ESRS S3-5	지역사회에 대한 중대한 위험과 영향 관리에 관한 조직의 목표	90-93

ESRS S4. 고객 및 소비자 (Consumers and End Users)

Indicator No.	Title	Page
ESRS S4-1	고객 및 소비자의 권리존중과 피해보상에 관한 조직의 정책	86-87
ESRS S4-2	조직의 제품·서비스로 인해 영향을 받는 고객 및 소비자와 소통하는 절차	84-87
ESRS S4-3	고객 및 소비자가 제품·서비스 사용 고충, 피해, 부정적 영향을 제보할 수 있는 채널	84-86
ESRS S4-4	고객 및 소비자의 고충, 피해, 영향을 조치 및 완화하는 방식, 해당 조치 및 완화의 효과	84-86
ESRS S4-5	고객 및 소비자의 고충, 피해, 영향 관리에 관한 조직의 목표[6]	-

6) 고객 및 소비자 서비스 품질 향상을 위해 '정비역량 강화', '우수인력 확보', '정비규정 운영'의 3대 방향에 따른 활동 지속 추진

ESRS G1. 행동 강령 (Business Conduct)

Indicator No.	Title	Page
ESRS G1-1	최고의사결정기구의 윤리경영 선언, 관리·감독에 관한 책임과 역할	10, 101, 104
	윤리헌장 및 실천규범 등의 요구사항	104
ESRS G1-2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 운영, 상생결제시스템 등 대금지급 개선 활동	82, 106
	협력사 ESG 리스크 진단·실사, 협력사 선정 기준 내 진단·실사 결과 반영[7]	74-76
ESRS G1-3	비윤리행위 근절 및 사전예방 활동, 조사 및 내부보고 체계	104-105
	불공정거래 근절 및 사전예방 활동, 조사 및 내부보고 체계	104-105
ESRS G1-4	혐의가 확인된 비윤리행위 건 수, 사법기관 조사 건 수, 인사조치 받은 근로자 수	105
	혐의가 확인된 불공정거래 건 수, 사법기관 조사 건 수, 인사조치 받은 근로자 수	105
ESRS G1-5	정당, 캠프, 기타 정치적 단체별 후원금액, 후원목적 및 관련 활동[8]	123
ESRS G1-6	구매 협력사 대상 평균 결제일, 평균 결제일에 대한 조직의 방침	82

7) 기술·품질·납입 수준을 평가하여 우수 협력사를 인증하는 '5스타 제도'를 운영하며, ESG 및 안전·환경·보안 등에 대한 평가결과를 거래조건에 반영
8) 현대자동차 '반부패/뇌물정책'에 따라 자선적 기부 및 후원은 내부 집행기준과 절차에 따라 공정하게 추진하며, 정치적 목적의 기부 및 후원은 금지

현대자동차 반부패/뇌물정책

TCFD 인덱스

Disclosure Focus Area	Title	Page	Note[1]
지배구조	기후변화와 관련된 위험과 기회에 대한 이사회의 감독	9, 22	이사회 산하 위원회인 '지속가능경영위원회'에 보고 및 검토 CDP 연계 문항: 4.1.2
	기후변화와 관련된 위험과 기회를 평가하고 관리하는 경영진의 역할	9, 22	C-level 경영위원회(Management Committee Meeting)를 통해 추진방향 및 실행계획 논의, 이행현황 및 성과 점검 CDP 연계 문항: 4.3
전략	조직이 단기, 중기 및 장기간에 걸쳐 파악한 기후변화와 관련된 위험과 기회	23, 35-38	CDP 연계 문항: 2.1, 3.1, 3.1.1, 3.6, 3.6.1
	기후변화와 관련된 위험과 기회가 조직의 사업, 전략 및 재무 계획에 미치는 영향	23, 35-38	CDP 연계 문항: 3.1.1, 3.6.1, 5.1.2, 5.2, 5.3.1, 5.3.2, 5.14, 5.14.1
	2°C 이하의 시나리오를 포함하여 다양한 기후변화와 관련된 시나리오를 고려한 조직 전략의 회복탄력성	35-39	CDP 연계 문항: 5.1, 5.1.1, 5.1.2
위험관리	기후변화와 관련된 위험을 식별하고 평가하기 위한 조직의 프로세스	39	CDP 연계 문항: 2.1, 2.2.1, 2.2.2, 2.2.5, 2.2.6, 2.2.8, 2.2.9
	기후변화와 관련된 위험을 관리하기 위한 조직의 프로세스	24, 39	CDP 연계 문항: 2.1, 2.2.1, 2.2.8, 2.2.9
	기후변화와 관련된 위험을 식별, 평가 및 관리하는 프로세스가 조직의 전반적인 위험 관리에 통합되는 방식	9, 39, 107	CDP 연계 문항: 2.1, 2.2.1
지표와 감축목표	조직이 전략 및 위험 관리 프로세스에 따라 기후변화와 관련된 위험과 기회를 평가하기 위해 사용한 지표	6, 25-34, 115	에너지 사용량, 차량 판매 현황, 매출액 등 CDP 연계 문항: 7.5.2, 7.54, 7.54.1, 7.54.2
	Scope 1, Scope 2 그리고 Scope 3 온실가스 배출량 및 관련 위험	39, 115	CDP 연계 문항: 7.6, 7.7, 7.8, 7.8.1, 12.1, 12.1.1, 12.1.3, 12.3
	기후변화와 관련된 위험, 기회 및 목표 대비 성과를 관리하기 위해 조직이 사용하는 방식	25-27, 31, 33-34, 40-41	CDP 연계 문항: 7.53, 7.53.1, 7.53.2, 7.53.4, 7.54, 7.54.1, 7.54.2

1) CDP 2024 문항 기준

SASB 인덱스

<table>
<tr><th></th><th></th><th>Accounting Metric</th><th>Page</th><th>Note</th></tr>
<tr><td rowspan="3">제품안전</td><td>TR-AU-250a.1</td><td>NCAP(신차안전도평가) 5-star 획득 차종의 비율 (지역별)</td><td>84</td><td>
<table>
<tr><th>지역명</th><th>5-star 획득 차종</th><th>비율[1)]</th><th>평가대상 차종 수</th></tr>
<tr><td>한국</td><td>싼타페</td><td>50%</td><td rowspan="2">총 2개 차종</td></tr>
<tr><td>유럽</td><td>싼타페</td><td>50%</td></tr>
<tr><td>미국</td><td>아이오닉 5, 팰리세이드, 싼타크루즈 등 총 23종</td><td>76.7%</td><td>총 30개 차종</td></tr>
<tr><td>호주</td><td>싼타페</td><td>50%</td><td>총 2개 차종</td></tr>
<tr><td>인도</td><td>투싼</td><td>100%</td><td>총 1개 차종</td></tr>
</table>
1) NCAP 평가는 매년 출시된 모든 브랜드별 신차를 대상으로 하지 않으며, NCAP에서 랜덤으로 선정한 평가대상 차종 대비, 5-star등급(최우수 등급)을 획득한 차종의 비율임
</td></tr>
<tr><td>TR-AU-250a.2</td><td>안전 관련 결함 컴플레인의 수, 컴플레인 중 실제 조사받은 비율</td><td>84</td><td>국토교통부(한국), NHTSA(미국 도로교통안전국) 고객 불만제기 이슈에 대한 상시 모니터링 실시 및 잠재 문제 인지 즉시 자발적 리콜 시행(100%)</td></tr>
<tr><td>TR-AU-250a.3</td><td>리콜 차량 수</td><td>85</td><td>2024년 308만 대 (자발적 리콜)</td></tr>
<tr><td rowspan="2">노동관행</td><td>TR-AU-310a.1</td><td>노동조합 등 단체교섭 직원 비율</td><td>121</td><td>2024년: 93.9% (국내 기준)</td></tr>
<tr><td>TR-AU-310a.2</td><td>(1) 파업 등 1천 명 이상의 근무 단절의 수,
(2) 총 손실일수</td><td>121</td><td>2024년: 1천 명 이상 근무단절의 파업 2건 및 총 손실일수 2일 발생 (국내 및 해외 기준)</td></tr>
<tr><td rowspan="3">연비&사용단계배출</td><td>TR-AU-410a.1</td><td>판매비중 기준의 평균 승용차 연비 (지역별)</td><td>29</td><td>유럽 평균 탄소 배출량, 중국/미국 평균 연비실적
<table>
<tr><th colspan="2">구분</th><th>2021</th><th>2022</th><th>2023</th><th>2024</th></tr>
<tr><td colspan="2">EU 평균 탄소 배출량 (단위: g/km)</td><td>107.1</td><td>101.4</td><td>105.7</td><td>111.3</td></tr>
<tr><td colspan="2">중국 평균 연비실적 (단위: L/100km)</td><td>6.15</td><td>6.28</td><td>6.19</td><td>6.24</td></tr>
<tr><td rowspan="2">미국 평균 연비실적 (단위: mpg)</td><td>승용</td><td>42.8</td><td>45.1</td><td>47.7</td><td>51.7</td></tr>
<tr><td>경트럭</td><td>30.9</td><td>36.1</td><td>35</td><td>35.7</td></tr>
</table></td></tr>
<tr><td>TR-AU-410a.2</td><td>(1) 무배출 차량, (2) 하이브리드,
(3)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차량 판매량</td><td>6</td><td>2024년 친환경 차량 판매대수 및 비중 (단위: 천 대)
<table>
<tr><th>구분</th><th>HEV/PHEV</th><th>EV</th><th>FCEV</th><th>총계</th></tr>
<tr><td>Global</td><td>534(12.9%)</td><td>219(5.3%)</td><td>4(0.1%)</td><td>757(18.3%)</td></tr>
</table></td></tr>
<tr><td>TR-AU-410a.3</td><td>연비 및 탄소배출 리스크와 기회의 관리 전략</td><td>26-29</td><td>전동화 차량 판매 확대 및 내연기관 연비개선 추진</td></tr>
<tr><td>원자재조달</td><td>TR-AU-440a.1</td><td>주요 원자재 사용과 관련된 위험 관리</td><td>44-45, 78, 109</td><td>보고서 해당 페이지 및 현대자동차 분쟁광물 관리 보고서 내 상세 내용 수록</td></tr>
<tr><td rowspan="3">원자재효율&재활용</td><td>TR-AU-440b.1</td><td>제조 시 발생하는 총 폐기물, 재활용 비율</td><td>46, 116-117</td><td>2024년 기준 사업장 총 폐기물 배출량: 929,013톤, 재활용비율: 91.4%</td></tr>
<tr><td>TR-AU-440b.2</td><td>폐차(End-of-life) 후 재사용/활용되는 자재의 무게(ton), 재활용 비율</td><td>43</td><td>2024년 폐차(End-of-life) 후 재사용/활용되는 자재 무게: 약 20만 톤
2024년 폐차 재활용률: 열회수 제외 시 82.6%, 열회수 포함 시 92%</td></tr>
<tr><td>TR-AU-440b.3</td><td>판매 차량의 평균 재활용 가능률</td><td>42</td><td>차량 재활용 가능률: 열회수 제외 시 85%, 열회수 포함 시 95%</td></tr>
<tr><td rowspan="2">활동지표</td><td>TR-AU-000.A</td><td>차량 생산대수</td><td>6, 114</td><td>4,146,335대</td></tr>
<tr><td>TR-AU-000.B</td><td>차량 판매대수</td><td>6, 114</td><td>4,141,959대</td></tr>
</table>

WEF IBC Stakeholder Capitalism Metrics

Theme	Metrics	Page	Note
기업목적	목적 정의	3-7	최고의 제품과 서비스를 제공하며 고객에게 사랑받는 기업이 되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사회 우수성	이사회 구성	97-101	이사회는 사내이사 5인, 사외이사 7인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사외이사로서의 직무를 충실히 수행하기 위해 당사 외 2개 이상의 다른 회사의 이사, 집행임원 또는 감사로의 겸직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이해관계자 참여	중요 이슈	14-18	현대자동차 이해관계자에게 영향을 미치는 지속가능경영 이슈를 도출하기 위해 현대자동차 임직원, 외부 지속가능경영 전문가를 대상으로 중대성 평가를 실시하였습니다.
윤리적 운영	반부패	104-106, 124	사이버 감사실을 통해 불공정, 부패행위에 대한 신고를 접수, 처리하고 있으며 내부 구성원의 준법역량을 강화하고 준법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준법경영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윤리 보고체계	54-57, 104-105	매년 반기별 정기감사 및 수시감사를 통해 경영 전반에 걸친 임직원 윤리규범 이행실태를 점검하고, 그 결과를 이사회 산하 지속가능경영위원회에 보고하고 있습니다.
리스크/기회 분석	리스크/기회 분석의 경영체계 통합	16-17, 23, 107-110	기후변화 이슈에 대한 권역/조직별 이슈를 파악하여 각 요인들이 회사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여 전사적 대응 전략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또한 중대성 평가를 실시하여 주요 이슈별 관리방향, 핵심 성과, 중장기 계획 등을 공개하고 있습니다.
기후변화	온실가스 배출	39, 115	국내 전 사업장과 11개 해외법인의 온실가스 배출량을 합산하여 공시하고 있습니다. 온실가스 배출량(Scope 1+2, tCO_2-eq): 2,097,809 총 11개 카테고리(업스트림 6개, 다운스트림 5개)에 대한 배출량을 공시하고 있습니다. 온실가스 배출량(Scope 3, tCO_2-eq): 147,253,154
	TCFD 연계 공개	133	TCFD Index 내 전체 권고사항에 대한 세부내용은 지속가능성보고서 및 탄소정보공개프로젝트(CDP)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생태계 훼손	토지사용 및 생태민감도	49	단일 공장으로 가장 큰 울산공장이 0.07km 반경 내 태화강이 위치해 있으며, 태화강 하류 일원은 철새 등 야생 동식물의 서식지 보전을 위해 생태경관보전지역 및 야생생물보호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깨끗한 물	수자원 민감지역 용수 사용	45-46, 115-116	현대자동차는 WRI Aqueduct Water Risk Atlas Tool을 토대로 사업장별 용수 리스크를 평가하고 있습니다. 평가결과, 인도/튀르키예/미국/인도네시아생산법인과 중국에 위치한 북경현대, 현대상용기차, HTWO광저우법인 등이 용수 리스크가 매우 높은 것으로(Extremely High) 파악되었습니다. 인도/튀르키예/미국/인도네시아생산법인과 북경현대/현대상용기차/HTWO광저우법인

용수 취수량 (톤)	용수 사용량 (톤)	용수 취수 비율	용수 사용 비율
5,333,379	3,820,775	27.90%	37.40%

존엄성과 평등	다양성 및 포용성	63-68, 118-119	연령대별, 여성 임직원 현황, 장애인 고용 현황 및 다양성 목표는 지속가능성보고서를 통해 공개하고 있습니다.
	급여 평등	64, 99, 122	인당 평균 보수 및 성별 임금 격차는 지속가능성보고서를 통해 공개하고 있습니다.
	임금 비율	64, 99, 122	
	아동, 강제노동 리스크	55-57	아동/강제노동 발생 가능성이 있는 지역들에 대해서는 리스크 사전 식별/예방을 위해 스크리닝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WEF IBC Stakeholder Capitalism Metrics

<table>
<tr><th>Theme</th><th>Metrics</th><th>Page</th><th>Note</th></tr>
<tr><td>보건과 웰빙</td><td>보건/안전</td><td>124</td><td>산업재해자 수, 산업재해율, 근로손실재해율 및 직업성질병 발생률은 지속가능성보고서를 통해 공개하고 있습니다.

근로손실재해율/직업성질병 발생률
<table>
<tr><th>구분</th><th>산업재해율</th><th>근로손실재해율</th><th>직업성질병발생률</th></tr>
<tr><td>국내사업장</td><td>0.80</td><td>2.47</td><td>1.07</td></tr>
<tr><td>해외사업장</td><td>0.20</td><td>0.95</td><td>0</td></tr>
<tr><td>임직원 합계</td><td>0.56</td><td>1.90</td><td>0.67</td></tr>
<tr><td>국내 협력사</td><td>N/A</td><td>1.14</td><td>N/A</td></tr>
<tr><td>해외 협력사</td><td>N/A</td><td>0.55</td><td>N/A</td></tr>
<tr><td>협력사 합계</td><td>N/A</td><td>1.01</td><td>N/A</td></tr>
</table></td></tr>
<tr><td>미래 역량 개발</td><td>교육시간</td><td>120</td><td>임직원 교육 현황(직급별 교육시간, 교육비용)은 지속가능성보고서를 통해 공개하고 있습니다.</td></tr>
<tr><td rowspan="3">경제가치 창출과 고용</td><td>일자리 창출</td><td>121-122</td><td>신규 고용인원, 이직률은 지속가능성보고서를 통해 공개하고 있습니다.</td></tr>
<tr><td>경제 기여</td><td>113-114</td><td>판매 및 재무정보, 연구개발 비용(당사 투자금 및 정부보조금 내역), 경제적 가치 배분 정보를 지속가능성보고서 및 사업보고서를 통해 공개하고 있습니다.</td></tr>
<tr><td>투자 기여</td><td>114</td><td>현대자동차는 조직의 성공적인 투자와 수익률 향상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총 자본지출 - 감가상각비: 2,965십억 원
자사주 매입 + 배당금 지급: 3,380십억 원</td></tr>
<tr><td>제품/서비스 혁신</td><td>R&D 비용</td><td>114</td><td>현대자동차의 연구개발과 관련된 비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연구개발비용 계: 약 4.6조 원
정부보조금: (2,977)백만 원</td></tr>
<tr><td>지역사회와 사회 활력</td><td>총 납세</td><td>111, 113</td><td>법인세 내역은 지속가능성보고서 및 사업보고서를 통해 공개하고 있습니다.</td></tr>
</table>

제3자 검증의견서

㈜디엔브이비즈니스어슈어런스코리아(이하 'DNV' 또는 '당사')는 현대자동차 주식회사(이하 '현대자동차' 또는 '회사')로부터 2025 현대자동차 지속가능성 보고서(이하 '보고서')에 대한 독립적인 제한적 검증 업무를 의뢰 받았습니다. 본 검증 의견서의 사용대상은 현대자동차의 경영진과 이해관계자입니다.

검증 기준

검증 활동은 당사의 전문적인 경험과 국제감사인증기준위원회(IAASB)[1]가 제정한 국제인증업무기준(ISAE 3000)[2] 등 국제 규격을 반영한 DNV의 지속가능성 보고서 검증 프로토콜인 VeriSustainTM 6.0과 AccountAbility 사의 지속가능성 검증 기준(AA1000AS v3)에 따라 Type 2 제한적 수준의 보증 형태로 진행되었습니다. DNV는 보고서가 AccountAbility 원칙 기준(AA1000APS (2018))의 4가지 원칙과 VeriSustain의 신뢰성, 완전성 및 중립성 원칙을 준수하는지 검토하였습니다. 또한 '검증 범위'에 기술된 바와 같이 '특정 지속가능성 성과 정보의 신뢰성'을 검토하였습니다.

당사의 프로토콜은 당사가 윤리적 요구사항을 준수하고, 제한적 또는 합리적 보증을 얻기 위해 검증을 계획하고 수행할 것을 요구합니다.

제한적 검증 업무 절차의 성격과 시기는 합리적 검증 업무 절차와 차이가 있으며, 절차의 범위도 상대적으로 제한적입니다. 이에 따라 제한적 검증을 통한 보증 수준은 합리적 검증을 통한 보증 수준보다 상당히 낮습니다. 이에 DNV는 검증 의견을 제공함에 있어 근거가 된다고 판단되는 정보를 수집하기 위해 작업을 계획하고 수행함으로써 당사의 의견에 오류가 있을 위험을 줄였으나 완전히 배제되지는 않았습니다.

DNV는 이번 보고 기간 동안 보고서 외부 또는 현대자동차 웹사이트에 게시될 수 있는 기타 정보에 대해 어떠한 검토나 작업도 수행하지 않았으며 어떠한 결론도 제시하지 않습니다.

검증 범위

당사는 보고서에 대한 독립적인 제한적 검증 업무 및 특정 지속가능성 성과 정보의 신뢰성에 대한 독립적인 검증 업무 수행을 의뢰 받았습니다.

- 당사는 현대자동차의 중대성 평가를 통해 식별된 중요 주제(Material Topics)와 관련된 GRI 주제 기준(Topic Standards)을 검토하였습니다.
  - 기후변화 완화: 305-1~5
  - 제품 관련 자원 순환: 301-1, 306-1
  - 대기 오염: 305-7
  - 소비자 안전보건: 416-1~2
  - 근로자 안전보건: 403-1~7, 403-9
  - 노사관계: 407-1
  - 공급망 노동인권: 408-1, 409-1, 414-1, 414-2
- '특정 지속가능성 성과 정보의 신뢰성'에 대해서는 (물 소비) 303-5, (Scope 3 배출량) 305-3, (폐기물) 306-3, (업무 관련 부상) 403-9, (업무 관련 건강 문제) 403-10의 품질 및 신뢰성을 검토하였습니다.

의견, 관찰 및 권고사항

검증 수행 결과, DNV는 AA1000APS(2018)의 4가지 원칙과 VeriSustain의 신뢰성, 완전성 및 중립성 원칙 측면에서 현대자동차의 보고서에 수록된 정보 및 데이터가 부적절하게 기술되었다고 판단할 사항은 발견하지 못하였습니다. 성과 데이터의 신뢰성 측면에서, 보고된 데이터가 현대자동차의 운영 중 관리된 실무 데이터와 적절히 대조되지 않았거나 적용된 가정이 부적절하다고 판단할 사항은 발견하지 못하였습니다. DNV는현대자동차의 보고서가 중대성 관점에서 GRI Standards의 'in accordance' 기준에 부합한다고 판단합니다.

1) International Auditing and Assurance Standard Board
2) International Standard on Assurance Engagements (ISAE) 3000 – 'Assurance Engagements other than Audits and Reviews of Historical Financial Information' (revised)

검증 의견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검증 범위'에 포함된 정보에 대한 DNV의 관찰 의견을 AA1000APS(2018) 원칙과 VeriSustain 원칙에 기반하여 다음과 같이 제공합니다:

포괄성: 이해관계자 참여 및 의견제시

현대자동차는 고객, 딜러, 임직원, 협력사, 지역사회, 정부, 주주 투자자 등을 주요 이해관계자 그룹으로 정의하고 각 그룹에 대한 세부정의와 커뮤니케이션 채널 및 주요 이슈 등을 보고서에 소개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해관계자로부터 수렴된 주요 관심사항은 중대성 평가 프로세스에 반영하여 회사 주요 정책에 대한 이해 관계자 참여를 증진시키고 있습니다.

중대성: 중대한 지속가능성 주제에 대한 식별 및 보고

현대자동차는 지속가능성과 관련된 중요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기 위해 '이중 중대성' 원칙에 따라 중대성 평가를 수행하였으며, 추가적으로 가치사슬 관점의 산업별 중요성을 고려하였습니다. 현대자동차의 사회 및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는 영향 평가와 외부 이해관계자가 현대자동차의 재무적 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는 위험 및 기회 평가를 병행하여 실시하였습니다. 2025년 평가 결과, 기후변화 완화, 근로자 안전보건, 노사관계 등을 포함한 7개의 중대 주제가 도출되어, 해당 주제에 대한 정보를 적절하게 공시하고 있습니다.

대응성: 중대한 지속가능성 주제 및 관련 영향에 대한 투명한 대응

현대자동차는 중대성 평가를 중심으로 관리내역과 핵심지표를 식별하고 이에 대한 활동을 보고서에 기술하고 있습니다. 또한 보고서에 지속가능경영 주요 활동 및 성과에 대해 기술하고 있으며 중대주제에 대한 관리 전략 및 경영진 보상 연계에 대해서도 밝힘으로써 지속가능성 주제 및 관련 영향에 대해 대응하고 있습니다. 다만 중대주제인 노사관계에 대해서도 다른 중대주제들과 마찬가지로 회사의 약속(commitment) 및 중장기 목표 등을 더 세부적으로 기술하여 관련 주제에 대한 대응 수준을 제고하시기를 권고합니다.

영향: 조직 활동이 조직 및 이해관계자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모니터링, 측정 및 설명

현대자동차는 가치사슬 전반에 걸쳐 회사 및 공급망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완화하기 위해 식별된 핵심 영역과 관련 주제/영향 및 실행 계획에 대해 보고하고 있으며, 적절한 성과 지표를 통해 영향을 측정, 평가 및 모니터링하고 있습니다. 특히 ISO 14001 및 45001을 국내 및 해외 사업장에 적용하여 환경, 안전·보건 관리를 체계적으로 수행하고 있습니다. 공급망 관리 측면에서는 모든 1차 협력사를 대상으로 ESG 리스크 서면 진단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고위험 협력사 195개 업체에 대해 ESG 현장 실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DNV는 회사 활동이 회사 및 이해관계자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모니터링, 특정 및 설명이 보고서에 반영되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신뢰성: 보고서에 제시된 정보의 정확성, 비교 가능성 및 기본 데이터 관리 시스템의 품질

샘플링 기법을 통해 데이터 수집 및 가공 과정, 근거 문서와 기록을 확인하였으며, 검증 결과로 판단하였을 때 보고서에 기재된 지속가능성 성과 정보에 의도적 오류나 왜곡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현대자동차는 지속가능 성과의 출처와 의미를 신뢰할 수 있는 방식으로 설명할 수 있었으며, 검증 과정에서 발견된 오류나 명확하지 않은 표현은 최종 보고서 발간 전 모두 수정되었습니다.

완전성: 조직과 그 이해관계자에게 중요한 정보로 확인된 모든 정보 중 보고되는 정보

현대자동차는 식별된 중요 주제의 운영 경계에 대해 적절한 GRI 주제별 기준 공시항목을 사용하여 중대 이슈와 관련된 2024년 보고 기간 동안의 성과를 기반으로 한현대자동차의 주요 비재무적 공시사항을 보고하고 있습니다.

중립성: 보고서가 조직의 성과에 대해 중립적인 어조로 균형 잡힌 설명을 제공하는 정도

현대자동차는 보고 기간 동안 회사의 성과, 과제, 이해관계자 우려 사항을 중립적이고 일관되며 균형 잡힌 방식으로 공개하고 있습니다.

제3자 검증의견서

적격성, 독립성 및 품질 관리

DNV는 ISO/IEC 17029:2019[3] 적합성 평가에 따라 품질 관리를 위한 자체 관리 표준 및 규정 준수 정책을 적용함으로써 윤리적 요구사항, 전문적 기준, 해당 법률 및 규제 요구사항 준수에 관한 문서화된 정책 및 절차를 포함하여 포괄적인 품질 관리 시스템을 유지합니다.

DNV가 수립하고 있는 정책 및 절차는 DNV 및 그 임직원, 그리고 해당되는 경우 다른 모든 인원(DNV의 타법인 임직원 포함)에게 독립성 요건을 적용하고, 관련 윤리적 요구사항에 따라 독립성을 유지하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본 검증 활동은 지속가능성 전문가들로 구성된 독립적인 검증팀에 의해 실시되었습니다. DNV는 2025년 현대자동차 지속가능성 보고서 검증에 대한 독립성이나 공정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았습니다.

한계점

검증은 DNV에 제공된 현대자동차의 데이터 및 정보가 완전하고, 충분하며, 사실이며, 중요한 왜곡 표시가 없다는 가정을 기반으로 실시되었습니다. 한편, 표본추출(샘플링)과 내부 통제 절차 및 시스템에 대한 기타 내재적 제한들로 인해 중대할 수 있는 오류 또는 불규칙성이 감지되지 않았을 수 있는 리스크가 불가피하게 존재합니다.

보고서에 언급된 현대자동차의 종속기업, 협력사 및 제3자의 지속가능경영, 성과 및 보고 관행 등은 본 검증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DNV는 검증 활동 중 외부 이해관계자 면담을 실시하지 않았습니다.

DNV는 보고된 재무 데이터, 거버넌스 및 관련 정보가 별도의 독립적인 법정 감사 프로세스의 적용을 받는 법정 공시 및 감사된 재무제표를 기반으로 한다는 점을 이해합니다. 재무 공개 및 데이터는 검증 범위에서 제외되었으며, 검증은 정의된 보고기간 내의 범위에 있는 데이터 및 정보로 제한되며 해당 기간 이외의 데이터는 검증 범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DNV는 본 의견서에 기반하여 의사결정을 한 개인 또는 단체에 대한 어떠한 배상 책임 또는 공동 책임이 없음을 밝힙니다.

현대자동차 관리자 및 검증기관의 책임

현대자동차는 보고서 내용에 모든 책임을 가지고 있으며, 여기에는 데이터 수집, 분석, 집계, 준비, 정보의 공정한 표시, 데이터에 중요한 왜곡이 없음을 보장하는 내부 통제의 설계, 구현 및 유지가 포함됩니다.

DNV의 책임은 '검증 범위'에 기술된 관련 정보가 보고 요구사항에 따라 작성되었는지에 대한 제한적 확신을 제공하기 위해 업무를 계획 및 수행하고 이를 취합한 증거에 기반하여 독립적 검증의견서 형태로 현대자동차에 보고하는 것입니다.

당사의 성명은 독립적 의견으로 간주되어야 하며,현대자동차의 경영진과 이해관계자에게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작성되었습니다. DNV는 본 의견서를 제외하고 보고서에 포함된 어떠한 진술이나 데이터의 작성에도 관여하지 않았습니다.

3) Conformity assessment — General principles and requirements for validation and verification bodies

의견 판단 기준

본 검증 활동은 위험 기반 접근방식(Risk-based approach)에 따라 현대자동차의 사업 및 주요 이해관계자들에게 관련성이 높은 중요 이슈들에 초점을 두고 진행되었으며, 제한적 검증 절차의 일환으로 다음 절차를 수행하였습니다.

- 보고 기간 동안 현대자동차와 관련된 지속가능성 이슈를 식별하기 위한 피어 리뷰 및 미디어 검토 등
- 중대성 평가 절차와 결과, 주제 기준과 관련된 관리 프로세스를 중심으로 요구사항에 따른 공시 내용 검토
- 보고서에 수록된 정보 및 KPI를 통합, 관리 및 보고를 위한 주요 시스템, 프로세스 및 통제에 대한 이해와 평가
- 보고 원칙 및 요구사항 준수를 뒷받침하는 문서에 대한 검토
- 정보 모니터링, 데이터 집계 및 보고 전반에 책임이 있는 ESG 팀 및 관련 부서 담당자들과의 인터뷰 수행
- 현대자동차 본사(서울) 방문을 통해 사업장별 지속가능성 데이터 샘플링 및 전략 이행 관련 관리체계 검토

㈜디엔브이비즈니스어슈어런스코리아

대한민국 서울

2025년 6월 24일

윤 창 록	장 유 리	김 소 현
인증팀장	인증팀원	기술검토자

AA1000 Licensed Report 000-10/V3-SGB2A

DNV그룹의 일원인 DNV Business Assurance Korea는 certification, verification, assessment 및 교육 서비스를 제공하는 글로벌 기업으로, 고객이 지속가능한 비즈니스 성과를 달성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온실가스 검증의견서

현대자동차 주식회사의 2024년도 국내 사업장 Scope 1+2 온실가스 배출량 관련

이 검증의견서는 현대자동차(주)의 요청으로 작성되었습니다.

검증 기준 및 범위

로이드인증원(LRQA)은 현대자동차(주)로부터 2024년도 온실가스 배출량 및 에너지 사용량 명세서(이하 "명세서"라 한다)에 대한 독립적인 검증 제공을 요청 받았습니다. 본 검증의 검증기준은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의 배출량 보고 및 인증에 관한 지침"과 "2024년 배출량 산정계획서" 이었으며,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운영을 위한 검증지침"에 의거하여 수행되었습니다.

명세서는 직접 온실가스 배출 및 에너지 간접 온실가스 배출 그리고 에너지 사용에 관한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현대자동차㈜의 지역경계는 울산공장, 아산공장, 전주공장, 연구시설, 본사자가건물, 서비스센터, 판매자가건물(출고센터 포함), 제네시스 부문의 국내 운영을 포함하고 있으며, 온실가스 배출은 운영통제접근법으로 통합되었습니다.

경영진의 책임

로이드인증원의 책임은 현대자동차(주)에 대해서만 국한됩니다. 로이드인증원은 타인 혹은 타조직에 대한 의무나 책임이 없습니다. 보고서에 포함된 데이터 및 정보에 대한 효과적인 내부 통제 유지에 대한 책임은 현대자동차(주)의 경영진에 있습니다. 궁극적으로 보고서는 현대자동차(주)에 의하여 승인되었고, 현대자동차(주)의 책임하에 있습니다.

로이드인증원의 검증방법

로이드인증원의 검증은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운영을 위한 검증지침"에 의거하여 합리적 보증수준으로 수행되었습니다.

본 검증은 샘플링을 통해 이루어졌으며 증거 수집의 일환으로 다음의 활동들이 수행되었습니다.

- 사업장 설비에 대한 현장 확인이 이루어졌으며 온실가스 배출 및 에너지 사용 관련 데이터와 기록을 관리하는 체계를 검토하였습니다.
- 온실가스 배출 및 에너지 사용 관련 데이터와 기록의 관리에 책임이 있는 직원과 면담을 하였습니다.
- 2024년도 온실가스 배출 및 에너지 사용 관련 데이터 및 기록에 대해 원시데이터 수준까지 검증하였습니다.

보증수준 및 중요성

이 검증의견서에 표명된 의견은 합리적 보증 수준의 검증을 바탕으로 한 것이며, 검증심사원의 전문가적 판단 및 2.5% 중요성 기준에 기초하여 도출되었습니다.

로이드인증원의 의견

로이드인증원의 접근 방법에 기초한 검증 결과, 명세서의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의 배출량 보고 및 인증에 관한 지침"과 "2024년 배출량 산정계획서" 준수 여부 및 표1의 온실가스 배출량에 관하여 "적정"의견을 제시합니다.

이 일 형

LRQA를 대표하여
대한민국 서울특별시 중구 소월로2길 30, T타워 2층
로이드인증원 계약번호: SEO6012382

2025년 3월 30일

표 1. 2024 년도 현대자동차 온실가스 배출량 (단위: tCO_2eq)

범위	사업장								합계
	울산공장	아산공장	전주공장	연구시설	본사	서비스센터	판매	제네시스	
직접 온실가스 배출량 (Scope 1)	309,016	42,397	40,678	53,832	6,674	5,312	2,513	7	460,430
에너지 간접 온실가스 배출량 (Scope 2)	580,852	123,590	84,510	228,047	20,005	13,552	14,310	1,088	1,065,955
합계	889,867	165,987	125,188	281,879	26,679	18,863	16,823	1,094	1,526,380

Note: 온실가스 총 배출량은 사업장별 온실가스 배출량의 소수점 이하 값의 처리절차로 인해 환경부에서 고시하는 온실가스 배출량 합계와 다를 수 있음.

LRQA Group Limited, 그 관계사와 자회사 및 임직원 또는 대리인은, 개별적으로나 집단적으로 이 조항에서 'LRQA'로 나타냅니다. LRQA는 누구에게도 이 문서나 기타의 방법으로 제공된 조언이나 정보에 대한 의존으로 인하여 야기된 어떠한 손실, 손상이나 비용에 대해서도 책임을 지지 않고 아무런 의무도 없습니다. 다만, 특정인이 관련 LRQA의 일원과 이 정보나 조언의 제공에 대한 계약을 체결한 경우는 예외로 하며, 이런 경우 모든 책임과 보상은 전적으로 계약에 기술된 조건에 따릅니다.
이 검증의견서는 국문 버전에 한하여 유효합니다. 다른 언어로 번역된 버전에 대해서 LRQA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이 검증의견서는 검증의견서에 언급된 명세서에 관해서만 유효합니다. 이 검증의견서는 수정이나 변경 없이 온전한 형태로만 재생산될 수 있습니다.

Copyright © LRQA, 2025.

온실가스 검증의견서

현대자동차 주식회사의 2024년도 해외 사업장 Scope 1+2 온실가스 배출량 관련

이 검증의견서는 현대자동차 주식회사와의 상호계약에 따라 작성되었습니다.

검증 기준 및 범위

로이드인증원(LRQA)은 현대자동차 주식회사로부터 2024년도 온실가스 인벤토리 및 에너지 사용량(이하 "보고서")에 대한 독립적인 검증 제공 요청을 받았습니다. 본 검증은 아래 검증 기준에 따라 ISAE 3000 및 ISAE 3410를 활용하여 제한적 보증 수준 및 5%의 중요성 기준으로 수행되었습니다.

검증 범위에는 현대자동차 주식회사의 해외 공장[1] 운영 및 활동이 포함되었으며, 특히 다음의 요구사항이 포함되었습니다.

- World Resources Institute 및 World Business Council for Sustainable Development의 GHG Protocol (revised version)[2]의 준수 평가
- 해외 공장의 직접 온실가스 배출(Scope 1), 에너지 간접 온실가스 배출(Scope 2) 그리고 에너지 사용에 대한 데이터 및 정보의 정확성 및 신뢰성 평가

1) HMGICS는 검증범위에서 제외됨.
2) https://www.ghgprotocol.org

현대자동차 주식회사의 주요 활동은 자동차 생산이며 온실가스 배출은 운영관리접근법을 사용하여 통합되었습니다.
로이드인증원의 책임은 현대자동차 주식회사에 대해서만 국한됩니다. 로이드인증원은 마지막 주석에서 설명한 것과 같이 타인 혹은 타 조직에게 어떤 의무나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보고 데이터와 정보의 수집, 취합, 분석 및 제시, 그리고 보고 시스템에 대한 효과적인 내부 통제 유지에 대한 책임은 현대자동차 주식회사에게 있습니다. 최종적으로 보고서는 현대자동차 주식회사에 의해 승인되었으며, 현대자동차 주식회사의 책임이 됩니다.

로이드인증원의 의견

로이드인증원의 접근 방법에 기초한 검증 결과, 모든 중요 측면에서, 현대자동차 주식회사가 하기 사항을 이행하지 않았다고 의심되는 사항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 상기 요구사항의 만족
- 표 1 및 표2에 요약된 데이터 및 정보의 정확성 및 신뢰성

이 의견은 제한적 보증 수준의 검증에 바탕을 두며, 5% 중요성 기준에 기초하여 도출되었습니다.

Note: 제한적 보증 수준의 검증에서 증거 수집 범위는 합리적 보증 수준의 검증보다 작습니다. 제한적 보증 수준의 검증은 사업장에서 원시데이터를 직접 확인하기 보다는 취합된 데이터에 초점을 둡니다. 결과적으로 제한적 보증 수준의 검증은 합리적 보증 수준의 검증보다 보증 수준이 현저히 낮습니다.

로이드인증원의 권고사항

현대자동차 주식회사는 냉매 사용, 하수처리시설 운영, 폐가스 소각 등과 관련한 온실가스 배출 보고의 정확성 개선을 위해 관련 모니터링 절차를 개선할 것을 권고합니다.

로이드인증원의 접근 방법

로이드인증원의 검증은 로이드인증원의 검증 절차에 의거하여 수행됩니다. 본 검증을 위해 증거 수집의 일환으로 다음의 활동들이 수행되었습니다.

- 온실가스 배출 및 에너지 사용 데이터 및 기록 관리 책임이 있는 핵심 인원들과 면담하였습니다.
- 온실가스 배출 및 에너지 사용 데이터 및 기록의 통제와 관련된 프로세스를 검토하였습니다.
- 해외 공장을 대상으로 원격 심사를 실시하여 온실가스 배출원, 에너지 사용처, 재생에너지 발전 내역의 누락 여부를 검토하였습니다.
- 온실가스 배출량 계산에 사용된 파라메타가 인정받는 출처로부터 참조되었는지 검토하였습니다.
- 2024년도 온실가스 배출 및 에너지 사용 데이터 및 기록들을 취합 수준에서 검증하였습니다.
- 현대자동차 주식회사의 본사를 방문하여 현대자동차 주식회사가 제공하는 추가적인 증거들을 검토하였습니다.

로이드인증원의 자격 및 독립성

로이드인증원은 ISO 14065(온실가스 온실가스 타당성 평가 및 검증기관 인정 또는 인증에 관한 요구사항) 및 ISO/IEC 17021(적합성평가 - 경영시스템 심사 및 인증을 제공하는 기관에 대한 요구사항)의 인정 요구사항을 만족하는 포괄적인 경영시스템을 이행 및 유지하고 있으며 품질관리기준서1(ISQC1: International Standard on Quality Control 1)의 요구사항과 국제윤리기준위원회(IESBA: International Ethics Standards Board for Accountants)의 공인회계사 윤리 강령을 준수합니다.
로이드인증원은 자격, 훈련 및 경험에 근거하여 적절하게 자격이 부여된 검증심사원을 선정하도록 보장하고 있습니다. 적용된 접근 방법이 엄격히 지켜지고 투명하도록 보장하기 위해 모든 검증 및 인증 평가의 결과는 내부적으로 경영진에 의해 검토되고 있습니다.

로이드인증원은 현대자동차 주식회사의 한국 배출권거래제에 따른 온실가스 배출량에 대한 검증기관입니다. 로이드인증원은 현대자동차 주식회사에 대해 검증 서비스만을 제공하므로 독립성 및 공평성에 위배되지 않습니다.

김 태 경

일자: 2025년 6월 12일

검증팀장
로이드인증원(LRQA)을 대표하여
대한민국 서울특별시 중구 소월로2길 30, T타워 2층
LRQA 계약번호: SEO00001622

온실가스 검증의견서

표 1. 2024년도 현대자동차 주식회사 해외 공장, Scope 1 및 Scope 2 온실가스 배출 요약

해외 공장	tCO_2e		
	직접 온실가스 배출량 (Scope 1)	에너지 간접 온실가스 배출량 (Scope 2, 지역 기반)	에너지 간접 온실가스 배출량 (Scope 2, 시장 기반)
HMMA	34,360	126,192	162,269
BHMC	48,970	92,061	62,174
HTWO	370	1,092	1,092
HMI	29,715	236,850	56,773
HMTR	28,393	25,742	2,204
HMMC	33,434	37,352	153
HMCSA	10,030	7,503	4,778
HTBC	1,290	1,776	1,776
HTMV	6,221	17,157	17,157
HMMI	6,652	71,493	0
HYMEX	19,957	43,656	43,656
합계	219,392	660,874	352,032

Note 1: Scope 2의 지역 기반 및 시장 기반은 GHG Protocol Scope 2 Guidance (2015)에 따른 용어임.

표 2. 2024년도 현대자동차 주식회사 해외 공장, 에너지 사용 요약

해외 공장	TJ		MWh	
	총 에너지 사용량	재생에너지 사용량	총 에너지 사용량	재생에너지 사용량
HMMA	1,784	0	495,615	0
BHMC	1,402	178	389,315	49,482
HTWO	25	7	6,959	2,067
HMI	1,736	940	482,254	260,985
HMTR	721	203	200,295	56,445
HMMC	987	394	274,126	109,546
HMCSA	661	180	183,534	50,000
HTBC	68	0	18,782	0
HTMV	173	0	48,029	0
HMMI	420	309	116,553	85,787
HYMEX	642	0	178,301	0
합계	8,619	2,211	2,393,763	614,312

LRQA Group Limited, its affiliates and subsidiaries, and their respective officers, employees or agents are, individually and collectively, referred to in this clause as 'LRQA'. LRQA assumes no responsibility and shall not be liable to any person for any loss, damage or expense caused by reliance on the information or advice in this document or howsoever provided, unless that person has signed a contract with the relevant LRQA entity for the provision of this information or advice and in that case any responsibility or liability is exclusively on the terms and conditions set out in that contract.
The English version of this Assurance Statement is the only valid version. LRQA assumes no responsibility for versions translated into other languages.
This Assurance Statement is only valid when published with the Report to which it refers. It may only be reproduced in its entirety.

Copyright © LRQA, 2025.

온실가스 검증의견서

현대자동차 주식회사의 2024년도 Scope 3 온실가스 배출량 관련

이 검증의견서는 현대자동차 주식회사와의 상호계약에 따라 작성되었습니다.

검증 기준 및 범위

로이드인증원(LRQA)은 현대자동차 주식회사로부터 2024년도 온실가스 인벤토리(이하 "보고서")에 대한 독립적인 검증 제공 요청을 받았습니다. 본 검증은 아래 검증 기준에 따라 ISAE 3000 및 ISAE 3410를 활용하여 제한적 보증 수준 및 전문가적 판단(Professional Judgement)의 중요성 기준으로 수행되었습니다.

검증 범위에는 현대자동차 주식회사의 국내 및 해외 운영 및 활동이 포함되었으며, 특히 다음의 요구사항이 포함되었습니다.

- GHG Protocol, Corporate Value Chain (Scope 3) Accounting and Reporting Standard[1)]의 준수 평가
- 그 밖의 간접 온실가스 배출(Scope 3)에 대한 데이터 및 정보의 정확성 및 신뢰성 평가

1) https://www.ghgprotocol.org

현대자동차 주식회사의 주요 활동은 자동차 생산이며 온실가스 배출은 운영관리접근법을 사용하여 통합되었습니다.

로이드인증원의 책임은 현대자동차 주식회사에 대해서만 국한됩니다. 로이드인증원은 마지막 주석에서 설명한 것과 같이 타인 혹은 타 조직에게 어떤 의무나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보고 데이터와 정보의 수집, 취합, 분석 및 제시, 그리고 보고 시스템에 대한 효과적인 내부 통제 유지에 대한 책임은 현대자동차 주식회사에게 있습니다. 최종적으로 보고서는 현대자동차 주식회사에 의해 승인되었으며, 현대자동차 주식회사의 책임이 됩니다.

로이드인증원의 의견

로이드인증원의 접근 방법에 기초한 검증 결과, 모든 중요 측면에서 현대자동차 주식회사가 하기 사항을 이행하지 않았다고 의심되는 사항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 상기 요구사항의 만족
- 표 1에 요약된 데이터 및 정보의 정확성 및 신뢰성

이 의견은 제한적 보증 수준의 검증에 바탕을 두며, 중요성 기준으로서 검증심사원의 전문가적 판단에 기초하여 도출되었습니다.

Note: 제한적 보증 수준의 검증에서 증거 수집 범위는 합리적 보증 수준의 검증보다 작습니다. 제한적 보증 수준의 검증은 사업장에서 원시데이터를 직접 확인하기 보다는 취합된 데이터에 초점을 둡니다. 결과적으로 제한적 보증 수준의 검증은 합리적 보증 수준의 검증보다 보증 수준이 현저히 낮습니다.

로이드인증원의 접근 방법

로이드인증원의 검증은 로이드인증원의 검증 절차에 의거하여 수행됩니다. 본 검증을 위해 증거 수집의 일환으로 다음의 활동들이 수행되었습니다.

- 온실가스 배출 데이터 및 기록 관리 책임이 있는 핵심 인원들과 면담하였습니다.
- 온실가스 배출량 계산에 사용된 파라메타가 인정받는 출처로부터 참조되었는지 검토하였습니다.
- 2024년도 온실가스 배출 데이터 및 기록들을 취합 수준에서 검증하였습니다.
- 현대자동차 주식회사의 본사를 방문하여 현대자동차 주식회사가 제공하는 추가적인 증거들을 검토하였습니다.

로이드인증원의 자격 및 독립성

로이드인증원은 ISO 14065(온실가스 온실가스 타당성 평가 및 검증기관 인정 또는 인증에 관한 요구사항) 및 ISO/IEC 17021(적합성평가 - 경영시스템 심사 및 인증을 제공하는 기관에 대한 요구사항)의 인정 요구사항을 만족하는 포괄적인 경영시스템을 이행 및 유지하고 있으며 품질관리기준서1(ISQC1: International Standard on Quality Control 1)의 요구사항과 국제윤리기준위원회(IESBA: International Ethics Standards Board for Accountants)의 공인회계사 윤리 강령을 준수합니다.

로이드인증원은 자격, 훈련 및 경험에 근거하여 적절하게 자격이 부여된 검증심사원을 선정하도록 보장하고 있습니다. 적용된 접근 방법이 엄격히 지켜지고 투명하도록 보장하기 위해 모든 검증 및 인증 평가의 결과는 내부적으로 경영진에 의해 검토되고 있습니다.

로이드인증원은 현대자동차 주식회사의 한국 배출권거래제에 따른 온실가스 배출량에 대한 검증기관입니다. 로이드인증원은 현대자동차 주식회사에 대해 검증 서비스만을 제공하므로 독립성 및 공평성에 위배되지 않습니다.

김 태 경

일자: 2025년 6월 12일

검증팀장
로이드인증원(LRQA)을 대표하여
대한민국 서울특별시 중구 소월로2길 30, T타워 2층
LRQA 계약번호: SEO00001622

온실가스 검증의견서

표 1. 2024년도 현대자동차 주식회사 Scope 3 온실가스 배출 요약

온실가스 배출 보고 범위	tCO_2e
그 밖의 간접 온실가스 배출(Scope 3)	147,253,154
구매한 상품 및 서비스 – 국내 및 해외 생산 자동차의 부품 소재	22,971,847
자본재 – 국내에서 구매한 노트북 및 모니터	164
연료 및 에너지 관련 활동 – 국내 사업장 및 해외 공장에서 소비한 에너지의 업스트림 배출 (구매 스팀 제외)	323,711
운영으로 인해 생성된 폐기물 – 국내 사업장 및 해외 공장 운영으로 발생한 폐기물의 처리	225,938
출장 – 국내 근무 직원의 자동차, 버스, 기차, 국내선 및 국제선 이용 출장	7,205
직원 출퇴근 – 국내 통근버스	8,553
다운스트림 운송 및 배송 – 국내 생산 자동차의 해상 및 육상 운송	1,505,041
제품의 사용 – 국내 및 해외 판매 내연기관 자동차 (200,000km 운행 기준, 전기차 및 수소차는 제외)	114,199,544
판매된 제품의 최종 처리 – 국내 및 해외 판매 자동차	1,845,796
다운스트림 임대 자산 – 본사에 입주한 임차 회사	1,055
투자 – 현대자동차의 피투자회사들(지분 20%이상 지분 및 한국 증권시장 상장)의 Scope 1 및 Scope 2 온실가스 배출	6,164,300

LRQA Group Limited, its affiliates and subsidiaries, and their respective officers, employees or agents are, individually and collectively, referred to in this clause as 'LRQA'. LRQA assumes no responsibility and shall not be liable to any person for any loss, damage or expense caused by reliance on the information or advice in this document or howsoever provided, unless that person has signed a contract with the relevant LRQA entity for the provision of this information or advice and in that case any responsibility or liability is exclusively on the terms and conditions set out in that contract.
The English version of this Assurance Statement is the only valid version. LRQA assumes no responsibility for versions translated into other languages.
This Assurance Statement is only valid when published with the Report to which it refers. It may only be reproduced in its entirety.

Copyright © LRQA, 2025.

보고서 개요

보고서 작성 기준

본 보고서는 지속가능경영 국제 보고 가이드라인인 GRI(Global Reporting Initiative) Standards에 따라 작성되었으며, 지속가능경영 설명의무를 담고 있는 AA1000APS(Accountability Principles Standard)의 4대 원칙인 포괄성(Inclusivity), 중요성(Materiality), 대응성(Responsiveness), 영향도(Impact)를 충족하고 있습니다.

또한, TCFD(Task Force on Climate-related Financial Disclosures), SASB(Sustainability Accounting Standards Board), WEF IBC Stakeholder Capitalism Metrics 그리고 ESRS(European Sustainability Reporting Standards)의 정보공개 가이드라인을 반영하여 작성되었습니다.

발행처	현대자동차 주식회사 본사 소재지: 서울특별시 서초구 헌릉로 12(양재동)
발행일	2025년 6월
보고서 제작 (문의처)	현대자동차 ESG기획팀 전화: 02-3464-8886 이메일: ESG@hyundai.com
보고 기준	GRI Standards, TCFD, SASB, WEF IBC Stakeholder Capitalism Metrics, ESRS
보고 경계	현대자동차 주식회사 (일부 성과는 현대자동차그룹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보고 범위	경제 (K-IFRS 한국채택국제회계 기준), 환경 및 사회, 지배구조 전반
보고 기간	2024년 1월 1일~2024년 12월 31일 (일부성과는 2025년 상반기를 포함합니다.)
보고 주기	매년 (지난 보고서: 2024년 6월)

보고 기간

본 보고서의 보고 기간은 2024년 1월 1일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입니다. 일부 비재무적 성과의 경우에는 2025년 상반기를 포함하여 작성되었습니다. 또한 성과의 연속적인 추세 파악이 필요한 경우 최근 3개년도 데이터를 사용하였습니다.

본 보고서의 보고 주기는 1년으로 이전 보고서는 2024년 6월에 발간되었습니다.

보고 범위 및 경계

본 보고서의 재무정보는 한국채택 국제회계기준(K-IFRS)상의 현대자동차 연결재무제표 기준과 일치합니다. 환경 및 사회 관련 정보는 연결재무제표의 일부로 자동차 부문(자동차와 자동차부품의 제조 및 판매, 차량정비 등의 사업)에 해당되는 국내 본사, 생산공장, 기술연구소, 서비스 및 물류센터와 해외 생산 및 판매법인 등 자동차 부문 해외 종속회사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외 보고 항목별로 위에서 언급한 보고 범위와 다른 경우는 해당 정보의 보고 범위를 별도로 표기하였습니다.

또한, 지속가능성 정보이용자의 이해를 증진시키고자, 가치사슬 전반에 걸쳐 획득 가능한 중대한 영향, 위험 및 기회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는 업스트림 활동(예: 광물 채굴, 부품 제조, 운송)부터 다운스트림 활동(예: 자동차 판매, 폐차 처리)에 이르기까지, 접근 및 수집이 가능한 관련 정보를 말합니다.

보고서 검증

본 보고서의 작성 프로세스 및 제반 정보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위해 독립적인 검증 기관인 DNV의 제3자 검증을 받았습니다. 재무 정보는 독립 감사법인의 회계감사를 거쳐 작성되었으며, 온실가스 배출량 및 에너지 사용량에 관한 검증은 독립된 검증기관인 로이드인증원(LRQA)을 통해 수행되었습니다. 상세한 검증 결과는 제3자 검증의견서 및 온실가스 검증의견서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UN Global Compact

UNGC(UN Global Compact)는 기업의 사회적 책임 실천을 강조하기 위해 2000년 코피 아난 전 유엔 사무총장이 제안한 국제협약으로 인권, 노동, 환경, 반부패 4개 분야 10대 원칙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현대자동차는 UNGC의 10대 원칙을 지지하는 한편, 경영 전반에서 이를 준수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COMMUNICATION ON PROGRESS

This is our **Communication on Progress** in implementing the Ten Principles of the **United Nations Global Compact** and supporting broader UN goals.

We welcome feedback on its contents.

HYUNDAI